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조선에서 혁명을 해야 할 사람들인것만큼 우리 나라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청소년학생들앞에는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보란듯이 일떠설 강성대국의 주인으로 믿음직하게 준비해나가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때문에 청소년학생들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에 대하여, 산좋고 물맑은 아름다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우리 나라에 대하여 잘 알아야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으며 소중한 모든것을 지키고 빛내여나가려는 애국의 마음을 깊이 간직할수 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청소년학생들이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에 대하여 더 잘 알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에서는 력사편과 지리편으로 갈라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문제들을 물음의 형식으로 제기하고 대답을 주고있습니다.

보다 폭넓은 지식을 주기 위하여 세계의 력사와 지리에 대한 문제들도 안받침해주었습니다.

청소년학생들이 이 책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 공고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　례

력 사 편

우리 나라에서 인류가 발생하여 발전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유적, 유물들에 대하여 ………………… (14)

인류는 어떤 단계를 거쳐 진화발전하였는가? ………… (15)

로동도구의 발전으로 구분하여 본 인류사회의 발전단계에 대하여 ………………… (16)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본 인류사회의 발전단계에 대하여 ………………… (17)

인류사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 (18)

계급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 (18)

국가는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 (19)

단군과 단군에 의한 고조선의 성립에 대하여 ………… (19)

고조선시기의 유적, 유물에 대하여 …………………… (21)

고조선의 멸망에 대하여 ……………………………… (22)

부여의 성립과 멸망에 대하여 ………………………… (23)

구려와 진국의 성립과 멸망에 대하여 ………………… (23)

고대조선사람들의 일본땅에로의 진출에 대하여 ………… (24)
고구려의 성립에 대하여 ……………………………… (25)
고구려의 대표적인 유적에 대하여 ……………………… (25)
고구려－수전쟁에 대하여 …………………………… (26)
고구려－당전쟁에 대하여 …………………………… (28)
고구려의 종말에 대하여 ……………………………… (29)
후부여에 대하여 ……………………………………… (30)
백제의 성립과 령역에 대하여 ………………………… (30)
백제의 멸망과 유적, 유물에 대하여 ………………… (31)
신라의 성립과 종말에 대하여 ………………………… (33)
가야국의 성립에 대하여 ……………………………… (34)
우리 나라 문화가 일본문화의
발전에 영향을 준데 대하여 ………………………… (34)
발해국의 성립에 대하여 ……………………………… (35)
9세기의 대표적인 농민전쟁과
후삼국의 출현에 대하여 ……………………………… (37)
고려의 성립에 대하여 ………………………………… (37)
고려에 의한 국토통일에 대하여 ……………………… (39)
고려의 통치제도에 대하여 …………………………… (39)
고려－거란전쟁에 대하여 …………………………… (40)
고려에서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에 대하여 ………… (42)
무역항 벽란도와 천리장성에 대하여 ………………… (44)
묘청의 정변(묘청의 란)에 대하여 …………………… (44)
정중부의 반란과 무신정권의 수립에 대하여 ……… (46)

12세기 후반기 평양(서경)농민군의 투쟁에 대하여 …… (47)
망이농민폭동에 대하여 …………………………………… (48)
경상도농민군의 투쟁과 만적의 폭동에 대하여 ……… (49)
삼별초군의 항전에 대하여 ……………………………… (50)
원나라침략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고려인민들의
투쟁과 료동원정에 대하여 ……………………… (51)
고려에 대한 몽골의 침입과 주요 전투에 대하여 ……… (53)
왜구를 격멸하기 위한 고려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 (55)
고려의 멸망과 리조봉건국가의 수립에 대하여 ……… (56)
리조의 통치기구에 대하여 ……………………………… (58)
리조시기의 군대제도와 신분제도에 대하여 …………… (58)
15세기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 (60)
4군 6진의 설치에 대하여 ……………………………… (60)
함길도(함경도)농민전쟁에 대하여 …………………… (61)
임진조국전쟁의 개시에 대하여 ………………………… (62)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 (63)
15세기-16세기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대표적인
과학기술발전성과와 문화에 대하여 …………… (65)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에 대하여 ……… (69)
공노비 《해방》과 1811년－1812년
평안도농민전쟁에 대하여 ………………………… (70)
3정착취란 무엇이며 1862년
진주농민폭동에 대하여 …………………………… (71)

대원군의 집권과 쇄국정치에 대하여 …………………………… (73)
실학이란 무엇이며 그 진보성과 제한성에 대하여 ……… (74)
침략선 《셔먼》 호의 격퇴에 대하여 ………………………… (75)
침략선들인 《쉐난도아》 호와
《챠이나》 호의 격퇴에 대하여 ………………………… (76)
1871년 《신미양요》 에 대하여 ……………………………… (77)
1866년 프랑스침략의 격퇴에 대하여(병인양요) ………… (79)
《운양》 호사건에 대하여 ………………………………………… (80)
침략적이고 불평등적인 《강화도조약》 에 대하여 ……… (81)
임오군인폭동에 대하여 …………………………………………… (82)
개화사상의 발생과 개화파의 형성에 대하여 …………… (84)
갑신정변과 실패원인에 대하여 ……………………………… (85)
갑오농민전쟁과 실패원인에 대하여 ………………………… (88)
갑오개혁(부르죠아개혁)에 대하여 …………………………… (91)
민비살해사건(을미사변)과 《아관파천》,
《춘생문사건》 에 대하여 ……………………………… (91)
헤그밀사사건에 대하여 …………………………………………… (93)
애국문화운동은 어떤 운동이며
진행형태에 대하여 ……………………………………… (94)
국채보상운동에 대하여 …………………………………………… (96)
《을사5조약》 날조와 일제의 조선강점에 대하여 ……… (96)
3. 1인민봉기에 대하여 ………………………………………… (98)
우리 나라에서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약점에 대하여 …… (99)
6. 10만세시위투쟁에 대하여 ………………………………… (100)

일제의 《무단통치》와 《문화통치》에 대하여 ………… (101)
계몽기가요에 대하여 ………………………………………… (102)
우리 나라 력사에 이름을 남긴
주요인물들에 대하여 …………………………… (103)
우리 나라 력사에 이름을
남긴 학자들에 대하여 ………………………… (114)
우리 나라 력사에 이름을 남긴
음악가, 미술가들에 대하여 ……………… (117)
우리 나라 력사에 이름을
남긴 문학가들에 대하여 ……………………… (121)
우리 나라 원시사회의 유적, 유물들에 대하여 ………… (125)
우리 나라 노예사회의 유적, 유물들에 대하여 ………… (125)
세나라시기와 발해, 후기신라시기의
유적, 유물들에 대하여 ……………………… (126)
고려시기의 유적, 유물들에 대하여 ……………………… (129)
리조시기의 유적, 유물들에 대하여 ……………………… (130)
관동팔경과 관서팔경, 평양팔경에 대하여 ……………… (135)
우리 나라의 민속놀이들에 대하여 ……………………… (136)
세계5대문화에 대하여 ……………………………………… (136)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과 100년전쟁에 대하여 ………… (136)
《십자군원정》과 아편전쟁에 대하여 …………………… (137)
레닌의 4월테제의 내용과
10월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 (138)
이전 쏘련의 형성에 대하여 ……………………………… (140)

중국에서의 5.4운동에 대하여 ………………………………… (140)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합작에 대하여 ……………………… (141)
중국에서 북벌전쟁에 대하여 ………………………………… (142)
중국에서 제2차 국내혁명전쟁과
2만5천리장정에 대하여 ……………………… (144)
서안사변에 대하여 ………………………………………… (145)
웰남인민들의 독립투쟁에 대하여 ………………………… (146)
인디아인민들의 반영투쟁과
간디의 투쟁에 대하여 ………………………… (147)
함부르그폭동에 대하여 …………………………………… (149)
이딸리아에서 파쑈정권의 수립에 대하여 ……………… (150)
히틀러의 정권장악과
《국회의사당방화사건》에 대하여 ………… (151)
《9.18사변》과 일본에서의
파쑈독재정권의 수립에 대하여 …………… (152)
중일전쟁의 도발에 대하여 ………………………………… (153)
《하싼호사건》과 《할힌골사건》에 대하여 ………… (154)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 (155)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요인에 대하여 ……… (157)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에 대하여 ……………………… (158)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 진행된
렬강들사이 회담에 대하여 ………………… (158)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쑈도이췰란드의
패망에 대하여 ……………………………… (160)

태평양전쟁의 개시와 일제의 패망에 대하여 ………………(161)
중국에서의 제3차 국내혁명전쟁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대하여 ……………… (163)
웰남에서 반미구국전쟁의 승리에 대하여 ……………… (165)
꾸바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 (166)
인디아의 독립투쟁과
인디아—파키스탄분쟁에 대하여 ………………… (167)
이란에서의 이슬람교혁명과 미국의
《인질구출작전》에 대하여 …………………………… (169)
팔레스티나인민들의 반이스라엘투쟁에 대하여 ………… (171)
에짚트에서 1952년 7월혁명에 대하여 …………………… (172)
중동전쟁에 대하여 ………………………………………………… (173)
쁠럭불가담운동의 발생과 발전에 대하여 ……………… (174)
세계력사인물들에 대하여 ………………………………………… (175)

지 리 편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가? ………………………………………… (181)
지구의 자전운동이란 무엇이며 그로 하여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대하여 …………………… (181)
지구의 공전운동이란 무엇이며 그로 하여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대하여 …………………… (183)

태양계에서 지구의 위치에 대하여 ………………………… (184)
광물이란 무엇이며 어떤것들이 있는가? ……………… (184)
암석이란 무엇이며 암석에는
어떤것들이 속하는가? ………………………… (185)
지구의 물리적성질에 대하여 ……………………………… (185)
경도, 위도와 반구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 (187)
대륙과 대주, 대양의 구분에 대하여 …………………… (188)
지구대기층의 조성과 수직구조에 대하여 ……………… (189)
날씨의 기본구성요소에 대하여 …………………………… (190)
전선과 일기변화에 대하여 ………………………………… (191)
해일이란 무엇이며 해일의 분류에 대하여 …………… (192)
기압이란, 고기압과 저기압구역에서의
날씨변화에 대하여 ………………………… (193)
구름의 종류에 대하여 ……………………………………… (194)
대기중의 수증기의 역할에 대하여 ……………………… (195)
일기예보는 어떻게 하는가? ……………………………… (195)
기후와 날씨의 차이점과 그 영향에 대하여 ………… (196)
비와 눈은 어떤 때에 내리며
강수량은 어떻게 재는가? ……………… (197)
황사현상이란 무엇이며 황사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 (198)
바다물의 작용에 의해 바다가에
이루어지는 지형체에 대하여 …………… (199)

지각운동의 종류와 그에 의한
룩지걸면의 변화에 대하여 …………………… (199)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 (200)
지구우의 자연대와 특징에 대하여 …………………… (203)
평지의 형성과 높이에 따르는 구분에 대하여 ………… (205)
높이에 따르는 산지의 구분에 대하여 …………………… (206)
기후대란 무엇이며 기후대가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 (207)
기후대별 특징에 대하여 …………………… (207)
강의 구성에 대하여 …………………… (208)
강줄기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 (209)
흐르는 강이 하는 일에 대하여 …………………… (210)
호수란 무엇이며 그 종류에 대하여 …………………… (211)
샘, 약수, 온천에 대하여 …………………… (212)
지평면과 지평선, 방위에 대하여 …………………… (213)
지도축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표시하는가? ………… (213)
등고선이란 무엇이며 등고선에 의한
지형높이 결정에 대하여 …………………… (214)
지형도에서 거리, 면적, 비탈각의
결정에 대하여 …………………… (215)
우리 나라의 지리적위치와 네 끝점에 대하여 ………… (215)
해류가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 (216)
물결과 해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 (217)
우리 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대하여 ………… (218)

자연환경을 잘 보호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218)
화산과 지진의 발생원인과 분포에 대하여 ……………… (219)
안개와 구름의 차이점에 대하여 ………………………… (220)
기단과 전선이란 무엇인가? ……………………………… (221)
풍화작용의 종류에 대하여 ………………………………… (222)
우리 나라의 도와 도소재지에 대하여 ………………… (223)
백두대산줄기에는 어떤 산줄기들이 속하며 그밖의
주요 산줄기와 이름난 산들에 대하여 ………… (223)
우리 나라의 주요 고원들과 벌들에 대하여 …………… (224)
조선동해에 수산자원이 풍부한 원인과 해류를
따라오는 물고기에 대하여 ………………………… (225)
우리 나라의 세 바다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하여 ………………………… (226)
우리 나라의 주요 강과 호수에 대하여 ………………… (226)
우리 나라의 식물분포와 특산동식물에 대하여 ……… (227)
대동강에 건설된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인 갑문들에 대하여 ……………………… (228)
평양의 자연조건과 특징, 주요 명승지에 대하여 ……… (229)
백두산의 자연지리적특징과 백두산일대의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들에 대하여 ……… (229)
정일봉일대의 자연과 《정일봉》이란 불멸의
글발이 안고있는 뜻에 대하여 …………………… (230)

묘향산의 자연지리적특징에 대하여 ………………………… (231)
금강산의 자연지리적특징에 대하여 ………………………… (232)
칠보산의 자연지리적특징에 대하여 ………………………… (232)
구월산의 자연지리적특징에 대하여 ………………………… (233)
정방산의 자연지리적특징에 대하여 ………………………… (234)
세계의 대륙과 대주에 대하여 ……………………………… (235)
아시아주의 지리적위치와 령역, 그에
속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 (236)
유럽주의 지리적위치와 령역, 그에
속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 (237)
아프리카주의 지리적위치와 령역, 그에
속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 (238)
북아메리카주의 지리적위치와 령역,
그에 속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 (239)
남아메리카주의 지리적위치와 령역,
그에 속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 (240)
오세안주의 지리적위치와 령역,
그에 속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 (240)
세계적으로 이름난 산줄기들에 대하여 ………………… (241)
세계적으로 알려진 고원들에 대하여 …………………… (242)
세계에서 제일 큰 분지와
주요 벌, 사막에 대하여 ……………………… (243)

세계의 이름난 폭포들과
주요 강, 호수들에 대하여 ……………………… (244)
세계에서 제일 큰 섬들과 그의 크기,
주요 해협들에 대하여 ………………………… (244)
수에즈운하와 빠나마운하에 대하여 ………………………… (246)
까쓰삐해와 바이깔호에 대하여 ……………………………… (247)
중근동, 근동, 중동, 원동이란 무엇이며
그 지리적령역에 대하여 ………………………… (247)
아랍지역, 카슈미르지역이란 무엇이며
그 지리적위치에 대하여 ……………………… (248)
라틴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서인디아제도란
무엇이며 지리적령역에 대하여 …………… (249)
대륙을 갈라주는 해협, 운하, 바다들에 대하여 ……… (250)
량극지방의 자연조건의 특징과 이 두 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 (250)
세계적으로 이름난 탐험가들에 대하여 ………………………… (251)
지질학에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하여 ……………………… (252)
기상학에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하여 ……………………… (253)
흔히 쓰이는 지형 및 지리용어들에 대하여 …………… (254)

력 사 편

우리 나라에서 인류가 발생하여 발전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유적, 유물들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인류가 살았다.

그것은 검은모루유적, 《화대사람》, 《력포사람》, 《덕천사람》, 라선시 굴포리유적, 《승리산사람》(승리산유적), 《만달사람》(만달산유적), 《룡곡사람》 등을 보고 알수 있다.

검은모루유적은 1966년 황해북도 상원군 흑우리에서 발굴된 우리 나라 구석기시대 전기의 동굴유적이다.

약 100만년 이전시기에 원인들이 살던 동굴유적에서는 메돼지, 승냥이, 곰, 물소, 원숭이, 코끼리 등 짐승뼈화석과 매우 거칠게 만든 여러점의 석기들이 발굴되였다.

원시시대 사람들이 돌을 깨뜨려서 만든 도구인 이러한 석기들을 타제석기라고 한다.

《화대사람》은 함경북도 화대군 석성리에서 발굴된 구석기시대 중기의 고인단계의 화석이다.

《력포사람》은 1977년 평양시 력포구역 대현동 동굴에서 발굴된 7살~8살 되는 어린 아이의 머리뼈화석이다.

《력포사람》은 평양을 중심으로 대동강류역에서 살아온 고인에 속하는 유적이다.

고인의 화석에는 이밖에 평안남도 덕천시에서 발굴된 《덕천사람》과 라선시 굴포리에서 발굴된 굴포리유적이 있다.

《덕천사람》은 1973년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동굴에서 여러 짐승뼈화석들과 함께 발굴된 고인의 이발 2대와 어깨뼈화석이다.

굴포리유적은 2개의 층으로 되여있는데 아래에 있는것은 고인들의 유적이다. 여기서 고인들이 살던 초막자리와 그들이 쓰던 석기

들이 발굴되였다.

또한 황해북도 승호군 화천동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고인들이 불을 피운 불무지자리가 발견되였다.

《승리산사람》은 1972년에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동굴에서 고인인 《덕천사람》의 유골과 층위를 달리하여 발굴된 신인의 화석이다. 아래턱뼈가 발굴되였다.

《만달사람》은 1980년 황해북도 승호군 만달리의 자연동굴에서 발굴되였다. 이곳에서는 신인의 화석과 함께 구석기시대 후기의 특징을 가지는 석기들과 많은 짐승뼈화석들이 발굴되였다.

이밖에도 《룡곡사람》, 《금천사람》 등이 발굴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인류가 살았다는것을 말해준다.

인류는 어떤 단계를 거쳐 진화발전하였는가?

사람은 동물계에서 분리된 첫 순간부터 오늘과 같은 완전한 체질을 가진것이 아니라 일정한 력사발전시기를 거쳐 오늘과 같이 완성된 사람으로 되였다.

인류는 약 200만년전 즉 제4기에 발생하였다.

초기에는 원인으로 다음은 원인보다 조금 발전된 고인으로 진화되였으며 나중에 신인으로 진화발전하여 오늘날의 사람으로 진화되였다.

구석기시대 전기에 생활한 사람들을 원숭이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있는 《원숭이사람》이라는 뜻에서 《원인》이라고 한다. 원인들은 아직 몸구조가 덜 발달하였으며 그들의 뇌수용적도 현대사람보다는 작았다.

원인들의 본질적특성은 그들이 자연을 정복하기 위하여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로동을 하였다는데 있다.

즉 사유기능과 로동기능을 가진 사회적존재였다는데 있다.

원인보다 발전한 구석기시대 중기의 인류를 오랜 인류라는 뜻에서 《고인》이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 이르러 사람들의 몸구조도 변화발전하고 뇌수용적도 원인단계의 사람보다 커졌다. 몸구조

의 발전된 특징들은 사람의 본질적특징을 담보해주는 사유기능과 로동기능이 원인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것을 말해준다. 구석기시대 후기에 이르러 사람들의 몸구조는 한층더 발전하여 현대인류와 같은 류형에 속하는 《신인》으로 되였다.

로동도구의 발전으로 구분하여 본 인류사회의 발전단계에 대하여

인류사회를 로동도구의 발전과정으로 구분해보면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로 나눈다.

구석기시대는 돌을 깨서 만든 석기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던 인류력사의 가장 초시기이다.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돌을 깨서 만든 타제석기를 기본으로 리용하면서 나무열매를 따먹거나 짐승을 잡아먹으며 살았다.

구석기시대는 인류가 발생한 때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9천년전까지의 오랜 시기를 포괄한다. 이 시기를 석기제작기술 및 방법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한다.

신석기시대는 사람들이 돌을 갈아서 만든 마제석기와 질그릇을 쓰기 시작한 때로부터 청동기를 만들어 쓰기 전까지의 시대이다.

이 시기 사람들은 괭이, 돌삽, 돌보습, 반달칼, 갈돌 등 농업생산도구들과 뼈작살, 돌그물 등 물고기잡이도구들, 뼈송곳, 뼈바늘과 같은 도구를 리용하였다.

신석기시대는 평양지방에서 B. C. 7000년기 이전에 시작되여 B. C. 4000년기 전반기까지 속하였다.

청동기시대는 청동으로 로동도구와 무기, 치레거리를 만들어 쓴 때로부터 철기를 만들어쓸 때까지의 시대이다.

청동기시대는 B. C. 4000년기 후반기부터 시작되였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발견한 금속은 동과 금이다.

그러나 동은 너무 물러서 로동도구나 무기로 쓸모가 없었으므로 주석, 연 등을 섞어 청동(놋)을 얻어 그것으로 여러가지 로동도구나 무기, 단추를 비롯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리용하였다. 이 시기 마제석기제작방법도 더욱 발전하였는데 종류와 생김새에서 신석기시

대에 볼수 없던것들이 적지 않다.

이 시기 유물로는 조, 피, 수수, 콩과 함께 벼가 발견되였는데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에 이러한 낟알들을 심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본 인류사회의 발전단계에 대하여

인류사회발전과정을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원시공동체, 모계씨족공동체, 부계씨족공동체, 가부장적가족생활로 나누어볼수 있다.

생산의 발전과 함께 계급이 발생하고 국가가 생겨났으며 국가의 조직지도하에 사회생활이 시작되였다.

사람들은 무리생활을 하는 과정에 가까운 친척,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을 알게 되였으며 이 과정에 한피줄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살면서 씨족이 생겨났다.

모계씨족공동체는 구석기시대 후기에 발생하여 신석기시대까지 존재하였다.

모계씨족공동체란 녀성이 집단생활을 운영하는 사회적기능을 담당수행하는 사회적집단을 말한다.

신석기시대말 청동기시대초에 이르러 모계씨족공동체는 부계씨족공동체로 교체되였다.

부계씨족공동체란 아버지갈래에 의하여 즉 아버지 피줄을 따라 구성된 원시사회말기의 사회적집단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모계씨족공동체는 구석기시대 후기에 발생하여 신석기시대 전기에 그 발전이 절정에 이르게 되였다.

신석기시대 중기에는 부계적인 사회관계의 요소가 발생하였고 후기에는 그것이 지배적인 관계로 됨으로써 부계씨족제도가 확립되게 되였다.

개인로동생산성의 증대는 부계씨족안에 가부장적가족공동체 또는 세대공동체라고 하는 개별가족경영단위를 낳게 하였으며 하여 씨족공동체안의 성원들사이에는 빈부차이가 생기였다.

인류사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인류사회는 원시공동체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를 거쳐 사회주의사회로 발전하였다.

원시공동체사회는 인류가 발생하여 국가가 형성되기 전까지의 기간이다.

우리 나라에서 원시공동체사회는 지금으로부터 5 000여년전에 무너졌다. 원시사회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사회적재부의 독점이 없었으며 당시 사회관계는 집체적생산과 소비에 기초한 공동체적관계였다.

노예소유자사회는 계급과 국가가 발생한 첫 계급사회이다.

이 시기 착취계급인 노예주들에게는 무제한한 권력과 자유가 있었지만 피착취계급인 노예는 《말하는 도구》로 노예주의 《재산》으로 되였다.

봉건사회는 인류사회의 두번째 계급사회로서 노예제도가 무너진 후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는 봉건령주(지주)가 기본생산수단인 토지를 독차지하고 땅이 없는 농민들을 신분적으로 예속시키고 소작을 주면서 땅세와 각종 세금을 받으며 착취하였다.

자본주의사회는 봉건사회말기에 부르죠아혁명으로 생겨난 착취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는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수단이 없는 로동자들은 자본가들의 공장에 고용되여 착취를 당하였다.

사회주의는 로씨야의 사회주의10월혁명으로 생겨났으며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한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이다.

계급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원시사회말기에 이르러 로동도구가 개선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물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서로 달라지게 되였다.

로동도구의 개선으로 생산물이 많아지면서 먹고 쓰고 남는것이 생겨나게 되였고 로동도구를 만드는 사람, 질그릇을 빚거나 짐승을 기르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 등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바꾸어쓰기 시작하였으며 가족단위로 생활할수 있게 되였고 농기구, 토지도 가족별로 가지게 되였다.

이 과정에 네것내것이 생겨나고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개인재산의 차이가 생겨났으며 부자로 된 추장을 비롯한 공동체우두머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려먹기 시작하였다.

공동체우두머리들은 이웃종족과의 싸움에서 빼앗은 물건과 포로들을 제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다. 이때부터 착취계급인 노예주와 착취받는 노예가 갈라졌으며 원시사회는 무너지고 계급이 발생하였다.

국가는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사람들의 재산이 늘어나고 씨족공동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종족간 싸움도 자주 벌어지였다. 결과 약한 종족들을 통합한 보다 큰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였다. 이로부터 점차 종족장이 혼자서 모든것을 조직하고 지휘하기 힘들게 되였다.

하여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문제가 나서게 되면서 전문적인 관리조직이 나오게 되였다.

또한 노예주들은 노예들의 반항을 억누르고 저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군대, 감옥과 같은 폭력기구들을 만들었다. 노예주들은 이러한 폭력기구를 이미 있던 전문적인 조직과 합하여 저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조직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국가였다.

국가는 사회가 계급으로 분할되면서 출현한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권력기관이다.

단군과 단군에 의한 고조선의 성립에 대하여

단군은 우리 나라의 첫 노예제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우리 민족의 원시조이다.

단군은 지금으로부터 5 000여년전에 평양에서 태여났다.

단군의 아버지는 환웅(박달종족련맹의 추장)이며 어머니는 다른 종족추장의 딸이였다. 단군이 자라던 시기는 원시공동체사회가 무너져가고 종족간 싸움이 계속되던 때였다.

단군은 어릴 때 무술을 익혔으며 그의 무술솜씨는 이웃종족들에 알려졌다.

단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추장이 되였으며 이웃종족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자기와 맞서는 종족은 군사를 동원하여 눌러놓고 통합하였다. 하여 박달종족의 땅은 점차 넓어지고 인구가 불어났으며 재산도 늘어나게 되였다.

단군은 B. C. 30세기초에 나라를 세우고 자기를 최고통치자, 임금으로 하고 나라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으며 수도를 평양으로 정하였다.

그후 단군이 세운《조선》과 후세에 세워진 《리씨조선》(리조)을 구별하기 위해 단군이 세운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불렀다.

고조선의 건국전설인 《단군신화》에서도 단군이 평양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 사실을 보여주고있다.

단군은 나라를 세운 후에도 주변종족들을 통합하면서 계속 령토를 넓혀나갔다. 하여 고조선은 평양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넓은 령토를 가지고 강대한 나라로 발전하였다. 고조선은 근 3 000년간 존재하였다.

단군은 우리 민족의 풍습대로 죽은 다음 자기의 고향인 평양에 묻혔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민족의 시조릉인 단군릉을 웅장하게 개건하도록 하시였다.

1994년에 평양시 강동군 대박산기슭에 단군조선의 기상을 상징하여 단군릉이 웅장하게 개건되였다.

고조선의 력사는 전조선(단군조선, 근 1 500년), 후조선(1 200여년), 만조선(근 100년)시기로 구분한다. 이것을 삼조선이라고 부른다.

고조선시기의 유적, 유물에 대하여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적, 유물은 성들과 고인돌무덤, 비파형단검, 좁은놋단검 등이다. 고대조선사람들은 단군조선의 성립초기에 외적을 막기 위한 군사적요새로서 성을 굳건히 쌓았다. 대표적인 성들로는 청암동토성(왕검성), 황대성, 지탑리토성 등을 들수 있다.

고인돌무덤은 당시 노예소유자를 비롯한 지배계급들이 묻힌 무덤이다.

대동강류역에는 고인돌무덤이 1만 4 000여개나 분포되여있다.

우리 나라 고인돌무덤들가운데서 가장 큰 무덤인 관산리1호고인돌무덤은 뚜껑돌의 길이가 8.75m, 너비가 4.5m, 두께 0.31m로서 그 질량은 40여t에 달하고 그 면적은 약 34㎡나 된다.

비파형단검은 B.C.3000년기부터 고조선에서 만들어쓴 청동단검이다. 단검은 검날, 검자루, 검자루맞추개로 되여있다.

비파형단검이라는 말은 우리 나라 민족악기의 하나인 비파와 비슷하다고 하여 부른것이다. 비파형단검은 고조선시기의 유물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이다.

대동강류역에서는 B.C.2000년전의것인 비파형단검창끝이 드러남으로써 비파형단검문화의 발원지와 중심지가 바로 대동강류역이라는것이 밝혀졌다.

후조선시기의 특징적유물인 좁은놋단검은 비파형단검의 형태와 구조를 계승하면서도 보다 예리하고 견고해졌으며 공예품처럼 균형이 잡히고 아름답게 만든것이였다. 비파형단검과 좁은놋단검은 다 같이 재질이 우수하고 형태가 독특하여 당대에 이와 비길만한 단검은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이밖에도 철제품, 금 등을 생산리용하였다.

고조선에서는 일찍부터 《신지글자》라는 글자를 만들어 리용하였다. 이때 만든 《신지글자》가운데 지금까지 16자가 전해온다.

고조선의 멸망에 대하여

고조선의 두번째 왕조인 후조선시기에 령역은 료서지방으로 확대되여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접근하게 되였으며 이로 하여 나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외활동이 진행되였다.

이 시기에 반침략투쟁도 과감히 벌리였다.

고조선국가는 B. C. 2세기 초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노예들의 투쟁과 국왕을 반대하는 제후국들의 진출로 왕권이 점차 약화되였다. 특히 만왕조시기에 계급적모순은 더욱 격화되고 계급투쟁과 통치배들사이의 대립과 분렬이 심해졌다.

이때 한나라침략자들은 고조선에 대한 침략을 여러차례 감행하였으나 고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많은 물적, 인적손실을 보고 쫓겨나고말았다.

B. C. 109년에 한나라우두머리 무제는 우거왕에게 한나라에 복종하도록 사신을 보내여 회유하였으며 이것이 거절당하자 사신을 바래주는 고조선의 비왕 장을 죽였다. 고조선은 이를 계기로 료동군 동부도위부를 습격하여 비왕 장을 죽인 섭하를 처단하였다. 이것을 구실로 한나라통치배들은 바다와 륙지에서 고조선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고조선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해 한나라침략자들은 제놈들의 침략적목적을 이룰수 없게 되였다.

한편 투쟁이 장기화되자 통치배들속에서 배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였다.

적장놈은 배신자들을 시켜 왕을 살해하고 투항하도록 하였다.

B. C. 108년 여름에 반침략투쟁을 지휘하던 대신 성기마저 반역자들에 의해 희생됨으로써 부수도 왕검성은 적들에게 강점되게 되였다.

고조선은 비록 자기의 존재를 마치였으나 그 유민집단들은 그후에도 여러 지역에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벌리였다.

부여의 성립과 멸망에 대하여

단군은 나라를 세운 후 같은 겨레인 이웃종족들을 통합하여 령토를 확대하였으며 통합한 지역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스렸다. 그중의 하나가 후국을 설치하고 후국왕을 통하여 통치하는것이였다. 부여는 처음에 그러한 후국중의 하나였다.

부여가 점차 강해지자 후국으로 종전과 같이 통제할수 없게 되였으며 B. C. 15세기 중엽에는 고조선에서 떨어져나와 독자적인 고대국가로 되였다. 부여는 그후 새로 선 고구려를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압력을 가하였으며 군사를 동원시켰다.

B. C. 3세기경 부여국안에서는 사회계급적모순이 첨예화되면서 국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고구려는 부여와 맞설 힘이 부족하였으므로 싸움을 피하면서 관계를 조절하였다. 그후 고구려는 세력이 강해지고 철저한 우세를 차지하게 되자 부여로부터의 위협과 압력을 제거하고 그 지역을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였다. 고구려군은 B. C. 219년 부여의 남쪽계선에 진출하였으며 여러 전투에서 부여군에게 큰 손실을 주었다.

고구려의 커다란 타격을 받은 부여국내부에서는 일부 관리들이 왕자리를 탐내여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기까지 하였다. 하여 부여는 고구려와의 전쟁후 얼마 안되여 자기의 존재를 마치였다.

구려와 진국의 성립과 멸망에 대하여

구려는 부여와 함께 고조선의 후국이였다가 B. C. 15세기 중엽에 고조선에서 분리되였으며 B. C. 12세기경에 독자적인 노예소유자국가로 되였다.

구려도 생산장성으로 많은 재부가 축적되자 강력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정치적지배권을 강화하면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자라났다.

구려지역에 5개의 정치세력이 있었는데 그가운데 가장 큰 세력은 연나부세력이였다. 연나부세력은 주변세력을 규합하여 강력

한 세력으로 자라났으며 고조선에서 분리되여 B. C. 12세기경에 독자적인 노예소유자국가로 되였다.

B. C. 3세기초 부여에서 남하해온 고주몽집단이 이동하여 구려국 5부의 하나인 계루부를 장악하고 B. C. 277년 연나부왕권을 대신해서 새로운 봉건국가인 고구려를 일떠세움으로써 구려는 종말을 고하였다.

진국은 고조선의 후국으로서 우리 나라 중부이남지역에 있던 노예소유자국가였다. 진국도 고조선의 통치가 문란해지고 자기들의 힘이 강해지자 B. C. 12세기경에 독자적인 국가로 되였으며 처음에 《월지국》을 수도로 정하였다가 건마국으로 옮겼다.

진국에서도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강화되고 봉건소국들에 의한 통합전쟁으로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때 A. D. 8년에 새로 자라난 봉건세력인 백제가 진국에 대한 결정적공격을 들이대여 수도를 점령하고 마한왕조를 무너뜨리였다. 결과 A. D. 9년에 진국은 자기 존재를 마치였다.

고대조선사람들의 일본땅에로의 진출에 대하여

우리 선조들은 먼바다에 나가 물고기잡이를 하는 과정에 오늘의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당시 일본은 황무지였으며 사람들은 사냥과 나무열매를 따먹으며 살고있었다. 즉 일본은 이 시기 신석기단계에 있었다.

진국사람들을 비롯한 고대조선사람들은 이 시기에 일본에 건너가 일정한 곳에 모여 청동이나 철로 농기구를 만들어 황무지를 개간하고 곡식을 심어먹었는데 이웃에 사는 일본사람들이 이들에게서 농사짓는 법을 배우고 종자를 얻어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조선사람들은 그들에게 광석을 찾는 방법과 녹이는 법을 비롯하여 농기구 만드는 방법을 배워주었다.

이 시기를 일본에서는 《야요이시대》라고 하며 이때 문화를 《야요이문화》라고 한다.

《야요이문화》는 B. C. 3세기부터 A. D. 3세기까지 조선사람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금속사용시대의 농경문화를 말한다.

이 시기의 유적이 많이 발견되였는데 이때 발굴된 로동도구나 무기의 모양은 진국을 비롯한 우리 선조들이 만든것과 신통히 같은것이다.

고구려의 성립에 대하여

고구려는 우리 나라에서 B.C.277년부터 A.D.668년까지 근 1 000년간 존재한 첫 봉건국가이다. 고구려는 고주몽에 의해 성립되였다.

주몽의 아버지는 당시 소국의 통치자였던 해모수이며 어머니는 왕실에서 생활하던 류화이다. 주몽은 부여왕자들의 시기질투를 피하여 동료들인 오이, 마리, 협보와 함께 남쪽으로 갔다.

이 과정에 여러 동료들을 규합하였으며 구려국의 계루부에 이르러 자기들의 정치적지반을 닦으면서 령토를 넓혀나갔다.

주몽은 구려왕의 딸을 안해로 삼았으며 말갈족을 항복시켰다.

그후 구려왕이 죽자 왕이 되였으며 나라이름을 《고구려》라고 부르게 하고 수도를 졸본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고주몽이라고 하였으며 주변의 많은 소국들을 통합하고 령토를 넓히면서 국력을 강화하였다.

고구려는 무술익히기를 기본으로 놀음놀이와 사냥을 하게 하였으며 해마다 진행되는 사냥경기에서 1등하는 사람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다. 하여 고구려사람들속에서는 상무정신(무술 즉 군사를 중하게 여기는 정신)이 높았으며 어려서부터 의무적으로 무술을 배웠다. 고구려는 적들이 쳐들어올수 있는 곳에 수많은 성들을 쌓게 하고 적들이 공격하면 막아낼수 있게 하였다.

고구려는 또한 수,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을 비롯하여 전기간 계속된 반침략투쟁들을 성과적으로 벌리면서 삼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구려는 강한 국력에 의해 근 1 000년간을 존재하였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유적에 대하여

고구려의 대표적 유적으로는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에서 발견된 덕흥리벽화무덤과 석각천문도, 광개토왕릉비, 동명왕릉, 안

학궁, 대성산성, 평양성 등을 들수 있다.

덕흥리벽화무덤: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에서 발견된 고구려 벽화무덤으로서 408년에 만들어진것이다. 고구려의 강대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무덤에는 유주자사였던 무덤주인공이 방안에 앉아 정사를 보는 장면을 비롯하여 13개 군 태수들이 한줄로 서서 주인공을 찾아와 인사드리거나 지시를 받는 장면이 그려졌다. 무덤에는 언제 무덤이 만들어졌다는 글이 새겨있다.

석각천문도: 석각천문도(돌에 새긴 별자리그림)는 5세기말~6세기초에 고구려사람들이 만들었다. 석각천문도에는 태양, 달, 별 등의 자리를 돌에 일정한 크기로 줄여 그렸다. 석각천문도는 당나라 침략군이 침입하였을 때 강에 빠져 없어졌는데 그것을 대본으로 하여 종이에 찍어냈다고 하는 천문도가 리조초기에 한장 발견되였다. 이 천문도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천상렬차분야지도》가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다.

안학궁: 427년 수도를 평양에 옮기면서 건설한 왕궁이다.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에 위치하고있다.

안학궁은 토성으로 둘러싸여있다.

대성산성: 안학궁뒤에 있는 수도방위성으로서 고구려의 대표적인 산성이다.

둘레의 총 길이는 9 284m이고 중요한 곳에는 2중, 3중쌓기를 하였다.

평양성: 수도를 더 잘 지키기 위해 552년-586년에 쌓은 성이다.

이밖에도 고구려의 문화유적에는 정릉사, 수산리벽화무덤, 나무다리유적, 강서세무덤, 장군무덤 등이 있다.

고구려-수전쟁에 대하여

598년부터 614년까지 고구려인민들은 4차례에 걸쳐 수나라군의 침입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였다.

1차침입: 589년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왕 양견은 동방의 강국인 고구려에 대한 침공의 기회를 노리다가 나라의 내부정세가 안정되였다고 인정되자 598년 6월 30만대군을 고구려침공에 내몰았다.

수적우세를 믿고 달려들었던 수나라군사는 료하계선에서 고구려군의 완강한 방어에 부딪쳐 주저앉게 되였으며 식량부족과 전염병에 의해 많은 군사가 쓰러지자 나중에는 도망치였다.

바다로 기여들던 수나라 수군들은 도중에 풍랑을 만나 거의 전멸되였다.

2차침입: 605년 제 애비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양광(양제)은 612년 300만이나 되는 대병력을 끌고 고구려에 침입하였다.

수나라군사는 륙군과 수군으로 갈라 여러곳에서 침입하였으나 고구려인민들은 애국명장 을지문덕의 지휘밑에 용감하게 적과 맞서 싸웠다. 고구려군민은 전초기지인 료하서쪽 무려라성에서 적들에게 첫 타격을 안기였으며 든든한 방어선을 료하계선에 굴설하고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료하계선에서 철수하여 료동성, 신성, 건안성에 옮겨간 고구려군은 적들이 그해 4월 료동성을 공격하였을 때에는 용감히 방어하면서 밤에는 적들에게 숨돌릴틈을 주지 않고 기습전을 벌려 수많은 유생력량과 기재를 파괴하였다. 료동성전투는 거의 100일에 걸쳐 진행되였는데 고구려군의 승리로 끝났다.

바빠맞은 수나라왕은 30만 5 000명으로 별동대를 무어 고구려의 방어진을 뚫고들어가 수군과 합세하여 부수도인 북평양성(봉황성)을 공격하려고 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군의 고건무는 유인전술로 라성까지 침입한 적 수군 4만을 전멸시켰다.

또한 을지문덕장군은 단신으로 적진속에 들어가 적장과 담판하면서 적들의 내부형편이 복잡하다는것을 꿰뚫어보고 유인전술과 청야수성전술로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고구려군은 도망치는 적들을 살수에서 맹공격하여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어 백석산에서 련속 타격을 주었다. 하여 살아 도망친 적들은 겨우 2 000여명에 불과하였다. 살수전투를 《살수대첩》(살수대승리)이라고 한다.

수나라군의 3차, 4차침입도 고구려의 승리로 끝났다.

3차침입: 613년 3번째로 양제는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이때에도 적들은 먼저 신성을 공격하였다가 실패하자 발악적으로

료동성을 공격하였으나 고구려인민들은 수성전을 벌려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적들은 무리죽음을 남기고 쫓겨갔다.

4차침입: 그후 614년에 4차침입을 하였으나 그때도 고구려군민은 성과적으로 침략자들을 격퇴하고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고구려—당전쟁에 대하여

618년 수나라를 이어 일어선 당나라통치배들은 고구려를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꾀하였다. 초기에는 고구려의 힘에 눌리여 접어들지 못하고 외교적방법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내적으로 고구려에 대한 전쟁준비를 다그치였다.

당시 고구려의 왕과 신하들은 당나라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위해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외교적압력에 굴복하여 비굴하게 행동하였으며 강경정책을 주장하는 연개소문을 죽일 음모까지 꾸미였다.

이것을 안 연개소문은 자기가 거느린 부대의 열병식을 조직하고 많은 관리들을 《초청》하였다.

연개소문은 열병식을 보려고 온 100여명의 관리들을 죽이고 왕궁으로 가서 비겁한 영류왕을 죽이고 그의 조카를 새왕으로 앉게 한 후 나라의 실권을 틀어쥐고 당나라와 당당히 맞서나갔다.

당나라왕은 사신을 파견하여 봉황성전투에서 죽은 수군의 해골을 찾아 제사를 지내겠다는것과 고구려에서 건설한 경관을 허물어버릴것 등 강도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

오래전부터 침략준비를 갖추어온 당나라는 고구려가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645년초 100만의 륙군과 수군으로 침입하였다.

당나라침략군은 고구려의 개모성, 비사성, 건안성을 비롯한 몇개의 성을 침공한데 이어 료동성을 침공하였다.

성안의 인민들은 여러겹으로 성을 포위하고 포차와 충차를 리용하여 성벽과 성문을 무너뜨리며 공격하는 적들에게 완강한 항전으로 많은 손실을 주었으나 끝내는 성을 지키지 못하였다.

적들은 이어 백암성을 강점하고 6월에 군사전략적으로 큰 의

의를 가지는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이때 고구려인민들은 중요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안시성을 지키기 위해 용감히 싸웠다. 성안의 인민들은 양만춘의 지휘밑에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완강하게 싸웠다.

적들은 포차와 충차까지 동원하여 여러차례 공격하였으나 공격이 실패하게 되자 전군을 동원하여 성벽과 나란히 흙산을 쌓게 하였다. 적들은 60여일에 걸쳐 흙산을 안시성보다 높게 쌓고 공격하였다. 이때 흙산이 무너지면서 성의 한쪽이 허물어지자 고구려군은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워 흙산을 점령하였다.

적들은 고구려군의 배후타격으로 퇴로가 막히게 되자 숱한 주검을 남기고 도망쳤다. 안시성싸움에서 고구려군사의 화살에 당나라침략군우두머리 태종은 애꾸신세가 되여 도망쳤다고 한다.

그후 당나라침략군은 647년과 648년에 또다시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이때 적들은 적은 력량으로 고구려의 내부를 혼란시키려고 꾀하였다. 적들은 이러한 목적밑에 남소성, 목저성 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군은 적들의 책동을 미리 간파하고 기동전을 벌려 일격에 소멸하였다.

당나라침략군은 그후에도 655년, 658년, 659년, 661년 등 여러차례 침입하였으나 그때마다 고구려군에 의해 패하고말았다.

고구려의 종말에 대하여

동방의 강대국으로 불리우던 고구려는 668년에 종말하였다.

666년에 연개소문이 병으로 죽은 후 그의 세 아들인 남생, 남건, 남산을 끼고 봉건귀족들사이에서는 정권쟁탈의 더러운 싸움이 벌어졌다.

이 싸움으로 생긴 정치적혼란은 나라의 방위력을 약화시켰다.

또한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속에서 나타난 투항분자들은 신라와 당나라에 군사를 끌고 투항함으로써 나라의 군사지휘체계와 국가관리체계가 헝클어졌다. 이러한 때에 당나라침략군은 대군을 이끌고 투항분자들을 길잡이로 고구려에 쳐들어왔으며 남쪽에서는 신

라군이 당나라침략군과 합세하여 수도 평양을 포위공격하였다.

하여 668년 고구려의 수도 평양은 함락되였으며 고구려봉건국가는 자기의 존재를 마치게 되였다.

후부여에 대하여

후부여는 B. C. 2세기초에 고대부여를 계승하여 세워진 봉건국가이다.

고대부여는 B. C. 219년에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고구려의 속국으로 되였다.

그러나 본래의 남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은 부여의 통치밑에 있게 되였다. 이 지역에서는 생산력의 발전과 봉건화과정이 진행되였으며 마침내 봉건국가가 성립되였는데 고대부여와 구별하기 위해 후부여라고 부른다.

후부여국은 기원전후시기에 동쪽은 연해주지방, 북쪽은 흑룡강이남, 서쪽은 서료하, 남쪽은 청하(료하지류)에서 목릉하중류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였다.

초기수도는 길림지방이였으며 그후 서남쪽으로 옮기였다.

부여국은 성립후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면서 국력을 키워나갔다. 그러다가 285년, 346년 두차례의 모용선비족의 대규모적인 침입에 의한 피해와 내부분렬로 북부여와 동부여로 갈라졌다.

346년 전연침략군과의 전쟁에서 후부여(서쪽부여)가 멸망한 후 그 지역을 차지한 고구려에 의해 북부여까지 통합되고 5세기말에는 동부여왕이 나라를 고구려에 바치고 투항하여 동부여령역이 고구려에 병합되게 됨으로써 후부여는 자기의 존재를 마치였다.

백제의 성립과 령역에 대하여

백제의 건국설화에는 고구려 시조왕 동명왕의 아들 온조가 백제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다.

동명왕에게는 비류와 온조라는 아들이 있었다.

온조는 오간, 마려 등 10여명의 신하를 데리고 남쪽으로 갔는데

이때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나섰다. 그는 위례성을 도읍으로 정하고 그곳으로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나섰다는 의미에서 백제라고 하였다.

B. C. 3세기 중엽에 마한의 한 《소국》으로 존재하였던 백제는 B. C. 1세기 말엽에 북쪽부분을 통합하고 독자적이고 완전한 봉건국가를 형성하였다.

백제는 일본령토에도 자기의 강한 세력을 가지고있었다.

백제의 선진문화가 이 세력에 의해 왜나라에 전해졌다.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4세기말～5세기초에 림진강류역을 잃고 475년에는 수도 한성을 잃고 웅진(공주)으로 수도를 옮기였다.

그후 백제는 신라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비롯하여 거듭되는 전쟁의 후과로 나라의 형편이 아주 어렵게 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화방탕한 생활에 나라의 재부를 마구 탕진하였으며 수많은 돈을 들여 놀이터와 왕흥사를 건설하였다.

이 시기 백제의 의자왕은 인민들의 원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귀천을 가리지 않고 가혹하게 처형하였다.

그리고 왕자들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 통치하게 하였다.

이러한 시기인 650년대말 신라는 당나라의 침략무력을 끌어들여 백제를 공격하였다. 하여 백제는 660년에 망하였다.

그후 백제는 신라에 통합되였으나 인민들은 당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웠다. 백제의 령역은 한강이남, 오늘의 충청, 전라남북도일대였다. 초기에 수도는 한성(서울)이였으며 그후 웅진(공주), 사비성(부여)으로 옮기였다.

백제의 멸망과 유적, 유물에 대하여

백제의 의자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죽였다.

왕은 성충이 자기의 부패타락한 통치를 간하였다고 감옥에서 굶

어죽게 하였으며 나라의 방비에는 무관심하였다.

하여 백제봉건국가의 형편은 650년대말에 이르러 걷잡을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시기 신라봉건통치배들은 당나라의 침략무력을 끌어들여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군은 황산벌에 진을 치고 적들과 전투를 벌렸다.

그러나 백제통치배들은 끝까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수도인 사비성이 함락되자 투항하였다. 결국 백제는 660년에 망하였다.

왕은 도망치고 왕궁의 궁녀들은 백마강(금강중류)에 달려가 강물에 몸을 던졌다. 그후부터 이곳을 락화암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백제인민들은 당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벌리였다. 이전 백제장군 복신과 중 도침이 지휘하는 항전군은 주류성을 중심으로 하여 당나라침략군을 궁지에 빠뜨렸으며 다른 항전군들도 도처에서 침략군을 반대하여 싸웠다.

그러나 항전군안에서 우두머리들의 내부분렬로 력량이 분산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당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그후 신라인민들과 련합하여 진행되였다.

백제의 유적, 유물로는 미륵사탑, 정림사 5층탑, 사비성, 칠지도, 무늬벽돌 등이 있으며 《도미와 그의 안해》와 같은 문화유산이 있다.

미륵사탑: 전라북도 익산군 룡화산기슭 미륵사터에 있다.

칠지도: 백제의 수공업기술이 높은 수준에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칠지도는 길이가 약 75㎝정도인 칼이다.

백제의 무늬벽돌: 백제의 기와 만드는 기술은 높았다. 이 시기 《와박사》라는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벽돌, 기와 만드는것을 전문하는 기술자를 의미하였다.

정림사 5층탑: 백제후기의 돌탑이다.

충청남도 부여군에 자리잡고있던 백제의 마지막수도인 사비성에 있었다.

《도미와 그의 안해》: 백제인민들이 창작한 문학작품이다.

신라의 성립과 종말에 대하여

신라의 건국전설에 의하면 신라는 B. C. 1세기 중엽에 박혁거세가 세웠다고 한다. 신라는 진국의 구성부분인 진한 12국가운데 하나였던 사로국이 진한안에서 봉건적으로 장성하면서 B. C. 1세기 중엽에는 봉건소국으로, A. D. 1세기 초중엽에는 독자적인 봉건국가로 성립된 나라이며 그후 이웃소국들을 통합하면서 강해졌다. 신라는 초기에 락동강동쪽을 차지하고있었으며 가야국가를 통합하고 백제의 령토였던 한강하류일대를 차지하였다.

신라는 고구려의 보호와 지원속에서 백제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자기의 힘을 키웠다. 신라는 어느정도 힘이 강해지자 고구려에 도발을 하였으며 고구려는 이에 강력한 공격으로 대답하였다.

그후 신라는 령토를 확장하면서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해 당나라세력을 끌어들였으며 당나라침략군과 련합하여 660년에는 백제를,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을 리용하여 당나라침략군을 676년에 압록강이남지역에서 몰아내였다.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인 결과 고구려에 의한 세나라의 통합이 실현될수 없었으며 나라의 힘은 약화되였다.

이 시기 봉건통치배들의 정권쟁탈전과 부화방탕한 생활, 인민들에 대한 수탈행위는 농민들의 폭동으로 번져지게 되였다. 경상북도 상주(사벌주)에서 먼저 일어난 폭동은 도처에서 통치배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폭동이 유리하게 진행되자 자기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폭동군에 우연히 끼여든 신흥봉건세력인 궁예는 인민들이 고구려와 같은 나라를 세우려는 지향을 리용하여 여러 지역을 차지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넓혀나갔다.

한편 이 시기 서북지방에서는 견훤이 지휘하는 농민군이 강력한 부대로 자라났다.

견훤은 후백제를, 궁예는 태봉국을 세우고 왕으로 되였다.

918년 태봉국의 왕 궁예를 몰아낸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고구려의 통일지향을 실현하

였다.

신라의 유적, 유물에는 수도 경주에 7세기 전반기에 건설된 첨성대와 불국사 다보탑과 석가탑, 봉덕사종, 황룡사 9층탑, 금관 등이 있으며 문학작품으로서 소설《설씨의 딸》등이 있다.

가야국의 성립에 대하여

가야국은 락동강하류에 있던 봉건국가를 말하며 가락국이라고도 한다. 가야국은 변한지역에서 B.C.1세기 말엽에 형성된 소국이 확대발전하여 A.D.1세기 중엽에 독자적인 국가로 된것이다.

가야는 6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다.

가야련합체에는 금관가야와 그에 속한 고녕가야,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비화가야가 있으며 동쪽은 락동강, 서남쪽은 남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이였다고 한다.

가야에서는 금관가야(금관국)의 국왕 김수로가 다른 소국의 우두머리들을 지배하였다.

6세기에 급속히 강화된 신라의 압력에 눌리워 532년 금관가야의 국왕은 신라에 투항하였으며 562년에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여 자기 존재를 끝마치였다. 가야의 대표적유물은 가야금이다.

가야사람들은 일찍부터 일본에 가서 소국을 형성하고 살면서 그곳 원주민들의 경제와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우리 나라 문화가 일본문화의 발전에 영향을 준데 대하여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일본땅에 건너가기 시작한것은 신석기시대 말기부터이다.

그때로부터 7세기 중엽에 이르는 수천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 여러곳에 정착하고 마을 또는 고을 나아가서는 소국을 형성하고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인것은 일본 나라현 다까이찌군 아스까촌에 있는 다까마쯔무덤이다. 6세기～7세기경의 무덤인데 1972년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무덤의 형식과 벽화는 고구려식이였다.

무덤의 벽화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알려진 무덤벽화가운데서 제

일 잘 그려진것인데 인물풍속, 해와 달, 별, 4신(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이다.

벽화에 그려진 녀인의 모습은 강서구역 수산리무덤벽화의 녀주인공과 덕흥리무덤벽화를 비롯하여 고구려무덤의 녀인벽화를 방불케 한다. 특히 동정, 색동주름치마, 머리꾸밈새 등은 신통히 같으며 남자의 옷차림도 고구려벽화의것과 신통히 같은것이다.

이것은 이 무덤벽화가 고구려사람 또는 그 후손들의 손에 의해 그려졌다는것을 의미한다. 무덤의 형식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법륭사를 들수 있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577년에 백제의 조사공(절건축전문가), 조불공(부처조각가) 등이 일본에 파견되였고 588년에는 사공(조사공)과 와박사(기와전문가), 로반박사(탑우에 장식하고 금속공예품을 만드는 기술자), 화공(화가) 등의 기술자들이 파견되여 사천왕사, 법륭사, 법흥사(아스까사), 법기사 등 여러 절을 건설하였다고 한다.

이밖에도 나라현 법륭사 금당에 있는 백제사람이 만든 나무공예품인 옥충주자, 천수국수장(622년의 자수공예품), 고마가꾸(고구려악무), 고마니시끼(일본 정창원에 보관되여있는 고구려의 비단) 등과 질그릇들이 있다.

법륭사는 약 607년에 세운것으로서 절의 구성도 백제의것과 비슷하며 고구려자를 척도로 하여 건설하였다.

법흥사도 백제건축가들이 건설해준 절이다.

또한 백제의 화가 아좌를 비롯한 화가들이 절에 그린 그림도 있다. 대표작은《성덕태자상》이다.

발해국의 성립에 대하여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봉건국가이다.

고구려가 자기의 존재를 마친 후 그 유민들은 696년 5월 옛고구려 장수 대조영의 지휘밑에 거란, 말갈인들과 함께 당나라의 영주지방에서 당나라를 반대하여 대규모적인 폭동을 일으켰으며 여러 성들을 점령하였다.

698년초 천문령에서 판가리싸움을 벌려 당나라군을 거의 몰살시켰으며 각지에서 싸우는 고구려유민들을 하나로 련합하여 당나라세력을 완전히 격파하였다.

그리고 폭동의 지휘자인 대조영이 동모산(길림성 돈화)을 수도로 정하고 발해대왕국을 세웠다.

그후 수도를 중경, 상경, 동경 등 여러곳으로 옮겼으며 마지막에는 상경(794년 이후)에 정하였다.

발해의 전성기에 령역은 남쪽은 대동강류역에서 원산을 련결하는 계선, 서쪽은 료하서쪽과 눈강상류를 련결한 계선, 북쪽은 흑룡강지류인 제야강상류로부터 오호쯔크해에 이르는 계선, 동쪽은 바다가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포괄하였다.

발해는 후기신라는 물론 당나라, 일본, 거란 등 나라와 지역들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견지하였으며 경제와 문화가 당시로는 발전되였다.

특히 수십만의 상비군을 가진 강대한 국가였다.

발해가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된 후 주변나라 사람들은 《해동성국》이라고 찬양하였다. 발해는 726년 흑수말갈원정, 732년—733년 발해—당전쟁을 비롯하여 반침략투쟁에서 민족의 기개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발해는 독자적인 년호를 제정하였다.

발해는 926년 나라의 정세가 약화된것을 리용한 거란침략자들에 의하여 자기의 존재를 마치였다.

그후 발해유민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으며 동족의 나라인 고려로 이주하였다.

발해의 통치기구는 국왕밑에 중앙정부인 3성6부와 산하관청들이 있었으며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고 그밑에 현을 두었다.

발해의 대표적인 유적, 유물로서는 수도 동모산의 건축과 오동성터, 상경룡천부 제1절터, 상경돌등 등이 있다. 대표적문학작품으로서 양태사가 지은 시 《밤에 다듬이소리를 듣고》와 왕효렴이 지은 시 《달을 보고 고향을 생각하여》 등이 있다.

9세기의 대표적인 농민전쟁과 후삼국의 출현에 대하여

9세기에 날로 강화되던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억압으로 하여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은 나라의 도처에서 진행되였다.

대표적으로 붉은바지농민폭동과 889년 신라에서 상주의 농민들이 원종과 애노 등의 지휘밑에 일어난 폭동, 892년 북원에서 활동하던 량길농민군폭동 등 여러곳에서 일어난 폭동을 들수 있다.

붉은바지농민폭동은 896년에 신라의 서남부지역에서 일어났다.

폭동군은 왕경(경주) 서쪽 모량리계선까지 진출하여 관청, 불교절간들을 습격파괴하여 봉건통치배들에게 공포를 주었다.

이밖에도 신라의 여러 지역에서는 수십개의 농민군이 활동하였다. 후삼국은 10세기초 우리 나라 중남부땅에 세워졌던 후백제, 태봉국, 신라를 말한다. 이 시기 신라의 여러 지역에서는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농민군폭동이 일어났으며 이 기회에 농민군의 성과를 리용하여 왕이 되려는 궁예, 견훤과 같은자들이 생기였다. 견훤은 농민군과 함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900년에 《후백제》라는 나라를 선포하였다. 또한 신라왕의 첩의 아들로 태여난 궁예는 자기의 정치적야욕을 위해 북원에서 활동하던 량길의 농민군에 들어가 자기의 세력을 넓히였다.

궁예는 고구려와 같은 나라를 세울것을 생각하는 인민들의 지향을 리용하여 고구려를 회복하겠다는 구호를 내들어 인민들의 지지를 얻고 자기 세력을 확장해나갔으며 나중에는 량길농민군을 배반하고 901년에 《고려》(후에 《마진》, 《태봉》으로 고침)라는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였다.

고려의 성립에 대하여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5년동안 존재한 봉건국가이다.

고려는 개성지방의 유력한 봉건세력이였던 왕건이 918년 궁예의 《태봉국》을 뒤집어엎고 세웠다.

9세기말－10세기초 후기신라에서는 반동통치배들을 반대하는 농민전쟁이 여러곳에서 일어났다.

농민전쟁과 폭동으로 온 신라땅이 끓던 때 궁예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견훤은 서남부지방에서 더 많은 령토를 차지하기 위한 세력싸움을 벌리였다.

원래 중으로 있던 궁예는 량길의 농민군지휘부에 기여들어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자기 세력을 넓히였으며 고구려와 같은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인민들의 지향을 자기의 정권야욕실현에 리용하여 짧은 기간에 중부조선일대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나중에는 농민군을 배반하고 임금으로 자처하였다. 그는 통치체계를 꾸리고 여러 지역을 차지하고 령토를 늘이기 위한 전투를 진행하였으며 량길의 농민군을 격파한 후 나라를 세우고 911년에는 나라이름을 태봉으로 고치였다.

이때 견훤은 서남부일대에서 후기신라를 반대하여나섰다.

그는 인민들의 투쟁기세를 자기의 정치적야욕실현에 리용하려는 타산밑에 농민폭동군 두령으로 나서서 892년 경상도방향으로 진격하여 여러 주, 현을 차지하였으며 력량을 늘여 전라도일대에서 새 왕조를 세울 지반을 닦는데 힘을 넣었다.

그는 900년에 후백제를 건립하고 수도를 완산주로 정하였다.

태봉국을 세운 후 궁예의 부패타락한 생활과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는 극도에 이르렀다. 그는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은 누구든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궁예에 대한 저주와 원성이 극도에 이른 때에 태봉국의 최고벼슬을 하던 왕건은 홍유, 배현경, 신숭겸, 복지겸 등 무관들과 918년에 정변을 일으켰다.

그들이 왕궁을 포위공격하자 궁예는 도망치다가 인민들에게 잡혀 처단되였다. 결과 태봉국은 멸망하였으며 왕건은 나라이름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고려》라고 부르고 수도를 개경(개성)으로 정하였다.

왕건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 후삼국통일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는 후백제를 군사적으로 제압하면서 외적을 막고 고구려의 옛땅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건국직후인 918년 9월 평양에 대도호부를 설치하고 서경이라 하

였으며 이곳을 서북지방장악을 위한 정치군사적중심지로 꾸리였다.

고려에 의한 국토통일에 대하여

고려가 성립된 후 인민들속에서는 통일지향이 급격히 높아졌다.

고려봉건정부는 국토통일문제를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으며 서경(평양)을 개경(개성) 다음가는 수도로 정하였다.

목적은 서경에 의거하여 북방방비를 강화하며 앞으로 여기에 수도를 옮기고 이곳을 중심으로 옛고구려땅까지 다 차지한 강국을 일떠세우는데 있었다.

고려는 서북과 동북지방에로의 진출을 강화하였으며 발해가 거란의 침략으로 926년에 망하자 발해의 유민들을 받아들이였으며 거란침략군을 몰아내고 발해의 옛 령토를 되찾았다. 고려는 국토통일을 위해 북방진출을 강화하면서 후백제와 신라를 통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935년 후백제의 통치층내부에서 왕위계승문제로 권력다툼이 벌어지고 맏아들 신검에게 밀려난 견훤이 고려에 망명해왔다.

또한 그해 신라의 마지막왕 경순왕(김부)이 고려에 투항하였다.

이때 고려왕 왕건은 경순왕에게 종전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례물까지 주었다. 이런 유리한 정세속에서 고려는 936년 후백제군을 일리천(경상북도 선산군)전투에서 최종적으로 격멸하고 국토통일을 실현하였다.

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통일국가가 출현하게 되였다.

고려의 통치제도에 대하여

고려는 3성6부와 5도량계를 설치하였다.

고려의 중앙통치기구는 3개의 《성》과 6개의 《부》를 기본으로 이루어졌다.

3성에는 중서성, 문하성, 상서도성이 속한다.

중서성과 문하성은 독자적인 관청으로 따로 불리우는 경우도 있

으나 흔히 중서문하성이라는 하나의 관청으로 불리웠고 하나의 기구로 활동하였다.

중서문하성은 국왕의 명령지시에 따라 나라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최고통치기관이였다.

상서도성의 관할밑에는 6개의 부(리부, 병부, 호부, 례부, 형부, 공부)가 있었다.

고려봉건정부는 11세기 전반기에 지방통치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때 전국을 경기와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 서해도의 5개의 도와 동계와 북계 두개의 계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이것을 경기와 5도량계라고 하였다.

도밑에는 여러개의 주, 부, 군, 현을 두었다.

실제적인 지방통치를 위하여 3경, 4도호부, 8목 등을 설치하였다.

3경에는 수도 개경(개성)외에 서경(평양), 동경(경주), 남경(한성—서울)이 속하며 4도호부는 안북(안주), 안서(해주), 안변, 안남(전주)이 속하며 8목에는 황주, 광주(경기도), 충주, 청주, 양주, 라주, 상주, 공주의 큰 고을이 속한다.

그리고 매 지방을 왕이 내려보낸 관리들이 통치하게 하였다.

고려—거란전쟁에 대하여

고려인민들의 반거란전쟁은 우리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외적의 침공을 물리친 싸움이였다.

거란침략군의 1차침입: 거란침략군은 10세기초 발해를 멸망시킨 후 령토를 늘이고 고려를 제놈들의 지배밑에 있게 하며 많은 재물을 략탈할 목적으로 993년 10월에 1차침입을 감행하였다. 고려군은 봉산전투에서 적들에게 타격을 안긴 후 청천강계선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적들의 침략을 막았다.

중군사 서희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의 드세찬 공격으로 된타격을 받은 적들은 더 전진하지 못하고 수적우세를 믿고 《항복》을 강요하였다.

서경이북을 떼주려던 왕과 통치배들의 투항주의책동을 저지시킨 서희장군을 비롯한 애국적인 군민은 항전을 벌릴것을 주장하고 침

략자들과 용감히 싸웠다.

적들은 강화담판의 뒤에서 서남방향을 우회하여 청천강하류에서 얼어붙은 강을 건너 안융진으로 쳐들어왔다.

안융진싸움은 고려－거란의 1차전쟁에서 가장 큰 전쟁이였다.

크지 않은 토성으로 된 안융진에는 수백명의 군대가 방어하고있었는데 적들은 방어가 비교적 약한 이곳을 단숨에 점령할 목적으로 발악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중랑장 대도수의 지휘밑에 방어자들은 결사전을 벌려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적들은 자기들의 기도가 파탄되자 담판장에 끌려나왔으며 서희장군은 적장 소손녕과의 담판에서 당당한 주장으로 거란의 고려침략의 부당성을 론증하여 고구려의 옛 령토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꺾어놓았다. 궁지에 빠진 거란침략군은 참패를 인정하고 많은 량의 뢰물을 주고 쫓겨갔다.

거란침략군의 2차침입: 1010년 11월 성종(거란왕)이 40만을 끌고 2차침입을 감행하였다.

압록강을 건너온 적들은 흥화진으로 달려들었다.

거란침략군의 2차침입에서는 흥화진전투와 구주계선에서의 섬멸전으로 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도순검사 양규의 지휘밑에 흥화진의 군민은 처음부터 적의 대군과 맞붙어 힘겨운 싸움을 벌리였다.

그들은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적주력의 발악적인 공격과 간교한 회유책동을 물리침으로써 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적들은 20만의 군사를 흥화진봉쇄에 남겨두고 남쪽으로 기여들었다. 통주, 곽주, 안주 등에서 커다란 타격을 받은 적들의 공격은 좌절되였으나 속전속결로 개경을 점령할 속심으로 도중전투를 피하면서 1011년 1월 개경에까지 침입하였다.

적들의 침입에 겁을 먹고 봉건통치배들이 투항하자고 제기하자 강감찬장군은 수도를 일시 내주는 한이 있어도 항전은 계속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려군을 이끌고 련속적인 타격을 안기였으며 청야전술로 적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하여 적들은 10일만에 개성에서 도망쳤으며 양규와 김숙흥 등이 지휘하는 고려군은 구주일대에서 쫓겨가는 적들을 포위섬멸하였다.

거란침략군의 3차침입: 1018년 12월 소배압을 우두머리로 한 적들은 고려군을 피해가며 신은현(신계)까지 기여들었다.

강감찬, 강민첨이 지휘하는 고려군은 침략자들에게 물사태를 안겨 무리죽음을 주었으며 개경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래구산, 마탄 등에서 타격하는 한편 개경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고려군민의 용감한 투쟁과 청야전술에 의해 극도로 피로에 빠진 적들은 개경을 공격해보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강감찬장군은 련주, 위주사이의 길목을 지키고있다가 쫓겨가는 적들을 기습하였으며 마지막섬멸전을 구주에서 벌리였다.

강감찬장군은 여러곳에 있던 부대를 구주에 집결시켜 진을 치게 하고 적들이 구주에 나타나자 일시에 공격을 가하였다. 포위된 적들은 마지막발악을 하였다. 이때 남쪽에서 적들을 추격해오던 김종현의 부대가 적들의 배후를 들이쳤다. 고려군은 총공격을 들이대여 적들에게 숨돌릴틈을 주지 않았으며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전으로 모조리 족치였다. 거란침략군의 3차침입을 격퇴하는 싸움을 빛나게 장식한 구주싸움을 력사에서는 《구주대첩》이라고 부른다.

고려에서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에 대하여

고려시기에 농업이 발전하였다. 고려인민들은 묵었던 논밭을 갈아엎고 서북지방과 바다가의 땅들을 일구어 부침땅면적을 늘이였다.

그리고 여러가지 쇠농기구들을 새로 만들었으며 새로운 농사법을 받아들였다. 특히 한해 또는 두해씩 묵여가면서 부치던 땅들에 거름을 내여 논밭을 묵이지 않고 해마다 농사를 지었다. 하여 농업생산은 늘어나게 되였다.

이 시기 수공업도 발전하였다.

이때 수공업은 관청수공업과 개인수공업자들이 경영하는 전문수

공업, 농민들이 진행하는 가내수공업이 있었다.

관청수공업은 무기와 봉건통치배들에게 필요한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만들었다.'

봉건국가는 수공업을 담당한 관청을 두었고 관청수공업장을 꾸렸으며 여기서 무기, 비단, 금, 은제품, 도자기, 가구, 종이와 사치품들을 만들게 하였다. 관청수공업장에서는 부역으로 끌려나온 개인수공업자들이 일하였다.

개인수공업자들의 전문수공업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것들을 만들었다.

그들은 크지 않은 작업장을 꾸려놓고 농기구, 그릇, 가마, 가구, 기와 등 생활에 필요한것과 먹, 붓, 종이 같은 문화용품도 생산하였다.

농민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가내수공업을 하였다.

이들은 집안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들과 봉건국가에서 강요하는 공물들을 생산하였다. 주로 베, 모시, 명주 등 옷감들과 나무가지나 벼짚 같은것으로 만든 일용품들을 생산하였다.

이가운데서 자기, 종이, 먹은 다른 나라들에 널리 알려졌으며 모시 같은것은 이름난 특산물로 알려졌다.

이 시기 금속화페를 사용하였다.

고려인민들속에서는 생산이 장성하여 상품류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속화폐를 사용하였다.

여러가지 상업지구들이 세워지고 갖가지 일용품들과 농산물이 판매되였다.

상품류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상품교환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였다. 그것은 돈처럼 쓰던 쌀과 베천을 보관, 운반하는것이 불편하였기때문이다.

1097년에 봉건국가는 돈을 만드는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구리돈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해동통보》, 《동국통보》등으로 불리우는 금속화페가 나오게 되였으며 이외에 은으로 만든 돈도 사용되였다. 이것을 1102년에 봉건관리들과 상층군인들을 비롯한 통치배들속에서 먼저 쓰게 하였다.

무역항 벽란도와 천리장성에 대하여

고려의 수도 개경과 가까운 곳에 있는 벽란도는 여러 나라 상인들이 무역을 하던 이름난 무역항이다.

고려는 인삼, 자기, 종이, 비단, 부채, 먹 등을 수출하였으며 색다른 비단, 약, 사치품을 사들였다. 고려의 비단은 널리 알려져 아라비아반도와 이란의 상인들까지도 열대지방의 향료, 물감, 상아 등을 가지고와서 비단과 바꾸어갔다.

벽란도는 또한 중국에 있는 여러 나라 상인들과의 거래를 이어주는 무역항이기도 하였다.

천리장성은 고려시기에 북방에서 달려드는 외적을 막기 위해 쌓은 성이였다. 고려—거란전쟁이후 녀진족이 고려의 북쪽에 침입하여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군 하였다.

고려는 이에 대처하여 북쪽국경의 안전을 위해 1033년부터 1046년까지 압록강어구로부터 정평군 바다가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았다.

특히 중요한 지점에는 진성같은것을 쌓았으며 2중으로 겹성을 쌓아 방비를 강화하였다.

고려는 동북지방의 넓은 지역을 되찾은 다음 함주, 의주, 복주, 영주, 길주, 공험진, 웅주 등 9개의 성을 설치하였다.

9성의 설치는 고려인민의 옛고구려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묘청의 정변(묘청의 란)에 대하여

1126년 금나라에 대한 사대를 주장하던 리자겸일파가 제거된 후에도 김부식일파를 비롯한 개경의 집권자들은 금나라에 대한 사대적립장을 버리지 않았다.

묘청, 정지상, 백수한 등 서경출신 량반들은 김부식일파와는 달리 《건원칭제》(고려를 황제국으로, 왕을 황제로 칭하며 독자적인 년호를 쓴다는것)하여 나라의 위력을 대외에 떨쳐야 한다는 반사대주의립장을 내세웠다. 그들은 음양도참설(지리풍수설)

을 리용하여 개경으로부터 서경(평양)으로 수도를 옮길것을 주장하였다.

수도(개경)는 이미 왕업이 쇠진하였고 궁궐이 타서(1126년 리자겸의 반란에 의해 타버렸다.) 없어졌으니 《왕의 기운》이 도는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의 적극적인 주장과 노력에 의해 국왕이 1128년 서경에 행차하였다.

그후 국왕에게서 수도를 옮길 계획에 대해 지지를 받은 서경량반들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진척되다가 개경량반들의 항거에 부딪치게 되였다.

김부식을 비롯한 사대주의자들의 반대로 수도를 옮기는것이 실패하자 1135년 1월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킨 묘청은 자기의 지지자들인 조광, 류감, 안중영 등과 함께 군대를 동원하여 서경과 서북지방에 있던 개경출신량반들을 모조리 잡아가두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넓히면서 국가기구를 새로 조직하였으며 고을원에 이르기까지도 서경출신량반들이 하게 하고 서경을 방어할 준비를 갖추는 한편 왕에게 특사를 보내여 서경에 와서 왕이 될것을 요구하였다.

왕이 김부식을 총지휘자로 하는 《토벌군》을 조직하여 서경을 치도록 하자 김부식은 개경을 떠나기에 앞서 개경에 있던 묘청의 지지자들을 죽이거나 먼곳에 귀양을 보냈다.

김부식의 《토벌군》은 절령길을 피해 오늘의 평산, 신계, 성천, 수안, 안주를 우회하여 2월 서경을 포위하였다. 서경이 포위되자 동요하기 시작한 조광과 일부 서경군의 반역자들은 묘청, 류감의 머리를 베여 김부식에게 보내면서 항복하려 하였다.

정권쟁탈을 목적으로 한 정변은 정변지휘자들의 배신행위와 우유부단한 태도에 관계없이 2중, 3중의 억압과 수탈에 시달려온 서경의 군대와 인민의 항전으로 되였다.

저들의 항복요구가 실현되지 않자 바빠맞은 조광은 인민들의 투쟁기세에 힘을 얻고 항전지휘를 하였다.

그는 대동강연안에 새로 성을 쌓고 이 지역을 장악하려 하였으며 두루섬에 기여든 개경군의 50여척의 함선을 짓부시였다.

김부식의 《토벌군》은 폭동군의 완강한 방어에 부딪치자 장기전을 시도하고 성옆에 흙산을 쌓고 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흙산이 완성되자 《토벌군》은 총공격을 하였다.

서경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중첩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용감히 싸웠으나 다음해 2월에 성은 함락되였으며 조광은 자결하였다.

개경통치배들은 반란에 앞장섰던 서경의 군대와 인민들에게 《서경역적》, 《서경》이라고 얼굴에 새기고 귀양을 보내게 하였다.

묘청의 정변은 서경량반들과 개경량반들사이의 권력싸움이였지만 당시 사대주의세력과 반사대주의세력사이에 벌어진 대결이였다.

정중부의 반란과 무신정권의 수립에 대하여

고려봉건국가는 성립이래 무신들에 비해 문신들을 우대하고 내세우는 정책을 세웠다. 나라의 권력과 토지의 대부분은 문신관료들에게 집중되고 같은 통치배들이면서도 모든 면에서 무신관료들은 차별시되고 멸시당하였다.

문무간의 차별, 무신에 대한 문신의 멸시는 의종통치년간(1147년—1170년)에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문신들이 의종의 부화방탕한 생활에 끼여 즐기고있을 때 무신들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경비만 섰다.

이러한 알륵과 대립이 극도에 이른 시기 정중부, 리의방, 리고 등 무관들은 서로 결탁하고 국왕과 문신봉건통치배들의 부패타락으로 왕권이 약화되고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인민들과 하층군인들의 투쟁기세가 높아가던 유리한 정세를 리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정변의 직접적인 계기로 된것은 1170년 8월 의종이 보현원에 갈 때 있은 5병수박희사건이였다.

국왕은 유흥오락을 위해 많은 문신들과 군인들을 끌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절인 보현원으로 가던 도중 무관들을 불러 5병수박희라는 경기를 벌리게 하고 문관들과 함께 구경을 하였다.

경기의 승부가 갈라졌을 때 종5품의 문관인 한뢰가 종3품의 무

관인 상장군 리소응이 졌다고 뺨을 쳐서 넘어뜨렸다.

이것을 보고 문신관료배들은 손벽을 치며 리소응을 비웃었다. 격분한 정중부는 이미부터 계획해온 정변을 단행하였다.

그들은 왕이 보현원에 도착하자 문신관료들을 죽이고 개경에 들어가 앙심을 품었던 문신들을 닥치는대로 처단했으며 의종을 거제도로 추방하고 의종의 아우 명종을 왕자리에 앉혔다.

정변후 정중부를 비롯한 무관들은 의종이 가지고있던 금은보화를 나누어가지고 문신들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았으며 새로운 국왕을 끼고 봉건정부의 최고벼슬을 차지하였다.

결국 이 정변은 권력과 토지 및 노비를 빼앗기 위한 개싸움이였다. 이것을 정중부의 반란이라고 한다. 이때로부터 1270년 6월까지 100여년간 무신집권시기가 계속되였다.

12세기 후반기 평양(서경)농민군의 투쟁에 대하여

12세기 후반기 대농민전쟁의 첫 불길은 평양지방의 인민들이 일으켰다.

1170년 무신정변이후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집권자들의 전횡과 수탈은 더욱 강화되였다.

1174년 9월 서경의 군대와 인민은 조위총의 반란을 계기로 무신통치배들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났다.

서부지방농민군은 개경으로 통하는 절령계선을 차단하고 개성무신집권자들이 파견한 관리들과 토호들을 처단하였다.

당황한 무신집권자들은 《토벌군》을 조직하였고 윤린첨, 두경승은 관군을 끌고 농민군의 군사적거점인 련주(개천)성을 점령한 후 서경을 포위하였다.

서경에 집결한 농민군은 수차에 걸치는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치렬한 싸움을 벌려 1년동안이나 성을 지키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싸움에서 서경은 끝내 《토벌군》에게 함락되였다.

이 시기 농민군의 항전은 여러곳에서 계속되였다.

농민군은 1177년 5월에 서경을 다시 장악하고 관군에게 커다

란 타격을 주었으며 지방관리, 반역자들을 모조리 족치였다.

1177년 9월 농민군은 투쟁을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군사활동에 유리한 묘향산으로 이동하여 중군, 전군, 후군으로 부대를 편성하였다.

1178년에는 서북지방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황해도일대까지 진출하여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서북농민군속에서는 식량난과 개경통치배들의 회유기만책동으로 투항분자가 나타나게 되였으며 10월에는 흩어지고말았다. 기본주력이 해산되였지만 적지 않은 농민들은 산간지역에 들어가 투쟁을 계속하였다.

망이농민폭동에 대하여

망이는 12세기 후반기 공주농민폭동군의 지휘자이다.

천민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공주 명학소출신인 망이는 봉건통치배들의 2중, 3중의 억압을 당하면서 점차 그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였다.

그는 1176년에 같은 처지의 망소이와 오래동안 폭동준비를 한 후 1176년 1월 관군의 대부분이 서북지방의 농민폭동진압에 동원된 유리한 기회를 리용하여 폭동을 일으키였다. 망이는 명학소의 《천민》들을 기본으로 전투대오를 편성하고 먼저 공주를 공격하여 악질량반관료들을 처단하였다.

그리고 3월에는 공주에 기여든 《토벌군》 3 000명을 격파하였다.

그러나 국왕이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키고 새 관리들을 파견하자 농민군은 1177년 1월 개경의 무신집권자들과 《화의》를 맺는 실책을 범하였다.

망이는 개경에 돌아와서야 관군이 명학소에 달려들어 자기의 어머니와 안해를 랍치했다는것과 적들에게 속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1177년 2월 농민군을 다시 투쟁에 불러일으켰으며 가야사를 들이치고 청주를 제외한 55개 고을들을 장악하였다.

하여 1177년 4월에는 오늘의 충청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충

청남북도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망이는 국왕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화의》를 맺으려고 하였다. 이 기회에 관군은 망이를 체포하여 학살하고 농민군을 진압하였다.

망이는 12세기 후반기 대농민전쟁시기 서남지방에서 농민군을 이끌고 봉건통치배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실패의 원인은 폭동을 옳바로 이끌 전략전술이 없었고 폭동참가자들의 계급적각성이 부족하였기때문이다.

경상도농민군의 투쟁과 만적의 폭동에 대하여

1193년—1194년의 농민군의 투쟁도 주로 경상도일대를 무대로 진행되였다. 당시 대표적인 농민군은 운문산과 초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부대들이다.

김사미, 효심이 이끈 농민군은 1193년 경주부근의 여러 고을을 공격하고 악질관리들과 량반, 토호들을 처단하고 이 일대를 장악하였으며 1193년 2월부터 여러차례 《토벌군》의 공격을 격파하고 악질분자들을 죽이였다.

당황한 무신집권자들은 농민군을 와해시키기 위해 회유기만책동에 달라붙었다.

1194년 2월 적들의 기만에 넘어간 김사미는 관군의 병영에 갔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여 희생되였다. 후에 김사미의 농민군은 효심이 지휘하는 농민군과 합세하였으며 1194년 4월에는 밀성 저전촌에서 관군과 일대 격전을 벌려 《토벌군》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그러나 개경통치배들의 회유기만책동으로 농민군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나게 되였으며 결과 대오는 흩어지고 12월에는 효심이 관군에 체포되여 희생되였다.

결과 경상도농민군의 투쟁은 막을 내리였다.

1198년—1204년의 투쟁은 최하층신분 인민들의 진출이였다.

《천한》신분에서 벗어나려는 투쟁의 첫 봉화는 무신집권자 최충헌의 집의 종인 만적을 비롯한 개경안의 공, 사노비들이 지펴올렸다. 그는 우선 나무하러 가서 같은 처지의 동료들을 사귀였으며

그들에게 자기들의 처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것은 노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1198년 5월 무신정권을 뒤집어엎을 대규모폭동을 계획하였다.

개성에 있던 절간 흥국사에 모였다가 왕궁앞으로 달려가면서 북을 치고 함성을 올리며 일시에 들고일어나 관료배들과 상전들을 모조리 죽이고 벼슬자리를 차지하려는 계획에는 수천만의 노비들이 망라되였다.

그러나 정작 계획대로 폭동자들이 흥국사에 집결하고보니 적은 인원밖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할수없이 폭동기일을 뒤로 미루고 집결장소도 바꾸게 되였다.

바로 이때 대오에 생긴 변절자 순정에 의해 사전계획이 폭로되였으며 만적을 비롯한 100여명이 체포되고 폭동은 실패하였다. 이것을 만적의 폭동이라고 한다.

삼별초군의 항전에 대하여

고려정부는 1232년에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1270년 5월까지 강화도를 수도로 정하고있었다.

1270년 5월 몽골과 결탁한 국왕 원종은 수도를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옮길것을 공포하였으며 삼별초군(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을 가리키는데 별초란 특별히 선발한 군대를 의미)은 이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5월 원종은 삼별초군을 해산시킬것을 명령하였다.

국왕의 이러한 배신행위에 격분한 삼별초군은 폭동으로 대답하였다. 1270년 6월 1일 배중손과 로영희가 이끈 삼별초군은 강화도안의 애국적인 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켜 무장대오를 늘이고 무장을 갖춘 후 개경으로 달아나려는 봉건관리를 단속하면서 항전에 응하지 않은 관리들과 중들을 처단하였다.

폭동군은 6월에 몽골과 결탁한 개경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립장을 표시하고 장기적인 싸움을 위해 유리한 곳인 진도로

1 000여척의 배에 나누어타고갔으며 8월에 진도에 새로운 방어를 구축한 후 항전기지에 의거하여 9월 서남해안을 제압하기 위해 라주, 전주 등 여러 고을을 들이쳤으며 11월에는 제주도를 장악하였다.

바빠맞은 개경봉건통치배들이 김방경과 몽골의 아해를 《토벌군》의 우두머리로 하여 1 000여명을 파견하자 폭동군은 완강한 방어로 적들에게 주동적인 타격을 가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1271년 몽골침략자들은 흔도를 우두머리로 6 000명의 둔전군을 설치하였다. 흔도는 진도에 《항복》할것을 요구하는 사절을 파견하였지만 배중손이 단호히 거부하자 이에 고무된 인민들은 도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통치배들을 족치였다.

삼별초군은 인민들의 지지밑에 투쟁을 확대하여 동래, 김주(김해), 남해, 창원, 거제 등을 공격하였으며 여러 섬을 장악하였다. 그런데 당시 항전군에 기여든 량반들이 몰래 비밀을 적들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적들은 1271년 5월 수천명의 병력과 100여척의 함선으로 불의에 진도를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배중손이 전사하였으며 항전군은 김통정의 지휘밑에 제주도로 이동하여 새로운 투쟁을 벌리였다.

1273년 4월 폭동군은 우세한 적들과 용감히 싸웠으나 실패하였다.

원나라침략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고려인민들의 투쟁과 료동원정에 대하여

14세기 후반기 고려인민들은 간고한 조건에서 원(몽골족의 나라)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였다.

원나라는 아시아와 유럽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었지만 급속히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정부는 저들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친원세력관료들을 처단하고 원나라를 몰아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한편 원나라가 일

본침략을 위해 1280년에 고려에 설치하였던 관청인 《정동행성》을 철페하였다.

또한 압록강이북지역을 공격하게 하였다.

1356년 6월에는 3개의 원나라군사거점을 들이쳐서 침략자들을 쫓아내였다. 또한 쌍성지방으로 진격하여 《쌍성총관부》를 없애버리고 이 일대에서 원나라침략군을 몰아내였다.

고려군은 마지막으로 침략자들이 틀고앉아있던 제주도를 찾는 투쟁을 벌리였다.

최영이 지휘하는 고려군은 1374년 8월 원침략자들의 마지막지탱점인 탐좌(제주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하여 제주성에 의거하여 발악하던 적들을 격파하고 대승리를 거두었으며 많은 물자와 장비를 로획하였다.

료동원정은 1369년－1371년사이에 원나라봉건통치배들이 료양에 설치하였던 《동녕부》의 세력을 없애며 원나라침략자들의 무력침공기도를 미리 파탄시키며 고구려와 발해의 옛 강토를 되찾고 료동지방에 대한 통치지역을 확대할 목적밑에 단행한 원정이다.

료동원정은 3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원정: 고려군은 1차원정시기에는 두 방면으로 진격하였다.

양백연이 지휘하는 서북면의 군대는 1369년 11월에 개경을 떠나 압록강하류를 건너 동녕부(료양)에 쳐들어가 친원세력의 두목 기철의 아들 반역자 기새인첩목아를 추격하여 동녕성에 몰아넣고 적들을 쳐부시고 1370년 1월 하순 개선하였다.

한편 1370년 1월초에 함흥을 떠난 동북면의 고려군은 1월 14일 압록강을 건너 야둔촌전투에서 리오로첩목아(고려사람 리원경)의 항복을 받고 계속 진격하여 군사적거점인 올라산성을 점령한 후 개선하였다.

2차원정: 2차원정은 1370년 11월초에 서북면 상원수 지룡수, 부원수 양백연의 지휘밑에 원침략군잔여세력의 본거지인 료양을 향해 진격하였다.

고려군은 3 000명의 경기병으로 적들을 유인하고 드세찬 공격으

로 적장의 항복을 받은 후 료동성을 점령하였으며 많은 군수물자를 로획하고 우두머리들을 처단하였다.

3차원정: 3차원정은 1371년 9월에 진행되였다.

안우경과 리순이 지휘하는 원정군은 압록강 중류를 건너 10월에 올라산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성을 점령하고 잔여세력을 소멸한 후 원나라 추밀원부사를 체포하고 개선하였다.

료동원정은 원침략세력을 소멸하고 마지막 봉건세력을 위압하여 고려에 대한 침략기도를 버리게 한 싸움이다.

고려에 대한 몽골의 침입과 주요 전투에 대하여

고려—몽골전쟁은 13세기 중엽 30년간에 걸쳐 몽골의 침공을 반대하여 싸운 고려군대와 인민의 방위전쟁이다.

13세기초에 국가를 형성한 몽골족은 칭기스한과 그의 후대들에 의하여 대대적인 정복전쟁을 벌리였다.

고려에 대한 침공은 123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였다.

1차침입: 오고타이(칭기스한의 아들)는 파괴적이며 략탈적인 전쟁을 북중국과 만주일대에서 벌리게 하는 한편 1231년 8월 살례탑을 우두머리로 하는 일부 부대를 압록강을 건너 고려경내에 침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무신집권자들은 안일해이와 속수무책으로 방어군을 조직하지 않았으며 결과 반격도 가하지 못하였다.

살례탑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8월 29일에는 함신진(의주), 철주를, 9월 3일에는 구주성을 포위하고 서경, 황주, 봉산 등을 침공하였다.

고려방어군은 9월 9일에 개경을 출발하여 20일에는 봉산에서 적선두부대를 격파하고 10월 하순 안북부에 이르렀다.

21일에는 고려방어군과 적의 주력과의 결전이 벌어졌으며 적들은 11월 28일에는 황주, 12월 1일에는 개경을 포위하고 련속 광주, 황주, 충주를 공격하였다.

이 시기 지방군과 인민들은 침략군과 맞서 용감히 싸웠다.

구주성에서 박서가 지휘하는 군인들은 123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차에 걸치는 적들의 포위공격을 격파하고 성을 고수하였다. 그들은 끓는 쇠물을 굴을 뚫고 기여드는 적들에게 퍼부었으며 성문을 열고나가 습격전을 벌리였다. 적들이 루차, 대포차를 리용하여 성을 파괴하려고 하자 포차로 돌을 날리고 쇠물을 퍼부어 적들의 기도를 파탄시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자주성에서도 적들의 회유기만을 물리치고 전쟁전기간 완강한 항전으로 성을 지켰으며 서경의 인민들도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성을 지키고 침략군의 기도를 파탄시켰다.

충주성의 최하층사람들인 노비를 비롯하여 인민들로 무어진 《노군》과 《잡류별초》는 삼남지방을 침공하려던 적의 기도를 분쇄하였다.

적들은 더는 견딜수 없게 되자 1232년 1월 철수하였다.

2차침입: 몽골족은 1232년 8월 살례탑을 다시 우두머리로 하여 고려를 침공하게 하였다.

목적은 고려를 정복하고 동진국까지 격파하려는데 있었다. 적들은 이 목적을 위해 도중전투를 피하면서 수도를 공격하고 왕을 항복시키려고 하였다.

한편 고려정부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였다. 적들의 침략기도는 개경의 군민들의 완강한 방어에 의해 파탄되고 수도 개경을 지켜냈으며 강화도를 공격하려던 시도도 파탄되였다.

그러자 적들은 한양성을 강점하고 파괴와 략탈만행을 감행하였다. 이 시기 광주, 처인성을 비롯한 각지 인민들도 침략자들과 희생적인 투쟁을 벌려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처인성전투에서 김윤후가 적장 살례탑을 죽이자 혼란에 빠진 적들은 도망치고말았다.

3차침입: 적장 당고를 우두머리로 하여 1235년부터 1238년까지 감행되였다. 고려인민은 동북면, 서북면, 중부와 남부 등 적들의 발길이 미치는 곳마다에서 항전을 벌리였다.

1235년에 있은 지평현전투와 1236년 7월과 8월에 있은 정주, 자주성, 온수, 죽주성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에서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4차침입: 1247년 7월에 아모간을 우두머리로 하여 감행되였다.

5차침입: 1253년 7월에 야굴을 우두머리로 하여 감행되였다.

이때도 적들은 충주성을 포위공격하였다.

충주성인민들은 김윤후의 지휘밑에 70여일간이나 치렬한 전투를 벌려 성을 지켜냈다. 싸움이 오래되여 식량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이 조성되자 김윤후는 성안에 보관되였던 노비문서를 불살라버리고 로획한 소, 말을 나누어주면서 모두가 최후결사전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이 조치는 성안의 군민을 크게 고무하였다.

노비출신을 주력으로 하는 충주성방위자들은 결사전을 벌려 성을 끝까지 지키고 남으로 진출하는 침략군의 기도를 파탄시켰다. 충주성을 비롯한 각지에서 타격을 받은 적들은 도망치였다.

6차침입: 몽골은 그후 1254년－1259년에 고려를 6차로 침입하였지만 패하고말았다.

왜구를 격멸하기 위한 고려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13세기－15세기의 왜나라 해적무리를 왜구라고 한다.

1364년 5월에 3 000명의 왜적이 진해현에 기여들자 고려정부는 경상도 도순문사 김속명에게 즉시 반격을 가할것을 명령하였다.

고려군은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드센 타격을 가하여 한놈도 남김없이 소멸하였는데 이것을 진해현전투라고 한다.

1366년이후 수그러들었던 왜적들은 1370년대초 또다시 대규모병력으로 고려에 침입하였다. 왜적들은 륙지에 올라와 장기간 이동하면서 파괴, 략탈만행을 감행하였다.

최영이 지휘하는 고려군의 홍산(충청남도 부여)전투가 왜적을 치는 대표적인 전투였다. 최영은 이 전투에서 검질긴 왜적을 맞받아나가 싸웠으며 입에 화살을 맞고도 적들을 족치였다.

그후 황산강전투와 해풍(개성)전투, 반성현전투들에서 고려군민은 왜적들에게 호된 징벌을 안기였다.

한편 최영은 수군건설을 다그치면서 최무선의 제의에 따라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포와 화통 등 그가 발명한 화약무기를 함선에 설

치하였다.

1380년 8월에 왜적들은 500여척의 함선과 수만명의 병력으로 진포에 기여올라 여러 고을을 싸다니면서 략탈만행을 감행하였다.

고려수군이 100여척의 함선으로 적들을 맞받아나갔으나 적들은 수적우세를 믿고 다시 공격하였다.

고려군은 배에 위력한 화약무기를 비밀리에 장치하였다가 포사격을 가하여 적함선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적들은 진포앞바다에서 크게 싸워보지 못하고 완전히 패하였다.

륙지에 기여올랐던 놈들은 저들의 배가 타버리자 운봉(전라북도 남원)으로 살길을 찾아 발악하면서 도망치였다.

고려군은 적들의 퇴로를 막고 정면으로 공격하여 적의 우두머리를 비롯한 수많은 적들을 족치였다. 이것이 운봉싸움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고려군은 왜구의 침입을 끝장내기 위해 놈들의 소굴인 쯔시마를 공격하기로 하고 1389년 2월에는 경상도 원수 박위가 지휘하는 원정대의 100척의 함대로 왜적들의 소굴인 쯔시마원정을 진행하였다. 원정대는 쯔시마에 정박한 왜적선 300척을 불사르고 적들의 소굴을 부셔놓았다. 한편 침략에 리용하였던 해안시설을 파괴하고 100여명의 인민들을 구원한 후 개선하였다.

고려군은 쯔시마원정으로 적들에게 큰 참패를 안겨주었으며 서부지방의 봉건세력을 굴복시켰다.

고려의 멸망과 리조봉건국가의 수립에 대하여

리조봉건국가는 고려왕조를 무장정변의 방법으로 뒤집어엎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였다.

1388년 명나라통치배들은 고려에 압력을 가하면서 자기의 관리들을 파견하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고려정부는 이 기회에 적들의 침략기도를 짓부시며 나아가서 료동지방의 옛 강토를 되찾으려고 하였다. 하여 고려군은 5만명의 대군을 료동원정군으로 편성하고 8도도통사로 최영을, 우군도통사로 리성계, 좌군도통사로 조민수를 임명하고 파견하였다. 원정

군은 1388년 5월초 압록강하구의 위화도에 이르렀으며 선봉부대는 료동지방으로 진격하여 적들의 주요 기지를 격파하였다.

전반적정세가 유리하게 된 시기 리성계는 정부의 령을 거역하고 이미전부터 고려왕조를 뒤집어엎고 정권을 잡으려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무장정변을 일으킬 목적으로 료동원정을 반대하였다. 리성계는 진군하라는 정부의 지시를 거역하고 장마를 핑게로 시간을 끌다가 5월말 위화도에서 사대배신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력사에서는 《위화도회군》이라고 한다.

이때 리성계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것은 옳지 않은것》이라고 사대주의적망발을 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였다.

하여 료동원정은 중도에서 좌절되고말았다.

리성계는 6월초 개경을 점령한 후 가장 두려워하던 최영을 귀양보낸 다음 우왕을 쫓고 9살나는 그의 아들 창을 왕자리에 앉히였다. 다음해 1389년에는 다시 창왕을 추방하고 먼 왕족출신인 요라는 사람을 왕으로 앉게 하였다. 이것이 고려의 마지막왕인 공양왕이다.

그리고 얼마후에는 그를 원주로 추방하고 여러 반대파들을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내쫓거나 살해하였다.

리성계일파는 자기 반대파세력을 여러차례 바다에서 집단학살하였으며 왕권쟁탈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또한 권력기구들을 새로 만들었으며 저들의 지지자들로 관료대렬을 꾸리였다.

그리고 아들 방원을 시켜 정몽주를 살해하게 하였으며 공양왕을 내쫓고 도평의사사에 들여앉힌 《혁신파》관리들의 《추대》를 받는 형식으로 자기가 왕위에 올라 모든 실권을 틀어쥐였다. 하여 근 500년동안 존재한 고려왕조가 끝장나고 리조봉건국가가 성립되였다. 이때부터 나라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

그후에 리성계는 왕족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과 살해를 계속하면서 자기 지반을 꾸리였다. 그리고 1392년 8월에는 수도를 한양(서울)으로 옮기라고 지시하고는 2년후인 1394년에 궁궐, 관청도 없는 한양으로 옮겨앉았다. 리성계는 저들의 정치적지배권을 실현하기 위해 봉건통치체계를 재편성하고 강화하였다.

리조의 통치기구에 대하여

리조의 중앙통치기구에는 국왕밑에 최고통치기관인 의정부와 중앙행정기관인 6조가 있다.

의정부에는 령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3정승》이 있었으며 이들은 국왕을 도우며 국왕 다음가는 높은 급의 관리들이다.

6조에는 리조(문관들을 선발배치), 호조(조세와 공물 등을 수탈, 나라의 재정을 관할), 례조(유교교육과 외교, 나라의 의식을 담당), 병조(군사와 관련된 일을 담당), 형조(형벌, 노비, 감옥관계의 일을 담당), 공조(건설, 수공업을 담당)가 있다. 매조의 장관을 판서라고 하였다. 지방통치기구는 도와 고을로 되여있다.

전국을 8개의 도 즉 경기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로 나누었다.

여기서 경기를 제외한 매 도의 이름은 그 도에서 제일 중요한 두개의 고을이름 첫자를 붙여서 지었다.

평안도는 평양의《평》자와 안주의 《안》자, 함경도는 함주와 경성,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전라도는 전주와 라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의 첫글자를 따서 붙인것이다.

우리 나라를 8도강산이라고 한것은 이처럼 8개의 도로 이루어졌기때문이다. 도밑에는 고을이 있었다.

고을은 크기에 따라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 등으로 불리웠으며 부에는 부사,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감이 있었다. 고을의 우두머리를 통털어 원 또는 사또라고 불렀다.

리조시기의 군대제도와 신분제도에 대하여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의 반항을 누르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군대제도를 재편성하였다.

리조시기에 모든 량인남자들은 16살부터 60살까지 정해진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하여야 했는데 이 군대복무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것이였다.

그것은 이 기간 필요한 식량, 옷 등과 일체 비용을 자체로 마련하여야 하며 왕궁건설, 성쌓기 등 공사에 동원되여야 하였기때문이다.

군대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되여있었다.

중앙군은 군단이라고 할수 있는 5개의 위로 되여있었으며 주로 왕궁호위, 수도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지방군에는 륙군과 수군이 있었다.

리조봉건정부는 사람의 신분에는 본래부터 귀한 신분(지배계급신분)과 천한 신분이 있으며 천한 신분은 귀한 신분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들을 억압, 착취하였다.

지배계급신분에는 량반, 중인, 아전 등이 속하며 신분은 대체로 자손들에게 넘겨졌다.

량반은 대부분이 봉건지주들이며 많은 토지를 차지하고 낮은 신분인 근로인민들을 착취하였다.

량반은 봉건국가로부터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았으며 수십명의 노비들을 가지고 잡다한 집안일과 농사일을 시켰다.

중인은 량반다음가는 신분층으로서 주로 외국어, 법률, 의학, 지리학, 천문력서 등 기술분야의 벼슬을 맡아보았다.

중인가운데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부자가 된자들도 있었다.

아전은 중앙 및 지방관청에서 사무를 맡아보는데 지배계급신분가운데서 제일 낮은 신분층이다. 이들은 봉건국가와 통치배들의 앞잡이로서 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직접 감행하였다.

피지배계급신분에는 량인과 노비가 속한다.

량인에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이 속하며 대다수가 농민이다.

노비는 제일 낮은 신분으로서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였다.

리조봉건정부는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호패법이란 16살－60살까지의 모든 남자들이 관청의 도장이 찍힌 호패를 차고다니게 하는 제도이다.

호패는 주민증과 같은 패쪽이다.

이것은 일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며 자기 고장을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게 얽매여놓고 착취하기 위한것이다.

호패는 량반들에게는 명예와 특전의 표식이지만 피지배계급인 인민들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신분예속의 표식으로 되였다.

15세기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15세기에 이르러 우리 나라의 농업은 크게 발전하였다.

우선 부침땅면적이 늘어났으며 농업기술이 발전하였다.

2모작의 도입과 새 품종의 육종, 모내기법이 리용되였다.

또한 공예작물과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큰 힘을 넣었다.

수공업도 발전하였다.

가내수공업이 발전하여 옷감과 일용품이 생산되였다.

또한 전업적인 수공업과 관청수공업이 발전하였으며 수공업장들이 커지고 많은 품종이 생산물에 따라 업종별로 갈라졌다.

이 시기 상업과 대외무역에서도 발전이 일어났다.

특히 서울, 평양, 개성과 같은 주요 도시들에서 상업이 발전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상업을 천한것으로 여기면서 자기들에게 복종하는 범위에서 발전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는 보짐장사군들이 있는가 하면 큰 배를 가지고 장사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또한 이 시기 향시가 발생하여 보급되였다.

15세기에 국내상업과 함께 대외상업도 발전하여 명나라, 녀진, 일본 등과 무역을 많이 하였다.

4군 6진의 설치에 대하여

15세기초 압록강과 두만강일대에서는 수십개의 부족들로 갈라져 살던 녀진족이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행위를 감행하였다.

수차에 걸치는 녀진족의 침입을 막는것은 봉건정부의 긴급과제였다. 녀진족은 조선군이 오면 도망치고 가면 다시 와서 략탈행위를 하였다.

리조봉건정부는 북방의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1416년에 려연군을, 1433년에는 려연군의 서남부에 자성군을, 1440년

에는 려연군의 동남부에 무창군(오늘의 김형직군)을, 1443년에는 우예군(오늘의 중강군)을 승격배치하여 4개 군을 설치하였다.

또한 4군지역에는 읍성과 함께 주요 요충지마다 진, 보(경비초소)를 두었으며 이것을 련결하는 성을 쌓았다.

리조정부는 이와 함께 두만강류역 국경지대에 새로운 고을을 설치하였다. 1398년에 공주를 경원부로 승격배치하였고 1432년에는 경성군 석막을 중심으로 녕북진을 설치하였다.

1434년에는 군사상 중요한 지대인 회령진을 회령도호부로 배치하였으며 1435년에는 종성군과 공성현을 배치하고 1437년에는 공성현을 경흥도호부로 개편하였다.

또한 1440년에 온성군을, 1449년에는 부령군을 도호부로 승격배치하였다. 두만강연안의 새로 배치된 6개 고을은 모두 진을 겸하였으므로 6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의 방비를 강화할 목적밑에 읍성과 진, 보를 건설하였으며 주요 지대에는 행성(긴 성)을 쌓았다.

또한 남쪽지역의 주민들을 이곳에 이주시켜 녀진족의 침입을 막으며 그 지역을 개척하게 하였다. 이것은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되찾는데서 의의를 가지였으며 북부국경지대의 방비를 강화하고 생산을 장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함길도(함경도)농민전쟁에 대하여

15세기 후반기 리조봉건정부는 왕권을 강화하면서 함경도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하여 함경도에서 이름난 토호였던 리시애는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반란을 꾀하였다. 그는 벼슬길이 막히자 정부군이 함길도를 공격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식량과 무기를 준비하고 지휘부를 조직하였다.

리시애는 1467년 5월에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함길도 절도사와 길주목사를 죽인 후 고을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정부에 이곳 출신의 관리를 내려보낼것을 요청하면서 각

고을에서 남쪽출신의 관리들을 처단하도록 하였다. 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농민들이 투쟁에 나섰으며 폭동은 농민전쟁으로 전환되였다.

당황한 봉건정부는 리준이라는자를 우두머리로《토벌군》을 내몰았다.

6월 하순 농민군이 《토벌군》을 북청읍에 끌어들이고 전투를 진행하여 놈들에게 타격을 가하자 적들은 함흥으로 퇴각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농민군의 지휘부에서 일어난 동요로 하여 농민군은 북쪽으로 후퇴하게 되였다. 후퇴도중 농민군은 리시애의 지휘밑에 만령고개에 진을 치고 《토벌군》의 공격을 여러번 물리쳤으나 수적으로 우세한 《토벌군》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이러한 때 지휘부층에 기여들었던 토호들은 투항하거나 도망쳤으며 하여 농민군도 흩어지게 되였다.

리시애는 변절한 토호들에게 붙잡혔으며 《토벌군》에 의해 처형당하였다.

농민전쟁은 옳은 지도를 받지 못하고 지도층에 있던 토호들의 동요와 량면성으로 실패하였으나 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고무를 주었다.

임진조국전쟁의 개시에 대하여

임진조국전쟁은 1592년－1598년에 우리 인민이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벌린 반침략전쟁이다.

16세기 리조봉건통치체계가 문란해지고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계급적모순은 날로 첨예화되였다.

또한 봉건통치부안에서는 당파싸움과 재산, 노비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나라의 국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00여년간 지속되여오던 내란을 수습하고 정권을 잡은 일본봉건령주 도요또미 히데요시는 조선침략을 통해 해외침략의 야망을 실현하고 반대파세력을 약화시키며 자기 정권을 안정시키려고 하였다. 하여 침략무력을 실을수 있는 배를 만들게 하였으며 조선침략을 위한 지휘부를 나고야에 설치하고 침략의 구실을 만들

려고 책동하였다.

오래전부터 침략준비를 해오던 일본침략자들은 1592년 4월 13일에 우리 나라를 단숨에 삼키려고 20만의 병력으로 쯔시마를 거쳐 부산에 침입하였다.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임진조국전쟁이 시작되였다.

4월 14일 부산과 동래의 군민은 부산첨사 정발과 동래부사 송상현의 지휘밑에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에게 첫 타격을 주었다.

적들은 나라의 방비가 약한 틈을 타고 3개 방향으로 갈라서 서울로 달려들었다.

놈들이 서울을 강점한 후 고니시 유끼나가(소서행장)는 평안도로, 가또 기요마사(가등청정)는 함경도로, 구로다 나가마사(흑전장정)는 황해도로 침입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파괴와 략탈,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지어 놈들은 산 사람의 코와 귀까지 잘라 바치였다.

놈들의 침략만행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은 륙지와 바다에서 나라와 겨레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침략을 위해 1592년 4월 13일에 부산에 기여들었다.

부산과 동래의 군민은 부산첨사 정발과 동래부사 송상현의 지휘밑에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과 항전을 벌려 용감히 싸웠다.

일본침략군은 5월에는 수도 한성(서울)을 강점하고 계속 북쪽으로 기여들었다.

놈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략탈, 파괴, 학살만행을 감행하였으며 지어 산 사람의 코와 귀를 베여 바치게 하고 그것으로 공을 평가하였다.

우리 인민은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도처에서 의병을 조직하였으며 무장을 들고 침략자들과 싸웠다.

바다에서는 리순신장군이 지휘하는 조선수군이 1592년 5월부터 9월까지 4차례의 출전으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남해바다가에서 왜놈수군이 격멸되자 침략자들의 수륙병진계획은 파탄되였다. 대표적인 바다싸움은 옥포앞바다에서 진행된 옥포앞바다싸움과 사천앞바다에서 있은 사천앞바다싸움, 한산도앞바다싸움, 부산앞바다에서의 대승리이다.

이외에도 조선수군은 여러차례 출전하여 왜적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바다싸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륙지에서도 각지 인민들이 의병을 뭇고 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다.

경상도에서는 곽재우가 의병투쟁의 첫 봉화를 들고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섰으며 여러 지역을 차지하여 경상도안의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평안도일대에서는 림중량과 차은진, 휴정(서산대사)이 지휘하는 의병부대가 조직되였으며 황해도에서는 김만수, 충청도에서는 조헌 등이 의병부대를 조직하였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의병부대가 조직되여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을 벌리였다.

대표적인 전투는 연안성방어전투와 진주성방어전투, 평양성탈환전투, 행주산성방어전투 등을 들수 있다.

리정암의병부대는 연안성에서 방어태세를 갖추고 구로다 나가마사가 거느린 침략군이 성을 포위하고 달려들자 적들에게 돌과 끓는 물을 퍼부었으며 적들이 충차를 가지고 공격하자 돌벼락과 총탄으로 무리죽음을 주고 대승리를 거두었다.

각지에서 벌어진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궁지에 빠진 침략자들은 적장 하세가와의 지휘밑에 진주성에 달려들었다. 진주성에서는 김시민의 지휘밑에 든든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돌벼락, 불뭉치와 진천뢰, 질려포 등으로 명중탄을 퍼부었으며 여러날동안 치렬한 전투끝에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이때 곽재우, 리달 등이 지휘하는 의병부대가 진주성으로 달려드는 적들에게 뒤로부터 타격을 가하여 성을 지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김응서장군이 지휘하는 관군과 여러 의병부대들은 수많은 적을 소멸하고 평양성을 되찾았으며 권률장군이 지휘하는 군대는 행주산성싸움에서 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

었다.

일본침략자들은 1597년에 14만여명의 대군으로 2차침입하였다.

당시 무능한 통치배들은 리순신장군을 해임시키고 원균에게 3도수군통제사직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러나 원균에 의해 수군이 싸움에서 패하자 당황한 정부는 다시 리순신장군을 임명하였다.

애국적인민들과 군인들은 륙지와 바다에서 왜적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을 벌리였다.

대표적으로 직산전투(1597년 9월), 울돌바다싸움, 로량앞바다싸움을 들수 있다.

아군련합군은 직산계선에서 소사평의 유리한 지세에 의거하여 강력한 기습전과 맹공격, 포사격으로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수군을 다시 수습한 리순신장군은 울돌바다싸움에서 적들의 기도를 미리 간파하고 유리한 지리조건을 리용하면서 능란한 지휘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이때 리순신장군은 12척의 함선으로 300여척의 적함선을 공격하였으며 조선남해의 제해권을 다시 틀어쥐였다.

하여 7년간 계속되던 임진조국전쟁은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임진조국전쟁의 승리는 애국적이며 용감한 인민들과 군인들, 리순신장군을 비롯한 애국명장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해 이룩되였다. 우리 인민들은 이 전쟁을 통하여 왜놈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나라를 지켜냈으며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지켜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5세기－16세기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대표적인 과학기술발전성과와 문화에 대하여

15세기－16세기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기술, 문화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훈민정음》의 창제: 《훈민정음》은 1444년 1월(음력 1443년 12월)에 우리 인민에 의해 창제된 민족글자이다.

우리 인민은 세나라시기부터 리두문자(한자를 리용하여 우리 말을 적은것)를 써왔다.

그후 세종왕은 정린지, 성삼문, 신숙주, 최항 등 집현전의 학자들로 글자연구사업을 진행하게 하였으며 1444년 1월에 고유한 민족글자를 만들고 그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세상에 내놓았다.

《훈민정음》은 우리 말을 그대로 자유롭게 표기할수 있을뿐아니라 그 어떤 말소리든지 다 적을수 있는 글자로서 말소리를 내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측우기: 우리 인민은 1441년 8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쇠로 만든 측우기를 창안하였다.

당시 각 지방에서는 비내림정도를 땅에 비물이 스며들어가는것으로 측정하였는데 이것은 토양조건에 따라 달랐다.

하여 1441년 8월 서운관에서 높이 2자, 직경 8치의 쇠로 된 측우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비물을 받아 강수량을 정확히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 그것을 만들어 설치하도록 하였다.

유럽에서는 1639년 이딸리아사람인 베네데또 까스뗄리가 수량계(측우기)를 가지고 비내리는 량을 재였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측우기보다 근 200년이나 뒤떨어진것이다.

흠경각: 흠경각은 시간측정과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계절의 변화 등을 한눈에 볼수 있게 만든 하나의 종합적인 시설이 설치된 건물이다.

여기에는 장영실을 비롯한 기술자들이 만든 자동물시계인 옥루기륜을 설치하였다.

《향약집성방》: 이 책은 15세기 초엽까지 우리 나라에서 달성한 고려약의 연구업적과 국내약재로 병치료를 한 경험을 종합한 고려의학림상전서이다.

로중례, 유효통, 박윤덕 등이 1431년에 집필에 착수하여 1433년에 85권으로 편찬하였다.

《동의보감》, 《의방류취》와 함께 우리 나라 3대고려의학고전

의 하나이다.

《의방류취》: 15세기까지의 동방의학의 성과들을 집대성한 고려의학백과전서적인 총서이다.

1433년부터 1445년까지 로중례, 김례몽 등 여러 학자들이 365권으로 편찬한것을 그후 세차례의 교열, 수정을 거쳐 1477년에 266권으로 출판하였다.

총론에는 진찰, 처방, 약먹는 법, 의사가 지녀야 할 품성, 치료원칙 등이 서술되였으며 각론에서는 내과, 외과, 안과, 구강과, 부인과 등 현대의학에서 취급되는 모든 질병들을 다 포괄하여 95개의 병문으로 나누고 병의 원인, 증상, 치료법 등을 밝혔다.

《고려사》와 《리조실록》: 《고려사》는 고려왕조기간 475년의 력사를 기록한 책이다.

고려왕조가 망한 후 앞선 왕조의 전사를 쓰는 봉건시대 력대 편찬의 관례에 따라 1451년 리조봉건국가의 춘추관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기전체형식으로 편찬되였다.

전 139권으로 된 책은 김종서, 정린지 등이 집필하였다.

책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 과학 등 사회생활의 전반에 이르기까지의 력사자료들이 서술되였다.

《리조실록》은 리조봉건국가가 존재한 기간의 사실들을 기록해놓은 력사책이다. 1 763권으로 되여있는 《리조실록》은 세계최대의 력사책으로 되고있다.

《리조실록》은 《삼국사기》, 《고려사》와 달리 일지형식으로 서술되였다. 《리조실록》에는 1대왕인 태조로부터 마지막 왕 순종에 이르는 27대의 력사가 왕대별, 년, 월, 일순서로 종합적으로 기록되여있다.

거북선: 거북선은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완성된 세계최초의 철갑선이다. 배가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이와 비슷한 병선을 창안한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1413년에 처음으로 건조하여 림진강에서 성능시험을 하였으며 1591년에 리순신장군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되면서 앞선 배

무이기술에 기초하여 전쟁직전에 거북선을 완성하였다.
배의 저판(밑판)의 길이가 64자 8치이고 너비는 머리부분이 12자, 가운데부분이 14자 5치, 고물부분이 10자 6치이다.
배의 좌, 우 현판(옆면)은 맨 아래가 68자, 맨우는 113자(이것을 배의 총길이로 볼수 있다.)이며 높이는 7자 5치였다.
거부기머리모양을 배의 앞머리에 설치하고 그속에서 류황, 염초를 태워 입에서 안개같은 연기를 내뿜어 적들에게 공포를 주며 배의 웃면에 좁은 길만 내고 나머지부분에는 칼날과 송곳을 꽂아 적들이 배우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다.
거북선은 앞뒤로 길죽하고 높이가 낮은 포물선형태의 병선이다.
비격진천뢰: 임진조국전쟁초기에 만들어져 리용한 신관이 있는 시한탄이다.
당시 화포기술자였던 리장손은 종래부터 일부 리용하던 진천뢰를 개량하여 《대완구》를 비롯한 포로 발사할수 있게 만들었다. 비격진천뢰는 포에 넣고 쏘아 500보－600보가량 날아가 떨어진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나 터지게 되여있다. 이때 폭발시간은 참대통안에 있는 신관으로 조절한다.
1592년에 왜적이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경주성을 되찾는 싸움에서 사용하여 적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주었다.
시가문학과 건축, 미술: 이 시기 김종서, 남이 등이 녀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북방개척과 관련하여 지은 시들은 반침략애국사상을 내용으로 한 작품들이다.
또한 대표적인 소설은 김시습의 소설집《금오신화》에 있는 소설들과 림제의 《재판받는 쥐》이다.
건축에서는 평양의 보통문(고구려가 수도성인 평양성을 쌓을 때 건설하였던것을 여러차례 개건보수하다가 1473년에 고쳐지은것이다.), 서울의 남대문(1398년에 짓고 1448년에 개축하고 1479년에 대보수하였다. 리조봉건국가의 수도성의 남문이며 원래 이름은 숭례문이다.), 개성의 남대문(1391년－1393년에 세우고 1899년에 보수하였다.) 등을 비롯한 건축물들을 들수 있다. 대표적미술작품으로는 안견이 그린 그림 《꿈에 본 동산》, 신사

임당이 그린 그림 《가지》, 리상좌의 그림 《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와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리정 등이 그린 《풍경》, 《반석》, 《주막》, 《씨름》, 《집짓기》, 《서당》, 《농민과 량반》 등을 들수 있다.

음악분야도 발전하였다.

이 시기 박연 등의 음악가들이 있었으며 《여민락》, 《치화평》 등 많은 음악작품들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에 대하여

18세기부터 봉건사회의 울타리안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적관계란 돈많은 부자들이 생산도구와 원료를 마련해놓고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면서 상품을 생산하게 하는 관계를 말한다.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하려면 우선 신분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재산도 없어 품팔이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지주에게 땅을 빼앗기고 살길을 찾아헤매다가 도시와 농촌에서 품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였다.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전하면서 이들은 로동자 즉 로동계급으로 되였다. 다음으로는 많은 돈을 가진 부자(자본가)가 있어야 했다.

또한 화페가 대대적으로 류통되여야 한다.

리조봉건정부는 1678년 《상평통보》라는 구리돈을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청들에서 일제히 전국적으로 류통시켰다.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관계는 광산들에서 먼저 발생하였다.

그후 자본주의적관계는 광업뿐아니라 수공업에서도 발생하였다.

이 시기 개인들의 제철 및 철가공수공업이 빨리 발전하였다.

이런 수공업은 개천지방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정주의 납청지방에서도 생겨나 발전하였다.

공노비《해방》과 1811년－1812년 평안도농민전쟁에 대하여

리조봉건사회에서 최하층의 신분으로서 온갖 멸시와 억압, 착취를 당해온 노비들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서 싸웠다.

노비신분의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자 노비제도는 점차 무너지게 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노비들이 노비대장에서 빠져나가 실지 공노비가 얼마 남지 않고 이름만 남아있는 조건에서 이 제도를 페지함으로써 저들의 《선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노비들의 투쟁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1801년에 서울에서 노비들을 모여놓고 공노비의《해방》을 선포하고 노비문서를 불살라버리면서 그들을 량인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 각 관청소속의 노비들을 해방하였을뿐이지 전국의 도, 읍과 현, 군들에 소속된 관노비, 역노비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또한 공노비들은 《해방》되였으나 토지와 그밖의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하고있으므로 그들의 사회계급적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1800년부터는 안동김가의 세도정치로 농민들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더욱 심하였다.

하여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날로 커갔다.

그중에서 다른 지방보다 지방적차별대우와 멸시가 크고 다른 지방보다 많은 부담을 가지고있는 평안도인민들의 반항심이 더욱 높았다.

특히 평안도일대의 농민들은 물론 상인, 광산업자들속에서 세도정치, 봉건통치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서북지방 량반들까지도 불만을 품게 되였다.

평안도출신인탓으로 과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급제하지 못한 홍경래는 상인이며 광산기업주인 우군측, 상인인 리희저 등과 손을 잡고 농민전쟁준비를 다그쳤다.

그들은 농민, 도시빈민, 품팔이군 등을 집결하여 비밀리에 군사훈련을 시켰으며 일단 유사시에 들고일어나도록 각 고을에 사람을 파견하고 1811년 12월 18일에 폭동을 일으켰다.

당시 안동김가 김조순은 1800년에 어린 순조왕에게 자기 딸을 시집보내고 왕의 장인으로 되여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독판치는 정치를 하였다.

이것은 봉건통치질서가 허물어지고 문란해졌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농민군은 두개방향으로 진출하여 열흘도 못되는 사이에 청천강이북의 중요지대를 차지하였다.

홍경래가 지휘하는 부대는 박천을 점령하고 청천강연안으로 진출하여 관군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부원수 김사용이 지휘하는 부대는 정주, 곽산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진출하였으며 수많은 농민들이 봉기에 참가하여 부대는 대부대로 되였다.

그후 부대를 확대한 홍경래는 력량을 집중하여 안주를 점령하고 평양—서울로 공격하기 위해 안주 맞은편으로 진출하였다.

봉건정부는 안주에 많은 《토벌군》을 파견하여 농민군을 공격하게 하였다.

하여 수적으로 적은 농민군은 정주성으로 퇴각하게 되였다.

관군은 4분의 1밖에 안되는 농민군을 수차례 공격하였으나 성안의 농민군은 완강한 방어와 기습전으로 적을 격퇴하였다.

성을 점령할수 없게 되자 《토벌군》은 성밑으로 땅굴을 파고 화약을 폭발시켜 성을 무너뜨리고 공격하였다.

홍경래는 이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다 전사하였으며 수많은 인민들이 학살되였다.

하여 4개월동안 진행된 농민전쟁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농민봉기는 봉건통치배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인민대중의 힘을 시위하였다.

3정착취란 무엇이며 1862년 진주농민폭동에 대하여

1862년에 나라의 곳곳에서는 3정착취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기세가 날로 높아갔다.

3정착취란 봉건통치배들이 농민들에게 들씌우는 전정, 군정, 환정에 의한 착취이다.

전정: 봉건국가가 농민들의 토지소유면적에 따라 그들로부터 곡식을 받아내는 착취를 말한다.

군정: 군대에 복무할 농민들로부터 군대에 복무하지 않는 대가로 군포를 빼앗아내는 착취를 말한다.

환정: 봉건국가가 매 집에다 봄에 국가창고의 쌀을 꾸어주고 가을에 리자를 덧붙여 받아내는 착취를 말한다.

환정은 3정가운데서 가장 가혹한 착취이다.

1862년 진주농민폭동은 병마사 백락신이 진주에 와서 1년도 못되는 기간에 인민들에게서 거의 10여만냥이나 되는 많은 돈을 악착한 방법으로 빼앗아낸것이 원인으로 되여 일어났다.

1862년 2월 14일에 류계춘, 리계렬, 김수만 등의 지휘밑에 봉건통치배들의 환자와 도결전수탈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의 주력으로 초군(땔나무를 해다 팔아서 살아가는 극빈한 농민)을 선정하고 그들을 선두로 한 폭동군은 덕산장마당을 들이쳤으며 그후 여러 마을에서도 폭동이 일어났다.

머리에 흰수건을 동이고 들고일어난 폭동참가자들은 진주주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악질량반지주놈들과 그들의 집을 불사르며 진주읍으로 쳐들어갔다.

진주읍을 점령하고 인민들을 못살게 굴던 량반지주를 처단하였으며 백락신을 붙잡고 환자착취를 그만둘것을 다짐받은 폭동군은 자기들의 소원이 풀릴것이라고 생각하고 흩어져가는 잘못을 저질렀다.

봉건정부는 급히 병마사와 목사를 파면시키는 한편 100여명의 폭동참가자들을 체포하였으며 류계춘, 김수만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투쟁의 불길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일대를 휩쓸었다.

1862년 2월에 진주에서 일어난 폭동은 전국적인 농민폭동의 도화선으로 되였으며 그해말에는 온 나라에 퍼지게 되였다.

그러나 폭동은 봉건통치배들의 책동과 농민들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단결하여 싸우지 못한 결과 실패하였다.

하지만 폭동은 봉건통치배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대원군의 집권과 쇄국정치에 대하여

대원군(리하응)은 리조봉건국가의 제26대 왕인 고종의 아버지이며 1863년부터 1873년까지 근 10년간 실권을 장악하였던 리조봉건국가의 통치자이다.

대원군은 리조 25대왕 철종이 아들이 없이 죽은 후 자기의 둘째아들인 12살나는 리명복이 왕(고종)이 되자 어린 왕의 정사를 돕는다는 구실로 10년간 실권을 장악하게 되였다.

당시는 농민들의 반봉건투쟁에 의해 봉건제도가 무너져가고 자본주의렬강들의 침략이 심하게 나타나던 시기였다.

그는 정권을 장악하자 무너져가는 봉건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봉건적《개혁》을 실시하였다. 우선 대대적인 세도정치를 없애고 왕권에 기초한 강력한 정치적지배권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안동김가출신 관리들을 밀어내고 3정(전정, 군정, 환정)의 문란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왕궁건설공사를 벌리였다.

대원군은 대외적으로 외래침략을 물리치는 한편 나라의 문을 닫아매는 쇄국정치를 실시하였다.

당시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은 우리 나라를 자기들의 상품판매지, 원료원천지로 만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였다. 대원군은 자본주의나라들의 침략책동이 강화되는 조건에서 침략의 길잡이인 카톨릭교도들을 탄압하였고 침략선을 막기 위해 해안선방어와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대원군의 일련의 이러한 조치는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의 침략세력을 막고 봉건국가의 실권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길을 막아버리는 후과를 가져왔다. 대원군의 이러한 모든 정책은 무너져가는 봉건제도를 유지하고 추켜세우려는것이였다.

그러나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결코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책으로 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놈들의 침략을 견제하면서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나라의 국력을 강화할대신 나라의 문을 닫아매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나라로 되게 하였기때문이다.

실학이란 무엇이며 그 진보성과 제한성에 대하여

17세기에 발생하고 19세기 중엽까지 발전하여온 실학은 진보적인 학문으로서 우리 인민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되고있다.

실학이란 《실지로 쓸모있는 학문》을 연구하되 그것을 《사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할것을 주장한 학문체계를 말한다.

즉 《쓸모있는 학문》, 《실용지학》의 줄인말이다.

우리 나라에서 실학의 대표자들은 17세기의 리수광, 류형원, 18세기의 리익, 홍대용, 박지원 등이며 19세기 전반기에는 정약용, 리규경, 최한기 등을 들수 있다. 실학자들이 쓸모있는 학문이라고 본 학문은 주자성리학의 《성명의리》 등과 같은 빈말공부가 아니라 점차 경제, 군사교육과 우리 나라의 력사, 지리, 언어, 문화, 풍습 등에 관한 학문을 의미하였다.

17세기에 봉건제도는 자체모순과 반동성, 부패성으로 붕괴되여가기 시작하였으며 사회경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18세기에는 새로운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발전하게 되였다.

봉건통치제도의 사상적도구인 주자성리학은 공리공담으로 타락되고 반동화되였으며 이 시기에 일부 진보적량반계층의 학자들속에서는 새로운 학문인 실학이 발생하였다.

당시의 실학은 봉건왕조에 의한 사회력사적조건과 자신들의 량반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봉건유교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봉건제도자체를 부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조건에서는 진보적인 의의를 가지며 개화사상가들과 애국문화계층사상가들에 의하여 계승되고 사회문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실학자들이 연구하는 학문은 큰 나라의것만 따르고 자기것을 업수이 여기는 사대주의적인 봉건량반들과는 달리 조선의 력사와 지리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것을 기본으로 연구하는것이다.

그들은 낡은 봉건적인 제도를 고칠것을 주장하였다.

침략선 《셔먼》호의 격퇴에 대하여

19세기 30년대부터 조선침략을 시도한 미제침략자들은 침략의 척후병으로 침략선 《셔먼》호를 파견하여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침략선 《셔먼》호의 침략목적은 평양주변의 옛 무덤들에 묻혀있는 금은보화를 략탈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봉건정부를 굴복시켜 불평등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놓는데 있었다.

침략선 《셔먼》호는 1861년—1865년에 미국 남북전쟁에 참가한 군함으로서 전쟁후 악명높은 셔먼놈의 이름을 붙인 함선이다.

당시로서는 발전된 전투함선이였다.

침략선 《셔먼》호는 오래전부터 중국과 웰남, 타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해온 침략선으로서 4문의 대포와 무기들로 장비되여있었다.

놈들은 선원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조선의 산천구경을 떠난다고 구실을 대면서 1866년 6월 18일 중국의 천진을 떠나 1866년 7월 7일(양력 8월 16일) 대동강 하구에 기여들어 통상이요, 무역이요 하는 구실로 침략의 목적을 가리우려고 하였다.

배에는 프레스톤을 두목으로 하고 토마스를 길잡이로 하는 수십놈이 타고있었다.

봉건정부에서는 외국과의 교역은 국법으로 금지되였으니 돌아갈것을 놈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놈들은 오만무례하게도 위협공갈을 꾀하였으며 대동강을 거슬러오르면서 도발행위와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특히 18일에는 경계근무중에 있는 평양감영의 중군을 비롯한 세명의 조선군인을 랍치하여 두명은 살해하였으며 중군은 침략선 《셔먼》호에 억류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평양감영에서 그를 석방할것을 요구하자 놈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쌀 1 000섬과 많은 금, 은, 인삼을 내놓을것을 강요하였다.

미국놈들의 만행과 강도적요구에 크게 격분한 평양의 인민들과 군인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 떨

쳐나섰다.

이 싸움의 앞장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 서계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만경대와 평양의 인민들을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궐기시키시는 한편 《화공전술》로 적을 소멸할것을 발기하시였다.

7월 22일 침략선 《셔먼》호를 격멸하기 위한 총공격이 시작되였다.

선생님께서는 애국적인민들과 군인들로 결사대를 조직하시고 여러척의 작은 배를 한데 묶은 다음 나무단을 가득 싣고 불을 달아 상류에서 침략선 《셔먼》호에로 떠내려보내게 하시였다.

하여 7월 24일 침략선 《셔먼》호는 불에 타 대동강에 처박히였고 거기에 탔던 놈들도 모조리 죽었다.

이것은 조선인민이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첫 승리였다.

침략선 《셔먼》호에 장비되였던 대포와 닻줄은 그대로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보존되여있다.

침략선들인 《쉐난도아》호와 《챠이나》호의 격퇴에 대하여

미제는 침략선 《셔먼》호침입에서 단호한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 1868년 침략선들인 《쉐난도아》호와 《챠이나》호를 우리 나라에 침입시켰다.

《쉐난도아》호의 침입목적은 침략선 《셔먼》호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내여 조선봉건정부를 굴복시키며 침략적인 조약을 체결하는것이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다른 한편 침략선 《챠이나》호를 충청도 아산만에 침입시켜 남연군(대원군의 아버지)묘를 도굴하고 남연군의 뼈와 부장물을 강탈하며 이것을 미끼로 불평등적인 조약을 맺을것을 타산하였다.

두 침략선을 동시에 다른 지방에 침입시킨 목적은 우리 인민의 력량을 분산시켜 반침략투쟁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이다.

미제는 1868년 3월 18일 침략선 《쉐난도아》호를 황해도 풍

천부(과일군)앞바다의 허사진 송우포에 침입시키였다.

침략선 《쉐난도아》호는 황해도와 청천강이남 평안도지방의 연해를 오르내리면서 총포탄을 쏘아대고 대동강으로 침입할 기회를 노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는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떨쳐나선 평양인민들의 투쟁의 앞장에 서시여 새로운 진지방어전술로 적을 격퇴할데 대한 전법을 내놓으시였으며 의용대를 무을것을 발기하시였다.

《쉐난도아》호는 수로측량과 정찰을 목적으로 4월 4일 동진포대앞에 종선(뽀트)을 들여보냈다.

지형상 중요한 지대인데 크게 저항을 받지 않자 큰 방어시설이 없다는것으로 단정한 적들은 4월 7일 대동강을 거슬러 기여들었다.

침략자들의 배가 동진포대의 철섬사이에 기여들었을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집중포사격을 안겨 격퇴하였다.

한편 4월 8일에 젠킨스를 우두머리로 한 300여명의 강도단은 침략선 《챠이나》호를 타고 조선을 향하여 상해를 출발하여 충청도 아산만에 기여들었으며 4월 18일에 홍주군 행담도를 거점으로 덕산군 가야동에 침입하여 18일 밤부터 19일 새벽사이에 남연군묘를 도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주변의 군인들과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한 침략자들은 덕산에서 쫓겨가던 도중 영종도앞바다에 기여들어 략탈만행을 감행하였으며 영종도 수비병들의 반격에 의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망치였다.

이 시기인 4월 26일에 침략선 《쉐난도아》호도 대동강 하구에서 쫓겨나고말았다.

1871년 《신미양요》에 대하여

미게침략자들은 1868년이후에도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계속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대규모침공에 앞서 그 준비를 서둘렀다.

우선 놈들은 1869년에 4척의 군함을 중국연해에 있던 아시아

함대에 배속시켰으며 조선침략을 가상한 훈련까지 진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871년 1월 조선정부에 협박장을 보내여 저들의 대규모무력침공을 선포한 후 3월 상해를 떠나 나가사끼에 가서 5척의 군함과 80문의 포, 1 000여명의 침략군으로 구성된 함대를 조직하고 침략준비를 다그치였다. 침략준비를 끝낸 침략자들은 중국주재 미국공사 로우와 미국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제쓰를 우두머리로 하여 1871년 4월 충청도 해미현 가덕포부근에 기여올라 4월 8일에는 서울침공의 거점으로 정한 강화도 남쪽 물치도부근에 침입하였다.

놈들은 2척의 군함과 4척의 소함정으로 강화도해협 손돌목으로 침입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때 손돌목을 지키던 광성진포대, 덕포진포대, 덕진포대의 군인들이 집중포화를 들씌워 주력함《모노카시》호를 격상시키고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리조정부는 적들이 보내온 《최후통첩》에 대하여 침략행위를 그만두고 물러갈것을 경고하면서 적들의 군사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키였다.

침략자들이 이번에는 서울의 관문인 강화도를 강점하려고 450여명으로 강화도 남쪽 초지진으로 달려들자 첨사 리렴의 지휘밑에 그곳 수비병들은 야간기습전을 벌려 적 100여명을 살상하고 침략군을 물리치였으며 24일에는 광성진에서 전투를 진행하여 적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함포사격의 엄호밑에 적주력은 초지진포대와 덕진포대를 파괴하고 광성진포대로 달려들었다. 한편 적들의 다른 부대는 저들의 주력을 엄호하면서 광성진 서남쪽으로 침입해왔다.

당시 70여명의 수비병밖에 없던 광성진포대에서는 진무종군 어재연의 지휘밑에 수적으로 10배나 우세한 적들과 용감히 싸웠다. 이 전투에서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으며 결과 4월 25일 적들은 배를 타고 물치도부근으로 패주하고말았다.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실현할수 없게 된 놈들은 위협적인 외교방법으로 리조정부를 굴복시키려 하였다. 놈들은 협박장을 부평부사

앞으로 여러건 보냈으나 그때마다 거절당하였다.

조선인민의 완강한 항전에 의해 침략자들은 5월 16일에 쫓겨가고말았다.

1866년 프랑스침략의 격퇴에 대하여(병인양요)

오래전부터 조선침략의 야망을 품어온 프랑스침략자들은 1866년 침략의 길잡이로 침입시켰던 프랑스선교사 9명을 조선봉건정부가 처단하자 이것을 구실로 삼고 저들의 극동함대를 우리 나라에 침입시켰다.

1866년 8월 12일(양력 9월 20일) 프랑스극동함대 사령관 로즈는 3척의 군함으로 강화도 남쪽 물치도부근에 침입하였으며 8월 18일에는 서울이 눈앞에 바라보이는 한강에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프랑스침략군이 침입하자 봉건정부는 군대를 파견하여 서울과 한강연안일대의 방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인민들은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에 떨쳐나섰다. 하여 8월 23일 침략자들은 우리 인민의 반침략기세에 겁을 먹고 서둘러 도망치고말았다.

그후 9월 5일 적들은 중국과 일본에 있던 7척의 군함과 2 5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또다시 침입하였다.

적들은 강화도일대에 기여들어 8일 강화성을 공격하였다.

강화성의 애국적인민들은 희생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비겁한 봉건통치배들에 의해 성은 침략자들의 손에 들어갔으며 놈들은 강화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문화재들을 략탈하였다.

놈들은 파렴치하게 선교사처단사건에 관여한 관리들을 처벌하며 불평등조약을 체결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격분한 각지의 인민들은 의용군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섰다.

9월 18일 문수산성에서 첫전투가 진행되였으며 초관 한성근이 지휘하는 군대는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어 서울로 침공하려던 적들의 기도를 파탄시켰다.

적들이 정족산성에 대한 발악적공세를 감행하자 10월 2일 성

의 수비병들은 천총 량헌수의 지휘밑에 동문에 매복하고있다가 기여드는 적들에게 타격을 주었으며 재차 달려드는 적들의 공격을 산성에 의거하여 좌절시키였다. 한편 덕포진을 지키고있던 우리 포병들은 적함선에 집중포사격을 안기였다.

살아남은 놈들은 10월말 연해를 빙빙 돌다가 쫓겨가고말았다.

《운양》호사건에 대하여

《운양》호사건은 1875년 8월 일본침략자들의 군함 《운양》호가 강화도에 침입하여 무장도발을 감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력사에서 서막으로 된 계획적인 군사적도발행위였다.

일본의 침략은 1870년대 중엽에 《정한외교》단계로부터 로골적인 무장도발단계로 넘어갔다.

일본침략자들은 민비일파가 정권을 가로챈 후 정부의 내부가 단합되지 못한 틈을 타서 우리 나라에 대한 강도적무력침공에 착수하였다. 놈들이 《운양》호사건을 도발한 목적은 조선봉건정부를 위협하여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며 나가서 조선을 강점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는데 있었다.

1875년 4월 21일 해군소좌 이노우에는 《운양》호를 끌고 부산에 기여들었으며 봉건정부가 놈들의 침략행위에 항의하자 조일 두 나라사이 《국교회복》을 교섭한다느니, 조선에 있는 제놈들과의 사업상용무로 왔다느니 하며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였다.

놈들은 8월 13일에 청나라 우장까지 가는 배길을 《측정》한다는 구실로 조선연해깊이 침입하였으며 8월 20일에는 월미도앞바다까지 기여들었고 다음날 강화도앞바다에 기여들어 《음료수를 찾는다.》는 구실밑에 초지진포대근처에까지 접근하였다. 놈들이 포대에 접근하자 그곳을 지키던 포병들은 응당한 대응조치로 침략자들에게 불벼락을 안기였다.

이때 놈들은 포소리를 기다렸다는듯이 《운양》호에서 사격을 하면서 도발행위를 하였다. 초지진에서 패한 침략군은 항산도를 불의에 습격하고 살인, 방화행위를 감행한 후 영종진을 습격하

였다. 영종진포대를 완전히 파괴한 침략자들은 성에 기여들어 닥치는대로 살인, 파괴, 략탈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의 포악성, 야만성, 강도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운양》호사건은 조선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감행한 도발행위였다. 이때로부터 일본침략자들의 조선침략은 강도적인 방법으로 감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876년에는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였다.

침략적이고 불평등적인 《강화도조약》에 대하여

1875년 8월 《운양》호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12월에 륙군중장 구로다를 우두머리로 한 7척의 군함과 800여명의 침략군으로 조직한《조선원정함대》는 조선에서 봉건통치배들을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불평등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부패무능한 왕과 통치배들은 침략자들의 무력간섭과 위협공갈에 굴복하고 담판에 응하였다.

하여 조선대표 판중추부사 신헌과 적측대표 구로다사이의 1876년 1월 12일 예비회담을 거쳐 1월 17일에는 정식담판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신헌은 적들이 내놓은 조약초안의 부당성을 사리정연하게 발가놓으면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금칙6개조》를 내놓았다.

일본침략자들은 《금칙6개조》를 구두로 합의만 보고 기본조약체결의 원문에 밝히지 않는 간교한 수법을 조작하고 저들의 침략적요구를 강박하였으며 마침내 2월 3일에는 12개조로 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강압체결하였다.

민가일파와 통치배들이 저들의 봉건통치와 부귀영화만 생각하면서 일본침략자들의 위협공갈에 굴복하여 체결한 조약은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예속적인 조약이였다.

12개의 조항으로 된 조약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5도의 연해에 두곳의 항구를 개항하며 일본인들이 개항지에서 집도 짓고 마음대로 무역할수 있다는것, 조선의 연해를 수시로 측량하며 도면을 만들어 리용할수 있다는것, 지정된 항구에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조선법이 아니라 일본법에 의하여 처리된다는것과 당

분간 관세를 물지 않고 상품을 조선에 끌어들이며 일본화폐를 방출할수 있다는것 등이 규정되여있었다.

이것은 일본침략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리조봉건정부에는 일방적인 의무만을 강요한 불평등조약이였으며 침략적인 조약이였다.

임오군인폭동에 대하여

임오군인폭동은 서울에서 일본침략자들과 리조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애국적인 군인들과 도시빈민들이 1882년에 벌린 투쟁이다.

19세기 80년대에 들어서서 자본주의의 침략과 봉건통치가 더욱 강화되면서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이 더한층 첨예화되고 근로하는 인민들의 생활처지는 극도로 악화되였다.

특히 군인들에 대한 계급적 및 신분적억압과 착취, 일본침략자들의 조선군대에 대한 민족적멸시와 학대는 더욱 불만을 일으켰다.

또한 민비일파는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국가재정을 탕진하면서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

하여 서울의 군인들은 점차 인민들의 반침략, 반봉건투쟁에 합세하여나갔으며 1881년 5월과 8월에는 두차례에 걸쳐 폭동을 시도하였다.

봉미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던 당시 서울의 빈민출신군인들에게 봉미를 13개월만에 한달분을 내주었는데 그나마 규정량의 절반도 안되는데다 썩은 쌀이나 겨, 모래 등이 많이 섞여있는 쌀을 공급하자 격분한 김춘영, 류복만, 정의길 등 군인들이 도봉서 고직이를 때려눕히였다.

바로 이것이 폭동의 동기로 되였다.

봉미지불을 책임진 선혜청 당상 민겸호가 폭동에 앞장섰던 군인들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겠다고 하자 봉건통치배들의 횡포한 만행에 격분한 류복만의 동생 류춘만과 김춘영의 아버지 김장손 등은 통문을 만들고 서울각지의 군인들에게 폭동을 일으킬것을 호소하고 폭동을 일으키였다.

류춘만, 김장손의 지휘밑에 1882년 6월 9일 서울군인들이 폭

동에 궐기하고 먼저 민겸호의 집을 습격한 후 동별영으로 가서 무기고를 들이치고 무장을 갖춘 다음 포도청, 의금부를 습격하였으며 갇히웠던 군인들과 인민들을 석방하였다.

그들은 경기감영에서 3명의 일본놈을 처단하고 감영을 습격하였으며 무기고를 부시고 무기를 빼앗은 다음 일본공사관으로 밀려갔다.

한편 다른 대오는 민태호를 비롯한 정부고관들의 집과 별기군병영을 습격하고 별기군과 합세하여 일본교관 호리모도를 처단하였다.

일본공사관으로 간 폭동군은 그곳을 포위하고 돌과 활을 쏘며《일본공사관을 치자!》,《일본침략자들을 내몰자!》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싸웠다. 이에 겁을 먹은 일본공사 하나부사는 제손으로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인천으로 도망쳤다.

또한 폭동군은 령의정 리최응(대원군 리하응의 형)의 집을 습격하고 그를 처단하였으며 왕이 있는 창덕궁으로 쳐들어가 왕궁에 숨어있던 병조판서 민겸호와 경기감사를 비롯하여 민가일파와 추종분자들, 악질관리들을 처단하였다.

폭동군의 한 대오는 인천으로 가서 그곳 군대와 인민들과 합세하여 일본침략자들을 족쳤다. 하여 6월 9일부터 10일까지 민가일파의 정권을 완전히 몰아내고 폭동은 일단 승리하게 되였다.

조정은 군인들이 일정하게 환상을 가지고있던 대원군을 정권의 자리에 앉히고 군대와 인민을 회유, 기만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거류민《보호》라는 명색으로 조선에 대한 침략을 확대하려고 꾀하였으며 청나라의 반동통치배들은 조선에서 일본세력의 확대를 두려워하면서 대원군정권을 전복하고 저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책동하였다.

충주 장호원에 숨어있던 민비는 청나라에 군대를 청하였으며 자기 일당을 끌어들이는 한편 대원군정권을 전복하고 폭동군인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였다.

6월 27일 청나라군대는 4척의 군함과 수송선 13척에 3 000명의 병력으로 인천에 기여들었으며 6월 29일 일본침략자들은 거류민《보호》라는 구실로 4척의 군함과 2척의 수송선에 1 500여명의 병력을 싣고 인천에 기여들었다.

청나라군대는 대원군을 붙잡아 천진으로 압송하고 7월 16일부터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반동적공세를 감행하였다.

폭동군인들은 불의에 쳐들어온 적들과 마지막까지 결사적으로 싸웠으나 외세의 무력간섭에 의해 진압되고말았다.

폭동은 선진계급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안팎의 원쑤들의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였으나 봉건통치배들과 일본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개화사상의 발생과 개화파의 형성에 대하여

낡은 봉건제도를 없애고 발전된 자본주의제도를 세워 나라를 부강시키자는 개화사상은 19세기 중엽에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로운 진보적사상이였다.

이 시기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적관계가 장성하면서 봉건제도가 점점 무너져가고있었다.

즉 낡은 봉건시대의 법과 신분제도가 없어지게 되였다.

실례로 개인이 광산업을 못한다던 법이 없어지면서 개인광산업이 장성하게 되고 나중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였으며 수공업, 상업부문에서도 그러한 법이 없어지고 개인수공업이 발생하였다.

신분제도에서는 자본주의적관계의 장성으로 돈 많은 사람이 량반신분을 사서 량반행세를 하였으며 돈이 없으면 량반도 평민이 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장을 세우고 기계로 물건을 만들며 철도가 운영되는 등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있던 때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시나 읊고 술이나 마시면서 태평세월을 보내고있었다.

또한 봉건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의 여러곳에서 계속 일어났다.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지고있던 시기 오경석, 류홍기, 박규수 등 뜻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부강발전시킬 방도를 탐구하였다.

이들은 세계가 자본주의방향으로 발전하고있는 추세를 알게 되였으며 봉건제도로부터 자본주의제도로 넘어가야 한다는 환상을 가지게 되였다.

오경석, 류홍기, 박규수 등에 의하여 1850년대에 싹트기 시작한

개화사상은 1870년대－1880년대에 김옥균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김옥균은 정약용(정다산), 박지원 등 실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봉건제도가 낳은 사회악을 알게 되였으며 박규수, 류홍기와 자주 만나는 과정에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개화사상을 가지게 되였고 개화사상의 대표자로 되였다.

개화사상은 봉건제도와 외래자본주의침략을 반대한 사상이였으며 정치분야에서 낡은 봉건제도를 없애고 자본주의제도를 세울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근대산업을 건설하면서 근대적인 학교교육을 실시하고 락후한 봉건풍습과 녀성들의 사회적대우를 개선할것을 주장하였다.

국방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하며 신분제도를 없애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자고 하였다.

제한성은 봉건제도의 테두리안에서 자본주의제도를 세우자고 한 부르죠아사상의 조류였다는것이다.

개화사상이 나온 후 개화사상가들은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김옥균은 과거시험에서 1등을 하여 벼슬길에 나서자 홍영식, 박영교 등 진보적인 관리들과 선비들, 군인들, 자본가들, 《천민》들과 궁녀 등 각계각층 사람들을 개화사상의 지지자로 만들었다.

하여 1870년대초에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치세력이 형성되였다. 이때부터 그들을 개화파라고 하고 봉건제도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반동봉건통치배들을 수구파라고 불렀다.

개화파는 형성된 후 자기 세력을 넓혀나가는 과정에 《충의계》라는 비밀조직을 내왔다.

갑신정변과 실패원인에 대하여

갑신정변은 1884년에 개화파들이 자본주의제도의 수립을 시도하여 무장정변의 방법으로 단행한 부르죠아개혁이다.

1870년대초에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세력인 개화파가 형성되였다.

이때부터 부르죠아개혁은 개화파의 지도밑에 진행되였으며 개화사상은 하나의 정치사상적바탕으로 되였다.

개화파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정개혁을 하며 부르죠아개혁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왕의 전제권력을 리용하면서 국가기구체계의 개편과 정치, 군사, 경제, 교육, 문화에서의 개혁을 촉진시켜나갔다.

그리하여 1881년 5영이 2영으로 개편되고 별기군이 설치되였다.

1882년 7월에는 기무처가 조직되였다.

또한 우정국, 치도국, 순경국, 박문국 등을 설치하였으며 《한성순보》도 발행하였다.

개화파의 활동은 처음부터 수구파의 박해를 받았다.

수구파세력은 개화파성원들을 분산약화시키기 위해 벼슬자리에서 떼거나 외교관으로 다른 나라에 보냈으며 신식군대를 해산시켜 저들이 통제하던 부대에 속하게 하였으며 그 성원들을 비밀리에 죽이려고까지 책동하였다.

이런 정세속에서 개화파는 폭력적방법으로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인정하고 무장정변준비를 추진시키는 길로 나갔다.

개화파성원들은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장성되고 있는 유리한 정세를 리용하여 수구파의 반동공세와 미일침략자들의 파괴음모책동을 타개하면서 정변준비를 다그쳤다.

또한 국왕을 개화파편으로 끌기 위한 사업과 일본을 정변목적에 리용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였다.

1884년 10월 17일 우정국청사락성축하연을 계기로 김옥균이 지휘하는 무장정변이 일어났다.

우선 우정국청사에서 연회를 차리고 수구파의 거물들과 외국공사와 령사를 초청하였다. 여기에는 김옥균, 홍영식 등 개화파성원들과 민영익, 리조연, 한규직, 민병석 등 수구파반동관료들이 참가하였다. 연회가 한창 진행될 때 별궁에 불을 지른 후 그것을 끄러 가는 수구파의 우두머리들을 현장에서 처단하려 하였으

나 방화대원들의 실수로 별궁방화가 제대로 되지 않자 김옥균은 우정국옆집을 불지르게 하였다.

민영익이 맨 먼저 밖으로 나갔다가 개화파행동대원들의 칼에 맞고 연회장에 와서 쓰러지자 수구파성원들은 도망쳤다.

결국 수구파우두머리들을 처단하려던 계획이 실패하게 되자 김옥균은 계획한대로 행동을 계속할것을 알리고 자신이 창덕궁으로 달려가 국왕에게 청나라군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소란을 부리고 있다고 하면서 국왕을 경우궁으로 옮겨앉히였다.

그리고 자기 성원들로 내부경비를 조직하고 일본군에게 외부경비를 맡기였다. 그리고는 왕을 찾아오는 윤태준, 리조연, 한규직 등을 처단하고 민태호, 민영목, 조녕하 등 수구파우두머리들을 왕의 명령으로 불러들여 처단하였다.

10월 18일 아침 새 정부를 구성하고 19일에는 정부의 정강을 내외에 공포하였다.

정강에서는 봉건적전제군주권력을 제한하고 봉건통치기구를 근대적으로 고칠데 대한 문제, 청나라의 내정간섭과 국왕과 민비일파의 사대굴종외교를 종식시키며 독립국가로서의 존엄을 지킬데 대한 문제, 봉건적신분제도를 없애며 재정사무를 단일화할데 대한 문제, 조세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편할데 대한 문제, 환자제도의 폐지 등을 규정하였다.

개화파가 선포한 이 정강은 반침략, 반봉건사상을 반영한 애국적이며 진보적강령이였으며 모든 분야를 근대적으로 변혁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불철저한 부르죠아정강이였다. 이 시기 민비는 정변을 파탄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우선 국왕을 창덕궁으로 옮겨앉게 하였으며 청나라침략자들과 함께 개화파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음모를 꾸미였다.

10월 19일 원세개가 지휘한 1 500명의 청나라군대가 수구파잔당들과 함께 창덕궁을 포위공격하였다.

일본놈들은 개화파와의 약속을 배반하고 황급히 도망쳤다.

결국 창덕궁은 청나라군대가 점령하였고 국왕은 그들의 수중에 넘어갔다.

홍영식을 비롯한 개화파성원들은 적들에게 살해되고 김옥균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인천으로 해서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개화파의 정변은 3일만에 끝나고말았다.

즉 갑신정변은《3일천하》로 되고말았다.

정변의 실패원인은 개화파들의 계급적제한성, 전술적착오, 청나라반동통치배들의 무력간섭과 일본침략군의 배신행위에 있다. 또한 인민대중의 힘을 무시하고 그들을 동원하여 봉건제도를 완전히 뒤집어엎으려 하지 못하고 국왕을 끼고 진보적관료들이 정권을 잡고 국가를 뜯어고치려 하였기때문이다.

갑오농민전쟁과 실패원인에 대하여

갑오농민전쟁은 1894년에 전라도의 농민들이 봉건통치배들과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벌린 대규모적인 투쟁이다.

갑오농민전쟁은 전라도 고부군농민들의 폭동을 계기로 일어났다.

당시 고부군 군수였던 조병갑은 여러가지 세의 명목으로 농민들에게서 엄청난 돈을 받아냈으며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농민들이 진정서를 가지고 고을관청에 찾아가자 그들을 쫓아내고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을 체포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농민들은 전봉준의 지휘밑에 1894년 1월 10일 폭동을 일으키고 고부읍으로 쳐들어가 조병갑을 비롯한 악질관리들을 징벌하고 옥에 갇혔던 사람들을 석방하였으며 쌀창고를 열고 빈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렇게 되여 폭동은 1월 22일에 일단 끝나게 되였다.

당황한 봉건정부는 군수 조병갑을 처벌하고 박명원을 대신 임명하였으며 장흥부사 리용태를 안핵사로 고부지방에 파견하였다. 그들은 죄없는 사람들을 마구 가두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폭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하여 인민들은 또다시 투쟁에 나섰다.

고부군과 주변 인민들은 2월 25일 무기고를 습격하고 3월 1일 세곡창고를 습격하였다.

전봉준은 백산에서 창의문을 발표하여 《보국안민》, 《폐정철폐》를 위한 투쟁에 궐기할것을 호소하였다.

이때부터 고부와 이웃지방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되던 농민폭동은 점차 하나의 집단세력을 이루고 대규모적인 농민전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전봉준은 고부, 태인, 금구, 부안 등지에서 모여온 1만여명의 농민들로 농민군부대를 결성하고 대장으로 되였으며 김개남, 손화중을 부대장으로 하는 지휘부를 조직하고 격문과 4개조로 된 행동강령을 발표하였다.

농민군은 4월 4일 부안을 점령하였으며 6일과 7일에는 고부군 황토현에서 《토벌군》에 대한 불의의 습격전을 벌려 근 800여명의 관군을 살상하고 소총 600여정을 로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농민군은 자체력량을 강화하기 위해 남쪽으로 진격하면서 정읍, 고창, 홍덕, 무장, 령광, 함평 등지를 점령하였다.

이 승리는 경기도, 황해도 등 각지 인민들의 폭동진출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리조봉건통치를 흔들어놓았다.

당황한 봉건정부는 4월 18일 전라감사 김문현을 파직시켰으며 조병갑을 의금부에 가두고 안핵사 리용태를 정배보내는 등 악질관리들을 《처벌》하는 기만조치를 취하는 한편 장위영군대 300명과 강화군대 500명으로 증원군을 편성하고 《토벌》에 내몰았다. 진공방향을 북쪽으로 돌린 농민군은 4월 23일 장성군 월평강 황룡천에서 홍계훈의 정부군선견대의 불의의 습격을 받았지만 많은 적을 소멸하고 승리를 거둔 후 4월말 전주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당황한 봉건정부는 온갖 회유기만책동을 다하였으며 나중에는 청나라군대까지 끌어들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외세를 끌어들이는 한편 농민군에게 화의를 제기하였다.

농민군은 외세의 무력간섭을 미리 막고 나라에 조성된 위기를 구원하려는 자기들의 진실한 사회경제적요구가 반영된 폐정개혁안을 5월 8일 봉건통치배들에게 접수시키고 《화의》를 맺었다. 이것을 《전주화의》라고 한다.

그후 농민군은 전주에서 주동적으로 철수하여 전라도의 53개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페정개혁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일본침략군의 침략과 무력간섭으로 중단되고말았다. 하여 농민군은 일본침략군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였다.

청나라가 농민군탄압을 위해 군대를 충청도 아산만에 상륙시키자 일본침략군은 거류민《보호》의 구실로 침략군대를 끌어들였다. 일본침략군은 《내정개혁》을 강요해나섰다가 거절당하자 6월 21일 조선왕궁을 습격점령하고 왕궁안의 문화재와 보물을 략탈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23일에는 청나라군대를 기습하여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전봉준은 9월 중순 농민군을 수습하고 투쟁에 궐기시켰다. 이에 호응하여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평안도 등 각지의 인민들이 투쟁에 떨쳐나섰다.

농민군은 서울을 진격할 목표를 세우고 그 준비를 갖추었다.

전봉준은 서울진공을 반대하던 동학상층부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충청도 농민군과 련합하여 10월 21일 론산에서 대오를 정비한 후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 진격하였다. 농민군은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경까지 공주지구에서 근 20일간 일본침략군 및 정부군과의 대격전을 벌려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농민군은 일단 대오를 수습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철수하였다.

그후 전봉준은 직속부대만 거느리고 순창일대에 가서 다시 들고일어날 준비를 갖추다가 12월 2일 변절자의 밀고로 체포되였으며 결국 농민전쟁은 실패하고말았다.

실패의 원인은 농민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한데 있으며 농민전쟁의 기본담당자인 농민들자신의 사회계급적제한성, 전략전술적부족점과 일본침략자들의 간섭과 봉건통치배들의 사대매국책동 등에 있다.

비록 농민전쟁은 실패하였으나 19세기 후반기 우리 인민의 반침략, 반봉건투쟁으로서 그 규모에 있어서나 격렬성에 있어서 최고봉을 이룬 농민전쟁이였으며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하나의 력사적사변이였다.

갑오개혁(부르죠아개혁)에 대하여

1894년 농민전쟁은 반봉건적사회개혁을 밑으로부터 힘있게 추동하였다. 특히 리조봉건정부의 집권층속에서도 위기에 처한 저들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나라의 정치를 개혁할데 대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였다.

부르죠아개혁의 실시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당시의 정세의 요구로 나섰다.

결국 이러한 시기에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의 영향을 받아 나라의 근대화를 지향해오던 김홍집, 어윤중 등 혁신관료들이 부르죠아개혁사업에 나서게 되였다.

그들은 1894년 6월 개혁담당기구인 교정청, 군국기무처를 창설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전반적분야에서 봉건관계를 자본주의적관계로 뜯어고치려 하였다. 한편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이 근대화를 실현하면 조선을 강점할수 없다는것을 타산하고 박영효를 군국기무처에 박아넣고 제놈들의 《내정개혁》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여 부르죠아개혁이 실패하게 하였다.

갑오개혁의 실패원인은 인민대중의 힘을 조직동원하지 않고 상층으로부터 진행하려 한것과 일본놈들의 무력간섭 등에 있다.

민비살해사건(을미사변)과 《아관파천》, 《춘생문사건》에 대하여

민비살해사건(을미사변)

19세기말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렬강들의 책동이 강화되였다.

부패무능한 봉건정부의 통치배들은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외래침략세력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대신 제가끔 외세와 결탁하는데로 나갔다.

특히 청일전쟁이후 청나라군대를 밀어낸 일본침략군은 조선을 독점적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책동하였다.

청나라를 등에 업고 정권을 유지해오던 국왕과 민비일파는 청나

라가 패하자 짜리로씨야에 의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본침략군은 봉건정부안에서 친로세력을 제거하고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민비를 없앨 흉계를 꾸미였다.

놈들은 조선주재 일본공사로 군벌출신 미우라를 임명하고 그에게 민비를 살해하도록 하였다.

미우라는 경찰, 깡패,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1895년 8월 20일(양력 10월 8일) 왕궁을 습격하고 국왕과 왕비의 거처인 건청궁을 포위점령하였으며 민비를 찾으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민비의 침실에까지 뛰여든 일본깡패들은 민비와 시녀들을 끌어다 칼로 찔러죽이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체를 화장하고 유골까지도 물속에 처넣었다.

그후 이에 격분한 내외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일제는 미우라를 비롯한 48명의 깡패들을 일본에 끌고가서 《재판》놀음을 벌리고는 《증거불충분》이란 구실로 모두 석방하였다.

이것은 일제야말로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이며 포악하고 야수적인 침략자라는것을 보여준다.

《아관파천》

당시 로씨야를 《아라사》라고 불렀다.

《아관파천》이란 왕이 로씨야공사관(아관)으로 옮겨앉았다는 뜻이다.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품었던 짜리로씨야는 친로세력을 내세워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하려 하였다.

1895년 8월의 민비살해사건과 10월에 미제침략자들이 도발한 《춘생문사건》을 계기로 우리 인민들속에서 반일, 반미감정이 높아지자 우리 나라 주재 짜리로씨야공사는 이것을 리용하여 왕과 왕자를 로씨야공사관으로 빼돌리기 위해 친로세력을 부추겼으며 1896년 2월 11일 밤 국왕과 왕세자(순종)를 로씨야공사관에 옮겨앉게 하고 각본에 따라 친로파세력이 중심이 되여 《내각》을 조작하게 하였다.

짜리로씨야는 친로파정부를 조정하여 오늘의 함경북도 경성, 종성 등의 채광권, 두만강, 압록강 상류지역의 산림채벌권을 비롯하

여 정부의 군사권, 재정권을 틀어쥐였다.

애국적인민들은 친로정권의 조작과 내정간섭을 규탄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리였다.

《아관파천》은 리조말기 봉건통치배들이 사대주의를 한 결과 빚어낸 또하나의 추태였다.

《춘생문사건》

《춘생문사건》은 1895년 10월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나라 왕을 틀어쥐기 위해 리조봉건국가의 왕궁을 습격하여 국왕을 사로잡으려고 한 사건이다.

왕궁의 동북쪽에 있는 춘생문으로부터 쳐들어가려고 하였다 하여 이 사건을 《춘생문사건》이라고 부른다.

당시 일본침략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민비살해사건(을미사변)으로 국왕일파는 심한 정치적불안에 싸여있었고 일본침략자들도 내외의 압력을 받아 궁지에 몰려있었다.

오래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품어온 미제는 이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국왕을 저들의 편에 돌려세워 친미정권을 조작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야망을 쉽게 이루어보려고 하였다.

미제는 1895년 10월 1일(양력 11월 27일) 밤 미국인 덴니가 훈련시킨 시위대를 사촉하여 왕궁을 점령한 다음 국왕을 사로잡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음모를 사전에 알고있던 리조봉건정부는 왕궁의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왕궁에 침입한 시위대병사들의 민족적량심에 호소하여 그들을 정부측에 돌려세웠다.

결과 100여명의 강도들로 왕궁을 습격하였으나 미제침략자들의 왕궁습격음모는 파탄되고말았다.

헤그밀사사건에 대하여

헤그밀사사건은 1907년 6월 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이 비밀리에 사신을 파견한 사건이다.

《을사5조약》이 날조된 후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통감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이로 하여 국권은 더욱 침해당하고 나라와 민

족의 위기는 더 심해졌다.

1907년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였다.

리준, 리상설, 리위종 등 애국지사들은 국왕의 밀서(비밀편지)를 가지고 조선대표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였다.

당시 국왕 고종은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너울을 가리우기 위해 벌려놓은 국제회의에 환상을 가지고 비밀리에 회의에 참가하여 《을사5조약》이 일제의 강도적인 불법날조품이라는것을 폭로함으로써 외세를 등에 업고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리준을 비롯한 3명의 밀사가 국왕의 밀서를 가지고 헤그에 도착하여 회의에 조선대표로 참가할것을 제기하였으나 제국주의자들의 모략음모책동으로 하여 회의의장은 조선대표의 참가를 거부하였다.

특히 일본대표는 날조한 《을사5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구실로 리준일행을 조선대표로 인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악랄하게 방해책동을 하였다.

리준일행은 일제의 조선침략죄행을 국제기자협회의 연단과 여러 출판물을 통해 폭로하고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지지해줄것을 세계여론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일제와 공모결탁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의 책동으로 뜻을 이룰수 없게 되자 리준은 자기의 배를 갈라 죽는것으로 항거하였다.

《헤그밀사사건》은 나라의 자주독립은 외세에 의존하는 청원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탁월한 령도자의 령도밑에 자체의 힘으로 침략자를 몰아내야 이룩될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애국문화운동은 어떤 운동이며 진행형태에 대하여

애국문화운동은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 진보적지식인들이 인민들에 대한 정치, 문화계몽을 목적으로 벌린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의 한 형태이다.

우리 나라에서 애국문화운동은 19세기 70년대~80년대에 발단되

여 1919년 3.1인민봉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반세기에 걸쳐 진행되였다.

이 운동은 봉건적락후성을 가시고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이룩하며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존엄을 고수할것을 지향한 애국애족적인 운동이였다.

이 운동은 애국적인 언론출판활동과 민족교육운동, 국학운동, 문예활동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인민대중속에 반일애국정신과 민족의식을 높이며 근대적지식을 키우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전개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우선 문화계몽단체의 간판을 단 학회를 조직하였다.

애국적지식인들은 일제침략자들이 1905년 1월 집회와 결사를 통제할데 대한 포고령을 내리고 조선인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한 조건에서 정치결사의 간판을 달지 않고 문화계몽단체의 간판을 단 학회들을 조직하여 정치활동을 벌려나갔다.

1906년 10월에는 《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이 두 학회는 1908년초《서북학회》로 통합)가, 1907년에는 《호서학회》, 《관동학회》등 여러 학회가 조직되여 계몽활동을 벌리고 일제의 죄행을 폭로하였다.

다음으로 그들은 언론출판활동을 벌리였다.

이미 19세기말부터 발행되여온 《황성신문》, 《제국신문》밖에 1905년부터 《대한매일신보》를 새로 발행하였으며 《서우》, 《자강회월보》 등 잡지를 발행하고 조선의 력사와 지리에 대한 책들을 민족적립장에서 편찬하였으며 우리 나라 말과 글을 고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학운동을 벌리였다.

또한 도처에 사립학교를 세웠으며 야학도 조직하였다.

대표적으로 평양 대성학교, 정주 오산학교 등을 내왔으며 민족적독립을 유지하고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것을 교육의 기본목적으로 내세웠다.

애국문화운동은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우리 나라 부르죠아민족운동발전에서 일정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국채보상운동에 대하여

국채보상운동은 20세기초 리조봉건정부가 진 빚을 갚기 위하여 우리 인민이 벌린 반일애국운동이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정치적으로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종속시킬 목적으로 리조봉건정부를 강박하여 일본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막대한 량의 《차관》을 끌어들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리조봉건정부는 1 3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였다.

애국적지식인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리조봉건정부가 진 빚을 갚는다면 국권이 회복될수 있는데 봉건정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대한 빚을 갚을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국적범위에서 국채보상운동을 벌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일제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책동으로 하여 중단되고말았으나 국권을 회복하려는 애국적인 운동으로서 우리 인민들속에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반일의식을 높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을사5조약》날조와 일제의 조선강점에 대하여

《을사5조약》은 을사년(1905년)에 5개 조항으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뜻인데 일제가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리조봉건정부를 강압하여 날조한 《한일협상조약》을 말한다.

당시 일제는 우리 나라를 저들의 독점적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우선 1904년에 로일전쟁을 도발하여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던 짜리로씨야세력을 몰아낸 다음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우리 나라를 완전히 강점하는 길에 들어섰다.

일제는 1905년 7월 29일 미제와 《가쯔라—타프트협정》을 체결하고 저들이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을것을 담보하는대신 조선에 대한 어떤 침략행위에 대하여서도 승인한다는것을 약속받은 후 1905년 11월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를 《특사》로 파견하여 리조정부에 조약을 강요하게 하였다.

조약에는 일본정부가 자기의 외무성을 통하여 앞으로 조선에 대한 외교관계 및 사무를 관리하고 지휘하며 조선정부는 일본정부의 중재가 없이는 국제적성격을 띤 그 어떤 조약을 체결하거나 약속할수 없다는것이 규정되여있었다.

이 조약에는 또한 일본정부가 조선에 《통감》을 두고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조선의 각 개항장과 저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에 리사관을 둘것 등이 규정되여있다.

조약은 강도적인 《조약》으로서 이 조약을 체결한다는것은 국권을 완전히 팔아먹는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조선에 기여든 이또는 고종에게 일본왕의 《칙서》를 전하고 이미 짜놓은 조약안을 내놓으면서 도장을 찍을것을 강요하였다.

고종이 이것을 반대하자 군대를 동원시켜 왕궁을 포위하고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대신들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또는 조선주둔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와 함께 회의장에 뛰여들어 대신들을 한명한명씩 위협하면서 찬성인가 반대인가를 따졌다. 반대하는 참정대신 한규설을 회의장에서 끌어내고 5명의 대신들인 《을사5적》의 찬성을 받아냈으며 외부대신의 도장을 찍고는 조약이 체결되였다고 선포했다.

이 조약은 군주국이던 조선에서 왕의 도장, 수표가 없이 위조날조된것이며 침략군대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압적으로 강요한것이다. 일제는 그후 1907년에는 《정미7조약》을 날조하였으며 8월에는 조선군대를 강제해산시켰고 1910년 8월에는 날조된 《한일합병조약》을 강요한 후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였다.

《을사5적》은 을사년(1905년)에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5명의 매국역적이란 뜻으로서 학부대신 리완용, 내부대신 리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군부대신 리근택을 두고 하는 말이다.

3.1인민봉기에 대하여

3.1인민봉기는 우리 인민이 1919년 3월 1일 일제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들고일어나 희생적으로 싸운 전인민적인 반일항전이다.

3.1인민봉기는 나라가 일제에게 강점된 후 근 10년간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민족적분노와 반일감정이 폭발되여 일어났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식민지무단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들을 야만적방법으로 통치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일제의 식민지무단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3.1인민봉기는 종교계사람들과 애국적인 교원, 학생들의 주도하에 그 준비가 면밀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였다.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울분과 사무친 원한은 1919년 3월 1일 낮 12시 우리 인민들의 전민족적인 반일감정으로 폭발되였다. 봉기는 평양에서의 대중적인 시위투쟁을 첫 봉화로 하여 전국에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평양에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몸소 키우신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이 주동이 되여 각계각층의 군중들과 함께 시위에 나섰다.

이날 평양과 서울에서 청년학생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랑독하고 조선은 자주독립국가라는것을 선포하자 군중들은 환호를 올리며 반일항전에 나섰다.

《조선독립 만세!》를 높이 부르며 벌어진 반일항쟁은 삽시에 남포, 안주, 의주, 선천 등으로 급속히 확대되였는데 평화적시위투쟁은 점차 폭동적인 성격을 띠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때 어리신 나이에 만경대인민들과 함께 반일시위에 참가하시여 보통문까지 가시였다.

도처에서 폭동시위자들은 일제강점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족치였으며 투쟁은 중국 동북지방, 로씨야의 연해주, 일본, 하와이 등 조

선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진행되였다.

일제는 봉기를 탄압하기 위해 조선에 주둔한 모든 군대, 경찰을 동원하였으며 일본에서까지 침략무력을 끌어들였다.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일제는 피비린내나는 야만적대중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우리 인민은 희생을 무릅쓰고 싸웠으나 봉기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3.1인민봉기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정신과 투쟁기세를 크게 시위하고 일제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3.1인민봉기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각성을 높여주었으며 탁월한 수령의 령도와 혁명적당의 지도가 없이는 그 어떤 혁명투쟁이든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여야 일제와 싸워 이길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우리 나라에서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약점에 대하여

3.1인민봉기후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면서 각성된 선진투사들에 의하여 대중투쟁이 장성하는 과정에 1925년에는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였으나 그것은 일제의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3년만에 해산되였다.

당시 조선공산당의 지도부안에는 소부르죠아출세주의자들이 들어앉아있었으며 당조직이 대중속에 뿌리박지 못하고 리탈되고 말공부나 하면서 령도권싸움, 파벌싸움을 벌리고있었다.

특히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화요파, 서울파, 북풍회파, 엠엘파, 서상파와 같은 여러가지 파로 갈라져 파벌싸움을 벌리였다.

결과 대렬의 통일단결을 보장할수 없었으며 혁명투쟁에 대한 지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게 되였다.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공산주의대렬이 분렬되고 여기에 일제의 탄압까지 받게 되자 3년만에 조선공산당은 해산되게 되였다.

6.10만세시위투쟁에 대하여

1926년 6월 10일 초기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일제를 반대하여 벌린 대중적시위투쟁이다.

1926년 4월 리조의 마지막왕인 순종이 죽은것을 계기로 대중의 반일감정은 더욱 앙양되였다. 이것은 리씨왕조에 대한 그 어떤 미련에서가 아니라 일제의 가혹한 억압과 착취밑에서 쌓이고쌓인 우리 인민의 망국의 설음과 민족적울분에서 치솟아오른것이였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군중을 동원하여 반일시위를 벌리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5월 3일 《시위투쟁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지도밑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위투쟁을 준비하였으며 삐라, 격문을 인쇄하고 각지에 청년들을 파견하여 반일투쟁에로 궐기시키기 위한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시위투쟁의 기미를 알아낸 일제는 야수적인 탄압만행을 감행하였으나 선진적인 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은 굴하지 않고 사태를 수습하면서 시위투쟁준비를 추진시켰다.

하여 계획했던 6월 10일에 순종의 상여가 창덕궁을 떠나자 길좌우에 있던 군중들은 《조선독립 만세!》,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운동자들은 단결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삐라와 격문을 뿌리고 대중적반일시위에로 넘어갔다.

시위자들은 시위대중을 해산시키려고 달려드는 일제경찰들을 때려눕히며 용감히 싸웠으나 160여명의 부상자가 나고 200여명의 초기공산주의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체포되였다.

결국 시위는 대오에 기여든 종파분자들의 책동과 일제의 탄압으로 하여 실패하고말았다.

이 투쟁은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시위하였으나 종파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반일투쟁도 공산주의운동의 발전도 기대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일제의 《무단통치》와 《문화통치》에 대하여

《무단통치》는 일제가 조선강점이후 1919년까지 조선에서 실시한 극악한 중세기적공포정치이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말살하며 조선강점을 영구화할 목적으로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조선총독에게 행정, 사법권과 군사통수권은 물론 립법권까지 부여하였으며 헌병이 군사경찰임무외에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임무까지 수행하는 헌병경찰대를 조직하였다.

일제는 조선에 전시체제로 편성한 2개 사단의 륙군과 해군분견대를 주둔시켰으며 군소재지를 비롯한 주요지점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또한 각종 살인악법을 조작하고 헌병, 경찰에게 인민들을 마구 학살할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으며 소학교 교원들에게 칼을 채워주어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총칼로 위협하는 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야수적으로 고문, 학살하였으며 경제적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고 우리의 민족문화를 유린말살하였다.

하여 일제의 야만통치를 반대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이 벌어졌으며 1919년 3월 1일에는 전인민적인 3.1인민봉기로 발전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거세찬 민족적항거에 부딪쳐 1919년 8월에 《무단통치》를 보다 교활하고 기만적인 《문화통치》로 바꾸었다.

《문화통치》는 1920년대에 일제가 조선에서 실시한 식민지통치방식이다. 일제는 1919년 8월 《무단통치》를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꾼다고 선포하고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파쑈통치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다.

일제는 《조선총독》으로 문관도 임명될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한번도 문관을 임명한 일이 없었으며 오히려 예비역 해군대장이였던 사이또를 현역군인으로 다시 복대시키고 그에게 사복을 입혀 제3대 《총독》으로 임명하는 잔꾀를 부리였다.

또한 《조선총독》이 직접 군사통수권을 틀어쥐지 않고 병력사용청구권만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선총독》과 《조선군사령관》이 무력행사권을 함께 가지고 조선인민에 대한 군사적 폭압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일제는 1920년 3월에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하고 그 간판아래 경찰망과 특무망을 늘이였으며 경찰서에 《고등계》를 증설하여 《사상범》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미 공포실시해오던 《보안법》외에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을 실시하는 등 우리 인민의 반일적이며 선진적인 사상요소를 모조리 말살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문화통치》의 간판밑에 출판, 언론, 결사 등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천황정치》를 지지하는 조건하에서의 《자유》로서 조선인민의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말살하며 일제에 대한 굴종과 예속을 선전하는 《자유》를 허용한 것이였다.

일제는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는 《문화통치》의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우리 인민에 대한 파쑈폭압을 더욱 공공연히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계몽기가요에 대하여

계몽기가요는 1920년대부터 해방전까지의 시기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고통과 슬픔, 울분과 항거의 감정을 반영하여 나온 진보적인 노래이다.

계몽기가요들은 가사가 서정적이고 생활적이며 곡이 부르기 쉽게 되여있다.

대표작으로 《봉선화》, 《고향의 봄》, 《눈물젖은 두만강》, 《찔레꽃》 등 노래들이 있다.

가요들은 창작가의 세계관적 및 시대적제한성, 일제의 탄압으로 하여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인민들을 반일민족해방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것을 비롯하여 당시 우리 민족앞에 절박하게 나섰던 사회정치적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못하였으며 음악적으로도

양상이 다양하지 못하고 서정적인데 많이 치우치거나 슬픈 양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족점들이 있다.

그러나 계몽기가요는 당시 우리 인민의 반일애국사상과 민족자주정신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음악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고있다.

우리 나라 력사에 이름을 남긴 주요인물들에 대하여

단군: 5000여년전 평양에서 태여나 B. C. 30세기초에 고조선을 세운 민족의 원시조이다.

아버지 환웅이 죽은 후 추장이 된 단군은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의 건립을 선포하였으며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였다.

단군은 나라를 세운 후 주변 소국을 통합하면서 나라의 령토를 넓혀나갔다.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대박산에 단군릉이 있다.

성기(?－B. C. 108년): B. C. 109년－B. C. 108년 고조선－한전쟁시기에 한나라침략군을 반대하는 최후의 결전을 지휘한 애국명장이다.

한나라침략자들이 쳐들어오자 고조선의 애국적군인들은 능숙한 군사활동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적들의 침공을 물리쳤다.

이때 상층부에는 반역자, 투항분자들이 나타났으나 성방위자들은 성기장군을 지휘자로 내세우고 항전을 계속하였다.

한나라침략군의 적장은 반역자, 투항분자들을 성안에 들여보내여 성기장군을 살해하도록 하였다.

려옥: 고조선의 시인이며 음악가이다.

배사공 곽리자고의 안해로 전해져오며 남편에게서 늙은 부부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 듣고 슬퍼하면서 비통한 심정을 담아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그 노래가 《공후인》이다.

동명왕(B. C. 298년－B. C. 259년, 재위 B. C. 277년－B. C. 259년): 고구려의 시조왕이다.

이름은 주몽이며 고구려국가를 세운 후 《고》를 붙여 고주몽이라고 불렀다.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 등과 함께 구려에서 B. C. 277년 나

라를 세우고 《고구려》라고 하였다.

《동명왕》은 왕의 칭호이다.

고주몽은 나라를 세운 후 봉건적인 국가사회체계를 완성시켜 나가면서 주변의 소국들을 통합하여 령토를 넓히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켰다.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 왕릉이 있다.

고구려가 427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길 때 시조왕릉인 동명왕릉도 옮겨왔다.

명림답부(67년-179년): 고구려의 초대국상으로서 112살에 죽었다.

165년 폭군 차대왕을 처단하고 신대왕을 왕으로 내세우는데 기여하였다.

172년 11월 후한침략군이 밀려왔을 때 성문을 굳게 닫고 용감히 싸웠으며 도망치는 적들을 좌원벌에서 모조리 소멸하였다.

광개토왕(374년－412년, 재위 391년－412년): 고구려의 24대 왕이다. 그의 이름은 담덕이다.

그는 남방진출에 큰 힘을 넣어 20여년의 통치기간 서북방, 남방에 이르는 넓은 령토를 차지하였다.

특히 백제의 적지 않은 지역을 차지하였다.

광개토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그가 왕으로 있은 기간 령토를 크게 넓히였다는데로부터 부른것이다. 그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인 광개토왕릉비가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길림성 집안현)부근에 있다.

장수왕(394년－491년, 재위 413년－491년): 광개토왕의 맏아들이며 고구려의 제25대 왕으로서 이름은 거련이다.

413년부터 약 79년간 왕자리에 있었다.

광개토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후 고구려의 령토를 넓히고 국력을 강화하고 대외적권위를 높이였다.

그는 고구려가 추진시켜오던 국토통합을 적극 밀고나가기 위해 427년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였으며 서북방에서 군사적우세를 강화하면서 나라의 령토를 크게 넓히였다.

온달(6세기말－7세기): 고구려의 평민출신의 애국명장이다.

고구려의 민속명절인 3월 3일 사냥경기에서 특출한 재능을 발휘하여 1등을 하고 무관이 되였다.

577년 북주의 무제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선봉장으로서 적을 격파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후 세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싸움에서 용맹을 떨치다가 눈먼 화살에 맞고 최후를 마치였다.

을지문덕(6세기－7세기): 7세기초 수나라대군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공을 세운 고구려의 애국명장이다.

612년 수양제가 300만명의 대군으로 고구려에 침입하였을 때 고구려군의 총지휘관으로서 완강한 방어전투를 조직하여 적들이 료동성부근에서 더 전진못하게 만들었으며 적들이 30만 5 000여명의 별동대를 조직하고 침공해오자 직접 적진에 들어가 담판을 하는척 하면서 적의 동태를 알아보고 청야전술과 유인기만전술에 걸려 지칠대로 지친 적들에게 풍자시 한수를 보내여 공포를 주었다.

그리고 도망치는 적들을 살수에서 섬멸하였으며 그후 645년, 647년 등 여러차례 계속된 외적의 침공을 그때마다 물리치고 고구려의 위용을 떨치는데 기여하였다.

연개소문: 7세기 중엽 고구려의 애국명장이다.

당나라의 압력에 굴복하고 비겁한 자세를 취한 영류왕과 그의 세력 100여명을 처단하고 영류왕의 조카를 왕(보장왕)자리에 앉히고 자신이 군사, 행정권을 직접 틀어쥔 막리지가 되여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양만춘(7세기): 645년 고구려와 당나라침략군과의 전쟁때 안시성전투를 지휘한 고구려의 애국명장이다.

당시 안시성의 성주였던 그는 성을 점령하려고 집요하게 공격해오던 적들을 88일간 견제하였으며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어 도망치게 하였다.

계백(?－660년): 660년 신라와 당나라침략군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 전사한 백제의 애국명장이다.

660년 7월 김유신이 이끄는 5만명의 신라군이 공격해오자 계백은 5 000명의 백제군을 이끌고 황산벌에서 신라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전사하였다.

대조영(?—719년, 재위 698년—719년): 발해봉건국가의 건국자로서 7세기말부터 8세기초까지 활동하였다.

옛 고구려의 귀족이며 장수였던 대조영은 아버지와 함께 고구려 유민들을 규합하여 고국회복을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696년 그는 고구려유민들을 거느리고 거란인, 말갈인들과 함께 영주지방에서 당나라를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698년 천문령에서 당나라 토벌군을 섬멸하였다. 이어 동쪽으로 계속 진격하여 698년에 동모산에 수도를 정하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왕국을 세웠다.

왕건(877년—943년, 재위 918년—943년): 왕건은 우리 나라 력사상 첫 통일국가인 고려의 건국자이다.

태봉국에서 궁예의 부하로 있다가 폭군인 궁예를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가던 918년 6월에 정변을 일으켜 태봉국을 뒤집어엎고 새 왕조를 세웠다.

왕건은 신라와 후백제를 통합하고 발해유민들을 포섭하여 우리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단일민족의 통일국가를 세운 왕이다.

유금필(?—941년): 고려에 의한 국토통합에 공헌한 무관이다.

왕건의 휘하에서 복무하였다.

국경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왕건을 도와 국토통합을 이룩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하였다.

서희(942년—998년): 고려시기의 장군이며 외교활동가이다.

993년 거란침략군의 1차침입때 수적우세를 믿고 달려드는 적에게 안융진을 비롯한 도처에서 심대한 타격을 주었고 담판장에서 사리정연한 주장과 론거로 적들의 침략기도를 물리쳤으며 국경방비강화에 기여하였다.

강조(?—1010년): 고려시기의 무관이다.

1010년 11월 거란왕이 거느린 침략군이 고려에 침입하였을 때 강조는 통주계선에서 여러차례 적의 공격을 물리쳤다.

그후 자만하고 군막에서 바둑을 두다가 기습하는 적들에게 포로되여 자기의 부하가 되라는 거란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애국적절개를 지켜 굴하지 않고 싸웠다.

양규(?－1011년), 김숙흥(?－1011년): 고려－거란전쟁때 용감히 싸운 고려의 무관들이다.

양규는 거란침략군의 2차침입때 흥화진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을 수차례 물리쳤으며 적들의 회유책동을 물리치고 성을 고수하였고 여러 전투에서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김숙흥은 패주하는 적들을 구주, 통주계선에서 섬멸적으로 타격하였으며 양규의 부대와 합세하여 거란왕이 끌고온 침략군과 맞서 용감히 싸운 애국명장이다.

강감찬(948년－1031년): 고려시기의 애국명장이다.

1010년 거란왕 성종이 거느린 40만명의 침략군이 침입(2차침입)하였을 때 투항하자는 통치배들에게 인민들의 항전기세에 의거하여 개경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항전을 계속할것을 주장하였으며 개경주변지역을 비롯하여 침략자들의 마수가 뻗치고있는 곳에서 적들에게 타격을 안겨 2차침입을 물리치는데 기여하였다. 1018년 3차침입때 흥화진에서 강을 막았다가 그것을 터뜨려 달려드는 적들을 혼란시킨 후 매복전을 벌려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청야전술로 개경으로 침입하려던 적의 기도를 꺾어놓았으며 도망치는 적들을 구주에서 대포위전을 벌려 수많이 소멸하였다.

윤관(?－1111년): 12세기초 녀진침략군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공을 세운 무관이다.

1107년 12월 5군으로 편성된 17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고려 천리장성너머 동북부지방으로 진격하여 여러 전투에서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기고 되찾은 동북부지방을 고수하기 위해 9개의 성을 쌓게 하였으며 집요하게 달려드는 녀진족을 물리치는 전투를 지휘하였다.

박서: 몽골(원)의 침략을 반대하는 전쟁시기 공을 세운 고려의 무관이다.

1231년 8월 살례탑이 거느린 몽골침략군이 구주성으로 갖은

수법을 다 쓰며 발악적으로 달려들었을 때 적들을 통쾌하게 짓부시였으며 유리한 시기에는 공격을 들이대여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는 제1차 몽골침략을 물리치는 싸움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취려(?—1234년): 1216년—1219년 거란침략군의 침입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운 고려의 장군이다.

김취려는 1217년 7월 거란침략군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진 제주(충청북도 제천)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김윤후: 몽골(원)침략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용감히 싸운 고려의 무관이다.

1232년 8월 살례탑을 괴수로 한 몽골침략군이 제2차로 침입하여 처인성에 달려들었을 때 적들과 용감히 싸웠다.

그는 이 전투에서 활로 적장을 쏘아죽임으로써 몽골침략군의 2차침입을 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253년 7월(제5차 침입) 몽골침략군이 대규모적인 침략무력으로 침입하여 충주성으로 달려들었을 때 그는 노비문서를 불태워 노비들과 성안의 인민들을 고무하였고 모든 힘을 다하여 적들과 용감히 싸워 성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배중손(?—1271년)과 김통정(?—1273년): 1270년—1271년 몽골(원)침략군과 국내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삼별초항전군의 지휘자들이다.

1270년에 왕 원종이 개경으로 수도를 옮길것을 선포하고 강화도의 삼별초군을 해산할것을 명령하자 배신적인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강화도인민들과 삼별초군은 합세하여 항전에로 일떠나섰다.

배중손은 항전을 거부한 봉건관리를 처단하고 강화도의 전지역을 비롯하여 서해와 남해의 제해권을 차지하였으며 진도로 기지를 옮긴 후 울돌목에서 《토벌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이에 질겁한 봉건정부와 몽골침략군이 1271년 5월 수천명의 병력으로 불의에 공격해왔을 때 항전군은 내부의 원쑤들에 의해 힘겨

운 싸움을 벌리게 되였으며 이 싸움을 지휘하던 배중손은 전사하였다. 그후 항전군은 김통정의 지휘밑에 제주도로 투쟁중심지를 옮기고 항전을 계속하였다.

1273년 4월 항전군은 대규모의 《토벌군》과 맞서 용감히 싸웠으며 김통정은 산속으로 들어가 끝까지 싸우다가 최후를 마치였다.

망이(?－1177년): 12세기 후반기 공주농민폭동군의 지휘자이다.

1176년 1월 관군이 서북지방농민군폭동진압에 동원된 유리한 기회를 리용하여 폭동을 일으켰으며 《천민》들로 기본대오를 편성하고 공주를 공격하여 봉건통치배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국왕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망이는 봉건정부의 회유기만에 속아넘어갔고 1177년 7월에 체포되여 학살되였다.

최영(1316년－1388년): 고려말기 외적들과의 싸움에서 커다란 공로를 세운 애국명장이다.

그는 일생에 100여차례나 외적들과 싸워 한번도 져본적이 없다고 한다. 1361년 홍두적이 침입하였을 때 여러 장수들과 함께 개경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를 지휘하여 적들을 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1374년 탐라(제주도)에 원정하여 침략자들을 완전히 소멸하였다. 최영은 왜구를 물리치기 위한 전투에서 용감히 싸웠으며 1388년에는 료동원정을 단행하였다.

최무선(1326년－1395년): 고려시기의 발명가이며 왜구격멸에 공을 세운 무관이다.

화약의 원료인 염초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 이에 기초하여 화약과 화약무기를 만들어냈으며 화약무기를 배에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의 제의로 1377년에는 화약무기를 만드는 화통도감이 설치되였으며 여기서 각이한 포들과 불화살, 포탄을 만들었다.

그는 1380년에 왜구를 치기 위해 출전하여 진포해전에서 500

척의 적함선을 불태워버리였다.

서산대사(1520년－1604년): 임진조국전쟁시기 용감히 싸운 애국적인 중출신 의병장이다. 본명은 최여신, 법명은 휴정이다.

1592년 일본침략군이 침입하였을 때 72살의 고령의 몸으로 왜적을 물리치는 싸움에 나섰다. 그는 전국의 절들에 있는 중들에게 왜적격멸에 나설것을 호소하였으며 의병대를 조직하고 평양성탈환전투에 참가하여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고 중의병의 통수권을 사명당에게 넘기고 뒤에서 계속 고무격려해주었다.

계월향(?－1592년):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애국녀성이다.

왜적이 평양성을 강점하였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남아 시중드는척 하면서 적정을 탐지하여 아군부대에 보내주었다.

김응서장군을 도와 그가 악질적장을 처단하고 안전하게 피하게 하였으며 애국적절개를 끝까지 지키다가 희생되였다.

론개(?－1593년):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애국녀성이다.

왜적들의 만행을 목격하고 복수할것을 다짐한 기생출신의 론개는 술판에서 적장에게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한 후 그놈을 붙잡고 절벽우에서 남강에 몸을 던졌다.

리순신(1545년－1598년):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을 바다에서 쳐물리친 애국명장이다.

1592년 5월이후 여러차례 출전하여 옥포해전과 한산도앞바다싸움, 부산포공격작전 등 해전들에서 수많은 적선들을 격침시키고 전라도 물목을 튼튼히 지켜 왜적들의 수륙병진계획을 파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세계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완성하고 여러가지 뛰여난 전법들을 활용함으로써 세계해전사에 그 이름을 남겼다. 그는 1598년 11월 임진조국전쟁의 마지막을 빛나게 장식한 로량해전을 지휘하다가 적탄에 맞고 전사하였다.

사명당(1544년－1610년): 임진조국전쟁시기 중출신의 의병장이며 외교활동가이다. 본래성은 임씨이며 법명은 유정이다.

평양성탈환전투에 참가하여 침략군을 소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후 서산대사를 대신하여 중의병들의 총대장이 되였다.

그는 임진조국전쟁이 끝난 후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강화담판을 하였고 귀국할 때에는 랍치되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되찾아왔다.

곽재우(1552년－1617년):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을 치는 싸움에서 용감히 싸운 의병장이다.

경상도일대에서 첫 의병부대를 조직하고 솥나루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를 진행하여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기였다.

그는 붉은 군복을 입고 백마를 타고 싸웠다고 하여 《홍의장군》이라고 불리웠다.

송상현(1551년－1592년): 임진조국전쟁시기 동래성을 끝까지 지켜싸운 애국적인 관료이다.

그는 왜적이 침입하였을 때 동래부사로서 마지막까지 군사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지휘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였다.

김응서(1564년－1624년):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애국명장이다.

왜적이 평양성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을 때 김응서는 여러곳에 진을 설치하고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계월향을 통해 성안의 적정을 탐지하였고 그의 도움으로 적진속에 들어가 악질적장을 처단하였다.

1593년 평양성탈환전투때 선봉장으로서 용감히 싸워 전투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정문부(1565년－1624년): 임진조국전쟁시기 함경도지방에서 활동한 의병장이다.

1592년 9월 경성 해촌(어랑군 무계리)에서 의병대를 조직하고 반역자들을 처단하였으며 왜적을 쳐부시는 본격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그는 장평, 림명, 단천, 백탑 등 여러 지역에서 기습, 매복 등 여러가지 전술로 수많은 왜적들을 소멸하였다.

정문부의병대의 전과를 기록한 북관대첩비가 김책시 림명리에 세워졌다. 로일전쟁시기 일제가 뽑아갔던 북관대첩비는 우리 민족의

항의로 우리 나라에 이관되여 본래의 자리에 세워졌다.

홍경래(1780년－1812년): 평안도농민전쟁의 지휘자이다.

홍경래는 안동김가의 세도정치를 반대하며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면밀히 준비를 갖춘 후 1811년 12월 평안도 가산 다복동(운전군 가산리)을 근거지로 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홍경래는 청천강이북지역을 거의 차지하였으며 서울로 진격할것을 계획하고 그 준비를 갖추어나가면서 청천강을 건너온 관군을 소멸하기 위해 여러차례 전투를 벌리였으며 정주성에 의거하여 용감히 항거하다가 최후를 마치였다.

류린석(1842년－1915년): 19세기말－20세기초 반일의병장이며 유학자이고 시인이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후 일제의 조선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던 시기 의병투쟁을 벌릴것을 호소하고 1896년 제천반일의병장이 되였으며 1910년 5월 13도의병 도총재가 된 후 일제의 강제 《합병》을 반대하여 싸웠다.

최익현(1835년－1906년): 19세기말－20세기초 반침략투쟁에 적극 참가한 애국적유생이다.

1876년 2월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일제와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강압체결하자 이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1905년 《을사5조약》이 날조되자 서울로 가서 상소투쟁을 벌리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1906년에는 전라북도 태인에 가서 반일의병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고 전라북도 순창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일제에게 체포되였으며 끝까지 지조를 지켜 단식투쟁을 벌리다가 70고령에 순국하였다.

전봉준(1854년－1895년): 1894년에 일어난 갑오농민전쟁의 지휘자이다.

1893년에 농민봉기지휘자로 나섰던 아버지가 학살당한 후 투쟁에 나설것을 결심하고 1894년 1월 고부농민폭동을 지휘하였으며 폭동을 농민전쟁으로 발전시켰다.

전봉준은 각지의 농민폭동군을 이끌고 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면서 싸우다가 변절자의 밀고로 체포되여 사형당하였다.

민긍호(?－1908년): 20세기초 무관출신의 반일의병장이다.

강원도 원주의 진위대를 해산시키는 일제를 반대하여 1907년 8월 폭동을 일으키고 일제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장을 갖춘 후 강원도와 충청도의 여러 지역에서 일제와 싸웠으며 1908년 강원도와 충청도의 접경에 있는 강림에서 《토벌대》에게 포위되자 완강히 싸우다 희생되였다.

홍범도(1860년－1943년): 20세기초 반일의병대장이며 독립군 지휘관이다.

일제의 침략책동이 더욱 강화되자 1907년 11월 포수들로 의병대를 조직하고 풍산을 비롯한 함경남북도일대에서 일제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후 의병대를 지휘하다가 1917년에 조선독립군을 조직하고 총사령이 되였으며 만주일대와 조선국내에서 일제의 병영을 습격하고 여러 전투에서 일제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장인환(1877년－1930년): 리조정부의 《외교고문》으로 기여들었던 미국인 스티븐스를 처단한 애국청년이다.

안중근(1879년－1910년): 20세기초의 반일애국운동가이다.

1909년 일본 추밀원 의장자리에 있던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가 《북만시찰단》의 명목으로 만주에 간다는 정보를 듣고 할빈으로 간 안중근은 10월 26일 그가 특별렬차에서 내려 짜리로씨야의 장병들을 사열할 때 복수의 명중탄을 안겨 처단하였다.

강우규(1855년－1920년): 조선총독 사이또에게 폭탄세례를 안긴 반일애국렬사이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자 로씨야에서 활동하다가 1919년 9월 악명높은 살인귀인 사이또가 제3대 조선총독으로 기여든다는 정보를 알고 64살의 늙은 몸이였으나 사이또를 처단할 결심을 품고 국내로 돌아와 서울 남대문역사에 들어가있다가 사이또가 마차에 올라 떠나가려는 순간 폭탄을 던졌다. 이 폭탄에 29명의 중경상자가 났다.

안룡복(17세기 중말엽): 17세기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

본통치배들의 침략야욕을 분쇄하는데 기여한 애국적인 어부이다.

일본해적들이 1693년 울릉도에 기여들어 자기네 땅이라고 교활한 술책을 꾸미였을 때 이를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오끼시마도주를 찾아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이라는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비법적으로 섬을 강점하려는 일본봉건령주들의 책동을 폭로분쇄하고 놈들에게 다시는 기여들지 않겠다는것을 다짐받은 어부이다.

우리 나라 력사에 이름을 남긴 학자들에 대하여

구진천: 7세기 중엽 신라의 이름있는 활제조기술자이다.

그는 1 000보 날아가는 1 000보노(쇠뇌－기계활)를 만들었으며 당나라통치배들이 자기 나라에 초청하여가서 노를 만들게 하였을 때 끝까지 제작기술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영석(1089년－1166년): 고려시기의 진보적의학자이다.

우리 나라의 의학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려는 포부를 안고 의학연구에 전심하였으며 10여년동안 품을 들여 탐구하고 연구한 성과들을 종합하여 《제중립효방》을 편찬하였다.

혜초(704년－787년): 8세기 후반기 신라의 중이며 대려행가이다.

8세기 전반기 혜초는 근 10여년간에 걸쳐 인디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의 인디아양연안나라들과 페르샤, 아라비아, 수리아와 중앙아시아, 내륙지방나라들을 려행하였으며 10여만리에 달하는 로정에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묶어 려행기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설경성(1237년－1313년): 고려시기의 의학자이다.

1285년에 원나라에 초빙되여가서 그 나라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던 원나라 왕의 병을 고쳐줌으로써 우리 나라 의학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고려 2대명의로 손꼽히였다.

문익점(1329년－1398년): 고려말기의 관리로서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목화씨를 보급한 사람이다.

1363년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목화씨 10여알을 붓대속에 감

추어가지고 돌아와 고향인 경상도 진주에서 재배하였다.

리천(1376년－1451년): 15세기의 재능있는 기술자이며 발명가이며 유능한 군사지휘관이다.

리천은 공조참판으로 있을 때 출판인쇄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는 12세기 전반기에 처음으로 발명된 고려의 금속활자를 크게 발전시켜 우리 나라에서 세계최초의 연활자와 현대적조판기술의 원형을 창조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각종 천문관측기구를 창안제작하였다.

장영실: 15세기 전반기 과학기술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한 발명가이며 기술자이다.

1432년부터 몇년동안 리천 등 기술자들과 함께 간의(측정기구)를 만들고 그것으로 서울의 경위도를 측정하고 확인하였으며 대간의, 소간의 등 천문기구를 구리로 만들었다.

시간측정기구인 천평일구, 정남일구, 자격루 등을 창안제작하였다.

그는 1434년 새형의 금속활자를 만드는데 참가하여 많은 금속활자를 주조함으로써 출판인쇄기술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악기제작에도 참가하였다.

로중례(?－1452년): 15세기 우리 나라의 의학자이며 명의이다.

우리 나라 약재와 력대의 의학유산을 연구하여 고려의학을 체계화하고 그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대표적으로 《향약집성방》(1433년 박윤덕 등과 함께 완성)과 1442년에 그때까지 동방의학이 달성한 모든 성과를 종합체계화한 《의방류취》편찬사업을 총책임지고 진행하였다.

최세진(?－1542년): 16세기 전반기의 뛰여난 언어학자이며 저술가이고 교육자이다.

그는 자기의 저서 《훈몽자회》에서 《훈민정음》의 매 글자의 차례를 고치고 이름을 처음으로 고쳤으며 《훈민정음》의 과학적리론과 인민대중의 생활적실천을 결부시켜 우리 말을 실용적으로 체계화하고 정리하였다.

그는 교육자로서 자녀교양에 이바지하는 여러편의 글을 썼다.

허준(1545년－1615년): 16세기 후반기－17세기초의 우리 나라의 뛰여난 명의이며 고려의학자이다.

그는 1610년 고려의학의 백과전서라고 할수 있는 《동의보감》을 저술하였으며 이밖에 《벽온신방》, 《신찬벽온방》 등 저서가 있다.

박세당(1629년－1703년): 17세기 우리 나라의 뛰여난 농학자이며 생물학자이다.

그는 40년간의 농촌에서의 체험과 실험에 기초한 연구성과를 담은 농서 《색경》을 저술하였다.

리익(1681년－1763년): 18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이름있는 실학자이며 교육자이다.

그의 저서로서는 《성호새설》, 《성호문집》, 《곽우록》, 《사칠신강》, 《백언해》 등이 있다.

홍대용(1731년－1781년): 18세기 후반기에 활동한 이름있는 실학자이며 자연과학자이다.

《천원지방설》과 《천동지정설》을 부정하고 《지원지전설》(지구가 둥글며 끊임없이 돌고있다는 설)을 주장하였으며 지구의 끌힘,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비교적 옳은 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수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김정호(?－1864년): 19세기 중엽의 재능있는 지리학자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한 문학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섭취하면서 지도제작을 위한 토대를 닦아나갔다.

1834년에 《청구도》를 만들었으며 1861년에 축척 16만 2 000분의 1의 조선지도인 《대동여지도》를 제작출판하였다.

리제마(1837년－1900년): 19세기에 4상의학설을 창시하고 그것을 림상치료에 적용한 의학자이다.

봉건통치배들의 매국배족적인 반동통치를 반대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광제창생》(백성들을 널리 구제)하는 길을 택하여 일생을 고려의학연구에 바치였다.

그는 림상활동을 벌리면서 4상의학연구에 정력을 쏟아부었다.

《동의수세보원》, 《5복론》, 《권수론》 등 여러 책을 저술하였다.

지석영(1855년－1935년): 20세기초 애국문화운동가이며 의학자이다.

사람들에게 커다란 불행을 주던 천연두를 막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우두접종을 성공시켰으며 1885년에 우두와 관련한 책인 《우두신설》을 집필, 인쇄하여 나누어주었고 신의사를 키워내는데 기여하였다.

주시경(1876년－1914년): 19세기말－20세기초 애국적인 언어학자이며 교육자이다.

조선어강사로, 《서우학회》기관지 《서우》편집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청년들과 인민들속에서 반일애국사상을 고취하였으며 조선말을 교육하는데 힘을 기울이였다.

그의 저서로는 《국어문전음학》,《국어문법》, 《말의 소리》등이 있다.

신채호(1880년－1936년): 20세기초 애국문화운동가이며 력사가, 작가이다.

《광복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벌리였으며 해외에 있을 때와 국내에서 활동할 때 력사연구를 하여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 《조선사》, 《을지문덕전》 등 수많은 력사책을 저술하였으며 《꿈하늘》, 《룡과 룡의 대격전》, 《너의것》, 《새벽과 별》, 《선언》 등 많은 소설과 시를 비롯한 문학작품을 썼다.

우리 나라 력사에 이름을 남긴 음악가, 미술가들에 대하여

담징(579년－631년): 고구려의 중이였던 담징은 재능있는 화가이고 기술자이며 학자이다.

일본에서 아스까문화가 한창 발전하고있던 때 일본의 초청을 받은 담징은 그곳에서 우리 나라 건축가들에 의해 세워진 법륭사 금당의 벽화를 그렸다. 또한 발전된 고구려의 과학기술, 문화에 기

초하여 물감, 종이, 먹 등을 만들어쓰는 기술을 가르쳐주었다.

왕산악: 4세기 고구려의 음악가이며 연주가인 그는 여러 악기들을 창안제작하고 잘 연주한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졌다.

그는 당시 이름있는 작곡가로서 많은 노래를 지었으며 가야의 우륵, 리조의 박연과 함께 중세 우리 나라 3대악성으로 일러온다.

아비지: 백제의 이름난 건축가이다.

645년 신라에 초청되여가서 황룡사 9층탑건설의 기술적지도를 담당하였다.

아좌: 백제의 이름난 화가이다.

597년 일본에 초청되여가서 일본 추고왕의 아들 성덕태자의 화상을 그렸다.

현재 보존되여있는 유명한 그림인 《성덕태자상》의 섬세한 필체와 담박한 색채, 인물의 개성을 묘사한 회화적표현은 화가의 뛰여난 기량과 백제인물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김생(711년—?): 8세기 신라의 서예가이다.

김생의 작품들은 명필이였기때문에 귀중하게 간직되여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다. 당시 학자들과 서예가들은 그의 글씨를 본보기로 하여 글씨를 다듬었다고 한다.

우륵: 6세기 초중엽에 활동한 가야의 음악가이다.

우리 나라의 민족악기인 가야금을 처음 만들었으며 널리 보급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였고 《보기》, 《하가라도》 등 수많은 악곡들을 창작보급하였다.

리녕(12세기 전반기): 고려의 이름있는 화가이다.

1124년 송나라로 가는 사신을 따라가 그림으로 이름을 날렸다.

박연(1378년—1458년): 15세기 뛰여난 음악리론가이며 작곡가, 연주가이다.

악기도감을 설치하고 여러가지 악기를 제작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관현악단도 구성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정대업》, 《보태평》, 《발상》, 《치화평》 등과 소품들이 있다.

그는 음악표기법에서도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총보, 채보, 기

록법을 크게 발전시켰다. 특히 12륜관을 제정하여 음악에서 기준음을 만들고 악기의 음률을 고착하였다.

12륜관이란 당시 우리 나라 음악에서 리용되는 12개의 고정음의 높이를 말한다. 여기서 출발음 즉 기음을 규정하는것이 기본이다.

강희안(1417년－1464년): 15세기 전반기의 화가이며 학자이다.

여러명의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그는 또한 화가로서 이름을 날리였다.

대표작으로 《미인도》, 《청학도》, 《경운도》, 12폭의 풍경화 등과 《생각에 잠겨》, 《다리를 건느다》 등 여러 작품의 그림을 그렸으며 출판업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안견(1418년－?): 15세기 중엽에 활동한 이름있는 화가이다.

그는 인물화, 동물화를 잘 그렸을뿐아니라 풍경화에 능하여 수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대표작으로 《청산의 흰구름》, 《어부의 얼굴》, 《꿈에 본 동산》, 《룡》, 《달구경》, 《산과 개울》 등이 널리 알려져있으며 리조초기 3대화가의 한사람이다.

리상좌(1465년－?): 16세기 초중엽의 이름난 화가이다.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의 능수로, 삽화가로 널리 알려졌다.

대표작으로 《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 《범》, 《산수도》, 《꽃과 새》 등이 있다.

신사임당(1504년－1551년): 유명한 녀류화가이며 이름난 학자 리률곡의 어머니이다.

그는 7살때 15세기 화가 안견의 그림을 본보기로 산수화와 포도를 그렸으며 화첩, 족자, 병풍 등에 풍경그림, 꽃과 새그림, 물고기그림, 날짐승그림 등 수많은 그림을 그리였다.

대표적그림은 《가지》, 《포도》, 《물오리》, 《기러기》 등이다.

한호(1543년－1605년): 16세기 후반기의 유명한 서예가이다.

한석봉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의 필적을 묶은 《석봉필적》, 《석봉서법》과 그가 쓴 《석

봉천자문》을 비롯하여 개성의 서화담신도비, 선죽교비 등이 전해지고있다.

김명국(17세기 전반기): 17세기 전반기 리조화단과 일본땅에서 이름을 떨친 재능있는 화가이다.

1636년과 1643년에 통신사수행화원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의 회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대표작으로 《깊은 산을 찾아서》, 《박쥐를 날리며》, 《비바람》, 《바둑싸움》, 《지옥》 등이 있다.

정선(1676년－1759년): 18세기 사실주의적풍경화가이다.

《금강12폭》, 《만폭동》, 《인왕산》, 《옹천의 파도》 등 우리 나라의 명소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접하는 친근한 자연을 그렸다.

김두량(1696년－1763년): 18세기 전반기 사회생활을 반영한 사실주의그림을 그린 화가이다.

18세기 우리 나라 사실주의풍속화의 개척자의 한사람이다.

대표작으로 《소몰이군》, 《사시절》, 《들판에서의 사냥》, 《달밤의 계곡》, 《개》 등이 있다.

김득신(1754년－1822년): 18세기 사실주의그림의 전성기를 장식한 화가이다.

당시의 사회생활을 반영한 여러편의 그림을 그리였다.

대표작으로 《농민과 량반》, 《마당질》, 《행락도》, 《술에 취한 신선》, 《범》 등이 있다.

김홍도(1760년－?): 18세기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사실주의화가이다.

그가 인물풍속화분야를 개척함으로써 우리 나라 회화사에서 풍속화의 새롭고 혁신적인 길이 열리게 되였다.

대표작으로 《집짓기》, 《야장간》, 《서당》, 《마당질》, 《춤》, 《물고기잡이》, 《밭갈이》, 《숲속의 달밤》, 《구룡폭》, 《파도》, 《개》, 《표범가죽》 등 여러가지 인물풍속화와 동물들을 반영한 그림이 있다.

장승업(1843년－1897년): 봉건사회말기 대표적인 화가이다.

외래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이 강한 그는 인간생활보다 주로 자연풍경, 동식물 등을 잘 그렸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매화》, 《련못가의 물촉새》, 《게》, 《매》, 《달리는 말》 등을 들수 있다.

우리 나라 력사에 이름을 남긴 문학가들에 대하여

박인량(?－1096년): 고려시기의 문인이다.

진보적경향성을 띤 시들을 많이 창작하였는데 대표작으로 《오자서의 무덤》이다.

양태사: 8세기 중엽에 활동한 발해의 시인이다.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지은 시 《밤에 다듬이소리를 듣고》는 민족적정서가 흘러넘치게 잘 형상된 가치있는 작품이다.

정지상(?－1135년): 고려시기의 정치활동가이며 재능있는 시인이다.

평양을 몹시 사랑하였던 그는 《평양》, 《대동강》 등 평양을 노래하는 서정시들을 많이 썼다.

고조기(?－1157년): 고려전반기에 활동한 문인이다.

주로 농촌을 노래한 시들을 많이 창작하였고 무관벼슬을 할 때 반침략애국주의주제의 시들을 썼다.

대표작으로 한자시로 된 《싸움터의 님에게》를 창작하였다.

리인로(1152년－1220년): 고려의 문인이다.

남의 글을 본따기 좋아하는 모방주의를 반대하였으며 진보적인 미학견해를 반영한 여러 시들을 창작하였다.

대표작으로 《갈길 험해라》, 《산중살이》, 《지리산을 찾아서》 등을 창작하였다.

그의 진보적미학견해와 당대의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한 작품들은 문학사상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리규보(1168년－1241년): 고려시기의 대표적인 문인이며 철학자이다.

글에서 형식주의, 모방주의, 도식주의를 반대하였으며 사실주의 작품들과 풍자시, 려행기, 사화적인 패설 등 여러가지 형식의 문

학작품을 창작하였다.

특히 봉건통치배들의 학정을 폭로하고 반침략투쟁을 노래하는 시를 비롯하여 시 《동명왕편》, 《천보영사》, 《삼백운시》, 《농부를 대신하여》, 《나라에서 농사군이 맑은 술과 흰쌀밥먹기를 금지하는 령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10월의 번개》, 《다시 쓰노라》, 《이불안에서 웃노라》와 같은 풍자시들과 여러가지 형식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김극기(12세기말－13세기초): 12세기에 활동한 고려시기의 문인이다.

당시의 사회현실을 비판하는 여러가지 시작품을 창작하였다.

대표작으로 《늙은 어부》, 《늦은 가을 달밤에》 등을 들수 있다.

김태현(1261년－1330년): 고려시기의 문인이다.

14세기 20년대 《동국문감》이라는 종합작품선집을 편찬하였다.

최해(1287년－1340년): 고려시기의 문인이다.

1338년에 《동국문감》을 기초로 하여 《동인지문》이라는 큰 규모의 종합작품선집을 편찬하였다.

그의 문집으로는 《졸고천백》(2권)이 전해지고있다.

리제현(1287년－1367년): 고려시기의 문인이다.

애국주의주제의 작품들과 봉건통치배들에 의해 비참한 생활을 겪고있는 농민들의 생활처지를 형상한 작품들, 봉건관료를 반대하는 작품들을 패설, 산문, 설화, 시 등의 형식으로 창작하였다.

그는 말년에 력사편찬에도 참가하였다. 그의 문집으로 《익재집》이 전해지고있다.

리곡(1298년－1351년): 고려시기의 문인이다.

당시의 인민들의 생활처지를 생동하게 반영한 시들과 려행기, 전기작품, 정론 등 여러가지 형태의 산문들도 창작하였다.

대표작으로 《목동》, 《죽부인전》, 《수재와 한재에 대한 론의》 등을 들수 있다. 문집으로는 《가정집》이 있다.

김시습(1435년－1493년): 15세기 작가이며 철학가이다.

어릴 때부터 시를 잘 지어 사람들로부터 《다섯살문장가》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는 기행시집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노래하는 시들을 창작하였으며 단편소설집 《금오신화》를 집필하였다.

양사언(1517년－1584년): 16세기 문인이며 서예가이다.

많은 시를 지었는데 대표적인것은 한시 《금강산》과 국문시 《태산이 높다하되…》이다.

정철(1536년－1593년): 16세기 국문시가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시인이다.

그는 수많은 가사, 시조 등 국문시가들과 한자시, 산문들을 썼다. 대표작으로 《관동별곡》, 《사미인곡》, 《청산별곡》 등 여러편의 가사와 시를 창작하였다.

황진이(1516년－?): 16세기에 활동한 녀류시인이다.

대표작으로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해동가요》, 《내 언제 신이 없어…》와 한자시 《박연폭포》, 《반달》, 《꿈》 등 여러편의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박인로(1561년－1642년): 16세기－17세기의 애국적무관이며 시인이다.

임진조국전쟁이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난 후 그는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반침략애국투쟁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진보적인 많은 시들을 썼는데 특히 가사 《태평사》, 《루항사》와 시 《밭갈이 노래》, 《가난의 노래》, 《사제곡》, 《령남가》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허란설헌(1563년－1589년): 16세기 우리 나라의 재능있는 녀류시인이다.

허란설헌의 시들은 그의 동생 허균에 의해 정리, 편집되여 《란설헌집》으로 전해지고있다. 대표작으로 《가난한 집 처녀》와 나라방비를 수수방관한 지배계급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와 원성을 노래하는 시 《성쌓는 괴로움》, 《변방의 노래》등이 있다.

허균(1569년－1618년): 16세기말－17세기초의 작가이며 시인이다.

그는 《홍길동전》과 책 《성수시화》, 《한정록》, 《조천록》 등과 전기소설, 시문집 등을 편찬하였다.

림제(1549년－1587년): 16세기의 이름있는 작가이다.

대표작으로 《재판받는 쥐》, 《꽃력사》, 《시름의 성》, 《원생몽유록》 등 여러편의 소설과 《마소노래》, 《장령민정》, 《맵짠 추위》, 《두메사람》, 《님을 보내는 노래》 등과 같은 시들을 창작하였다.

김만중(1637년－1692년): 17세기의 작가이다.

지구가 둥글다는것을 인정하였으며 1674년 조선지도를 정리, 편찬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인 소설작품으로 《사씨남정기》 등을 들수 있다.

박지원(1737년－1805년): 18세기 이름있는 작가이며 실학자이다.

봉건사회의 부패상을 폭로하는 글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대표작으로 《량반전》, 《우상전》 등을 비롯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노래한 시 《농사집》이 있다.

정약용(1762년－1836년): 19세기 전반기의 이름있는 실학자이며 문인이다.

자신의 지난 과거생활을 통해 봉건제도의 불합리성과 통치계급의 부패무능을 체험하게 되였으며 정치, 경제, 군사, 력사, 지리, 문학, 물리, 기술, 의학 등 각 방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경세유표》, 《목민심서》, 《대동수경》, 《애절양》, 《송충이》, 《범사냥》, 《굶주리는 백성의 노래》 등 수많은 책들과 시, 산문들을 창작하였다.

김삿갓(1807년－1863년): 19세기 중엽에 활동한 이름있는 풍자시인이다. 본명은 김병연이다.

량반통치배들을 야유하는 풍자시들을 많이 창작하였으며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처지를 동정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노래한 시들도 창작하였다.

대표작으로 《량반의 아들을 조롱함》, 《온종일 머리숙인 나그네》, 《원생원》, 《흰갈매기》, 《가난한 집》, 《제목없이》,

《금강산》, 《부벽루》 등이 있다.

그의 시들은 《해동시선》,《대동시선》에 실려있으며 1956년에 출판된 《풍자시인 김삿갓》에 실려있다.

최치원: 9세기 후기신라의 학자, 문인이다.

후기신라말기의 어지러운 현실을 목격하면서 인민들의 불행한 생활처지를 동경하고 봉건통치배들의 부패무능과 추악성을 폭로하는 일련의 진보적인 작품들을 썼다.

대표작으로 《비오는 가을밤에》, 《소박한 생각》, 《강남녀》와 《붓길 가는대로》 등 많은 작품을 썼으며 관극시인 《향악잡영》, 《중산복계집》 등 저서들을 집필하였다.

우리 나라 원시사회의 유적, 유물들에 대하여

원시사회의 유적들에는 우선 황해북도 상원군 흑우리에서 발굴된 약 100만년전의 원인유적이 있다.

검은모루유적에서는 여러가지 타제석기들과 짐승뼈화석들이 나왔다.

고인단계의 화석들도 발굴되였다.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발굴된 《력포사람》과 평안남도 덕천시에서 발굴된 《덕천사람》, 함경북도에서 발굴된 《화대사람》을 비롯하여 여러곳에서 고인들의 무덤과 짐승뼈화석들이 발굴되였다.

신인단계의 화석으로는 황해북도 승호군 만달리에서 발굴된 《만달사람》, 황해북도 상원군 룡곡리에서 발굴된 《룡곡사람》, 덕천시에서 발굴된 《승리산사람》 등이 있다.

특히 라선시 굴포리에서 발굴된 유적은 두개의 층으로 되여있는데 웃층에는 신인의 유적이 있고 아래층에는 고인의 유적이 있었다. 여기서 뼈피리도 발굴되였다.

우리 나라 노예사회의 유적, 유물들에 대하여

노예사회의 유적으로는 순장무덤을 들수 있다.

평안남도 성천군 룡산리에서 발굴된 순장무덤과 강상무덤, 루상

무덤 등이 있다.

강상무덤에서는 순장당한 백수십명분의 사람뼈가 발굴되였다.

노예사회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단군릉을 들수 있다.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대박산기슭에 있다.

단군릉은 우리 나라의 시조왕릉이다.

고구려때 재축조되였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94년에 민족의 시조릉답게 훌륭히 개건되였다.

노예사회의 유적으로는 또한 고인돌무덤과 돌판무덤 등을 들수 있다.

노예사회의 유적에는 청암동토성, 황대성 등 성들과 화성동제단유적 등도 있다. 또한 비파형단검과 좁은놋단검, 쇠도끼, 청동2인교예장식품 등이 있다.

함경북도 무산군 범의구석유적에서 나온 B. C. 1000년기 전반기의 선철제도끼와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유적에서 나온 강철제도끼 등은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철을 사용했다는것을 보여준다.

비파형단검은 고대의 대표적유물의 하나로서 B. C. 30세기초부터 B. C. 2000년기말까지 고대 우리 선조들이 리용한 청동단검이다.

신지글자는 고조선시기 단군의 신하였던 신지가 만든 글이다.

세나라시기와 발해, 후기신라시기의 유적, 유물들에 대하여

동명왕릉: 동명왕릉은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 있는 고구려의 시조왕릉이다.

5세기 초엽에 지금의 위치에 건설되였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에 의하여 천년강국 고구려의 시조왕릉답게 1993년에 훌륭히 개건되였다.

정릉사: 정릉사는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 있는 고구려시기의 절이다. 동명왕릉이 옮겨오면서 그앞에 원당으로 세워졌다.

고국원왕릉: 고국원왕릉(안악3호무덤)은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있는 고구려벽화무덤으로서 고구려의 돌칸흙무덤가운데서 제일 큰것이다.

덕흥리벽화무덤: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에 있는 이 무덤은 408년에 만든 무덤으로서 고구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 무덤이다.

광개토왕릉비: 광개토왕릉비는 고구려의 광개토왕의 공적을 찬양하여 그의 릉앞에 414년에 세운 비석으로서 약 1 800여자의 글이 새겨져있다.

높이가 6.34m인 릉비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비석가운데서 가장 오래고 큰것으로서 고구려의 강대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수산리벽화무덤: 수산리벽화무덤은 5세기 후반기의 고구려벽화무덤이다. 남포시 강서구역 수산리에 있는 이 무덤은 고구려의 문화와 풍습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있다.

대성산성과 평양성: 대성산성은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산에 있다. 3세기－5세기에 쌓은 성으로서 고구려의 가장 큰 산성들가운데 하나이다.

고구려는 552년－586년에 평양성을 쌓고 현재의 성안으로 다시 수도를 옮겨왔다.

평양성은 외성, 내성, 중성, 북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오늘의 중구역과 평천구역일대를 포괄하고있었다.

첨성대: 신라의 수도였던 경상북도 경주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천문대가운데서 제일 오랜 첨성대가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 선조들은 632년－647년에 첨성대를 쌓고 천문기상을 관측하였다. 첨성대의 밑단은 4각형이고 몸체는 둥글다.

첨성대의 전체 높이는 약 9.1m, 밑부분 직경은 약 4.9m이다.

약수리벽화무덤: 약수리벽화무덤은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리의 경치좋은 태성호반에 자리잡고있다.

이 무덤은 4세기～5세기초의 고구려벽화무덤이다.

천왕지신무덤: 평안남도 순천시 북창리에 있는 이 무덤은 실물활개가 많아 구조가 독특한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진 고구려벽

화무덤이다.

안학궁터: 안학궁터는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에 있는 고구려시기의 왕궁자리이다.

안학궁은 고구려가 427년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오면서 건설한 왕궁이였다.

미륵사탑: 미륵사탑은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룡화산기슭 미륵사터에 있다.

지금은 웃부분이 마사지고 6층까지 남아있는데 그 높이는 14.24m정도이다.

정림사 5층탑: 정림사 5층탑은 백제후기의 돌탑인데 이 탑은 충청남도 부여에 자리잡고있던 백제의 마지막 수도성인 사비성의 외성안 정림사라는 절이 있던 자리에 있다.

탑의 높이는 약 8.33m이다.

다보탑과 석가탑: 다보탑과 석가탑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불국사에 있다. 8세기 중엽에 축조된 이 탑들은 당시 건축물의 발전수준을 보여주고있다.

석가탑의 높이는 약 8.2m, 다보탑의 높이는 10.4m이다.

봉덕사종(에밀레종): 봉덕사종은 경상북도 경주시 봉덕사에 있는 종인데 현재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종들가운데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종이다.

771년에 완성한 이 종은 박한미를 비롯한 4명의 기술자들이 만들었다고 한다.

질량은 72t, 아구리직경 2.47m, 높이 3.33m이며 단일체로 부어만든 종이다.

불국사: 불국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토함산중턱에 자리잡고있는 세나라시기의 절이다.

6세기 전반기에 처음 지은것을 8세기 중엽에 와서 크게 확장하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에 의해 몽땅 파괴되였던것을 18세기에 대웅전, 극락전 등 건물들을 다시 지었다.

가야금: 가야금은 6세기 초중엽에 활동한 가야사람인 우륵이 창안제작한 악기이다.

상경돌등: 상경돌등은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룡천부 제2절터에 남아있는 돌등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랜 돌등의 하나이다.

높이가 약 6.3m인 이 돌등은 아름답고 형태에서 균형이 안정하게 잡히고 아래, 우의 대조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돌등의 전형으로, 걸작품의 하나로 평가되고있다.

고려시기의 유적, 유물들에 대하여

고려자기: 고려자기는 고려사람들이 창조한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고려자기에는 색에 따라 청자, 백자, 검은자기, 밤색자기, 진홍자기 등이 있으며 장식기법에 따라 오목무늬자기, 긁은무늬자기, 상감자기, 분장자기 등이 있다.

고려자기에는 여러가지 품종이 있으며 독특한 색갈과 우아하고 고상한 정서를 자아내는것으로 하여 다른 나라들에도 널리 알려지고있다.

묘향산의 보현사: 평안북도 향산군에 있는 묘향산의 보현사는 11세기 전반기에 처음 세워진 절로서 우리 나라 서북지방에서 제일 큰것이다.

보현사에는 조계문, 해달문, 천왕문이 있으며 보현사루정에는 만세루가 있다.

보현사에서 천왕문을 지나면 보현사 9층탑이 있다. 또한 보현사 앞뜨락에는 8각13층석탑이 있다.

금속활자: 우리 선조들은 오랜 력사를 가진 목판인쇄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활자인쇄기술을 발전시키였다.

1170년에 금속활자로 인쇄된것으로 인정되는 《고문진보대전》이 출판되고 1234년－1241년에는 50권으로 된 《고금상정례》가 금속활자로 인쇄되였다.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한것으로 된다.

개성시 만월대에서 금속활자유물이 발견되였다.

월정사 9층탑: 이 탑은 고려탑의 기풍이 짙게 풍기고 돌과 금속

으로 만든 탑머리가 가장 잘 남아있는 불탑이다. 강원도(남) 평창군 오대산기슭 월정사터에 있는 8각9층탑은 높이가 15.15m이며 고려말엽에 축조되였다.

공민왕릉: 개성시 해선리에 있는 이 릉은 고려 31대왕인 공민왕의 무덤이다.

쌍릉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여러가지 돌조각들이 구색에 맞게 배치되여 일종의 《석조예술박물관》과 같다.

1365년부터 1372년까지 축조되였다.

정방산성: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있는 고려시기 성으로서 방어력이 높은것으로 이름난 우리 나라의 서부지구 산성이다. 둘레의 길이가 12㎞나 된다.

팔만대장경: 고려봉건국가에서 방대한 불교관계문헌들을 부류별로 모아놓은 불교전서이다.

팔만대장경의 출판사업은 11세기초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되였다. 특히 13세기초에 목판인쇄된 팔만대장경은 우리 나라의 우수한 출판문화를 보여주는 유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이밖에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 력사문헌들도 있다.

리조시기의 유적, 유물들에 대하여

개성고려성균관: 고려초엽에 세우고 리조시기에 고쳐세운 봉건시기의 최고교육기관이다.

개성고려성균관은 원래 992년에 세워졌다.

개성시 방직동에 있던 개성고려성균관은 고려초엽에 세우고 리조시기에 고쳐세웠다. 개성고려성균관은 고려시기 국가의 최고교육기관으로서의 실물을 보여준다.

고려시기의 건물은 임진조국전쟁때 일본침략자들이 불태워 없어지고 지금의 건물은 1602년－1610년기간에 다시 지은것이다.

이 건물은 오늘 고려박물관으로 꾸려졌다.

경복궁: 서울시에 있는 리조시기의 기본궁성이다.

1394년－1395년에 건설되였으며 1865년－1868년에 재건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를 침략하자마자 몇개의 건물만 남

기고 헐어버렸다.

석왕사: 리조시기 건축유산인 석왕사는 강원도 고산군 설봉산기슭에 자리잡고있다.

고려말기에 처음 세워지고 그후 리조시기에 확장되였다.

보통문: 보통문은 6세기 중엽 고구려가 수도성인 평양성을 쌓을 때 함께 세운 평양성 중성의 서문이다.

그후 여러차례 보수개건하였으며 지금의것은 1473년에 고쳐세운것이다.

《훈민정음》: 1444년 1월(음력 1443년 12월)에 창제된 우리 나라 민족글자이다.

우리 선조들은 삼국시기부터 리두문자를 써오다가 1444년에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세종왕은 정린지, 신숙주, 성삼문, 최항 등의 학자들로 우리 글자를 연구하게 하였다.

숭양서원: 개성시 선죽동에 있는 숭양서원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서원의 하나이다. 서원은 리조시기 량반자식들에게 유교사상과 도덕을 교육하기 위하여 세운 학교이다.

숭양서원은 고려말기 이름난 유학자인 정몽주가 살던 집자리였는데 지금의 건물은 1573년에 고쳐세운것이다.

상원암: 묘향산의 보현사에 속해있는 암자인 상원암은 평안북도 향산군 묘향산지구의 상원골에 있다.

고려시기에 처음 지었고 지금의 건물은 1580년에 고쳐세운것이다.

안변보현사: 평안북도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강원도 안변군 령신리에 있는 보현사를 안변보현사라고 한다.

안변보현사는 737년에 처음 세우고 16세기에 다시 지은 절이다.

거북선: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임진조국전쟁시기(1592년—1598년)에 만든 세계최초의 철갑선이다.

거북선이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는데 1413년에 시험해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1591년 리순신장군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되면서 앞선 시기의 배무이기술에 기초하여 거북선을 완성하였다.

거부기머리모양을 배의 앞에 설치하고 아가리로 안개같은 연기를 내뿜게 하였으며 적이 배에 오르지 못하게 송곳과 칼날을 꽂아놓았다.

또한 여러개의 대포를 설치하고 좌우량쪽에 10개씩 노를 설치하여 빠른 속도로 움직일수 있게 하였다.

대동문: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 있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성문의 하나이다.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동문으로서 6세기 중엽에 처음 세워진 후 여러차례 보수개건하였다. 현재의것은 1635년에 고쳐세운것이다.

량천사: 함경남도 고원군 락천리 산기슭에 있는 량천사는 구조도 훌륭하지만 다양한 벽화가 있어 이름난 절로 되고있다.

량천사는 753년에 처음 세워진이래 시대를 내려오면서 계속 운영되였다. 량천사에는 대웅전과 만세루, 무량수전 등이 남아있다.

련광정: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대동강가의 덕바위우에 세운 련광정은 우리 나라 루정건축을 대표할만한 걸작의 하나이다.

6세기 중엽에 고구려가 수도성을 쌓으면서 그 내성의 동쪽장대로 처음 세운것인데 1111년 고려가 서경건설을 하면서 여기에 루정을 다시 세우고 그 이름을 《산수정》이라고 하였다.

그후 이 루정을 다시 련광정이라고 고쳐부르게 되였다.

지금의 건물은 1670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북관대첩비: 함경북도 김책시 림명리에 있는 북관대첩비는 리조시기에 세운 력사문화유적이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정문부의병대가 함경도지방에 기여든 일본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고 대승리를 거둔것을 기념하여 1708년에 세운것이다.

숭령전: 평양시 중구역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앞에 두개의 옛 건물이 있는데 동쪽의것은 숭령전이고 서쪽의것은 숭인전

이다.

숭령전은 1429년에 세웠으며 지금의 건물은 1714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칠성문: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북문이다.

칠성문이란 이름은 북두칠성에서 딴 이름으로서 북쪽에 있는 문이라는 의미에서 붙인것이다.

6세기 중엽 고구려가 평양성을 쌓을 때 처음 세워졌는데 지금의 문루는 1712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구천각: 함경남도 함흥시 동흥산구역에 있는 구천각은 옛날 함흥성의 북장대였다. 함흥성은 북방으로부터 침입해오는 적을 막기 위해 1108년에 쌓은것이다.

지금의 구천각은 1713년에 고쳐세운 건물인데 높은 축대와 그우에 세운 루정으로 되여있다.

현무문: 평양의 자랑인 모란봉의 을밀대와 최승대사이에 있는 현무문은 고구려시기의 독특한 성문형식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처음 6세기 중엽에 세운것을 1714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을밀대: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에 자리잡고있는 을밀대는 우리 나라 옛 루정을 대표하는 유적의 하나로서 6세기 중엽에 고구려의 평양성을 쌓으면서 그 내성의 북장대로 처음 지은것이다.

지금의 건물은 1714년에 고쳐지은것이다.

천주사: 평안북도 녕변군 녕변읍에 있는 약산동대의 산중턱에 자리잡고있는 특수한 형식의 절이다.

천주사는 1684년 옛 성을 고쳐쌓으면서 함께 세운 절인데 지금의것은 1722년에 고쳐지은것이다.

서운사: 서운사는 천주사에서 약산동대를 넘어서면서 약산의 제일봉 산허리에 있다.

1345년에 처음 세운 절인데 지금의 건물은 1654년에 보수한것이다.

평양종: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 있다.

원래 대동문 문루안에 매달려있었는데 1714년에 평양성 북성을 고쳐쌓으면서 북장대로 옮겨갔다.

여기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종도 깨졌는데 그때로부터 얼마후인 1726년에 청동을 부어 만든것이 지금의 평양종이다.

높이는 3.1m, 아래직경은 1.6m이며 질량은 12t 914kg이다.

안국사: 평안남도 평성시에 있는 안국사는 지금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2층절이다.

안국사사적비에 의하면 이 절은 503년 즉 고구려시기에 건설되였고 1785년에 고쳐지었다.

안국사에는 대웅보전, 대평루, 주필대, 9층돌탑 등이 남아있다.

안악월정사: 황해남도 안악군 월정리에 있는데 강원도(남) 평창리 월정사와 구별하여 안악월정사라고 부른다.

옛날책들에는 846년에 처음 세운것으로 되여있다.

리조초엽부터 여러차례 보수되였다.

경암루: 황해북도 사리원시 중심부의 경암산 북쪽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루정이다.

1436년 봉산군 마산리에 세웠었는데 1798년에 오늘의 봉산군 구읍리에 옮겨지었다가 1917년에 지금의 위치에 다시 옮겼다.

개심사: 개심사는 함경북도 명천군의 명승지인 칠보산의 개심대에 있다.

발해시기에 세워진 절이다. 1948년에 개심사를 보수할 때 이 절 대웅전의 룡마루에서 나무함이 드러났는데 그안에 있던 종이에는 이 절이 발해선왕 9년에 세워졌다는것이 밝혀져있었다.

그때의 년도가 825년이다.

측우기: 1441년 세계에서 제일먼저 발명한 비내림량을 재는 기구이다.

우리 나라 측우기는 이딸리아에서 만든것보다 200년이나 앞섰다.

《리조실록》: 《리조실록》은 리조봉건국가가 존재한 기간의 사실들을 기록해놓은 력사책이다.

책에는 리조봉건국가의 정치, 군사, 경제, 외교, 교육에 관한 자료들과 다른 력사책들에 없는 사상과 신앙, 륜리, 도덕생활, 과학

기술에 관한 각종 자료들과 인민들의 생활풍속에 이르기까지 풍부히 서술되여있다. 모두 1 763권으로서 900여책이나 된다.

비거: 날아가는 수레라는 뜻으로서 사람이 타고 비행할수 있는 일종의 활공기인데 임진조국전쟁초기에 창안리용된 군사기재이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진주성을 적들이 포위하였을 때 비거에 사람이 타고 30리를 날아 외부와의 련계를 보장한 사실이 전해지고있다.

이밖에도 리조시기의 유적, 유물에는 륙승정, 백상루, 해인사, 표훈사, 쾌궁정 등과 《량반전》, 《심청전》, 《춘향전》, 《전우치전》, 《토끼전》, 《임진록》 등 고전소설들도 있다.

관동팔경과 관서팔경, 평양팔경에 대하여

관동팔경: 관동팔경은 리조시기부터 일러오는 동쪽의 명승고적을 말한다.

여기에는 고성의 삼일포, 통천의 총석정, 간성의 청간정, 강릉의 경포대, 삼척의 죽서루, 양양의 락산사, 울진의 망양정, 평해의 월송정이 속한다.

관서팔경: 관서팔경은 우리 나라의 서쪽에 있는 명승고적을 말한다. 여기에는 평양의 련광정, 성천의 강선루, 안주의 백상루, 녕변의 약산동대, 선천의 동림폭포, 의주의 통군정, 강계의 인풍루, 만포의 세검정이 속한다.

평양팔경: 평양팔경에는 을밀상춘(모란봉 을밀대의 아름다운 봄경치), 부벽완월(옛 성벽우에 자리잡은 부벽루와 대동강물에 비낀 달밤의 풍경), 영명심승(해질무렵 영명사에 중들이 찾아드는 풍경), 련당청우(애련당에 내리는 비소리), 보통송객(보통강나루터에서 떠나는 나그네를 바래는 풍경), 룡산만취(룡산(대성산)의 사철푸른 나무가 늦은 가을에도 푸르러있는 풍경), 거문범주(수레문에서 배놀이), 마탄춘창(이른봄 대동강의 여울 마탄의 눈석임물이 넘쳐서 소용돌이치는 풍경)이 속한다. 수레문이라는것은 옛날 평천리앞을 가로막았던 외각의 성문이다.

우리 나라의 민속놀이들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속놀이들이 많이 있다.

무술 및 체력단련놀이에는 활쏘기, 말타기, 씨름, 바줄당기기, 격구, 제기차기, 장치기, 축국, 널뛰기, 그네뛰기, 연띄우기, 팽이치기, 썰매타기, 줄넘기, 놋다리놀이 등이 있다.

지능겨루기에는 장기, 윷놀이, 칠교놀이, 꼬니 등이 있다.

유희 및 가무놀이로서 꽃싸움과 풀싸움놀이, 불꽃놀이, 가무놀이, 길쌈놀이, 탈놀이가 있다.

오늘 민속놀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고있다.

세계5대문화에 대하여

세계5대문화에는 우리 나라의 대동강문화, 중국의 황하문화, 인디아의 인다스문화, 이라크의 량강문화, 에짚트의 닐강문화가 있다.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과 100년전쟁에 대하여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 고대로마에서 검투노예인 스파르타쿠스의 지도밑에 B. C. 74년에 일어난 노예폭동이다.

검투노예들의 비참한 처지를 체험한 까뿌아에 있는 검투노예《학교》 교관이였던 스파르타쿠스는 약 200명의 검투노예들로 준비한 폭동을 베주비오산에 들어가서 일으키고 도처에서 노예주들을 처단하였다. 폭동군은 수많은 노예들과 합세하여 대부대로 되였으며 로마원로원에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한 로마군과 싸웠다. 그러나 폭동군의 계급의식이 낮고 옳은 지도를 받지 못한 결과 아폴리아와 루까니아경계에서 있은 로마군과의 격전에서 패하였다.

100년전쟁: 100년전쟁은 14세기－15세기 영국과 프랑스사이에 100년간(도중에 중지되였음.) 진행된 전쟁이다.

14세기에 영국의 왕이 프랑스왕위에 오를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프랑스가 거부한것으로 하여 두 나라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였다.

영국은 이것을 구실로 1337년 프랑스를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하여 100년전쟁이 시작되였으며 초기에는 영국군이 우세하였으나 1453년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다.

《십자군원정》과 아편전쟁에 대하여

《십자군원정》

《십자군원정》은 11세기말～13세기에 서유럽봉건령주들이 토지와 재부를 략탈하기 위해 동방나라들에 대하여 감행한 전쟁이다.

《십자군원정》이라고 한것은 유럽의 봉건통치배들이 그리스도교성지 꾸드스를 이슬람교의 지배하에서 해방한다는 구실밑에 로마법왕의 호소에 따라 그리스도교의 표식인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아시아를 침략한데로부터 부른것이다.

《십자군원정》은 1096년부터 1270년까지 8차례 진행되였다.

원정에는 도이췰란드, 프랑스, 영국의 왕들까지 참가하였으며 봉건령주, 귀족들과 그들에게 속히운 농민들이 참가하였다.

원정은 매번 동방인민들의 항전으로 실패하였다.

원정과정에 동방의 발전된 경제문화가 유럽에 전파되였다.

아편전쟁

아편전쟁은 19세기 중엽 영국, 프랑스 등 자본주의나라침략자들이 중국에 감행한 전쟁이다.

당시 영국은 인디아에서 아편을 재배하여 남중국일대에 가져다 팔아서 막대한 리득을 보았다.

중국에서는 많은 돈이 영국으로 나갔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아편중독자로 타락되였다.

중국정부는 림측서를 광주에 파견하여 아편을 몰수하게 하였다.

그는 광주에서 몰수한 아편을 불태워버리면서 아편밀무역을 단속통제하였다. 영국침략자들은 이것을 구실로 1840년 6월 전쟁을 선포하고 청나라를 굴복시켰다.

그리고 1842년 8월에 《남경조약》을 강요하고 막대한 배상금과 홍콩을 빼앗았으며 5개 항구를 개항하여 침략의 문을 열었다.

그후 1856년－1860년에 2차아편전쟁이 일어났다.

전쟁기간 굴욕적인 《천진조약》이 체결되였으며 1860년 10월에 《베이징조약》이 체결되여 중국은 유럽나라들과 자본주의나라들에 더욱 예속되였다.

레닌의 4월테제의 내용과 10월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1917년 로씨야에는 2월혁명에 의하여 짜리전제제도가 무너지고 2중정권 즉 레닌이 창건한 볼쉐비크당이 령도하는 쏘베트와 멘쉐비크와 에쎄르당의 지지밑에 조직된 부르죠아림시정부가 존재하게 되였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창발성에 의하여 각지에는 로동자, 병사위원회가 창설되였으며 로동자의용부대들과 적위대가 조직되였고 부르죠아지와 로동계급사이에는 정권을 잡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바로 이러한 시기인 1917년 4월 망명지에서 돌아온 레닌은 볼쉐비크들의 집회에서 《4월테제》를 발표하였다.

테제에서 레닌은 당시의 로씨야혁명이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갈데 대한 방침과 《모든 정권을 쏘베트에로!》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쏘베트가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분야에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며 토지의 국유화, 은행들의 국립은행에로의 통합, 생산과 분배에 대한 로동자들의 감독 등을 실현하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전쟁을 중지하고 정권을 쏘베트에로 넘길것을 요구하여 반정부시위가 벌어졌다.

또한 레닌은 당의 강령과 당의 방침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칭하며 제3국제당을 창건할데 대한 과업을 밝히였다.

이 시기 림시정부는 장교들과 사관학교학생들을 동원시켜 류혈적인 탄압을 벌리였다.

하여 볼쉐비크당은 지하투쟁을 하게 되였으며 레닌은 다시 망명생활을 하게 되였다.

볼쉐비크당은 7월사변이후 반혁명적폭력이 강화되고 혁명의 평화적발전이 불가능해지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비크) 제

6차대회를 소집하고 무장투쟁방침을 제시하고 폭동준비를 다그쳐나갔다.

당시 짜리로씨야 총사령관이였던 꼬르닐로브가 영, 프제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1917년 8월 전선에서 무장반란을 일으키고 뻬뜨로그라드를 공격하자 볼쉐비크당은 뻬뜨로그라드 로동자, 병사들에게 혁명을 수호할것을 호소하고 선두에서 인민들과 함께 무장반란을 진압하였다.

볼쉐비크당은 혁명정세가 성숙됨에 따라 무장폭동준비를 다그쳤으며 10월 레닌이 핀란드에서 비밀리에 뻬뜨로그라드에 돌아오자 레닌의 참가밑에 당중앙위원회에서는 무장폭동의 지도기관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정치국을 선거하였으며 공장, 기업소들에 적위대를 조직하고 뻬뜨로그라드수비대와 발뜨함대에 정치위원들을 파견하였다.

림시정부가 파견한 경찰과 장교부대가 볼쉐비크당중앙위원회 기관지의 인쇄소를 공격하고 군사혁명위원회 성원들을 체포하고 당중앙위원회와 군사혁명위원회가 있는 스몰리늬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있을 때 적위대와 혁명적인 병사들은 그들을 역포위하고 적들을 무장해제시켰으며 레닌의 명령에 따라 10월 24일 밤에는 로동자적위대, 발뜨함대해병들, 수도의 수비대들로 이루어진 20여만의 무장대오가 폭동에 떨쳐나섰다.

10월 25일 밤 순양함 《아브로라》호의 포성과 함께 동궁을 공격하여 림시정부대신들을 모조리 체포하였으며 폭동은 승리로 끝났다.

1917년 10월 25일 밤 스몰리늬궁전에서 제2차 전국쏘베트대회가 열리게 되였으며 회의에서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쏘베트정부를 수립하였다. 하여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사회주의국가로서 로씨야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이 세워졌다.

그후 혁명은 모스크바를 비롯한 전국각지에로 확대되여 3～4개월내에 로씨야의 넓은 지역에 쏘베트정권이 수립되였다.

10월혁명의 승리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전 쏘련의 형성에 대하여

쏘련의 형성당시 4년간의 제1차 세계대전과 3년간의 공민전쟁으로 로씨야의 경제는 파괴되고 인민들의 생활형편은 말이 아니였다.

그러나 인민들은 난관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공장, 기업소, 철도들을 복구하고 도처에 발전소들을 건설하여 1925년에 인민경제복구사업은 기본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이 시기 파괴된 나라의 경제를 복구하는 사업과 함께 쏘베트정권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는 쏘련을 형성하는것이였다. 다민족국가인 쏘베트로씨야에서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고 국가안에 포함되여있는 5개의 사회주의가맹공화국을 하나로 단합시키는것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당시 쏘베트국가안에 존재한 볼쉐비크당과 붉은군대는 모든 사회주의공화국들을 대표하는 당이였고 군사조직이였다.

하여 인민경제복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었던것이다.

1922년 12월 30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전련맹쏘베트대회에서는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방(쏘련)을 형성할데 대한 조약이 체결되였으며 로씨야, 우크라이나, 벨라루씨, 자깝까즈(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야, 그루지야) 등 4개의 쏘베트국가로 형성된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의 창건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1924년 1월 31일 제2차 전련맹쏘베트대회에서 헌법을 채택하였다. 그후 쏘련에 많은 공화국들이 가맹하여 가맹공화국의 수가 15개로 늘어났다.

중국에서의 5.4운동에 대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후 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고 반봉건반식민지국가로 남아있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봉건군벌통치가 실시되고있었으며 제국주의세력을 등에 업은 단기서, 장작림, 조곤, 오패부, 풍옥상 등 군벌들간의 싸움이 계속되고있었다.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는 중국인민들을 각성시킴으로써 그들의 반제자주의식은 강하게 높아져 5.4운동으로 불리우는 전인민적

인 반제반봉건투쟁이 일어났다.

제1차 세계대전이후 제국주의렬강들은 프랑스의 빠리에 모여 전패국들의 식민지를 다시 분할해가지기 위한 강화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 영, 프제국주의자들은 도이췰란드의 세력권이였던 산동반도를 일제에게 넘기는 문건을 중국대표에게 내리먹이려 하였다. 단기서반동군벌정부는 이 결정을 접수하려 하였다. 이 사실은 중국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하여 1919년 5월 4일 베이징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 학생 3 000명은 천안문광장에 모여 빠리강화회의의 결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후 시위투쟁을 벌리였으며 전국의 청년학생들에게 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총통부앞으로 밀려간 시위자들은 조여림, 장종상, 륙종여 등 매국역적들을 처벌할것을 요구하였으며 그것이 실현되지 않자 군대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일본공사관과 매국역적들의 집을 습격하고 불을 질렀다.

시위투쟁에서 중국반동경찰들의 탄압책동으로 30여명의 학생들이 체포되고 여러명이 학살되자 격분한 베이징의 학생들은 동맹휴학에 들어갔으며 베이징시민들도 이 투쟁에 합세하였다.

5.4운동이 전국적범위에로 확대되자 반동군벌들은 수많은 시위자들을 체포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으나 투쟁은 20개의 성을 비롯하여 많은 도시들에로 확대되여 전중국을 휩쓸었다.

이에 겁을 먹은 반동정부는 체포한 학생들을 석방하고 매국역적들의 직무를 떼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강화회의에 참가한 중국대표에게 조약문건에 조인하지 말것을 지시하였다.

결과 5.4운동은 중국인민의 승리로 끝났다.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합작에 대하여

중국에서 로동운동이 급속히 앙양되는 속에 1921년 7월 1일 상해에서 중국공산당이 창건되였다.

중국공산당은 손중산이 지도하는 국민당과 동맹을 맺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국민당과 합작하여 북부에 있는 봉건군벌

을 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며 통일적이며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손중산은 사회주의10월혁명이후에 자기의 사상과 국민당의 활동을 총화하고 국민당개조선언과 반제반봉건적인 신삼민주의를 내놓았다. 손중산은 구삼민주의에 기초하여 《련쏘》, 《련공》, 《부조공농》의 정치적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개혁사상인 신삼민주의로선을 내놓았다. 이것은 당시 중국공산당이 주장한 통일전선로선에 맞는것이였다.

중국공산당은 북벌을 위한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합작을 실현하기로 하였다. 하여 1924년 1월 중국의 광주에서 열린 국민당을 다시 개조하는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회의에서 국공합작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다. 대회에서 공산당원들이 개인자격으로 국민당에 가입한다는 결정을 채택하고 공산당과 국민당의 합작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국민당원들과 공산당원들로 새로운 국민당 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하여 공산당원들은 개인자격으로 국민당에 들어가 요직을 차지하고 선봉적역할을 하였다.

이것이 제1차 국공합작이다.

국공합작이후 공산당과 국민당은 손중산을 총통으로 하는 국민혁명정부를 세웠으며 공산당과 국민당의 공동노력으로 군사지휘관을 키우는 황포군관학교가 세워졌다.

또한 두개의 정부 즉 북방의 베이징봉건군벌정권과 남창의 광동국민혁명정부가 수립되게 되였으며 광동국민혁명정부는 공산당의 노력에 의해 혁명적으로 개조되였다.

중국에서 북벌전쟁에 대하여

국공합작이후 중국에서는 반동군벌들의 책동으로 경제가 여지없이 파괴되였다.

중국인민은 하루빨리 반동군벌들을 없애고 통일된 국가를 세울것을 요구하게 되였다.

하여 중국에서는 제국주의와 봉건군벌세력을 반대하는 제1차 국

내혁명전쟁이 진행되였다. 이것을 《북벌전쟁》이라고 한다.

1926년 7월 1일 광동국민정부가 《북벌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중국공산당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반제반봉건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전체 인민이 북벌전쟁에 참가할것을 호소하였다.

1926년 7월 장개석을 총사령으로 하는 국민혁명군은 북벌을 시작하여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인민들의 지원밑에 호북지방의 군벌세력을 격파하였고 1926년말에는 중국의 중남부지방과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해방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북벌이 승리적으로 진척되고 혁명이 심화되자 국민당 우익반동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상해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국공합작을 파탄시켰다.

이 시기 상해시 로동자들은 공산당의 지도밑에 3차례의 폭동을 일으켰다.

1927년 3월 주은래의 지도밑에 상해폭동군은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상해시를 해방하였다. 해방된 도시에서는 공산당의 지도밑에 상해림시혁명정부가 수립되였다. 상해와 남경이 해방되자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령사관이 침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남경에 포탄을 쏘아 많은 인민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남경침략과 때를 같이하여 장개석의 반혁명적책동도 로골화되였다. 그는 1925년 손중산이 병으로 사망하자 국공합작을 파탄시키고 모든 권력을 틀어쥐려고 날뛰였다.

장개석도당은 지난 시기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반혁명적인 군사정변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며 1927년 4월에는 깡패무리들을 내몰아 로동자규찰대와 싸우게 한 다음 그것을 구실로 로동자규찰대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격분한 상해시민들이 군중대회에서 장개석에게 항의를 들이대자 그는 기관총사격으로 수백명을 살해하였으며 로동조합들을 습격파괴하였다.

장개석도당은 또한 광동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공산당원들과 로동자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였으며 공산당과 로동자출신의

지휘관들을 국민혁명군에서 내보냄으로써 국공합작을 파탄시키였다. 장개석도당은 남경에서 반혁명정부를 따로 조작하고 무한의 국민혁명정부까지 제놈의 손에 틀어쥐였다.

하여 북벌전쟁은 중도에서 실패하였으며 제1차 국내혁명전쟁도 실패하였다.

중국에서 제2차 국내혁명전쟁과 2만5천리장정에 대하여

중국에서의 제2차 국내혁명전쟁을 《10년내란》, 《토지혁명전쟁》이라고도 한다.

제1차 국내혁명전쟁이 실패한 후 중국공산당은 긴급회의를 열고 공산당의 독자적인 무력을 창건하여 장개석의 국민당무력과 싸울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다.

강서성 남창에서 주은래를 책임자로 한 주덕, 엽정, 하룡의 부대들은 1927년 8월 1일 새벽 남창시에 대한 공격에로 넘어갔으며 도시는 완전히 봉기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였다.

남창폭동을 계기로 중국공산당은 자기의 무력인 홍군을 가지게 되였고 제2차 국내혁명전쟁이 시작되게 되였다.

그후 혁명을 넓은 농촌지역에로 확대하기 위하여 농민들을 추수폭동에로 불러일으켰으며 모택동은 추수폭동이 끝난 후 폭동군을 이끌고 호남과 강서의 접경지대인 정강산으로 들어가 그곳에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남창폭동부대도 정강산에 들어가 로농홍군과 합세하여 제4군을 편성하고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다.

해방지구들에서는 로농정부가 조직되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이 실시되였다. 또한 강서성 서금에 중앙로농민주정부를 수립하였다.

장개석도당은 이에 겁을 먹고 미제의 《지원》밑에 중앙근거지를 포위《토벌》하였다. 그러나 홍군과 해방지구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장개석군대의 《토벌》작전은 실패하게 되였다. 이 시기 일제침략군은 중국의 동북지방을 강점하고 전중국을 강점할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장개석도당은 일제와 싸워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구원할 대신 침

략자와 타협하면서 홍군을 공격하는데 집중하였다.

하여 1934년 10월 홍군지휘부는 중앙근거지를 떠나 2만5천리 장정의 길에 올랐으며 1935년 5월 대도하를 강행도하하여 1935년 10월 목적지인 섬북해방지구(섬서성북부)에 도착하였다.

이 기간 귀주성 준의에서 있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에서는 왕명을 비롯한 당지도부의 기회주의로선에 종지부를 찍고 모택동을 수반으로 하여 새 지도기관을 선거하였으며 력사적인 2만 5천리장정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였다.

서안사변에 대하여

서안사변은 1936년 12월 장학량의 동북군과 양호성의 서북군이 서안에서 국민당의 장개석을 억류하고 그에게 《국공련합》으로 항일전을 벌릴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중국공산당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체 인민들을 항일에로 불러일으키는 한편 장개석의 국민당에 국내전쟁을 중지하고 항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것을 제기하였다.

이때 장학량의 동북군과 양호성의 17로군 병사들은 홍군과의 싸움을 거부하고 지휘부에 홍군과 공동으로 항일할것을 요구하였다. 장학량과 양호성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1936년 봄 정식 홍군과의 싸움을 중지하였다.

1936년 10월 장개석은 남경에서 서안에 와서 장학량과 양호성에게 홍군에 대한 공격을 강요하였으며 서안의 학생들이 장개석에게 항일할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리자 시위자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였다.

장학량과 양호성은 장개석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를 체포하였다.

장개석의 체포를 안 남경정부의 국민당반동들은 일제의 사촉밑에 서북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무력침공을 준비하였다.

서안사변은 1936년 12월 장학량과 양호성이 병사들을 동원하여 장개석을 체포하고 서안에 있는 장개석의 부하들을 모조리 잡아가둔것을 계기로 일어났다.

이 시기 일제는 국민당정부에 국내전쟁을 부추기였으며 중국

공산당은 국내전쟁의 위험을 수습하기 위해 주은래를 대표로 서안에 파견하여 장학량과 양호성에게 공산당과 함께 항일할것을 담보하는 조건에서 장개석을 석방하라고 하였다. 하여 장개석은 일제와 싸우겠다고 《약속》하고 12월에 석방되여 남경으로 갔으며 이때 장학량은 장개석의 마음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장개석을 따라 남경까지 갔다.

장개석은 남경에 도착하자 장학량을 체포하였다.

동북군지휘관들은 양호성에게 남경정부와 결사전을 벌려 장학량을 구원할것을 청원하였고 이로 하여 내전이 터질수 있는 정세가 조성되게 되였다. 이때 주은래는 동북군병사들속에 들어가 서로 단결하여 합작하도록 이끌어주었으며 60여일만에 서안사변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후 장개석은 항일을 요구하는 공산당과 전체 인민들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1937년 2월 국민당회의를 열고 내전을 중지하고 국공합작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확정하게 되였다.

웰남인민들의 독립투쟁에 대하여

웰남은 제1차 세계대전이후에도 프랑스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남아있었다. 이때 웰남인민들속에서는 자주의식이 자라나 로동운동을 비롯한 혁명운동이 장성강화되였으며 공산주의소조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공산당을 창건하기 위해 호지명은 국제공산당안에서 《동방부》 상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웰남혁명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였다.

호지명은 중국의 광동으로 투쟁무대를 옮기고 여기서 공산당 창건사업을 진행하였으며 1925년 6월 광주에서 웰남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웰남청년혁명동지회》를 결성하고 조직의 대렬을 늘여나갔다.

1930년 2월에 호지명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3개의 공산주의대표들의 회의가 홍콩에서 열리였으며 회의에서는 3개의 공산주의적조직들을 통합하여 통일적인 웰남공산당을 창건하였다.

그후 웰남, 라오스, 캄보쟈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인도지나공산당을 결성하였으며 혁명운동은 새롭게 장성강화되게 되였다.

1930년대에 인도지나공산당의 령도밑에 침략자들에 대한 대중적투쟁이 진행되였다. 하여 1930년 9월 느구엔－딘지역에서는 농민들의 대중적무장봉기가 일어났다.

폭동군은 반동관리들을 처단하고 지주들의 토지문서를 불태워버리였으며 주변도시의 로동자들은 무장자위대들을 조직하여 농민들의 투쟁에 합세하였다. 느구엔－딘지역은 폭동군중의 수중에 장악되고 인민쏘베트가 수립되게 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느구엔－딘지역에 수립된 쏘베트정권은 인도지나공산당의 옳은 지도를 받지 못한 결과 여러 좌경적결함들을 범하게 되였다.

또한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이 지역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하여 1931년 느구엔－딘지역의 쏘베트운동은 실패하게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프랑스가 파쑈도이췰란드에 강점된 기회를 리용하여 일제가 웰남을 강점하자 웰남인민은 북부국경지역에 근거지를 설치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였다.

1941년 12월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유격부대를 통합하였으며 1944년 6월 북부웰남을 해방하고 해방지구를 창설하였다.

인민해방군은 일제의 침략거점을 비롯하여 여러 도시를 해방하였으며 8월 27일 웰남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였다.

1945년 9월 2일 독립경축대회에서 웰남민주공화국의 창건을 선포하였다.

인디아인민들의 반영투쟁과 간디의 투쟁에 대하여

사회주의10월혁명이후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운동은 더욱 강화되였다.

인디아에서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이 더욱 앙양되였다.

제1차 세계대전시기 영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략탈행위로 수많은

인디아인민들이 굶어죽었으며 막다른 처지에 빠지였다.
놈들은 그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기 위해 인디아의 《자치》를 허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격분한 인디아의 인민들은 반영투쟁에 궐기하였다. 1918년 3월 100만의 뭄바이방직공들이 붉은기를 들고 로동계급의 해방과 인디아의 독립을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후 인디아인민의 반영민족해방투쟁은 간디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대회당에 의해 지도되였다.
간디는 국민대회당지도자로서 《자아완성론》에 기초한 비폭력불복종사상을 내놓았다.
《자아완성론》은 인간이 자유를 얻으려면 부단히 자기가 자신을 단련하고 개조하여야 한다는 개량주의리론이다.
또한 간디는 폭력투쟁으로 영국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나라의 완전해방을 이룩할것이 아니라 파업, 시위, 단식, 태업, 보이꼬트 등 비폭력적저항운동으로 《자치》형식의 독립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영국식민지당국은 1918년에 내놓았던 기만적인 《인디아통치법》을 대신하여 1919년 3월에 《로우렛트법》(형사긴급소송권한법)이라는 악법을 조작공포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법을 리용하여 아무런 법적절차도 없이 인디아사람들을 체포처형하려 하였다.
인디아인민들은 국민대회당의 불복종정책에 따라 처음에는 파업, 시위, 집회 등 평화적방법으로 투쟁을 벌렸으며 이 투쟁은 점차 전인디아로 확대되여 다양하게 진행되였다.
1919년 4월 영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처사에 격분한 암리짜르시민들은 항의집회를 가진 후 경찰들과 몽둥이로 맞서 싸웠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이곳 인디아인민들을 류혈적으로 탄압하였으며 이 사건을 《암리짜르사건》이라고 부른다. 《암리짜르사건》에 격분한 판쟈브의 50여개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으며 놈들의 경찰기관, 철도, 렬차를 습격파괴하였다. 당황한 영제국주의자들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침략군을 내몰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이 투쟁은 영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만행과 인디아국민대회당 상층들의 투항변절로 실패하고말았다.

함부르그폭동에 대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후 1918년 11월 나라의 정세가 복잡하고 비참한 상태에 처하였을 때 도이췰란드해병들과 인민들이 혁명운동을 일으키고 반동적군주제도를 뒤집어엎었지만 혁명의 열매는 지도권을 쥐고있던 사회민주당기회주의자들에게 넘어갔다.

정권을 잡은 사회민주당기회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을 탄압하고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세속에 1918년 12월 도이췰란드사회민주당안의 좌파중심인물인 칼 리프크네히트, 로자 룩셈부르그, 웰헬름 피크는 도이췰란드공산당을 창건하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폭동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그는 체포되여 학살되였다.

그후 도이췰란드공산당은 대렬을 확대강화하였다. 1923년 5월 루르지방에서는 40만명의 로동자들이 반동정부를 반대하여 대규모파업을 일으키고 로동자정부까지 조직하였으나 로동자정부안에 들어가있던 공산당대표들의 우유부단한 립장으로 투쟁이 통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공산당은 텔만에게 무장봉기를 일으킬 과업을 주었다.

1923년 10월에 함부르그로동자들은 텔만의 지도밑에 무장폭동을 일으키고 여러 경찰서들을 점령하였으며 적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을 갖추었다.

도시를 장악한 로동계급은 쏘베트정권수립을 선포하였다.

반동정부는 함부르그로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많은 력량을 동원시켰다. 이러한 시기인 10월 25일 텔만은 당중앙위원회가 무장봉기를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다. 결과 폭동은 실패로 되였다.

폭동은 투항분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통일적이며 혁명적인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한

결과 실패하였다.

폭동후 텔만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로동계급의 당과 뜨로쯔끼주의적브란들레르도당과의 계선이 갈라지게 되였다.

1925년 도이췰란드공산당은 텔만의 지도를 받게 되였으며 텔만은 대통령후보로까지 출마하게 되였다.

이딸리아에서 파쑈정권의 수립에 대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후 이딸리아는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인 1921년에 이딸리아공산당이 창건되였다.

1920년—1921년 이딸리아도 경제공황의 위기에 빠지게 되였다.

이딸리아통치배들은 파국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쑈독재를 세우려고 책동하였다.

이 시기 파쑈독재의 우두머리가 무쏠리니였다.

무쏠리니는 1919년 3월 이딸리아북부의 밀라노에서 반동적인 장교들과 제대군인, 지주, 자본가들의 자식들로 파쑈적인 《이딸리아전투자단》을 조직하였으며 후에는 《국민파시스트당》이라고 고치고 두령이 되였다.

무쏠리니는 기만적인 선전공세로 많은 사람들을 파시즘신봉자로 만들면서 파시스트행동대라는 테로단체(검은 샤쯔를 입었다고 《흑샤쯔부대》라고 한다.)를 조작하고 공개적으로 공산당원들과 로동조합, 사회당을 비롯하여 진보적인사들을 공격하였다.

대독점자본가들은 해외침략을 위하여 무쏠리니를 파쑈독재수립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많은 자금과 무기를 대주면서 정권장악에로 부추겼다.

무쏠리니는 파시스트부대를 동원하여 많은 지역을 장악하였으며 로마로 진격하여 국가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자본가들은 국왕에게 무쏠리니가 수상으로 되게 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결국 무쏠리니는 1922년 10월 독점자본가들의 지지밑에 수상으로 되였고 당수, 내무상, 외무상, 륙, 해, 공군상,

로동상 등을 겸임하고 무제한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하여 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제일먼저 이딸리아에서 반동적인 파쑈독재정권이 수립되였다.

히틀러의 정권장악과 《국회의사당방화사건》에 대하여

1919년 9월 히틀러는 《도이췰란드로동자당》에 들어갔으며 다음해 선전부장으로 되였다. 1920년 뮨헨집회에서 히틀러는 《도이췰란드민족사회주의로동자당》(나치스당)으로 개칭하고 정권을 잡기 위한 기만적인 선전을 벌리였다.

히틀러는 인민들에게 《강대한》국가, 《생활향상》 등을 《약속》하는 연설로 인민들을 현혹시키였으며 대독점자본가들과 군부우익반동계급층의 지원밑에 파시스트당의 당수로 되였다.

히틀러는 나치스당이 정권을 잡으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잃어버린 령토들을 되찾을것이라고 하면서 복수주의를 선전하였으며 흉악한 인종주의론을 들고나와 사람들을 기만하였다.

하여 각성되지 못한 근로자들은 나치스당에 끌려들어갔으며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려는 독점자본가들의 지지를 받은 히틀러는 자기의 세력을 늘여 1923년 파쑈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반란은 바바리아국방군과 관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반격을 받아 실패하였다. 그후 감옥에 들어가 《특별손님》으로 대우받다가 독점자본가들의 지원을 받아 9월말에 놓여나왔다.

도이췰란드에 파국적인 경제공황이 들이닥치자 출로를 해외침략에서 찾은 대독점자본가들은 히틀러를 부추기였다. 히틀러는 미국을 비롯한 대독점자본가들의 원조밑에 선거전에 나섰다.

1932년 4월에 진행된 선거이후 1933년 1월 대통령 힌덴부르그는 히틀러에게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것을 위임하였으며 하여 도이췰란드에서는 히틀러를 수상으로 하는 파쑈정권이 수립되였다. 그후 대통령 힌덴부르그가 죽자 히틀러는 대통령제를 없애고 도이췰란드를 《제3제국》으로, 자기를 제국의 총통으로 선포하였다.

히틀러는 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해 우선 자기의 졸개인 게링그와 《국회의사당방화사건》을 조작하였다.

1933년 2월 히틀러의 지시를 받은 게링그는 졸개들이 국회의 사당에 불을 지르게 하고는 그 《죄》를 공산당에 넘겨씌웠다.

그리고는 이미 짜놓은 계획에 따라 텔만을 비롯한 1만여명의 공산당원들을 체포하였으며 국제공산당의 위임에 따라 도이췰란드에 와있던 벌가리아공산당 지도자이며 국제로동운동활동가인 지미뜨로브까지 잡아가두었다. 그리고 공산당활동을 금지시키였으며 다른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시켰다.

히틀러는 그후 방화사건죄를 공산당에 넘기려는 재판놀음까지 벌리였으며 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 파쑈사상을 강제로 주입시키는 한편 전쟁준비에 미쳐날뛰였다.

《9.18사변》과 일본에서의 파쑈독재정권의 수립에 대하여

1929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경제공황은 일본에도 미치였다.

일제는 공황이 들이닥치자 파쑈폭압과 수탈을 강화하면서 아시아대륙에 대한 침략의 길에 나섰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후 《만주는 일본의 생명선》이라고 하면서 전쟁준비를 다그쳤다.

일제는 1931년 9월 18일에는 관동군관할지역에 있는 류조구철길을 제손으로 폭파한 후 그 책임을 중국군대에 뒤집어씌우고 심양을 점령하며 이어 전만주를 강점할 흉계를 꾸미였다.

1931년 9월 18일 밤 10시 20분 중국사람들로 변장한 폭파수들이 류조구철길을 폭파하였다.

일제침략군은 미리 대기하고있다가 중국군대가 철길을 폭파하였다는 구실을 내들고 심양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사건의 진상을 가리우려고 폭파하다가 죽었다는 2명의 중국사람시체를 일제 《관동군》사령부로 옮겨놓았다.

만주를 강점한 일제는 청나라 마지막황제였던 부의를 내세워 1932년 3월 괴뢰《만주국》을 꾸며냈다.

세계공황을 전후하여 일본에서도 파쑈세력이 머리를 쳐들고 책동하였다.

일본의 파쑈분자들은 일본왕을 우두머리로 내세우고 그를 리용하여 군부가 정권을 타고앉아 파쑈테로통치를 실시하는 파쑈독재정권을 세우려고 하였다.

이것은 왕의 절대적인 권력과 각성되지 못한 인민들의 왕에 대한 환상을 리용하여 나라의 파쑈화를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기도가 숨어있는것이였다.

《9.18사변》이후 군부안에는 군사파쑈정권을 세우고 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차례의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일본에서 천황제파쑈독재정권수립의 중요한 계기로 된것은 《2.26사건》이였다.

1936년 2월 26일 황도파 파쑈반란자들은 수상이하 여러 대신들의 집을 습격하여 죽이거나 중상을 입히였으며 경시청, 륙군청 등 일본정계의 심장부들을 제압하였다.

이자들은 황도파중심의 파쑈정권을 세우려다 군부의 일치한 지지를 받지 못하여 실패하게 되자 1936년 3월에 극악한 반공분자이며 파쑈분자인 히로다를 수상으로 하는 새 내각을 조작하였다. 《2.26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군부가 직접 정권을 잡은 파쑈독재정권이 수립되였다.

중일전쟁의 도발에 대하여

일제는 만주를 강점한 후 전중국을 강점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다그쳤다.

일제는 중일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군대가 있는 로구교부근에 자기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것은 이 철교를 장악하고 철도를 리용하여 베이징을 비롯하여 사방으로 침략의 손을 뻗치자는 속심이였다.

1937년 7월 7일 로구교일대에서 일제는 일명 《야간훈련》이라는 구실을 걸고 중국군이 차지한 일대에 침입하였으며 훈련중 한 명의 병사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중국군대의 관할지역을 수색할것을 요구하였다.

중국군대가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자 일제는 무턱대고 중국군

대가 자기네 병사를 감추었다고 하면서 공격을 들이대였다.

하여 중일전쟁이 도발되게 되였으며 이것을 《로구교사건》 혹은 《7.7사변》이라고 한다.

일제의 공격에 장개석은 로구교사건의 책임에 대하여 사죄하면서 정전을 제기하였다.

장개석은 일제가 베이징, 상해, 천진, 남경, 광주 등 여러 지역을 강점하자 내외의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로농홍군과 공동으로 항일하는데로 하는수없이 나가게 되였다.

장개석군대는 그후 항일투쟁을 하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을 쳤으며 공산당을 탄압하는데로 나갔다. 그러나 공산당이 령도하는 8로군과 신사군은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다.

《하싼호사건》과 《할힌골사건》에 대하여

《하싼호사건》은 1938년 7～8월에 일제가 하싼호지역에서 쏘련을 반대하여 감행한 무력침공사건이다. 일명 《장고봉사건》이라고도 한다.

하싼호지역은 조선과 쏘련, 중국 세 나라 국경선이 지나가는 중요한 전략적지점이다.

일제는 연해주지역에 배치된 쏘련군대의 능력을 타진하며 하싼호서쪽에 있는 장고봉을 탈취함으로써 연해주지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려고 획책하였다.

1938년 7월 일제가 하싼호서쪽고지에 주둔한 쏘련군대를 철수할것을 강도적으로 요구하자 쏘련은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7월 29일 밤 불의에 쏘련국경을 넘어 장고봉을 강점하였다. 쏘련군대는 8월 6일 즉시적인 반격을 가하여 8월 9일에는 쏘련령토를 완전히 되찾았다.

그후에도 쏘련군은 일제의 여러차례 되는 공격을 격퇴하였다. 쏘련군은 8월 11일에 일본정부의 요청에 따라 군사행동이 중지되였다.

하여 《하싼호사건》은 일제의 패배로 끝났다.

《할힌골사건》은 1939년 5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일제가 쏘련과 몽골을 침략하기 위해 감행한 무력침공사건이다. 일명 《노

몽한사건》이라고도 한다.

일제는 할힌골을 침공하여 쏘만국경지역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씨비리철도간선을 절단하여 쏘련으로부터 떼여내려고 하였다.

일제는 1939년 5월 몽골국경수비대원들이 국경을 침범하였다는 트집을 걸고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쏘련과 몽골군대는 수적우세를 믿고 달려드는 침략자들에게 여러차례 반격을 가하였으며 일본침략군을 수만명이나 살상포로하였다. 그후 9월 16일 모스크바에서는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군사행동은 중지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할힌골사건》이 발생하자 쏘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무장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이 군사활동을 적극 벌리도록 조직지휘하시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국주의렬강의 두 련합세력사이에 진행된 제국주의전쟁이다.

이 전쟁은 략탈적부정의의 전쟁이였으나 다만 쓰르비아, 쯔르나고라에 있어서는 민족해방전쟁의 요소도 가지였다.

1907년에 새로운 세계경제공황이 폭발하자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적위기의 출로를 침략전쟁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이 시기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를 재분할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시장을 획득하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책동하였다.

제국주의렬강들간의 모순이 가장 첨예화된 곳은 도이췰란드와 영국이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동기는 1914년 6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프란쯔 페르디난드부부가 보스니아의 싸라예보에서 암살당한 사건이였다.

사건은 이 시기 오스트리아－마쟈르가 군사연습을 벌리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보러 온 황태자부부가 쓰르비아의 민족주의청년이 쏜 총에 맞아 죽은것을 계기로 일어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마쟈르는 도이췰란드의 부추김밑에 7월 28일 쓰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쓰르비아를 리용하려던 로씨야는 총

동원령을 내려 오스트리아—마쟈르국경에 군대를 집결하였다.

도이췰란드는 이것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이것이 거절되자 8월 1일 로씨야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리고 8월 3일에는 방비가 약하고 중립국이였던 프랑스와 벨지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영국은 로씨야, 프랑스편에서 8월 4일 도이췰란드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등 여러 나라가 전쟁에 참가하게 되였다. 전쟁은 도이췰란드—오스트리아뿔럭에서 뛰르끼예, 벌가리아를 포함하여 4개 나라, 《협상국》측에서는 34개 나라가 참가한 력사상 세계최초의 세계대전이였다.

일제는 1914년 8월 전쟁에 참가하였다.

미제는 《중립》의 간판밑에 무기를 교전쌍방에 팔아 막대한 돈벌이를 하였으며 전쟁의 마감에는 분배몫분할에 참가하기 위해 1917년 4월 《협상국》측에서 전쟁에 참가하였다.

도이췰란드는 력량을 동원하여 프랑스를 격멸하고 총동원하여 로씨야를 공격하여 전쟁을 결속지으려 하였다.

로씨야가 동부전선에서 도이췰란드를 격파하자 도이췰란드군은 하는수없이 일부 력량을 동부전선에 돌리게 되였으며 결과 서부전선에서도 패하게 되였다. 그후에도 도이췰란드군은 여러 전선에서 패하게 되자 방어에로 넘어가게 되였다.

로씨야는 1916년 6월 서남전선에서 오스트리아—도이췰란드군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여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으며 로므니아군대와 합세하여 우크라이나로 침입하던 도이췰란드군을 격파하였다.

한편 영프군은 8월 아이앵작전을 벌려 도이췰란드군방어선을 뚫고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다른 전선에서도 련속 타격을 주었다. 이 전쟁에서 영국은 처음으로 18대의 땅크를 사용하였다.

이 시기 도이췰란드에서는 혁명이 앙양되여 폭동이 일어났다.

더는 견딜수 없게 된 도이췰란드는 전쟁에서 패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약 4년 3개월 진행되였다.

전쟁기간에 도이췰란드는 1915년 4월 독가스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방독면이 발명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요인에 대하여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전세계 민주력량이 파쑈국가들인 파쑈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 일본과 그 동맹국들을 반대하여 벌린 반파쑈해방전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경제위기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으려는 제국주의렬강들에 의해 도발되였다.

당시 1937년에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새로운 경제공황으로 제국주의자들은 판매시장과 원료원천지, 자본투하지를 쟁탈하기 위해 침략전쟁의 길로 나가려 하였으며 특히 제1차 세계대전후 다시 재생된 도이췰란드제국주의는 복수주의야망을 품고 세계의 재분할을 요구하였다.

파쑈도이췰란드는 세계제패의 야망을 품고 온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넓은 지역에 식민지제국을 창설하려고 망상하였으며 이딸리아파시스트들은 영국, 프랑스로부터 수단, 뛰니지, 알제리를 탈취하고 지중해지역에서 지배자가 되려고 꿈꾸었다.

또한 일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쏘련의 씨비리 넓은 지역과 연해주지방, 태평양상의 섬들을 강점하여 《대동아공영권》망상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한편 영국, 미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파쑈국가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식민지들을 보존하며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새로운 식민지세력권을 획득하려고 책동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세력권쟁탈을 위한 첨예한 모순으로 하여 제국주의렬강들간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파쑈도이췰란드와 그 동맹국측으로 볼 때는 전인류를 노예화하고 전세계를 파쑈화하려는 침략적이고 략탈적인 전쟁이였으며 미, 영, 프제국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제국주의경쟁자들을 제거하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민족해방력량을 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전쟁이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은 사회주의국가였던 이전 쏘련과 전세계 민주주의력량이 파시즘을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을 위한 항전에 나섬으로써 반파쑈해방전쟁으로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에 대하여

파쑈도이췰란드는 오래전부터 세계대전을 위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준비를 다그쳤다. 우선 1935년 3월 전반적의무병력제를 실시하고 일본과 《반공협정》을 조인하였다.

그후 1938년에 오스트리아를 강점하였으며 1939년 3월말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전령토를 강점하였다.

파쑈도이췰란드는 뽈스까에 압력을 가하였으며 세계전쟁을 위해 군사비를 1933년부터 1939년사이에 12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동맹국인 이딸리아는 에티오피아, 알바니아를 강점하였으며 일제는 중일전쟁을 확대하여 남방으로 진출하려고 책동하였다.

1939년 9월 1일 파쑈도이췰란드는 뽈스까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였다. 9월 3일 뽈스까와 동맹관계에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도이췰란드에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이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폭발하였다. 그러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뽈스까에 아무런 원조도 주지 않았으며 군사행동도 하지 않았다.

결국 1939년 9월 28일 뽈스까는 점령되였다. 하여 이것을 《이상한 전쟁》이라고 하였다.

뽈스까를 강점한 파쑈도이췰란드는 영국과 프랑스를 타격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다그쳤으며 단마르크와 노르웨이를 강점하고 불의에 프랑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은 파쑈도이췰란드의 뽈스까에 대한 침공으로부터 시작되였으며 수년간(1939～1945년까지) 진행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 진행된 렬강들사이 회담에 대하여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 테헤란회담, 크림회담, 포츠담회담 등 회담들이 있었다.

테헤란회담: 테헤란회담은 1943년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제2전선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쏘, 미, 영이 진행한 3개국 수뇌자회담이다. 회담에는 쓰딸린, 쳐칠, 루즈벨트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이전 쏘련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1944년 5월 1일까지 미, 영측이 서유럽에 제2전선을 형성할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전 쏘련은 도이췰란드가 패망한 후 대일전쟁에 참가할것과 뽈스까국경문제 등을 토의결정하였다.

그러나 미, 영제국주의자들은 회담에서 토의결정한것을 어기고 질질 끌고있다가 1944년 6월에야 북부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하였다.

크림회담: 크림회담은 쏘련의 크림반도 얄따에서 1945년 2월 도이췰란드의 전후처리 및 일본과의 전쟁을 마감짓는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된 쏘, 미, 영 3개국 수뇌자회담이다.

회담에서 파쑈도이췰란드를 무조건 항복시키며 그의 군대와 총참모부를 청산하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군수공업을 파괴 또는 통제하고 전범자들을 처벌하며 전쟁배상금을 받아낼것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전 쏘련이 도이췰란드를 격멸한 후 2～3개월이 지나서 대일전쟁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포츠담회담: 포츠담회담은 1945년 7월 도이췰란드의 베를린부근에 있는 포츠담궁전에서 쏘, 미, 영 3개국 수뇌자들이 진행한 회담이다. 회담에는 쓰딸린, 트루맨, 쳐칠이 참가하였다.

미국은 회담개막전날인 7월 16일 첫 원자탄시험을 감행하고 힘의 립장에서 회담을 저들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키려 하였다.

회담에서는 도이췰란드를 민주주의적인 평화애호국가로 만들데 대한 규정과 무장해제와 비군사화, 모든 군사 및 반군사조직들, 나치스조직들과 기관들, 총참모부의 해체, 도이췰란드독점체의 청산과 경제의 비군사화 등이 결정되였으며 도이췰란드—뽈스까국경문제와 이전 쏘련이 대일전쟁에 참가할데 대한 제의를 접수하였다.

한편 트루맨, 쳐칠, 장개석은 1945년 7월 26일 포츠담회담에서 선언을 발표하여 일제에게 무조건항복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밖에도 1943년 11월 에짚트의 까히라에서 루즈벨트(미), 쳐칠(영), 장개석(중)이 모여앉아 《대일군사작전과 전후 극동의 평화적조정》문제를 가지고 꿍꿍이를 벌리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쑈도이췰란드의 패망에 대하여

1942년 11월 19일 이전 쏘련군은 반공격에로 넘어갔으며 1943년 2월 쓰딸린그라드전투와 1943년 7～8월에 있은 꾸르스크전투에서 파쑈도이췰란드군에게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쥐였다.

그리하여 1943년말에는 강점된 이전 쏘련령토의 거의 2/3를 해방하였다.

이전 쏘련군은 1944년말에는 서부를 제외한 강점된 전쏘련령토를 해방하였으며 파쑈도이췰란드에 대한 공격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전 쏘련군은 1945년 4월에 최종적으로 도이췰란드군을 격파하기 위하여 히틀러의 마지막아성인 베를린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벌렸으며 4월 7일에는 베를린으로부터 35㎞밖에 안되는 지점까지 진출하였다.

이전 쏘련군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발악하던 히틀러는 4월 30일 쏘련군이 국회의사당건물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자 자살하였으며 히틀러의 뒤를 이어 정권을 넘겨받은 해군대장인 데니츠는 미, 영제국주의자들에게만 항복하고 이전 쏘련과는 전쟁을 계속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5월 1일에 보르만과 겝벨스가 수표한 제의서를 이전 쏘련군측에 보내여 군사행동을 중지할것을 제기하고 그사이에 숨돌릴 틈을 얻어 최후멸망에서 어떻게 하나 헤여나보려고 하였다.

이전 쏘련측은 파쑈도이췰란드가 무조건 항복할것을 요구하였으며 도이췰란드군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 베를린작전을 승리적으로 끝냈다.

한편 파쑈도이췰란드는 미, 영제국주의와 단독강화를 맺고 쏘련과 전쟁을 계속하려고 체스꼬슬로벤스꼬에 있는 파쑈군대에 군사행동을 중지하지 말것을 명령하였으며 5월 7일 미국과 영국앞에 무

조건항복을 조인하였다.

그러나 이전 쏘련군측의 항의에 의해 5월 8일 도이췰란드군사령부는 쏘련군사령부대표와 미, 영, 프랑스대표앞에서 무조건 항복을 정식 조인하였다.

이전 쏘련군은 5월 9일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인민폭동을 지원하여 도이췰란드군을 완전히 격멸하였으며 쁘라하를 해방하였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유럽전선에서의 마지막작전이였으며 이날은 파쑈도이췰란드를 격멸한 전승의 날로 되고있다.

도이췰란드는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였다.

태평양전쟁의 개시와 일제의 패망에 대하여

태평양전쟁은 유럽에서 이전 쏘련—도이췰란드사이 전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던 때인 1941년 12월부터 1945년 8월사이에 태평양지역에서 진행된 미, 영제국주의 및 기타 련합국들을 한편으로 하고 일제를 다른 편으로 하는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침략전쟁이다.

당시 일제는 유럽에서 파쑈도이췰란드의 공격에 의해 프랑스, 영국, 네데를란드제국주의자들이 동남아시아의 자기 식민지나라들에 눈돌릴사이가 없게 된 기회를 리용하여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꾀하였다.

도쿄를 두목으로 하는 일제는 동남아시아의 전략물자를 차지하면 장기전에 대처할수 있으며 도이췰란드가 이전 쏘련을 타승하는것과 함께 미, 영세력을 동남아시아에서 타승할수 있다고 망상하고 전쟁준비를 은밀히 추진시키였다.

일제는 1941년 12월 8일 새벽, 불의의 공격으로 하와이제도 진주만의 미태평양함대소속 함선들을 격침, 파괴하였으며 많은 비행기들과 비행장을 파손시켜 전쟁초기에는 우세를 보였다.

미국과 영국이 이에 대처하여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결과 동남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미, 영제국주의자들과 일제와의 태평양전쟁이 개시되였다.

일제는 불의의 기습공격으로 짧은 기간에 태평양상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였으나 1942년 5월 산호해전을 비롯한 여러 해전에서 패배를 당하였으며 그후 미해군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해상주도권을 잃게 되였다.

한편 일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중국인민의 항일전쟁에 의해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0년 8월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에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원들을 국내에 파견하여 일제와 위만군을 습격소탕하게 하시였으며 병영과 군수창고를 파괴하도록 하시였다.

태평양전쟁을 진행하면서 미제는 동남아시아의 《해방자》로 자처하면서 이 지역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악랄하게 교살하기 위해 책동하였다.

미제는 일제의 패망이 가깝게 된 시기에는 전후 국제문제처리에서 저들이 우세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목적밑에 1945년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에, 9일에는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투하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전쟁을 계속하려고 책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5년 6월 간백산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발표하시였으며 8월 9일에는 이전 쏘련의 대일선전포고와 때를 같이하여 전부대에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적을 소탕하면서 총공격에로 넘어갔으며 《난공불락의 방어선》이라는 국경요새를 무너뜨리고 두만강을 건너 조국땅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다.

조선인민을 비롯한 아시아인민의 반일무장항전과 이전 쏘련군대의 공격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하고 9월 2일 항복서에 조인하였다.

4년간의 태평양전쟁은 일제의 패망으로 끝났으며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도 종결되였다.

※ **731부대:** 일제가 세균전을 벌리기 위해 세균무기의 생산 및 전파를 목적으로 하여 조직한 《특수부대》이다.

1936년 관동군안에 3 000명으로 조직되고 극비밀리에 세균전을 준비하였다.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애국자들, 중국동북지방의 조선인과 중국인부락의 굶주린 아이들을 선심을 쓰는척 하면서 실험대상으로 끌고가서 세균종합실험을 감행하였다.

패망을 앞두고 일제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부대의 모든 건물을 폭파하고 녹여버렸다.

※ **레닌그라드방위전투:** 1941년—1944년에 이전 쏘련군과 레닌그라드시민들이 파쑈도이췰란드침략자들로부터 레닌그라드를 방위하기 위하여 진행한 전투이다.

도이췰란드의 《북부》군은 붉은군대와 레닌그라드시민들의 완강한 방어에 부딪치자 도시에 있는 군대와 시민들을 질식시키기 위해 봉쇄에로 들어갔다.

그러나 도시의 인민들과 군인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무기를 생산하였으며 불굴의 방위전투를 900여일간 벌려 도이췰란드의 공격을 물리쳤다.

중국에서의 제3차 국내혁명전쟁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대하여

중국인민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국내전쟁을 중지하고 자주독립국가를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중국에서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진행한 제3차 국내혁명전쟁은 중국인민해방전쟁이라고도 한다.

장개석도당은 혁명력량을 말살하고 저들의 반동통치를 전국에 확대하려는 속심을 가지고 공산당에 담판을 제기하여 시간을 얻으려고 꾀하였다.

공산당은 내전을 중지하고 장개석의 술책을 폭로하기 위한 담판을 진행하였으며 1945년 10월 10일 중경에서 《국공쌍방대표회담기요》(즉 《쌍십협정》)가 발표되였다.

이 시기 미제는 중경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국민당군대를 최신무장으로 준비시켰으며 많은 비행기를 합선으로 전략적요충지에 실어 날라주었다.

미제의 지원밑에 전쟁준비를 갖춘 국민당은 1946년 6월말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으로 제3차 국내전쟁을 도발하였다.

국민당군은 전쟁초기에 일시적인 우세를 리용하여 많은 지역을 강점하였으나 중국인민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장개석도당을 반대하는 항전을 힘있게 벌린 결과 다시 넓은 지역을 차지하였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키우신 항일혁명투사들과 우리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중국전선에 파견하여 도와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몸소 전장이나 다름없는 단동까지 나가시여 포위당한 동북민주련군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많은 무기와 탄약, 군수물자를 지원해주시였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파》할데 대한 공산당의 방침에 따라 1946년 11월부터 수많은 적을 소멸하고 많은 지역을 해방하였으며 1947년 7월부터 9월까지 전략적인 방어로부터 공격에로 넘어갔으며 수많은 도시들을 해방하였다.

또한 한편으로 《료심작전》(1948년 9월－11월 2일), 《회해작전》(1948년 11월 7일－1949년 1월 10일), 《평진장작전》(1948년 12월 5일－1949년 1월 31일)을 벌려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을 해방하였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은 장개석도당의 교활한 책동을 짓부시고 1949년 4월에는 놈들의 소굴인 남경을 해방하였으며 5월에는 상해를 해방하였다.

장개석도당은 미제의 방조로 대만으로 쫓겨갔으며 국내혁명전쟁은 중국인민의 승리로 끝났다.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은 베이징의 천안문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창건을 선포하였다.

웰남에서 반미구국전쟁의 승리에 대하여

웰남인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자 1945년 9월 호지명을 수반으로 하는 웰남민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미제는 1954년 9월 《동남아시아조약기구》(세아토)를 조작하였으며 1955년부터 제네바협정을 위반하고 남부웰남에 군사기지를 꾸리고 남부웰남괴뢰군을 현대적무장장비로 무장시켰다.

또한 남북총선거를 파탄시키고 남부웰남에서 단독선거를 진행하여 《웰남공화국》을 조작하였다.

하여 남부웰남지역에서는 괴뢰도당의 폭압정치를 반대하여 자위대를 뭇고 략탈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났다.

1960년 12월초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이 조직되고 1961년에 도처에서 활동하던 유격대로 남부웰남해방군을 창건하였으며 조직적이며 강력한 항쟁을 벌리였다.

미제는 이 지역에서 1961년에 《특수전쟁》을 벌렸으며 1963년 11월에는 군사정권을 조작하고 군사독재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지도밑에 남부웰남 애국자들의 투쟁으로 《특수전쟁》은 실패하였다.

이 투쟁으로 나라의 령토의 3/4을 해방하였다.

미제는 1964년에 선전포고도 없이 웰남민주공화국의 군사대상과 주민지대를 폭격하였으며 남부지역에 폭격과 포사격을 가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한편 웰남인민의 투쟁에 의해 사이공괴뢰군이 련속 패하자 당황한 미제는 1965년 3월 다낭항에 첫 미해군륙전대를 상륙시키고 저들이 전쟁에 직접 나서는 《국부전쟁》을 벌려놓았다.

또한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계단식전쟁확대》정책을 계속 감행하였다. 그러나 1965년 상반년에 남부웰남해방군은 여러 큰 전투들을 벌려 미제침략군과 사이공괴뢰군을 련속 타격하였다.

미제는 남조선, 대만,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침략무력을 끌어들였으며 유독성물질과 독가스를 살포하고 도시와 농촌들을 파괴하였다.

미제는 1966년에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폭격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남부웰남에 대한 무력을 계속 강화하고 이 지역에 대한 《토벌》작전을 벌리였다.

그러나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은 더욱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벌려 여러 지역을 해방하였다.

이 시기 북부웰남인민들은 남부웰남인민들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1968년에 미제는 련속적인 패배를 거듭하자 방어에로 넘어갔으며 인민해방무장력은 1969년부터 남부웰남에서 주도권을 쥐고 미군과 사이공괴뢰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 시기 우리 인민은 싸우는 웰남인민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1975년 3월초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은 총공세를 들이대여 4월 30일 사이공을 해방하고 남부웰남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1976년 4월 25일 남북총선거가 진행되였고 7월 2일 웰남사회주의공화국이 선포되였다.

꾸바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미제는 미국—에스빠냐전쟁에서 꾸바를 빼앗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1912년 꾸바에서 살던 흑인들의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나자 미제는 해병대를 동원시켜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1952년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바띠스따친미독재정권을 조작하였다.

이 시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은 적극적인 투쟁형태인 무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꾸바에서의 인민혁명은 《몬까다병영》습격전투로부터 시작되였다.

피델 까스뜨로 루쓰를 중심으로 165명의 꾸바혁명가들은 전인민적인 무장폭동을 일으킬 작전밑에 1953년 7월 26일 《몬까다병영》을 습격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투쟁은 반미반독재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미제와 바띠스따도당은 봉기군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학살하였다.

그러나 꾸바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꾸바혁명가들의 법정투쟁에 의해 1955년 5월 《7월26일혁명운동》참가자들은 석방되여 국외로 추방되였다.

그후 1955년 11월 25일 꾸바혁명가들은 《그란마》호를 타고 메히꼬를 떠나 꾸바의 오리엔떼주에 상륙하였다.

이때 12명만이 살아 7자루의 총을 가지고 마에스뜨라산줄기에 들어가서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무장투쟁을 벌리면서 대오를 확대해나갔다.

이 과정에 꾸바혁명은 바띠스따독재정권을 짓부시기 위한 전인민적항쟁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투쟁은 인민들을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1957년 3월 13일 아바나대학에 중심을 둔 혁명지도부의 지도밑에 무장한 대학생들은 바띠스따궁전을 습격하였으며 그후 산에 들어가 유격대를 뭇고 투쟁하였다.

한편 1957년 9월 5일 씨엔푸에고스에서는 애국적군인들에 의해 악질장교들이 처단되고 해군요새가 장악되였다.

1958년 8월부터 봉기군은 전반적인 공격에로 넘어갔으며 주요 도시들과 농촌들이 해방되였다.

봉기군은 바띠스따독재정권의 아성인 수도 아바나에 대한 최후공격작전을 벌렸으며 1959년 1월 1일 아바나시를 해방하였다. 하여 꾸바에서의 인민혁명은 승리로 끝났다.

인디아의 독립투쟁과 인디아-파키스탄분쟁에 대하여

인디아는 영제국주의자들이 1858년에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인디아인민들의 반영봉기를 계기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할 목적밑에 영국녀왕의 직접적인 관할하에 넣음으로써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그후 인디아인민들의 투쟁에 당황한 영제국주의자들은 1940년 1월에 인디아에 대한 《자치》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후 영제국주의자들은 전후에 독립을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인디아를 식민지로 계속 남겨두고 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보충하려고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였다.

하여 1946년 2월 뭄바이에서 인디아해병들이 무장폭동을 일으켰으며 이에 호응하여 20만명의 로동자들이 반영투쟁에 나섰다.

영제국주의자들은 경찰을 동원하여 로동자들의 폭동을 막으려고 책동하였다.

로동자들은 바리케트를 쌓고 용감히 싸웠으나 옳은 지도를 받지 못한 결과 실패하였다.

그러나 투쟁은 영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후 영제국주의자들은 인디아인민들의 투쟁에 겁을 먹고 1947년 8월 15일 인디아에 《영련방내의 자치》를 준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상투적인 수법에 따라 분렬정책을 실시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인디아를 힌두교도들이 사는 인디아와 이슬람교도들이 사는 파키스탄으로 갈라놓았고 종교적리간을 조장시켰다.

하여 인디아는 두개 국가로 갈라지고 두 교도들간의 종교적인 대립이 조성되였다. 인디아는 《영련방》안의 《자치령》으로 독립하고 1950년 1월 26일 인디아공화국을 창립하였다.

인디아의 분렬은 두 지방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다.

특히 인디아－파키스탄의 분쟁은 카슈미르지역에서 더욱 심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힌두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이 함께 살고있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 지역을 두 나라사이의 대립을 조성하는데 리용하였다.

두 나라사이에서는 카슈미르를 어느 나라가 가지겠는가를 가지고 여러차례 충돌과 분쟁이 있었다.

인디아－파키스탄관계는 동서파키스탄의 분쟁으로 더욱 악화

되였다.

1970년 12월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총선거에서 동부파키스탄이 승리한 후 동부파키스탄은 파키스탄에서의 분리를 선포하고 1971년 3월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서부파키스탄정부는 방글라데슈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군사를 동원하여 진압하려 하였다.

하여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슈사이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였다.

인디아가 개입하자 전쟁은 인디아와 파키스탄사이 전쟁으로 되였으며 전쟁에서 기본은 카슈미르의 령유권문제였다.

전쟁에서 이길수 없게 된 파키스탄은 다카시와 북부카슈미르지방의 령토를 잃고 인디아의 정화제의에 동의하였다. 그후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데 대한 세계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란에서의 이슬람교혁명과 미국의 《인질구출작전》에 대하여

혁명전 이란은 파흐라비황제정권의 가혹한 파쑈테로정치를 받고 있었다.

파흐라비황제는 주민의 절대다수인 시아파이슬람교도들을 탄압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가혹하게 하여 수많은 돈을 모아 외국은행에 저금하였다.

또한 나라의 재부인 원유자원을 미제에게 맡기고 미제의 중근동침략책동에 적극 추종하여 침략적군사뿔럭인 《쎈토》에 들어갔다.

하여 이란인민의 반미반황제투쟁정신은 높아가게 되였다.

투쟁은 1978년 8월 아바단에 있는 영화관이 불탔을 때 그 책임을 시아파승려들에게 넘겨씌운 사건을 계기로 고조되였다.

당시 외국에 망명하여있던 이슬람교지도자 이맘 코메이니는 국내의 종교조직을 통해 이란인민의 투쟁을 지도하였다.

1978년 9월 반황제투쟁은 전인민적폭동으로 발전하였다.

파흐라비황제는 총참모장을 총리로 하는 군사정권을 수립하고 땅

크와 장갑차로 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황제는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고조되자 군사정권을 해체하고 《민간정부》를 조직하여 인민들을 얼려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황제는 병치료를 구실로 외국으로 도망치였다.

1979년 2월 폭동에 참가한 대표들은 림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무장을 갖춘 인민들과 애국적군인들은 무장폭동에로 넘어가 파흐라비궁전을 점령하였다.

하여 황제정권은 전복되고 혁명이 승리하였다.

혁명후 이란에서는 군주제도를 청산하였으며 4월 1일 이란이슬람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란정부가 미국에 망명한 파흐라비를 이란에 넘겨줄것을 요구하자 미제는 이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격분한 이란대학생들은 미국대사관을 점거하고 대사관성원 50여명을 잡아가두었으며 이란정부는 미국비행기와 선박이 이란에 들어오는것을 금지하고 미국에 대한 석유수출을 중지하였다.

미제는 그 어떤 책동으로도 이란인민을 굴복시킬수 없게 되자 강도적인 《인질구출작전》을 벌리였다.

대통령 카터가 고안하고 비밀리에 진행된 작전은 이란에 갇혀있는 미국대사관 성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습격사건이였다.

1980년 4월 25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제는 수송기들과 직승기들에 90여명의 특수인원을 싣고 테헤란의 사막에 내려 반혁명악당들의 안내를 받으며 《인질》들이 있는 곳을 습격하고 그들을 구출한 후 비행기로 도망치려 하였다. 그러나 사막에서 비행기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군사인원들이 죽게 되자 작전은 실패하게 되였다.

그후 미제는 이란이 제기한 《인질》석방에 관한 4가지 조건을 승인할데 대한 합의문에 조인하고 암으로 죽은 파흐라비대신 그가 미국은행에 저금한 막대한 자금을 넘겨주고 대사관성원들을 데리고 갔다.

팔레스티나인민들의 반이스라엘투쟁에 대하여

팔레스티나인들은 오래전부터 카난지역(팔레스티나)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이스라엘족이 침입하여 팔레스티나인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유태국가를 세웠다.

B.C. 6세기 바빌로니아에 의해 이 국가가 멸망한 후 유태인들은 각지로 흩어지게 되였다.

그후 이 유태인들가운데서 이전에 살던 팔레스티나에 국가를 다시 세우려는 집단이 나타나게 되였는데 이들을 유태복고주의자라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책동하였다.

미제는 석유자원이 많은 이 지대에 눈독을 들이고있다가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리용하여 이 지역의 지배권을 차지하며 아랍인들의 민족해방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책동하였다.

미제는 팔레스티나문제를 《유엔》에 끌고갔으며 1947년 11월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티나땅에 아랍인과 유태인이 있는 2개 국가를 수립할데 대한 부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48년 5월 유태복고주의자들은 미제의 조종밑에 《림시정부》를 조작한 다음 《이스라엘공화국》을 조작하였다.

이스라엘침략군은 공화국을 선포한 후 1948년 5월 팔레스티나령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하여 제1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자 에짚트, 수리아를 비롯한 아랍나라들은 팔레스티나인들을 지원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이스라엘군과 싸웠다.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를 제외한 모든 땅을 강점하고 그곳의 팔레스티나인들을 쫓아냈다.

이때부터 팔레스티나인들은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 간고한 투쟁을 벌리였다.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은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이 창건된 후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발전하였으며 유리한 요르단을 근거

지로 무장투쟁을 준비한 후 1965년 1월 가자지역에서 첫 총성을 울리였다.

그후 1969년 2월 팔레스티나의 30여개의 무장투쟁단체를 하나로 합쳐 《팔레스티나국민리사회》를 내왔으며 제3차 중동전쟁이후에는 가자지역과 요르단강서안지역, 골란고원 등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벌리면서 투쟁범위를 꾸드스, 하이파, 텔아비브 등에로 넓혀나갔다.

미제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이 심화되자 요르단지배층을 사촉하여 《팔레스티나해방조직》지도부가 다른데로 떠날것을 요구하게 하였다.

결국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은 레바논에로 옮겼으며 이스라엘침략군은 에짚트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전쟁에서 떨어져나가자 남부레바논에 기지를 둔 팔레스티나항쟁세력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5차 중동전쟁을 일으켰다.

수리아, 팔레스티나, 레바논인민들의 투쟁과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인민들의 항의에 의해 이스라엘은 정전을 하였으며 1988년 11월 12일 팔레스티나인민들은 팔레스티나독립국가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오늘 팔레스티나인민들은 완전독립국가의 창건을 위해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에짚트에서 1952년 7월혁명에 대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후 에짚트에는 왕국정부가 존재는 하고있었으나 1936년에 영국과 체결한 불평등적인 《조약》에 의해 모든 면에서 영제국주의에 예속되여있었다.

에짚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영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봉건적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투쟁하였다.

1948년 팔레스티나전쟁에서 에짚트가 패하게 되자 그 원인을 왕국정부의 부패무능에서 찾은 진보적인 중하층장교집단은 군주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반정부적비밀조직인 《자유장교단》을 조직

하였다.

《자유장교단》은 1952년 7월 무장정변을 일으키고 수도 까히라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을 장악하였다. 그러자 바빠맞은 국왕은 외국으로 도망쳤으며 오래동안 지배하였던 군주제도가 무너졌다.

1953년 6월 18일에 군주제가 페지되고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에짚트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였으며 1956년 6월 에짚트를 강점하였던 영제국주의강점군을 몰아내는 조치를 취한 후 7월에는 영, 프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있던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중동전쟁에 대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후 중근동지역에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침략자들에 의해 여러차례의 전쟁이 일어났다.

제1차 중동전쟁은 1948년 5월에 일어났으며 제2차 중동전쟁은 1956년 10월에 일어났다.

제2차 중동전쟁은 에짚트가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한데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영, 프제국주의자들과 이 기회에 령토팽창야망을 실현하려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책동으로 1956년 10월에 일어났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불의에 국경을 넘어 수에즈운하를 향해 침공하였으며 영, 프제국주의자들은 지중해에서부터 까히라, 수에즈운하와 여러 주민지역에 폭격을 감행하면서 일부 지역에 기여들었다.

에짚트의 군민은 여러 지역에서 달려드는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침략자들은 에짚트군민의 강렬한 항전과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인민들의 규탄과 항의에 의해 물러가게 되였다.

이스라엘침략군은 미제의 부추김을 받으며 전쟁준비를 다그쳤으

며 국경지대에서 군사훈련을 하는척 하다가 1967년 6월 불의에 에짚트와 수리아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하여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되였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서안지역과 시나이반도, 수리아의 골란고원을 강점하였다.

1973년 10월 미제의 부추김과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중근동에서 4번째로 전쟁을 일으켰다.

이스라엘의 침략적인 무력공세에 대처하여 아랍나라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과 그를 지원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보복조치로 《석유무기》를 사용하였다.

하여 력사상 류례없는 석유위기가 조성되게 되였다.

바빠맞은 미제는 이스라엘의 령토팽창을 중지시켰으며 1973년 11월 정전협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발생과 발전에 대하여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도처에 침략적인 군사동맹을 만들어놓고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여기에 얽매여놓으려고 책동하였다.

지난날 식민지노예의 쓰라린 체험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교활성을 똑똑히 깨달은 발전도상나라들은 놈들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중립 또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선포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인 1955년 4월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29개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아시아, 아프리카국가대표들의 회의》가 열리였다. 이 회의를 《반둥회의》라고 한다.

회의에서는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 《어느 강국의 특별한 리익》을 위한 집단방위에 참가하지 않을데 대한 요구 즉 쁠럭불가담의 요구가 일치하게 제기되였다.

또한 신흥세력나라들이 자주성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호상 친선과 단결,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규범들이 밝혀졌다.

반둥회의이후 1961년 9월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는 25개 나라의 국가 및 정부수반급 대표들이 참가한 제1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제1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계기로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쁠럭불가담운동이라는 하나의 조직적운동으로 결합되였다.

이 운동은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 가장 위력한 반제자주력량이다.

이 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온 세계를 자주화, 민주화하기 위한 운동이다.

세계력사인물들에 대하여

케자르 (B. C. 102년 (혹은 100년)－B. C. 44년): 고대로마의 독재자이다.

B. C. 1세기 크랏수스, 폼페이우스와 함께 개인적인 협정에 기초한 동맹을 맺고 3두정치를 하다가 두 세력을 격파하고 1인독재를 수립하였다.

고대유럽에서는 전략가로 알려지고있다.

케자르는 로마원로원에서 반대파에 의해 암살되였다.

한니발(B. C. 247(246)년－B. C. 183년): B. C. 3세기 아프리카북부의 도시국가 카르타고의 군사령관이였다.

로마를 침략하여 악명을 떨치다가 본국반대파에 의해 쫓겨나 망명중에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호메로스: B. C. 8세기 고대그리스의 시인이다.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듀쎄이아》를 창작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진시황제(B. C. 259년－B. C. 210년): 중국 진나라시기 황제이다.

진나라의 첫 황제로서 B. C. 230년－B. C. 221년에 중국을 통일

하고 전제주의중앙집권국가를 세웠다.

궁전과 루정, 자기의 무덤을 건설하였으며 진보적인 학자들과 인민들을 탄압하고 만리장성을 건설하였다.

가혹한 착취로 하여 인민들에게 불행을 주었다. 그가 병으로 죽은 후 농민폭동이 일어나 B. C. 207년에 나라가 멸망하였다.

네로(37년－68년): 1세기 로마황제이다.

폭군으로서 제 에미가 선왕을 독살한 후 황제로 되였으며 그후 제 에미와 처를 독살하고 다른 녀자를 데리고 살았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반대파귀족들과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예술적기교가 없으면서도 로마시의 2/3가 불탈 때 그것을 보며 시를 읊었고 연극을 좋아하였으며 직접 출연하였다.

폭동이 일어나자 도망치다가 피살되였다.

장각(?－184년): 중국 한나라시기 황건농민폭동지도자이다.

황소(?－884년): 중국 당나라시기 농민폭동지도자이다.

874년 왕선지가 일으킨 폭동에 황소가 호응하여나섰으며 왕선지가 죽은 후 황소가 대장군이 되여 폭동을 지도하였다.

장안을 점령하고 《대제》라는 나라를 세웠으나 관군에 의해 패하였다.

칭기스한(1162년－1227년): 1206년 몽골봉건국가의 창건자이다.

이름은 테무친이였으며 후에 칭기스한이라고 불렀다.

아시아와 유럽을 침략하여 넓은 지역을 강점하고 파괴, 략탈, 살륙을 감행하였다.

꼬뻬르니끄(1473년－1543년): 16세기 《지동설》(지구주위를 태양, 달, 별이 도는것이 아니라 태양주위를 지구가 돈다는 과학적학설)을 내놓은 뽈스까학자이다.

단떼(1265년－1321년): 중세이딸리아시인이다.

유명한 시《신곡》을 이딸리아어로 썼다.

시는 《지옥편》, 《련옥편》, 《천국편》으로 되여있으며 저승세계를 려행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년－1519년): 이딸리아의 화가이며 조각가, 건축가, 과학자이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림인 《최후의 만찬》, 《몬나리자》 등을 비롯하여 여러편의 작품들을 생동하게 그렸으며 수학, 물리 등 자연과학분야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쉐익스피어(1564년－1616년): 16세기 영국의 극작가이다.

쉐익스피어는 호메로스, 단떼, 괴테와 함께 세계4대문호로 불리운다.

4대비극인 《햄리트》, 《오셀로》, 《맥베스》, 《리어왕》과 《베니스의 상인》, 《로미오와 쥴리에트》를 비롯한 수백편의 희곡과 많은 시를 창작하였다.

나뽈레옹(1768년－1821년):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이다.

근대시기 침략의 괴수로서 19세기초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를 강점하고 1812년 로씨야를 침략하였다가 패하였으며 대서양의 외진 섬에 추방되여 죽었다.

꾸뚜조브(1745년－1813년): 1812년 나뽈레옹의 로씨야침략시 로씨야군 총사령관으로서 프랑스군을 청야전술로 물리쳤다.

스티븐슨(1781년－1848년): 영국의 발명가이다.

어려서부터 탄광에서 화부, 증기기관 조수로 일하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차를 발명하였다.

19세기 최초의 증기기관차 《로코모션》호를 만들었다.

도요또미 히데요시(1536년－1598년): 16세기말 일본의 조선침략의 원흉이다.

1591년 조선에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길을 빌려달라는 오만무례한 편지를 보내고 1592년 4월 20만의 침략군을 내몰아 우리 나라에 대한 불의의 침공을 개시하였다가 실패하자 죽었다.

손문(손중산)(1866년－1925년): 1911년 중국부르죠아혁명의 지도자이다.

《중국혁명동맹회》를 조직하였고 후에 국민당으로 발전시키였다.

진보적인 삼민주의를 내놓고 공산당과 동맹하여 국민혁명정부를 조직하였다. 그는 북벌과정에 병으로 죽었다.

장개석(1887년－1975년): 중국국민당 반동우두머리이다.

손중산과 국민혁명을 하다가 그가 죽자 권력야심으로 1927년 상해에서 정변을 일으키고 공산당을 탄압하였으며 정권을 잡고 전국을 통치하였다.

중국공산당과 로농홍군을 소멸하려는 국내전쟁을 벌리였으며 대만으로 쫓겨가서 분렬책동을 벌리다 죽었다.

림측서(1785년－1850년): 영국의 아편밀무역을 반대한 중국 청나라 관리이다.

1839년 광주에 파견되여 아편밀무역을 단속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다가 간신들의 음모로 밀려나 고향에 갔다가 1850년 다시 흠차대신으로 임명받고 《태평천국》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강서로 가던 도중 병으로 죽었다.

맑스(1818년－1883년)와 엥겔스(1820년－1895년):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인 맑스주의창시자들이다.

1847년 로동계급의 당인 《공산주의자동맹》을 창건하고 그 강령인 《공산당선언》을 발표하였다.

《자본론》을 비롯한 많은 로작을 집필하였다.

맑스는 제1국제당, 엥겔스는 제2국제당을 조직하였으며 지식이 높았던 엥겔스는 《자연변증법》을 비롯한 자연과학도서들을 썼다.

베른슈타인(1850년－1932년): 제2국제당에서 수정주의의 우두머리로서 수정주의를 내놓은 첫 수정주의자이며 로동계급의 배신자이다.

맑스주의가 변천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고치려 하였다.

특히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였으며 종당에는 제국주의의 주구로 되였다.

뉴톤(1642년－1727년): 18세기 영국의 이름난 수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이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만유인력법칙과 미적분법을 발견하였다.

큐리, 마리(1867년－1934년): 뽈스까출신의 프랑스화학자이다.

여러t의 우라니움광석을 보호시설없이 처리하여 플루토니움과 라디움을 발견하였다. 그는 원자력리용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그의 남편, 딸, 사위까지 한가정이 다 노벨상을 받았다.

렌트겐(1845년－1923년): 19세기말 도이췰란드의 이름난 물리학자이다.

1895년에 X선(렌트겐선)을 발견하였다.

다윈(1809년－1882년): 영국의 생물학자로서 1831년부터 5년간 남아메리카와 태평양의 외진 섬들, 오스트랄리아, 남아메리카를 조사연구하여 종의 기원과 진화론을 내놓았다.

타고르(1861년－1941년): 20세기초의 인디아의 이름난 작가이다.

장편소설 《고라》, 《희곡》, 《징벌》을 비롯하여 여러편의 작품을 창작하였으며 조선을 다녀간 후 1929년에 시 《조선》을 썼다.

빅또르 유고(1802년－1885년): 프랑스의 진보적랑만주의작가이다.

대표적인 작품은 《레 미제라블》, 《바다의 로동자들》, 《미소를 짓는 사람》 등을 들수 있다.

레브 똘스또이(1828년－1910년): 19세기말－20세기초의 로씨야작가이다.

그의 대표작은 《전쟁과 평화》, 《부활》 등을 들수 있다.

그는 짜리전제정치하의 로씨야현실과 부패상을 폭로하였다.

에젠 뽀찌에(1816년－1887년): 프랑스의 혁명적시인으로서 《인터나쇼날》을 비롯하여 《폭동자》, 《파업》, 《인민의 길》 등을 창작하였으며 빠리꼼뮨의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였으며 자본주의멸망의 불가피성을 예술적으로 확언하였다.

막심 고리끼(1868년－1936년): 로씨야의 이름난 작가이다.

이전 쏘련작가동맹 초대위원장으로 청년로동자 빠웰과 그의 어머니가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편소설 《어머니》를 비롯하여 《유년시대》, 《사람들속에서》, 《나의 대학》 등 여러편을 창작하였다. 1936년 반동들에게 암살되였다.

베토벤(1770년－1827년): 도이췰란드의 이름난 음악가이다.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하였는데도 수많은 음악작품을 창작하였다.

일생 독신으로 음악분야에 열중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은 《달빛》, 《영웅》, 《운명》 등이다.

챠이꼽스끼(1840년－1893년): 19세기말 로씨야의 이름있는 음악가이다.

법률학교를 나왔으며 음악에 대한 높은 열정을 가지고 음악원에 들어가 많은 명곡을 창작하였다.

대표작으로 《예브게니 오네긴》, 《백조의 호수》, 《비창》 등을 창작하였다.

레닌(1870년－1924년): 로씨야에서 1917년 사회주의10월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였으며 첫 사회주의국가를 세우고 쏘련공산당을 창건한 로씨야인민의 수령이였다.

그는 국제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며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기의 레닌주의의 창시자이다.

쓰딸린(1879년－1953년): 레닌의 위업의 충직한 계승자이며 쏘련공산당과 쏘베트국가의 령도자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이다.

그는 사회주의공업화에 관한 방침과 농업집단화방침을 제시하고 전당과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령도하였으며 위대한 조국전쟁시기(1941년－1945년)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전 쏘련군대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고 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였다.

지 리 편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가?

지구가 둥글다는것은 오늘 모든 사람들이 알고있지만 그것을 알아내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학자들은 오랜 기간 생활체험과 관찰을 통해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것을 밝혀내였다. 그들은 먼바다에서 부두로 들어오는 배의 모습을 보고 또 월식때 달에 비낀 지구의 그림자를 보고 지구가 둥글다는것을 밝혀냈다.

배가 부두로 들어올 때 처음에는 배의 웃부분만 보이다가 배가 가까와짐에 따라 배의 전체부분이 보이게 된다.

1519년 뽀르뚜갈사람인 마젤란은 탐험대를 뭇고 에스빠냐를 떠나 서쪽으로 항행하여 1522년에 다시 에스빠냐로 돌아왔다.

이것은 지구가 둥글다는것을 실천적으로 증명한것이였다.

그러나 지구는 둥근 구가 아니라 편평타원체로 되여있다.

여러차례의 관찰과 정밀한 측량을 통하여 학자들은 정확한 지구의 모양을 알아냈다.

지구의 적도반경은 6 378㎞, 평균반경은 6 371㎞, 극반경은 6 357㎞이다.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지구의 면적은 약 5억 1 010만 934㎢, 체적은 1조 083억㎦, 질량은 $5\ 974\times10^{24}$kg이다.

지구는 일정한 끌힘을 가지고있다.

지구의 자전운동이란 무엇이며 그로 하여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대하여

지구는 지축(북위 90°지점과 남위 90°지점을 련결한 선, 자전축이라고도 한다.)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지구의 자전운동이라고 한다.

지구는 자전축이 공전자리길면에 대하여 66° 33′의 경사도를 가지고있다. 지구가 자전운동하기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

지구가 한바퀴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3시간 56분 4초(24시간)이며 자전속도는 적도지방에서 465m/s, 평양(북위 39° 01′)에서는 361m/s이다. 자전속도는 적도지방에서 제일 빠르다.

만일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지역에서는 낮이 계속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밤이 계속될것이다.

지구가 66° 33′의 경사도를 가지고 자전운동을 하기때문에 남, 북극권사이지역에서는 낮과 밤이 하루에 한번씩 바뀌며 량극지방에서는 하지와 동지를 중심으로 낮과 밤이 반년에 한번씩 바뀐다.

지구의 자전운동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것은 지구의 자전운동이 균일한 등속운동이며 지구우에 있는 모든것이 함께 동시에 돌고있기때문이다.

지구의 자전운동으로 오늘과 같은 기후조건이 생겨나게 되였다.

지구의 자전운동으로 지구우에서 운동하는 물체들에는 꼬리올리힘이 생긴다. 이 힘은 물체의 운동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물체의 운동방향에만 영향을 준다.

꼬리올리힘이란 관성계에 대하여 각속도 ω로 회전하는 자리표계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이 힘은 지구우에서 운동하는 물체들을 북반구에서는 운동방향의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한다.

지구의 북반구에서는 물체가 적도쪽에서 극쪽으로 운동하는것이 속도가 빠른쪽에서 뜬쪽으로 운동하는것이므로 동쪽으로, 반대로 극쪽에서 적도쪽으로 이동하는 물체는 속도가 뜬 쪽에서 빠른쪽으로 운동하는것으로 되므로 서쪽으로 기울어진다.

즉 이 힘은 운동방향의 오른쪽으로 향한다.

꼬리올리힘은 지구에서 바람의 방향, 강물과 해류의 흐름방향 등 자연현상과 포탄이 날아갈 때 비행방향에 영향을 준다.

지구의 공전운동이란 무엇이며 그로 하여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대하여

지구는 자전운동을 하면서 태양둘레를 돌아간다.

지구가 태양둘레를 돌아가는 자리길은 원에 가깝다.

지구가 이 자리길을 따라 태양둘레를 한바퀴 도는데는 365일 5시간 48분 46초 걸린다. 이 기간을 약 1년이라고 한다.

지구가 태양둘레를 돌아가는 운동을 지구의 공전운동이라고 한다. 지구가 공전할 때 지축은 북극성방향을 향하면서 자리길면에 대하여 66° 33′ 비탈져서 공전속도 약 30㎞/s로 운동한다.

지구의 공전운동으로 계절이 바뀐다.

계절바뀜현상은 하지, 추분, 동지, 춘분때 태양에 대한 지구의 위치를 보면 잘 알수 있다.

계절은 기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봄: 하루평균기온이 0℃에서 15℃까지 사이에서 변하는 따뜻한 계절이다.

여름: 하루평균기온이 15℃이상인 더운 계절이다.

가을: 하루평균기온이 15℃에서 0℃까지 사이에서 변하는 선선한 계절이다.

겨울: 하루평균기온이 0℃이하인 추운 계절이다.

춘분과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다.

동지는 북반구에서 년중 태양높이가 가장 낮고 밤의 길이가 제일 긴 날이며 하지는 낮의 길이가 길고 정오에 태양높이가 제일 높은 날이다.

24절기는 천구우에서 태양의 위치에 따라 계절을 알아내기 위하여 만든 독특한 력서법으로서 우리 나라와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쓰고있다.

24절기는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길을 24등분하고 매개 등분점을 태양이 지나가는 시각으로 표시한것이다.

한절기구간은 약 15.2일이다. 매 절기이름은 천문력이나 계절바뀜, 농사와 관련된 이름으로 되여있다.

천문력과 관련된 이름은 춘분(3월 21일경), 하지(6월 22일경), 추분(9월 23일경), 동지(12월 22일경) 등이다.

농사와 관련한 이름에는 곡우, 망종 등이 있다.

24절기에는 립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 립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립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립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이 있다.

봄은 립춘에서부터 곡우까지, 여름은 립하로부터 대서까지, 가을은 립추에서부터 상강까지, 겨울은 립동에서부터 대한까지로 본다.

태양계에서 지구의 위치에 대하여

태양계란 태양과 그 주위를 돌고있는 행성들, 행성들 주위를 돌고있는 위성들 그리고 수많은 소행성, 혜성 및 별찌들로 이루어진 우리은하계의 한부분이다.

태양계에서는 지구를 비롯한 8개의 큰 행성 즉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및 해왕성이 있고 이 행성들에는 행성의 주위를 돌고있는 36개의 위성이 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3번째 자리에서 해길을 따라 태양의 주위를 주기적으로 돌아가고있다.

광물이란 무엇이며 어떤것들이 있는가?

광물이란 바위돌이나 광석을 이루는 물질로서 그 어느 부분이나 일정한 화학성분으로 이루어지고 같은 물리적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석영(SiO_2)과 같이 한가지 원소로 된 광물도 있다.

자연계에서 광물은 3가지 상태 즉 고체상태, 기체상태, 액체상태로 존재한다.

대부분은 고체상태이고 수은이나 원유와 같은 액체상태와 화산가스(CO_2, SO_2, H_2S 등)나 천연가스(CH_4)와 같은 기체상태도 있다.

인민경제와 인민생활에 쓰이는 광물을 유용광물이라고 한다.

유용광물에는 자철광, 황동광, 금광 등이 있다.

암석이란 무엇이며 암석에는 어떤것들이 속하는가?

암석이란 지각을 이루는 물질로서 한가지 또는 몇가지 광물들의 일정한 규칙적결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체를 말한다.

암석은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눈다.

화성암이란 암장이 식어 굳어진 암석이다.

암장은 땅속 깊은 곳에서 여러가지 물질이 높은 열에 의해 녹아있는 돌물이다.

화성암은 크게 관입암과 분출암으로 분류한다.

관입암으로는 화강암, 휘장암, 섬록암 등을 들수 있다.

퇴적암이란 여러가지 암석부스레기, 화학물질 및 동식물찌끼 등이 제자리에 쌓이거나 옮겨와 쌓여서 굳어진 암석이다.

퇴적암은 3가지 원인에 의해 형성된다.

퇴적암을 퇴적물질의 종류와 생긴 원인에 따라 쇄설암, 유기적퇴적암, 화학적퇴적암으로 가른다.

변성암이란 광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변성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암석이다.

변성암은 이미 있던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환경조건이 변하는데 따라 조성, 구조, 결(석리) 등의 성질이 완전히 변하여 이루어진다.

변성암에는 편마암, 대리암, 결정편암, 천매암 등이 있다.

지구의 물리적성질에 대하여

지구의 밀도

지구의 질량과 체적으로 지구의 평균밀도를 구하면 5 518kg/㎥이다. 지구겉면으로부터 중심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밀도가 커진다. 밀도는 지구겉면에서는 2 600kg/㎥, 35㎞깊이에서는 2 700kg/㎥, 1 200㎞깊이에서는 4 800kg/㎥이다.

지구의 중력

지구우의 모든 물체는 연직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의하여 지구중심쪽으로 끌린다. 중력은 지구의 인력(만유인력)과 지구자

전원심력의 벡토르합이다.

중력은 대상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물체까지의 거리의 두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지구의 중력은 위도에 따라 달리 분포되는데 극부분에서 가장 크고 적도부분에서 작다.

지구의 온도

지구의 온도는 태양복사열과 지구내부에서 일어나는 방사성원소의 붕괴열 등에 의해 규정되며 지구겉면온도는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변한다.

태양복사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깊이에서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층이 있다. 이것을 항온층이라고 한다.

항온층의 깊이는 온도대에 따라 다르다.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이가 심한 온대지역에서 항온층의 깊이가 제일 큰데 지구겉면으로부터 대략 10m～20m이다.

지구의 자성

지구는 자기적성질 즉 자성을 가지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지구를 하나의 큰 자석덩어리로 볼수있다.

지구의 자기적성질을 지자기라고 한다.

지구가 지리적북극과 지리적남극을 가지고있듯이 지자기마당도 지자기북극과 지자기남극을 가지고있다.

지자기북극과 지자기남극은 지리적북극, 지리적남극과 일치하지 않고 대략 11.5°의 각으로 사귄다.

지리적극과 지자기극이 일치하지 않기때문에 자침자오선(자력선)과 지리자오선은 서로 사귄다.

우리 나라에서 자침편차는 대략 서편차 5°～7°이다.

자력선이 지리자오선의 서쪽에 놓이면 서편차(－), 동쪽에 놓이면 동편차(＋)라고 한다.

라침판으로 정확한 진북을 결정하려면 라침판의 바늘이 가리키는 북쪽방향에 자침편차값만큼 수정해주어야 한다.

경도, 위도와 반구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지구의 실제모양을 줄여서 만든 모형을 지구의라고 한다.

지구의에는 북극과 남극을 이은 많은 선들이 있다.

이 선들을 경선이라고 한다.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평면을 자오면이라고 하며 자오면과 지구겉면이 사귀여 이루어지는 선을 자오선 혹은 경선이라고 한다.

자오선들가운데서 영국의 런던교외의 그리니치에 있는 그리니치천문대의 원점지점을 지나는 경선을 0°자오선이라고 한다. 지구의에는 경선과 직각으로 사귀는 수많은 선들이 있다. 이 선을 위선이라고 한다. 즉 지축에 수직이면서 지구중심을 지나는 면을 적도면이라고 하며 적도면이 지구겉면과 사귀여 이루어지는 선을 적도선이라고 한다.

적도면에 평행인 평면들이 지구겉면과 사귀여 생기는 선이 위선이다.

모든 경선들은 정확한 북남방향을 가리키며 그 길이는 같다.

경선과 위선을 각도로 나타낸것을 경도와 위도라고 한다.

위도는 적도를 0°로 하여 량극으로 각각 90°까지 있다.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의 절반은 북반구, 남쪽의 절반은 남반구라고 한다.

북반구의 위도를 북위, 남반구의 위도를 남위라고 한다.

0°자오선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180°선까지를 동반구, 서쪽으로 180°선까지를 서반구라고 한다.

동반구의 경도를 동경, 서반구의 경도를 서경이라고 한다.

경도는 0°자오선으로부터 동, 서쪽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있는가를 나타낸다.

동반구에는 아시아주, 유럽주, 아프리카주, 오세안주가 있으며 서반구에는 북아메리카주와 남아메리카주가 있다.

우리 나라는 동반구의 아시아주 동부지역 대략 동경 124°와 동경 132°사이, 북위 43°와 북위 33°사이에 있다.

대륙과 대주, 대양의 구분에 대하여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겉면은 륙지와 바다로 되여있다.

륙지는 지구겉면의 29.2%를 차지하며 바다는 70.8%를 차지하고있다. 륙지는 대륙과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대륙이란 대양으로 둘러싸인 륙지이다.

지구에는 유라시아대륙, 아프리카대륙, 북아메리카대륙, 남아메리카대륙, 오스트랄리아대륙, 남극대륙 등 6개 대륙이 있다. 그가운데 나라와 민족이 있는 대륙은 5개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5대륙이라고 한다.

유라시아대륙은 아시아대륙과 유럽대륙을 말한다.

대주란 대륙과 그 주변섬들을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대주에는 아시아주, 유럽주, 아프리카주, 북아메리카주, 남아메리카주, 오세안주, 남극주 등 7개가 있다.

제일 큰 주는 아시아주, 제일 작은 주는 오세안주이다.

대양이란 대륙과 대륙사이에 있는 큰 바다를 말한다.

지구에는 태평양, 대서양, 인디아양, 북빙양과 같은 4개의 큰 대양이 있다. 그중 제일 큰것은 태평양이다.

대양을 제외한 나머지 작은 바다들은 모두 어느 하나의 대양에 속해있으므로 일명 부속해라고 한다.

대륙들사이로 깊숙이 들어와있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하며 대륙변두리에 있는 바다를 연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세 바다는 연해에 속하며 태평양의 부속해이다.

륙지안에 깊숙이 들어와있는 바다(유럽의 발뜨해, 흑해)를 내해라고 한다.

륙지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자리잡은 바다수역을 만이라고 한다.

섬은 수역으로 둘러싸인 륙지를 말한다.

섬은 바다밑에서 화산이나 산호초들의 활동으로 산호무지나 바닥면이 물면우에 솟아올라 생긴다. 또한 처음에 륙지로 있다가 지각운동에 의해 내려앉아 높은 봉우리가 섬으로 된것도 있다. 제일 큰 섬은 북아메리카주의 그린랜드섬(면적 217만 5 600㎢)이다.

반도란 륙지가 바다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지역을 말한다.

지구대기층의 조성과 수직구조에 대하여

지구는 두꺼운 공기층으로 둘러싸여있다.

지구겉면을 둘러싼 이 공기층을 지구대기층이라고 한다.

날씨는 지구대기층의 제일 아래층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다.

대기층은 여러가지 기체, 먼지, 물방울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공기의 주요성분은 질소가 78.09%, 산소가 20.95%, 그밖에 아르곤 0.93%, 네온, 수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오존 등으로 되여있다.

대기는 높이에 따라 온도, 밀도, 전기적성질이 차이난다.

대체로 온도에 따라 5개의 권으로 나눈다.

이것을 대기의 수직구조라고 한다.

대류권: 지구겉면으로부터 10km까지의 높이이다.

구간은 짧으나 여기에 대기질량의 3/4이 있다.

대류권에서는 높이 100m씩 올라감에 따라 온도가 0.65℃정도 낮아지며 맨 웃한계에서는 −60℃까지 낮아진다.

성층권: 지구대기층의 높이 10㎞로부터 50㎞까지의 구간이다.

성층권에서는 높이 올라가면서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는데 이것은 성층권에 오존이 있기때문이다.

오존층은 태양빛에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성층권의 맨 웃한계에서는 온도가 대략 0℃정도이다.

성층권은 바람이 강하고 공기가 건조한것이 특징이다.

중간권: 대기층의 높이 50㎞로부터 80㎞까지의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온도가 다시 내려가는것이 특징이다.

맨 웃한계에서의 온도는 −90℃까지 내려간다.

열권: 중간권의 웃한계에서부터 500㎞까지의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온도가 높아진다.

그것은 산소와 질소가 태양에네르기를 흡수하여 이온화되기때문이다. 때문에 열권을 이온권 또는 온난권이라고 한다. 대체로 120㎞높이에서는 600℃, 500㎞에서는 1 200℃나 올라간다.

바깥권: 열권보다 높은 층 즉 대기권의 맨 웃층을 말한다.

바깥권에서는 가벼운 수소나 헬리움이 빠른 속도로 운동하며 그 가운데 일부는 우주공간으로 사라진다.

날씨의 기본구성요소에 대하여

날씨를 이루는 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즉 날씨가 개였는가 아니면 흐렸는가를 구별하기 위하여 쓰는 구름의 량, 더위와 추위를 나타내는데 쓰는 기온, 대기가 습한가 건조한가를 나타내는 습도, 대기가 어느쪽으로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가를 나타내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 등이다.

흔히 구름의 량을 보고 맑은 날씨, 개인 날씨, 흐린 날씨를 규정한다. 구름의 량은 운량계, 구름거울 같은것으로 잴수 있다.

더위와 추위를 나타내는데는 기온이라는 말을 쓴다.

기온은 지면으로부터 2m높이의 그늘진 곳의 온도를 말한다.

기온의 단위는 ℃이다.

기온은 기상관측함안에 설치한 온도계를 리용하여 잰다.

기온은 3시간에 한번씩 하루에 8번 잰다.

하루사이에 나타난 제일 높은 기온을 최고기온, 제일 낮은 기온을 최저기온이라고 한다.

하루사이에 여러번 잰 기온의 값을 모두 합치고 그 회수로 나누면 평균기온을 얻을수 있다. 평균기온의 값에 따라 따뜻한 날씨(5℃～10℃), 더운 날씨(10℃～15℃), 무더운 날씨(15℃이상), 추운 날씨(0℃～5℃), 몹시 추운 날씨(0℃이하)로 구분한다.

날씨의 요소에는 대기습도가 있다.

대기중에는 많은 수증기가 있다. 대기가 건조한가 습한가 하는것은 대기중에 수증기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관계된다.

습도는 습도계로 잰다.

습도계에는 머리칼습도계, 건습구습도계, 금속습도계 등이 있다.

상대습도란 해당 온도의 공기속에 최대로 들어갈수 있는 수증기의 량에 대한 현재 실지로 들어있는 수증기량과의 백분률이다.

대기의 상대습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건조한 날씨, 습한 날씨 등을 규정한다. 사람에게 좋은 상대습도는 50%～60%이다.

날씨를 이루는 요소에는 바람이 속한다.
바람은 지구겉면에서 대기의 수평이동을 말한다.
바람의 방향과 속도는 날씨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바람의 방향은 풍향계로 재며 속도는 풍속계나 풍력계로 잰다.
바람의 방향은 바람이 불어오는쪽을 기준으로 북풍, 남풍, 서풍, 동풍, 북서풍, 북동풍, 남서풍, 남동풍 등으로 나눈다.
날씨의 구성요소에는 또한 기압이 속한다.
기압이란 공기가 내리누르는 힘을 말한다. 기압은 기압계로 잰다.
수은기둥의 높이가 760㎜일 때 표준기압이라고 하며 hpa로 표시한다. 표준기압은 1 013.25hpa이다.
어느 한 지역의 기압이 주변의 기압보다 높으면 고기압구역이라고 하고 낮으면 저기압구역이라고 한다.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저기압구역으로 공기가 사방에서 모여들며 이 공기는 다시 우로 올라간다. 우로 올라간 공기는 구름을 이룬다. 결과 저기압지대에서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것이 특징이다.
고기압구역에서는 공기가 사방으로 흩어져나가므로 우에서 아래로 공기를 보충하려 내려온다. 이때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구름도 흩어진다. 고기압지역에서는 날씨가 맑다.
기압은 높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대류권에서는 높이 100m씩 올라감에 따라 기압이 13hpa씩 낮아진다.

전선과 일기변화에 대하여

전선이란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기단이 잇닿은 면(전선면)이 지구겉면과 사귀는 선을 말한다.
이 전선은 기하학적인 선이 아니라 일정한 폭을 가진 띠모양을 이루고있다.
기단은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있지 않고 이동한다.
두 기단(찬공기와 더운공기)이 마주치면 량쪽의 공기가 섞

이지 않고 더운기단은 찬기단을 타고 우로 올라가고 찬기단은 더운기단밑으로 뚫고들어간다.

더운기단이 밀려와 찬기단우로 올라갈 때 이루어지는 전선을 더운전선이라고 하고 찬기단이 더운기단밑으로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전선을 찬전선이라고 한다.

더운전선이 지나갈 때에는 더운공기가 찬공기우로 높이 올라감에 따라 수축, 랭각되면서 수증기가 응결되여 여러가지 모양의 구름이 생긴다. 이 전선이 접근하는 초기에는 그 지방의 기온이 높아지며 하늘에 비단구름이 나타난다. 그후 점차 높은 층구름이, 다음 비구름이 차례로 생기며 비(혹은 눈)가 내린다.

더운전선이 지나가면 개인 날씨가 이루어진다.

찬전선이 지나갈 때에는 찬공기가 더운공기밑으로 들어가면서 더운공기를 우로 올리밀므로 찬전선이 지난 뒤에 비구름과 소낙구름이 생겨 비(또는 눈)가 내린다.

찬기단이 접근하면 그 지방의 기온은 낮아진다.

해일이란 무엇이며 해일의 분류에 대하여

해일이란 태풍이나 지진, 화산폭발에 의해 정상물높이보다 갑자기 높아진 바다물이 바다가의 뭍으로 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해일은 발생원인에 따라 기상해일(태풍해일, 열대성저기압해일, 폭풍해일)과 지진해일(또는 화산해일)로 가른다.

기상해일은 태풍이나 강한 저기압에 의하여 바다물면의 높이가 비정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다. 태풍을 비롯한 강한 열대성저기압이 바다우를 지나가면 평균상태보다 기압이 갑자기 낮아지므로 바다물면은 우로 들리우게 된다. 이 들리운 바다물은 중력에 의하여 파동형태로 전파되여 가까운 해안의 뭍으로 올라온다.

조석현상이 현저한 곳에서 높은 만조와 겹치든가 불어난 강물과 겹치면 해안의 바다물높이가 높아져 해안을 휩쓸게 된다.

해일높이는 저기압권의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바람이 셀수록 높아진다.

지진해일은 바다밑에서 일어난 지진, 화산, 사태, 붕락 등에 의

하여 일어나는 해일을 말한다.

해일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안방조제와 방파제, 배수로, 갑문 등 보호시설을 잘 건설하여야 하며 해일예보를 잘하여야 한다.

기압이란, 고기압과 저기압구역에서의 날씨변화에 대하여

지구를 둘러싸고있는 공기는 일정한 질량을 가지고있다.

표준조건(위도 45°, 해발높이 0m, 기온 0℃일 때)에서 1㎥의 건조한 공기의 질량은 1.29kg이다.

기압이란 공기의 질량에 의해 생기는 압력이다.

기압은 해발높이, 습도, 기온, 위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기압의 국제단위는 Pa(파스칼)이다.

저기압이란 주변보다 중심의 기압이 낮아서 주변에서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드는 큰 회리를 말한다.

저기압구역에서는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릴 때가 많다.

그것은 저기압의 중심으로 공기가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로 돌면서 모여 우로 올라가기때문이다.

습기가 있는 공기가 사방에서 모여들어 합쳐지면서 우로 올라가면 식게 된다.

때문에 저기압구역에서는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린다.

저기압에는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이 있다.

우리 나라 날씨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열대저기압은 태풍이다.

태풍이 우리 나라를 지나가면 센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린다.

우리 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온대저기압에는 장강저기압, 황하저기압, 발해만저기압, 동북저기압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동북지방, 화북지방저기압과 몽골, 중부씨비리에서 생기는 저기압들이 있다.

이 저기압들은 주로 봄철에 몽골의 고비사막과 중국의 황토고원일대에서 발생하여 강화되면서 그 지역의 작은 모래알과 황토먼지들을 높은 대기우로 감아올려 저기압의 이동방향으로 멀리 옮겨놓는다.

이것이 우리 나라 봄철날씨에 영향을 주는 황사현상이다.

황사가 지나갈 때에는 대기층에 누런 황사알갱이들이 들어있어 대기가 누렇고 뿌옇게 보인다.

고기압이란 주변보다 중심의 기압이 높으며 중심에서 주변으로 공기가 흩어지는 큰 공기회리를 말한다.

공기가 지구겉면으로 내려와 사방으로 흩어질 때에는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돌면서 흩어진다.

고기압이 유지되려면 흩어진 자리를 메꾸는 하강기류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때 웃쪽에 있던 차고 무거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 더운 공기가 있는쪽으로 흩어지게 된다.

고기압구역에서는 보통 날씨가 개이고 바람이 약하게 부는것이 특징이다.

구름의 종류에 대하여

구름은 높이에 따라 상층구름, 중층구름, 하층구름, 수직발달구름 등으로 나누며 구름형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눈다.

또한 구름의 형성에 따라 물방울로만 되여있는 물구름, 얼음알갱이로만 이루어진 얼음구름, 물과 얼음알갱이가 섞인 혼합구름으로 나눈다.

상층구름에는 비단구름(Cl), 비단더미구름(Ce), 비단층구름(Cs) 등이 속한다.

비단구름(Cl)은 흰 섬유모양이며 얇고 투명한것이 특징이다.

비단더미구름(Ce)은 목화모양의 흰색을 띠고 얇은것이 특징이다. 비단층구름(Cs)은 얇고 균일한 막모양 또는 희거나 푸르스름한것이 특징이다.

중층구름에는 높은더미구름(Ac), 높은층구름(As)이 속한다.

높은더미구름(Ac)은 판 또는 목화모양의 이랑형태이며 희거나 푸르스름한것이 특징이다. 높은층구름(As)은 균일한 막모양으로서 재색 또는 푸르스름한 색을 띠고있다. 하층구름에는 층더미구름(Se), 층구름(St), 비구름(Ns)이 속한다.

층더미구름(Se)은 큰 이랑이나 판모양으로서 흰색을 띠는것이 특징이다.

층구름(St)은 안개와 비슷하게 생기는것이 특징이다.
비구름(Ns)은 층모양으로서 어두운 흰색을 띤다.
수직발달구름에는 더미구름(Cu), 소낙구름(Cb)이 속한다.
더미구름(Cu)은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덩어리들이 우로 부풀어올라간것처럼 보이는것이 특징이다. 웃부분은 둥근 지붕이나 산봉우리모양을 이루고있고 밑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평탄하다.
소낙구름(Cb)은 큰 산과 같이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덩어리들이 대체로 개별적으로 널려있는것이 특징이다.

대기중의 수증기의 역할에 대하여

수증기는 대기공기를 이루고있는 기체성분의 하나로서 적당한 온도와 압력이 보장되면 쉽게 안개, 구름, 비, 눈, 얼음으로 되는 성질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수증기는 사람과 생물의 생존, 농업생산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없어서는 안될 물과 수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일기예보는 어떻게 하는가?

일기예보는 보통 일기도에 의한 예보방법으로 한다.
날씨를 예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의 기상요소와 함께 그 지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지방의 대기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한 지방의 기상요소가 다른 지방의 기상요소들에 영향을 주기때문이다.
지구우의 모든 기상관측소들에서는 3시간에 한번씩 같은 규정에 의하여 대기상태를 관측하고 그 자료를 무선통신으로 알려준다.
관측소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 일기도를 만든다.
일기도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기호를 양식에 기입한것이다.
일기도를 작성한 다음 3시간전 또는 6시간전의 일기도와 대비하면서 일기도를 분석한다.
즉 기단과 전선, 고기압과 저기압 등이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한 속도로 이동하고있는가, 그것이 언제 지나며

날씨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하는것을 예견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공지구위성에서 보내오는 구름사진을 정상적으로 받아 일기예보를 한다.

기후와 날씨의 차이점과 그 영향에 대하여

한 지방에서의 날씨는 끊임없이 변한다. 아침과 낮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또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때는 가물기도 한다.

이러한 날씨를 오래동안 관찰하면 평균상태를 알수 있다.

기후란 한마디로 일정한 지역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해마다) 되풀이되는 날씨의 평균상태를 말한다. 즉 비교적 오랜 기간 비슷하게 반복되여 나타나는 대기상태를 말한다.

날씨란 주어진 장소에서 주어진 순간 또는 일정한 기간의 대기상태를 말한다.

대기상태란 공기의 온도, 습도, 기압, 구름의 량과 상태, 바람의 방향과 속도 등 기상요소들과 안개가 끼였는가, 비 또는 눈이 내리였는가 등 대기현상들을 통털어 말한다.

기후는 주로 태양복사, 대륙과 대양의 분포, 대기순환, 땅겉면상태 등에 의해 규정된다.

특히 위도는 기후에 결정적영향을 준다. 그것은 위도에 따라 지표면우에서 해의 높이가 달라지기때문이다.

적도지방은 일년내내 해가 높이 뜬다. 그러나 극에 가까운 위도일수록 해의 높이가 낮다.

결과 열대, 온대, 한대와 같은 기후대가 생겨났다.

기후는 바다와 륙지의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해양성기후, 대륙성기후로 구분한다.

해양성기후의 특징은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작으며 일반적으로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내륙보다 온화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남해바다지방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륙성기후의 특징은 반대로 낮과 밤,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

가 크며 일반적으로 여름은 무덥고 겨울은 몹시 춥다.

우리 나라도 아시아대륙의 영향을 받아 대륙성기후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같은 위도에 있다고 해도 지형조건에 따라 기후의 차이가 생긴다. 즉 높은 산의 남쪽비탈면과 북쪽비탈면, 산마루와 산골짜기에서 기후는 서로 다르다. 또한 높은 고원지방과 산지로 둘러막힌 분지지방의 기후도 다르다.

식물이 덮여있지 않는 땅겉면은 해빛을 받으면 빨리 덥혀지고 해가 지면 빨리 식는다. 그러므로 이런 지역은 기온의 하루차가 크다. 이런 현상은 사막지방에서 잘 나타난다.

산림이 울창하면 해빛을 받아도 천천히 덥혀지고 천천히 식는다. 산림은 습도와 바람속도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산림은 땅겉면의 기온을 조절하고 큰물과 가물피해를 막으며 바람의 피해도 덜어준다.

때문에 산림을 보호하고 수림화, 원림화를 해야 한다.

비와 눈은 어떤 때에 내리며 강수량은 어떻게 재는가?

비는 물알갱이들이 응결과정과 합쳐지는 과정을 거쳐 구름방울로 되였다가 그것이 커져 땅에 떨어지는것이다.

이때 공기온도가 령하로 내려가면 눈송이로 된다. 즉 온도에 따라 구름에서 형성된 구름방울이 눈 또는 비가 된다.

찬공기가 있는 곳에 더운공기가 오면 더운공기가 찬공기의 경계를 따라 우로 올라가 식게 된다.

이때 그안에 들어있던 수증기는 응결되여 구름을 형성한다.

또한 찬공기가 더운공기층면으로 들어가 더운공기를 밀어올리면 더운공기가 올라가면서 구름을 형성하기도 한다.

저기압이나 태풍구역에서는 사방에서 모여드는 공기가 우로 올라가면서 구름을 형성하게 된다.

습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륙지로 불어올 때 또는 벌판에서 산줄기를 따라 불어올라갈 때 공기가 식으면서 구름이 생기게 된다.

비, 눈, 우박과 땅우의 물체에서 생기는 이슬, 서리 같은것을 강

수라고 한다.

강수량은 일정한 기간 내린 강수의 량을 말하며 ㎜로 나타낸다. 비는 비량계로 재며 눈은 눈자로 잰다.

강수량 1㎜는 1정보에서 약 10t의 물량에 해당된다.

황사현상이란 무엇이며 황사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최근에 황사(누런 먼지)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황사현상은 고비사막과 알따이산줄기의 동쪽, 중국 북서부(황토지대)와 몽골의 건조한 지역에서 누런 먼지가 돌개바람형식의 센 바람에 의해 대기상층에 올라가 서풍기류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중국내륙을 비롯하여 내몽골지방에서는 년평균기온이 1℃정도 올라가고 강수량이 적어지면서 사막화, 건조화가 촉진되고있다.

황사의 성분을 분석하면 규소가 대부분이고 연, 카드미움, 동, 마그네시움, 철, 알루미니움, 망간, 나트리움, 질산염 등이 포함되여있다.

모래와 중금속으로 된 황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경제부문에 매우 나쁜 작용을 한다.

황사현상으로 하여 구름이 끼지 않아도 하늘이 누르끼레하고 태양은 희거나 약간 누렇게 보인다. 이것이 비나 눈이 되여 내리면 《흙비》, 《흙눈》이 내리게 된다.

황사는 사람들의 호흡기관과 눈에 나쁜 영향을 주며 동식물에도 영향을 준다.

공업부문에서는 높은 정밀도와 맑은 공기를 요구하는 기계들, 콤퓨터들에 황사먼지가 들어가면 못쓰게 된다.

황사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을 늘이고 풀판을 잘 조성해야 한다. 또한 황사에 대해 알고 건강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특히 안경,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거리와 마을, 집안팎을 깨끗이 거두며 공장, 기업소, 사무실을 잘 관리해야 한다.

바다물의 작용에 의해 바다가에 이루어지는 지형체에 대하여

바다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바다가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물결과 해류의 작용으로 바다가지대에서는 모래가 쌓여 백사장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사주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는 송도원, 명사십리를 비롯한 곳곳에 사주가 있다.

사주는 점점 륙지를 바다쪽으로 넓힌다.

또한 사주는 작은 만을 막아서 바다자리호를 만들며 섬을 륙지와 련결시키기도 한다.

지각운동의 종류와 그에 의한 륙지겉면의 변화에 대하여

지각이란 지구겉면을 둘러싼 굳은 바위층을 말한다.

지각의 평균두께는 약 30㎞이며 대륙과 대양에서 서로 다르다.

지각밑에는 맨틀이라는 중간권이 있으며 맨틀밑에는 지핵이 있다.

맨틀의 평균깊이는 2 900㎞이다.

지각운동이란 지구우에서 땅이 오르내리고 주름잡히거나 갈라터지면서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화산이란 땅속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층을 뚫고올라와 땅겉면으로 분출할 때를 말한다.

화산에는 활화산, 휴화산, 사화산이 있다.

활화산은 현재 분출하고있는 화산이며 휴화산은 인류력사시기에 분출하였던 기록이 남아있고 앞으로 활동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화산이다.

사화산은 인류력사이전의 지질시대에 분출하였던 화산으로서 인류력사시기에는 분출활동을 멈춘 화산을 말한다.

화산은 오랜 기간 여러번 반복되기도 한다.

지진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 지각이 떠는 운동을 말한다.

지진이 생겨나는 곳을 진원이라고 한다.

지진은 바다밑에서도 일어난다. 바다밑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큰 물결이 생기면서 해일현상이 일어난다.

지각운동에는 륭기운동, 침강운동, 습곡운동, 땅끊임운동 등이 있다.

륭기운동이란 륙지겉면이 천천히 우로 올라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 운동의 실례는 바다에서 사는 조개와 굴의 껍질이 바다물면보다 높은 륙지에서 발견된것이다.

침강운동이란 륙지겉면이 천천히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이 운동의 실례로는 륙지가 내려앉아 골짜기들은 물에 잠기고 높은 산들은 섬으로 되여있는것을 보고 알수 있다.

륭기와 침강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마그마의 활동과 관련된다.

마그마는 바위돌이 녹은 돌물이다. 이것이 식으면 체적이 줄어든다. 이때 지각은 천천히 내려앉는다.

습곡운동이란 넓은 지역의 지층에 주름이 생기면서 산줄기와 골짜기를 이루는 운동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는 북대봉산줄기와 정방산줄기와 같이 습곡운동을 받아 이루어진 산줄기가 있다.

땅끊임운동이란 지층이 끊어지면서 산과 골짜기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지층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힘을 받을 때 주름이 잡히지 않고 끊어지는 경우 지층은 아래우로 밀려나가면서 산과 골짜기를 이룬다. 벼랑을 보면 때때로 지층이 물결모양으로 있는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지층이 지구내부에서 옆으로부터 미는 힘을 받아 생겨난것이다.

우리 나라의 랑림산줄기, 함경산줄기는 땅끊임운동에 의해 생긴것이다.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지질시대란 지구우에 생명체가 발생한 때로부터 인류가 출현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생물의 진화발전에 기초하여 지질시대는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며 매 시대에는 서로 다른 기후조

건과 지각변동이 있었다.

시생대: 시생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46억년전부터 25억년까지의 기간이다.

시생대는 모든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기간이다.

이 시기 지구우에서는 오랜 기간 번개와 소나기, 화산폭발이 계속 일어났으며 이 시대의 말기 바다에는 단세포생물인 견모송류와 같은 유글레나와 록조류가 생겨났다.

첫 생물이 산 시대라고 하여 시생대라고 한다.

원생대: 원생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5억년전부터 5억 7천만년전까지의 시대이다.

이 시기에 바다에는 시생대의 생물보다 발전한 류황세균, 거마리, 곤충류가 생겨났다.

이 시기 륙지는 거칠고 아무것도 없었다.

바다밑에서는 규암, 점판암, 석회암 등이 이루어졌다.

오늘 지구우에 있는 편마암은 이 시기 바다밑에서 생겨난 암석이다.

원생대말에 산소를 리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는 다세포동물이 나타났다.

고생대: 고생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5억 7천만년전부터 2억 4천5백만년전까지의 시기이다.

기후는 습하고 무더웠으며 륙지가 더 넓었다.

이 시기 지구우에서는 땅이 바다로 되고 바다가 땅이 되는 습곡, 땅끊임, 률동운동이 일어났다.

결과 바다가 줄어들게 되였다.

고생대는 하부고생대와 상부고생대로 나눈다.

하부고생대시기에 생물들은 빨리 진화되였다.

바다에 처음으로 원시적인 물고기가 생겨났으며 문어, 낙지류, 산호류가 생겨났다.

상부고생대시기에 땅에 뿌리, 줄기, 잎의 구별이 없는 식물이 나타났으며 절족동물이나 완족동물과 함께 최초의 척추동물인 물고기류가 살았다.

오존층이 형성되여 자외선이 적어졌고 생물들이 바다에서 륙지로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첫 륙상생물은 고사리류, 곤충류, 량서류이다. 상부고생대 말기에 겉씨식물이 나타났다.

상부고생대 말기에 강한 지각운동이 일어났다.

중생대: 중생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억 4천 5백만년전부터 6천 500만년전까지의 기간이다.

기후는 초기에 건조하였고 중기에는 무덥고 습하며 말기에는 다시 건조하였다.

고생대 말기에 일어난 큰 지각운동은 중생대 중기에 멎고 평온한 시기가 되였다.

중생대는 《겉씨식물의 시대》, 《파충류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 소철류, 송백류, 은행류와 같은 겉씨식물이 무성하고 공룡, 익룡, 어룡과 같은 파충류가 번성하였다.

중생대말에 기후가 한랭화되기 시작하였다.

파충류와 겉씨식물이 많이 죽고 속씨식물이 나타났다.

중생대말경부터 도처에 지진과 화산이 터지고 높은 산들이 생겨났다.

중생대지층에는 석탄이 매장되여있다.

새로운 속씨식물과 새, 짐승류가 생겨나고 지각운동에 의하여 지층에 많은 틈이 생기고 마그마가 흘러나와 지하자원이 많이 형성되게 하였다.

신생대: 신생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6천 500만년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다.

중생대말의 거대한 지각변동후 지구겉면은 거의 오늘과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되였다.

신생대는 《속씨식물의 시대》, 《짐승류의 시대》이다.

신생대지각운동에 의해 높고 험한 산줄기가 생겨났다.

우리 나라의 백두산, 울릉도, 제주도 등은 이 시기 화산분출로 생겨났다.

신생대는 제3기와 제4기로 나눈다.

제3기에 기후는 습하고 따뜻하였으며 지구상에는 산림이 울창하였고 바다와 땅우에는 여러가지 동물들이 많았다.

말, 기린, 고래, 서우와 같은 짐승류가 많았다. 식물은 버드나무, 참나무, 호두나무 등 속씨식물이 많았다.

제4기에 지구는 완전히 오늘과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되였으며 땅우에 류인원이 나타났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만년전에 성성이와 고릴라와 같은 류인원가운데서 두발로 걸어다니는 《원숭이사람》이 진화되였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00만년전에는 인류의 선조인 원인으로, 5만년전에는 현대인과 같은 신인으로 되였다.

지구우의 자연대와 특징에 대하여

자연대는 적도를 중심으로 위선방향으로 놓여있다.

적도근방에 열대산림대가 있고 극지방으로 가면서 열대초원대, 사막대, 온대초원대, 온대산림대, 동토대, 극대가 분포되여있다.

열대와 온대사이에 아열대산림대가 있다.

자연대는 지구우에 열대, 온대, 한대와 같은 서로 다른 기후대가 있기때문에 생겨났다.

열대산림대: 분포지역은 적도를 중심으로 하는 륙지이다.

매우 덥고 매일 비가 내린다.

매일평균기온은 24℃～30℃, 년강수량은 1 800㎜～2 000㎜이다.

열대산림대는 식물의 종류가 대단히 많고 여러가지 종류의 식물이 섞이여 울창한 산림을 이루므로 숲속은 어둑컴컴하다. 50m～60m의 키큰 나무가 있으며 그밑에 4층～5층으로 작은 나무들이 자란다. 고무나무, 참대나무, 카카오나무, 커피나무, 야자나무 등 식물들과 원숭이, 성성이, 코끼리, 악어, 하마, 서우, 뱀, 범 등의 동물들이 있다.

열대초원대: 열대산림대의 경계로부터 대략 남, 북위도 30° 사이이다. 기후는 열대계절풍기후이며 장마철과 가물철로 나눈다.

대부분이 초원이다.

년평균기온은 20℃이상이며 년강수량은 1 000㎜～1 500㎜이다.

식물은 바오바브나무, 우산모양아카시아, 병나무, 선인장 등이 있으며 동물은 초원에 줄말, 사자, 기린, 히에나, 표범, 타조 등이 있다.

사막대: 아시아의 서남부와 중부지방, 아프리카북부, 오스트랄리아 서부지역이다. 무덥고 건조하며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도 있다. 강한 열풍이 분다.

사막대는 온도차가 크고 바람이 세며 동식물도 적다.

식물로는 대표적으로 선인장이 기본이며 짐승은 산토끼, 들쥐 등이다.

온대초원대: 온대초원대는 사막대 다음에 놓이는 지대로서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의 온대지방이 속한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온대초원을 프레리, 남아메리카에서는 빰빠스라고 한다.

여름철 평균기온은 20℃~24℃, 년평균강수량은 300㎜~500㎜아래이며 겨울은 추운것이 특징이다.

식물도 주로 키낮은 풀이 많이 자라며 쥐, 여우, 승냥이, 독수리 등 짐승들이 있다.

온대산림대: 온대산림대는 온대초원대와 동토대사이에 있다.

북반구에서는 온대초원대 북부에 넓은 지역에 위치하며 남반구에서는 거의 없다.

남부지방의 여름평균기온은 10℃이상이며 북부지방에서는 기온이 몹시 낮다. 년평균강수량은 600㎜～1 000㎜이다.

제일 더운 달의 평균기온은 13℃～25℃, 제일 추운 달의 평균기온은 －6℃～－12℃이다.

북부에는 바늘잎나무들이 많으며 남부에는 넓은잎나무림이 있다.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이깔나무, 참나무, 피나무, 단풍나무들이 많으며 범, 곰, 늑대, 여우, 사슴, 메돼지, 승냥이, 노루, 꿩, 메닭 등과 같은 짐승들과 새들이 있다.

동토대: 동토대는 아시아와 북아메리카대륙의 북빙양연안일대이다.

제일 더운 달의 평균기온은 10℃아래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00㎜～300㎜이다. 겨울이 길다. 동토대에는 이끼류, 떨기나무들과 기

러기, 북극사슴, 흰곰, 북극여우, 흰토끼 등이 있다.

극대: 극대는 북빙양연안의 섬들과 그 둘레, 남극대륙일대이다.

제일 더운 달의 평균기온은 0℃아래이며 반년은 낮, 반년은 밤이다. 극대지방에는 물개, 펭긴새(남극지방), 흰곰(북극지방), 바다코끼리 등이 있다.

평지의 형성과 높이에 따르는 구분에 대하여

평지란 특별히 높거나 낮은 곳이 없는 평탄한 지역을 말한다.

평지는 생겨난 원인에 따라 언덕벌, 충적벌, 해안벌로 나눈다.

언덕벌이란 본래 높은 산지였던것이 오랜 기간 비바람에 깎이고 씻기여 낮아진 벌이다. 언덕벌에는 낮은 언덕들이 많다.

우리 나라에서는 평양벌이 제일 큰 언덕벌이며 세계적으로 제일 큰 언덕벌은 동유럽벌이다.

충적벌이란 강의 하류와 중류지역에 강물이 날라온 물질들이 쌓여서 생긴 벌이다.

충적벌은 모래와 진흙이 섞이고 동식물이 썩으면서 생긴 유기질성분이 많아 땅이 기름진것이 특징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름난 충적벌은 재령벌, 호남벌이며 세계적으로 이름난 충적벌은 북부아프리카의 닐강연안벌이다.

해안벌은 바다물에 의한 쌓임작용과 바다밑이 천천히 올라오는 운동을 받아 이루어진 벌이다.

우리 나라의 서해안에 있는 온천벌이 해안벌이다.

평지는 해발높이에 따라 와지, 저지, 고원 등으로 나눈다.

와지는 평지의 해발높이가 바다물면보다 낮은 지역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는 와지가 없지만 유라시아대륙의 내부에는 사막으로 된 와지가 있다.

저지는 해발높이가 200m이하인 낮은 평지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제일 큰 저지는 서부씨비리저지(벌)이다.

고원은 해발높이가 200m이상인 산지대에 놓인 넓고 평탄한 땅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는 개마고원, 백무고원, 부전고원 등이 있다.

높이에 따르는 산지의 구분에 대하여

산이란 주변보다 두드러져나온 지형체를 말한다.

산은 기슭, 비탈, 마루로 이루어져있다.

여러개의 산들이 모여있는 곳을 산지라고 한다.

산의 높이는 절대높이와 상대높이로 표시한다.

절대높이는 바다물면에서 산마루까지의 수직높이이다.

이것을 해발높이라고도 한다.

상대높이는 산기슭에서부터 산마루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산마루는 산의 제일 높은 부분이며 산비탈은 산마루와 산기슭사이의 부분이다. 산기슭은 산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산지는 높이에 따라 고산, 중산, 저산, 야산으로 나눈다.

해발높이가 2 000m이상의 산지를 고산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는 전형적인 고산들이 많지 않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고산지역은 아시아의 남부에 있는 히말라야산줄기이다. 이 지대는 물에 의한 침식작용이 적고 얼음과 눈,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이 세다.

고산은 봉우리가 날카롭고 험하다. 고산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점차 낮아져 중산이 된다.

중산은 높이가 1 000m—2 000m의 산지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산지가 중산이다.

중산에는 흐르는 물에 의해 생긴 깊은 골짜기와 여울, 폭포가 많다. 금강산, 묘향산, 지리산 등 주요명산들이 중산에 속한다.

중산지대는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경치가 아름다운것이 특징이다.

저산은 해발 200m—1 000m의 산지를 말한다.

우리 나라 서해안지방의 대부분 산지가 저산이다.

저산지대는 풍화작용과 흐르는 물에 의한 침식작용을 오래동안 받은 결과 산마루가 둥글둥글하여지고 비탈이 느려진다. 저산지대는 흙층이 두꺼우며 동식물자원이 많다. 이 지대에서는 밭농사가 기본이다.

야산은 해발 200m이하인 산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야산지대를 논과 밭, 과수원으로 리용하고있다.

기후대란 무엇이며 기후대가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기후대란 땅겉면에서 같은 류형의 기후특성을 가지는 넓은 지역을 말한다.

현재 널리 쓰이고있는 기후대는 위도대에 의한 기후대와 기단의 지리적류형에 따르는 기후대이다.

지구가 둥글기때문에 위도에 따라 땅겉면에 해빛이 와닿는 각도는 달라지므로 기후의 차이가 생긴다.

기후대는 적도기후대, 열대기후대, 온대기후대, 한대기후대로 나누며 기후대와 기후대사이에 중간기후대로서 아열대, 아한대가 있다.

열대기후대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 북회귀선(23° 27′)을 경계로 하고있다.

평균기온은 20℃이상이며 지구면적에서 39.1%를 차지한다.

온대기후대는 남, 북회귀선으로부터 남, 북극권선(66° 33′)까지의 지역이다.

평균기온은 10℃정도이며 지구면적에서 52.0%를 차지한다.

한대기후대는 극권이북(이남)의 고위도지방이다.

평균기온은 0℃정도이며 지구면적의 8.9%를 차지한다.

기단의 지리적류형에 따라 기후대는 남북반구에 각각 4개의 기본기후대와 3개의 중간기후대로 나눈다.

기후대별 특징에 대하여

적도기후대에서는 한해동안 적도저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년평균기온은 25℃～28℃이고 기온의 한해차는 1℃～6℃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 000㎜～3 000㎜로서 소낙비형태로 내린다.

적도기후대는 인도네시아, 꽁고분지, 아마조나스지역이다.

적도계절풍기후대는 적도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장마철과 가물철의 차이가 심하며 지구우에서 비가 제일 많이 내린다.

적도계절풍기후대는 동남아시아의 반도들, 인디아, 아마조나스강의 오른쪽 류역, 오리노꼬강류역에 위치하고있다.

열대기후대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이 일대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특징이다.

대륙의 서쪽은 사막지대이며 대륙의 동쪽은 강수량이 많다.

열대기후대에는 사하라사막, 칼라하리사막, 오스트랄리아의 사막들이 속한다.

아열대기후대는 여름에는 열대기단, 겨울에는 온대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대륙서해안은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중해성기후이고 동해안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 아열대기후이다.

아열대기후대에는 유럽주의 남부, 서남아시아, 우리 나라의 남부, 남북아메리카의 반사막과 초원지방이 속한다.

온대기후대는 온대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대륙의 서쪽은 습한 기후이며 대륙내부는 년중 기온의 한해차가 심하다. 온대기후대에는 북반구의 온대지방, 남아메리카주의 남부가 속한다.

아극기후대는 온대기단과 극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겨울철기온은 지구우에서 제일 낮다.

아극기후대에는 아시아주와 북아메리카주의 북부가 속한다.

극기후대는 극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빙하가 있고 반년동안 눈이 덮여있다.

년평균강수량은 200㎜～300㎜이다. 극기후대에는 아시아 및 북아메리카대륙의 북빙양연안과 그 주변섬들, 남극지방이 속한다.

강의 구성에 대하여

강은 발원지, 하구, 본류, 지류, 류역, 분수령, 상류, 하류, 중류, 기슭으로 구분한다.

강은 농업과 공업, 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중요하게 리용된다.

발원지란 강줄기가 시작되는 곳을 말한다.

발원지로는 산골짜기의 샘, 진펄, 호수, 빙하 등이 될수 있다.

강물은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간다.

하구란 강물이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마지막부분을 말한다.

대동강의 발원지는 랑림산기슭이며 하구는 서해갑문이다.

본류란 발원지로부터 하구까지의 강 기본줄기를 말한다.

지류란 본류에 흘러드는 작은 물줄기를 말한다.

본류는 지류보다 길이가 길고 깊이도 깊으며 물량이 많다.

대동강에는 비류강, 남강, 보통강, 재령강과 같은 큰 지류들이 있다.

류역이란 강이 물을 받아들이는 전체 지역을 말한다.

크기는 면적으로 표시한다.

분수령이란 류역과 류역사이의 경계를 말한다.

대부분의 분수령은 산줄기의 마루로 되여있다.

강은 흐름의 성질과 물량에 따라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눈다.

상류는 물매가 급하여 물흐름이 빠르며 깎아내는 일이 세다.

상류에는 여울과 폭포가 많고 기슭에는 자갈과 바위들이 많다.

중류는 상류와 하류사이를 말한다.

중류에는 모래와 자갈이 많고 강폭이 넓어진다.

하류는 물매가 느리고 강폭이 넓으며 바닥에는 모래와 감탕이 쌓인다.

대동강에서 보면 상류는 대흥, 녕원일대이며 순천, 평양사이는 중류, 평양에서 서해갑문까지는 하류에 속한다.

강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을 오른쪽 기슭, 왼쪽을 왼쪽 기슭이라고 한다.

대동강에서 보면 모란봉은 오른쪽 기슭, 동평양은 왼쪽 기슭이다.

강줄기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강은 류역의 기후와 지형조건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자연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변화된다.

강줄기형성에는 기후, 지형, 지층, 산림 등이 영향을 준다.

기후: 강물의 원천으로는 지하수, 호수물, 빙하도 있지만 기본은 비와 눈석이물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적도지방의 강들은 물량이 많고 년중 변화가 거의 없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여름에 물량이 많고 겨울과 봄에는 물량이 줄어든다.

추운 한대지방의 강들은 쌓였던 눈이 녹는 봄철에 강물이 불어난다. 이와 같이 강물의 량과 그의 변화는 해당 류역의 기후조건에 관계된다.

지형: 강은 류역면적의 크기와 분수령산줄기의 높이에 따라 길이와 흐름속도가 달라진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는 지방이라도 류역면적이 좁고 지형이 단순하면 큰 강이 생기지 못하며 류역면적이 넓고 분수령산줄기가 높으며 그것이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으면 큰 강을 이룰수 있다.

우리 나라는 분수령산줄기가 동쪽에 치우쳐있으므로 조선서해로 흐르는 강들은 길이가 길고 지류가 많으며 물량도 많다.

지층: 강수량이 많고 류역면적이 넓다해도 암석이 지하수에 녹아서 동굴이 많은 지층이거나 물이 스며드는 지층으로 되여있을 때에도 강이 잘 형성되지 못한다.

산림: 강은 흐르는 지역의 산림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류역이 모두 벌거숭이산이면 비가 조금만 와도 큰물이 나며 조금만 가물어도 강물이 마른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숲이 우거지면 큰물과 가물피해도 막고 물량의 심한 변화를 막을수 있다.

산림은 강물의 흐름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흐르는 강이 하는 일에 대하여

강물은 흐르면서 깎아내는 일, 깎아낸것을 나르는 일, 나른 물질을 쌓는 일을 한다.

깎아내는 일: 강물은 흐르면서 강바닥과 강기슭을 깎아낸다.

물량이 많고 물살이 빠를수록 심하게 깎아낸다.

상류에서는 비탈이 급하고 물살이 빠르므로 깎는 일이 세게 일어나며 강바닥을 이루고있는 암석의 굳기가 서로 다를 때에는 무른 곳이 빨리 깎이우기때문에 바닥은 거칠어지고 물흐름이 사납게 된다. 이런 곳을 여울이라고 한다.

중류와 하류에서는 강바닥보다 강기슭을 더 많이 깎는다.

강기슭을 계속 깎아내면 강줄기는 구불구불해지므로 호안공사를 잘해야 한다.

나르는 일: 강물은 상류와 중류에서 깎아낸 자갈, 모래, 흙 같은것을 하류로 나른다.

큰 자갈들은 굴려서 나르고 작은 모래나 흙은 물에 띄워서 나른다. 물량이 많고 흐름이 빠를수록 나르는 힘이 크다.

쌓는 일: 강하류에서는 물흐름이 점차 떠진다.

물흐름이 떠지면 나르는 힘도 약해져 나르던 물질이 바닥에 가라앉는다. 쌓는 일은 강의 중류지역에서도 진행된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자갈들이 쌓이게 된다.

대동강의 릉라도, 양각도, 쑥섬, 두루섬은 모두 상류에서 날라온 물질이 쌓여서 이루어진 충적섬들이다.

강하구에서는 물흐름이 떠지게 되여 많은 물질이 여기에 쌓여 섬이 된다. 쌓인 물질이 점점 많아지면 마치 삼각형모양의 섬이 생긴다. 이런 섬을 삼각주라고 한다.

호수란 무엇이며 그 종류에 대하여

호수란 땅겉면의 비교적 넓은 웅뎅이에 고여있는 물구역을 말한다.

호수는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따라 자연호와 인공호로 나눈다.

자연호는 화산이나 지진 그리고 강과 바다물의 작용과 같은 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생겨난 호수이다.

자연호에는 화구호, 땅끊임호, 강자리호, 바다자리호, 빙하호가 있다. 화구호는 백두산천지와 같이 분화구에 물이 고여 생긴 호수이다. 땅끊임호는 땅끊임작용을 받아 생긴 웅뎅이에 물이 고여 생긴 호수이다. 강자리호는 강줄기가 변하여 생긴 호수이다.

바다자리호는 바다의 작은 만이 막혀 이루어진 호수이다.
이밖에 빙하의 작용을 받아 이루어진 빙하호도 있다.
인공호는 경제적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이 만든 호수로서 저수지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에는 수풍호, 운봉호, 랑림호를 비롯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만든 인공호와 연풍호, 태성호, 은파호 등과 같이 논과 밭에 물을 주기 위하여 만든 관개용저수지들이 있다.
대동강에는 서해갑문, 미림갑문, 봉화갑문 등이 건설되여 전기를 생산하고 논과 밭에 물을 대며 큰물을 막는데 리용되고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 호수는 진펄(습지)로 된다.

샘, 약수, 온천에 대하여

땅속에 있는 물을 지하수라고 한다.
지하수는 비와 눈석이물이 땅속에 스며들어 생긴다.
샘이란 지하수가 땅겉면으로 나오는것을 말한다.
광천이란 1ℓ의 지하수속에 1g이상의 광물질이 들어있어 맛과 냄새가 보통 샘물과 다른 샘물을 말한다.
광천에는 약수와 온천이 있다.
약수는 땅속으로 물이 흐를 때 여러가지 광물질이 물에 풀려서 섞인것이다.
약수는 광천의 온도가 20℃이하인 샘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는 강서약수, 창성약수, 옥호동약수, 삼방약수 등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약수들이 여러곳에 있다.
온천이란 땅속에서 나오는 광천의 온도가 20℃를 넘을 때의 샘을 말한다. 온천은 화산지방이나 땅속깊이까지 이르는 땅끊임선이 있는 곳에 있다.
지층의 틈새를 따라 스며든 지하수가 암석이 녹아있는 곳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땅겉면으로 나오면 온천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는 경성, 양덕, 신천, 삼천, 옹진 등 여러곳에 온천이 있다.

지평면과 지평선, 방위에 대하여

넓은 벌판에서 먼 곳을 보면 하늘과 땅이 맞닿아있는것과 같이 보인다. 이때 하늘과 땅사이선을 지평선이라고 부르며 지평선으로 둘러싸인 지구겉면을 지평면이라고 한다.

수평선은 바다면과 하늘과의 경계선이다.

방위란 지평면의 방향을 말한다.

방위는 보통 동서남북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기본방위라고 한다. 기본방위는 다시 8방위, 16방위 등으로 나눈다.

방위는 방향과 함께 도수로 나타낸다.

도수로 나타낸 방위를 방위각이라고 하며 방위각은 라침판(지북침)으로 잰다. 라침판이 없을 때에는 태양이나 별 그리고 여러가지 지형지물을 보고 알수 있다.

지도우에서 대체로 우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이고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으로 되여있다. 북쪽이 우로 되여있지 않은 지도도 있다. 이때에는 지도우에 북쪽 방향을 나타내는 방위표식을 한다.

지도축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표시하는가?

지도에서는 지구겉면의 실제거리를 줄여서 그린다.

축척이란 실제거리를 얼마나 줄여서 지도에 그렸는가를 나타내는것을 말한다. 즉 지구우에서 두 지점사이의 수평거리와 지도우에서 이에 대응하는 위치의 수평길이와의 비를 말한다.

축척은 보통 수축척, 자축척, 설명축척으로 나눈다.

지도에서 축척은 수자와 눈금자, 설명으로 나타낸다.

실례로 현지에서 500m(50 000㎝)의 거리가 지도에서 1㎝로 표시되였다면 그 지도의 축척은 수자로는 1:50 000으로, 설명으로는 《1㎝는 500m》로 표시한다.

축척이 서로 다른 지도에서 1㎝는 실제거리로 각각 몇㎞이겠는가를 계산할 때는 지도우의 거리에다 지도축척의 거꿀수를 곱하면 된다.

자축척은 자형태로 지도축척을 표시한것이다.
이 축척은 계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지거리를 쉽게 알수 있다.
즉 두 위치사이거리를 량각기로 정확히 짚고 그것을 자축척에 대고 눈금을 읽는다.

등고선이란 무엇이며 등고선에 의한 지형높이 결정에 대하여

등고선이란 지도우에서 같은 높이를 가진 지점들을 이어놓은 선을 말한다.
등고선으로 표시한 지도를 보면 지구겉면의 모습뿐아니라 산의 높이, 골짜기의 깊이도 알수 있다. 이런 지도를 지형도라고 한다.
지도에서 지형을 등고선법으로 표시한다.
등고선에는 기본등고선(주곡선)과 보조등고선(간곡선, 조곡선)이 있다.
주곡선은 지형도에서 일정한 간격의 수직높이를 표시한 기본등고선이다.
간곡선은 주곡선과 주곡선사이를 절반되게 그은 보조등고선이며 조곡선은 주곡선과 간곡선사이를 다시 절반되게 그은것이다.
간곡선과 조곡선을 그으면 지형을 보다 자세하게 묘사할수 있다.
지형도에서 간곡선은 보통 긴 점선으로 그리며 조곡선은 짧은 점선으로 그린다.
지형도에서 등고선의 높이를 쉽게 알기 위하여 주요높이를 표시하는 등고선은 굵게 나타내는데 이것을 계곡선이라고 한다.
실례로 축척 1:50 000지형도에는 20m간격의 수직높이등고선이 그려져있으며 100m, 200m, 300m 등 100m단위를 굵은선(계곡선)으로 나타낸다.
때문에 지형도에서 간곡선과 주곡선사이의 수직높이는 10m, 조곡선과 주곡선사이는 5m를 나타낸다.
지형도는 군사분야에서와 건설분야에서 널리 쓰인다.
등고선에 의하여 지형의 비탈도와 비탈방향, 높이 등 여러가

지 지형조건을 알수 있다.

즉 등고선이 빽빽하면 그 지형은 매우 험하고 경사가 급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지형도에서 거리, 면적, 비탈각의 결정에 대하여

거리재기: 직선거리는 눈금자나 량각기로 지형도의 거리를 잰 다음 수축척 또는 자축척에 의하여 실제 현지거리를 알아낸다.

곡선거리는 여러 토막의 직선구간으로 나누고 매 토막의 길이를 직선거리재는 방법과 같이 재여 합한 다음 축척에 의해 현지거리로 환산한다. 곡선계라는 기구를 리용할수도 있다.

면적재기: 면적재기는 계산법과 방안법으로 잴수 있다.

계산법은 면적을 재려는 구역을 지도우에서 3각형, 4각형 등 여러가지 도형으로 나누고 매 도형의 면적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합친것이다.

방안법은 알려고 하는 구역을 서로 같은 구역의 방안(1㎝ 혹은 5㎜정도)으로 긋고 한개 방안의 면적에 그 구역안에 포함된 방안수를 곱해준것이다.

이밖에 구적계에 의한 방법이 있다.

굴곡이 심한 곡선으로 닫긴 도형의 면적은 구적계라는 기구를 리용하여 쉽게 잴수 있다.

비탈각재기: 비탈각재기는 재려는 두 지점사이에 있는 등고선들을 찾고 린접한 2개(또는 6개)의 등고선을 량각기로 짚는다.

량각기의 두 끝을 비탈비례자에서 같은 길이를 가지는 세로선의 두 끝에 가져다대고 가로축에서 비탈각눈금을 읽는다.

등고선이 여러개(6개이상)일 때에는 여러번 꺾어서 판정한다.

우리 나라의 지리적위치와 네 끝점에 대하여

우리 나라는 지구의 동반구 아시아대륙의 동쪽에 자리잡고있다.

북쪽은 대륙과 잇닿아있고 동서남 세면은 바다로 둘러싸여있다.

우리 나라는 대략 동경 124°로부터 132°사이, 북위 43°로부터 33°사이에 자리잡고있다.

우리 나라의 네 끝점은 다음과 같다.

서쪽끝은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동경 124°10′47″)

동쪽끝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동경 131°52′40″)

북쪽끝은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북위 43°00′56″)

남쪽끝은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북위 33°06′43″)

우리 나라는 온대지방에 자리잡고있으므로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기후조건을 가지고있다.

해류가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해류는 넓은 바다에서 바다물이 일정한 길을 따라 끊임없이 흐르는것을 말한다.

해류는 생기는 원인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한다.

해류는 바람에 의하여 생긴다.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불면 바다물은 바람에 끌리여 바람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런 해류를 풍성류라고 한다.

이런 해류는 지구에서 일정한 순환체계를 이루고있다.

대기압의 차이에 의하여 생기는 해류를 기압경도류라고 한다.

바다물은 대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밀려흐르게 된다.

바다물의 온도나 소금기가 변하면 밀도차가 생기며 밀도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바다물이 흐르면서 해류가 생기는데 이런 해류를 밀도류라고 한다.

바다의 한쪽에서 물량이 적어졌을 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다물이 흐를 때도 해류가 생기는데 이런 해류를 보상류라고 한다.

해류는 바다의 한쪽에 비가 많이 내리거나 큰 강물이 흘러들어 물이 불어나면서 바다물면이 높아졌을 때도 생기는데 이런 해류를 류출류(보상류)라고 한다.

해류는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 생겨나 지구자전의 영향을 받아 계속 방향을 바꾸면서 흐른다.

조선동해와 조선서해에서의 기본해류는 태평양에서 일어난 풍성류가 흘러오는것이다.

조선서해에서는 해류가 복잡하게 흐르고있다.

해류는 물의 상대적인 온도차에 따라 난류와 한류로 나눈다.

대양에서 해류의 폭은 수십㎞나 되며 깊이는 수백m나 된다.

해류의 흐름속도는 평균 2㎞/h～8㎞/h이다.

물결과 해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물결이란 물의 진동운동이 전파되는 과정을 말한다.

바다(호수 또는 강)의 물면에는 여러가지 힘들이 작용하는데 이 힘들의 영향에 의하여 물알갱이들이 균형상태로부터 벗어나 진동운동을 한다.

물결은 우선 바람에 의해 생긴다. 바람의 속도가 2m/s이상이면 물결의 마루와 골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물결은 대기압의 변화에 의해 생긴다. 기압이 1h㎩만큼 변하면 바다물면이 1㎝씩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기압이 낮은 지역에서는 물면이 올라가고 기압이 높은 지역에서는 물면이 내려간다. 이때 물알갱이들은 균형상태를 유지하려는 운동을 하게 된다. 즉 물결이 일어난다.

바다밑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할 때에도 물결이 일어난다.

물결은 또한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물결은 바다가를 깎아내기도 하고 깎아낸 흙모래를 날라다 쌓기도 한다.

해일이란 지진이나 화산분출, 땅끓임운동이 일어나거나 저기압중심지가 이동함에 따라 생기는 큰 물결로 하여 바다물이 륙지로 밀려들어오는 현상을 말한다.

해일은 저기압과 고기압의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바람이 세게 불면서 큰 물결이 생기여 일어나기도 하며 지진, 화산분출, 땅끓임운동에 의해 큰 물결이 생기면서도 일어난다.

우리 나라에서는 태풍에 의한 기상해일이 주로 나타나며 이때 보통 바람속도는 20m/s이상, 물결은 5m～6m이상이다.

해일은 대양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바다기슭에 오면 그 높이가 수십m에 달하며 많은 피해를 준다.

우리 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대하여

씨비리기단: 겨울철에 북서풍으로 우리 나라에 영향을 주며 차고 건조하다.

오호쯔크기단: 해양성온대기단으로서 봄, 가을에 때때로 북동풍으로 영향을 주며 차고 습하다.

비가 때때로 내리며 안개를 끼게 하고 서늘하다.

태평양기단: 해양성열대기단으로서 여름에 태평양일대에서 동남풍으로 불어오며 덥고 비가 자주 내리게 한다.

적도기단: 여름에 적도지방의 덥고 습한 공기가 때때로 영향을 주는데 센 바람과 많은 비가 오게 한다. 태풍에 의한 영향을 받게 한다.

장강기단: 대륙성열대기단으로서 조선서해를 지나며 습기가 많고 비가 내리게 한다. 주로 봄과 가을에 우리 나라에 영향을 준다.

자연환경을 잘 보호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자연환경은 사람이 살며 활동하는 생활공간이다.

환경보호사업은 사람의 생존과 활동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불리한 자연환경을 유리하게 개조하는 사업이다.

사람은 활동과정에 여러가지 유해로운 물질을 산생시키며 그것은 자연의 정화작용에 의해 대부분 정화된다.

그러나 그 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제한되여있다.

때문에 자연환경을 잘 보호해야 한다.

① 대기오염에 미치는 자연조건의 영향을 잘 알고 대기오염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지구와 공업지구의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공장, 기업소와 교통운수부문에서 먼지와 유해가스처리를 잘하여야 한다.

도시의 살림집들에 전기난방화, 온수난방화를 받아들여 유해가스와 먼지를 없애야 한다.

특히 도시록화사업을 잘해야 한다.

② 환경보호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물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나오는 공업폐수(버림물)를 정화하여 강하천오염을 막아야 한다.

공업폐수, 생활오수속에 있는 해로운 물질을 분리시켜 제거하거나 해롭지 않은 물질로 만드는 정화처리를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으로 토양오염을 막는것이다.

우선 공업부문에서 나오는 폐수, 유해가스, 버림물질 같은것을 잘 정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토양의 자체정화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유기질비료를 많이 주며 깊이갈이, 흙깔이를 하여야 한다.

또한 석회를 쳐서 토양의 수소이온농도를 낮추어주며 중금속흡수능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토양깎임을 방지해야 한다.

비, 바람과 물에 의해 토양의 보드라운 흙알갱이와 영양원소가 씻겨내려갈수 있고 지력이 낮아질수 있다.

때문에 비탈지에 다락밭을 만들며 밭이랑을 등고선방향으로 내는것이 좋다.

강하천류역에 산림을 조성하고 밭머리에 나무를 심으며 치산치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화산과 지진의 발생원인과 분포에 대하여

화산분출작용이 있었거나 진행되고있는 산을 화산이라고 한다.

지구내부의 깊은 곳으로부터 마그마와 가스, 수증기가 땅겉면으로 뿜어나오는 현상을 화산분출 혹은 화산작용이라고 한다.

화산에는 휴화산, 활화산이 있다.

지구우에는 현재 분출작용이 진행되는 활화산이 530여개나 있으며 그가운데 70여개는 바다밑에 있다.

화산은 지구의 맨틀에 있는 뜨거운 마그마가 불어나 체적과 압

력이 커지면서 지각의 약한 곳을 뚫고 올라오면서 생긴다.
때문에 화산은 지각이 얇거나 약한 지대에 몰켜있다.
이것을 화산대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환태평양화산대, 지중해화산대, 대서양화산대 등이 있다.
지진은 지구내부힘과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지각이 갑자기 흔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지진은 땅속에 있는 바위층이 사방으로 떠밀리는 힘에 의하여 우로 올라오거나 파괴될 때도 생긴다.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면 바다에 섬이 새로 생기거나 반대로 륙지가 바다속으로 내려앉으며 땅바닥이 갈라지고 우무러드는 등 지형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지진은 화산이 분출할 때 땅속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가진 마그마가 흘러나오면서 땅을 흔들어놓을 때도 생긴다.
또한 지진은 갑자기 일부 땅바닥이 우무러들 때에도 땅이 흔들리면서 생긴다.
이런 지진은 석회암이 많은 지역에서 석회암동굴이 무너질 때 생긴다.
지진세기는 건물이 흔들리는 상태와 사람이 느끼는 정도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12개 등급으로 나눈다.
지진이 집중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한다.
주요지진대로는 환태평양지진대, 아시아－유럽지진대, 대서양지진대, 인디아양지진대가 있다.

안개와 구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안개란 땅과 바다면가까이의 공기층에서 생긴 아주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들이 멀리 내다볼수 없을정도로 땅이나 바다걸면에 떠있는 현상을 말한다.
구름이란 공기속에 있는 수증기가 엉겨맺혀 물방울, 얼음알갱이들로 되여 높이 떠있는것을 말한다.
구름은 안개와 달리 높은 층에서 생기며 여러가지 모양을 이

룬다.
또한 구름과 안개는 물리적구조가 다르다.
안개방울의 크기는 구름방울보다 작은데 보통 0.02㎜～0.2㎜정도이며 안개비가 내릴 때 0.2㎜～0.4㎜정도이다.
안개는 더운공기와 찬공기가 마주칠 때에도 생긴다.
특히 안개는 새벽에 땅겉면이 몹시 차지게 되면 땅겉면가까이에 있는 공기도 차지면서 수증기로 엉겨맺혀 안개로 된다.
구름이 형성되려면 수증기가 공기속으로 계속 들어가거나 공기온도가 이슬점아래로 내려가 공기가 과포화상태로 되여야 하며 수증기가 맺힐 응결핵이 있어야 한다.
수증기는 공기중에 떠있는 작은 소금알갱이, 먼지, 연기, 화산재와 쉽게 엉겨맺힌다.

기단과 전선이란 무엇인가?

기단이란 넓은 범위에 수평방향으로 놓여있으면서 물리적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덩어리를 말한다.
기단은 수평으로 수백㎞～수천㎞, 수직으로 수백m～수천m의 큰 규모로 되여있다.
기단은 열적특성과 발원지의 위도에 따라 나누는데 열적특성에 따라 더운기단과 찬기단으로, 발원지의 위도에 따라 북극과 남극기단, 대륙성 및 해양성온대기단과 열대기단, 적도기단 등으로 나눈다.
물리적성질이 서로 다른 두 기단사이의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한다. 전선면이 땅겉면과 사귀여 이루어지는 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전선은 이동하는 특성에 따라 더운전선과 찬전선으로 나눈다.
더운기단이 찬기단쪽으로 이동할 때 생기는 전선을 더운전선이라고 한다.
더운전선이 지나갈 때에는 먼저 기압이 낮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며 높은 구름이 생긴다.
찬전선이 지나갈 때에는 기압이 높아지며 기온은 낮아진다.

찬전선은 찬기단이 더운기단쪽으로 이동하여갈 때 생기는 전선이다.

전선에서는 대기의 변화과정이 복잡하게 일어나므로 날씨가 자주 변한다.

풍화작용의 종류에 대하여

륙지겉면에 부드러운 층을 이루는 토양은 암석의 풍화작용과 생물학적순환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지구겉면에 있는 암석과 그를 이루고있는 광물의 물리적파괴와 화학적변화과정을 풍화작용(풍화과정)이라고 한다.

풍화작용은 암석으로부터 토양이 생기는 첫 과정이다.

풍화작용을 일으키는 기본요인은 열, 물과 이산화탄소, 산소 등의 기체와 암석우에서 사는 유기체의 영향에 의하여 일어나는 생물학적, 생화학적과정이다.

이 요인들은 서로 결합되여 동시에 일어난다.

풍화과정은 암석을 변화시키는데 작용하는 요인에 따라 물리적풍화, 화학적풍화, 생물학적풍화로 나눈다.

물리적풍화과정: 태양열과 물의 작용으로 바위들이 기계적으로 부스러지는 과정이다.

암석은 열전도도가 매우 작기때문에 태양열을 받으면 겉층만 더워져 체적이 불어나고 속층은 열을 적게 받아 체적이 거의 불어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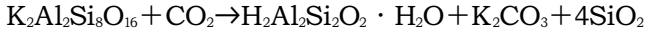
밤에는 겉층이 빨리 식어 체적이 빨리 줄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 암석의 겉층에는 틈이 생기고 그것이 점차 커져 나중에는 바위가 작은 돌덩어리들로 부서진다.

또한 암석틈에 있던 물이 얼음으로 될 때 체적이 불어나면서 바위를 부스러뜨린다. 이 과정에 모래, 돌이 생긴다.

화학적풍화과정: 광물이 태양열, 물, 이산화탄소, 산소의 작용으로 새로운 광물로 변하는 과정이다.

실례로 화강암이 부서져 생긴 장석은 물분해작용을 받아 찰흙, 탄산칼리움, 이산화규소로 갈라진다.

$K_2Al_2Si_8O_{16}+CO_2 \rightarrow H_2Al_2Si_2O_2 \cdot H_2O+K_2CO_3+4SiO_2$

장석 찰흙 탄산칼리움

탄산칼리움은 물에 풀려 이동하면서 식물의 영양물로 리용된다.

찰흙, 교질점토는 물분자를 받아 불어나며 영양소를 흡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생물학적풍화과정: 동식물에 의하여 암석과 광물이 부스러지는 과정을 말한다.

미생물과 식물은 유기산을 내보내여 광물을 풀리게 하며 식물의 뿌리는 바위를 기계적으로 부스러지게 한다.

또한 식물이 죽어서 분해되여 생긴 물질도 광물을 풀리게 한다.

우리 나라의 도와 도소재지에 대하여

평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이다.

도와 도소재지를 보면 북쪽에 평안남도－평성, 평안북도－신의주, 황해북도－사리원, 황해남도－해주, 자강도－강계, 량강도－혜산, 함경북도－청진, 함경남도－함흥, 강원도－원산, 특별시－라선시, 남포시가 있고 남쪽에 경기도－수원, 충청북도－청주, 충청남도－대전, 전라북도－전주, 전라남도－광주, 남강원도－춘천, 경상북도－대구, 경상남도－창원, 제주도－제주, 직할시－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가 있다.

백두대산줄기에는 어떤 산줄기들이 속하며 그밖의 주요 산줄기와 이름난 산들에 대하여

백두대산줄기는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두류산, 태백산, 지리산을 거쳐 조선남해까지 뻗어있는데 그 길이는 1 470㎞나 된다.

백두대산줄기에는 백두산줄기, 부전령산줄기, 북대봉산줄기, 마식령산줄기, 철령산줄기, 태백산줄기, 소백산줄기, 지리산줄

기가 속한다.

우리 나라에는 약 90개의 산줄기가 있는데 백두대산줄기에 속해 있는 산줄기들외에 함경산줄기, 랑림산줄기, 묘향산줄기, 아호비령산줄기, 하립산줄기, 경상산줄기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마천령산줄기, 차령산줄기, 만풍산줄기, 새덕산줄기, 례봉산줄기, 계방산줄기, 남원산줄기, 무등산줄기 등이 새로 확정되였다.

주요 이름난 산들은 백두산(2 750m), 정일봉(1 798m), 금강산(1 639m), 묘향산(1 909m), 칠보산(1 103m), 구월산(954m), 정방산(481m), 오대산(1 563m), 지리산(1 915m), 한나산(1 950m)이 있다.

우리 나라의 주요 고원들과 벌들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고원에는 개마고원, 백무고원(백두고원, 무산고원), 령서고원, 평강철원고원, 진안고원이 있다.

백무고원은 평균높이가 1 260m이며 6 520㎢의 면적을 가진다.

백무고원은 량강도와 함경북도에 위치하고있다.

개마고원은 평균높이가 1 340m이며 14 300㎢의 면적을 차지한다.

개마고원은 량강도, 자강도, 함경남도에 위치하고있다.

령서고원은 평균높이가 750m이며 4 740㎢의 면적을 차지한다.

령서고원은 남강원도일대에 위치하고있다.

평강철원고원은 평균높이가 320m이며 600㎢의 면적을 차지한다.

평강철원고원은 강원도일대에 위치하고있다.

진안고원은 평균높이가 330m이며 290㎢의 면적을 차지한다.

진안고원은 전라북도에 위치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주요 벌에는 룡천벌, 운전벌, 열두삼천리벌, 온천벌, 평양벌, 재령벌, 연백벌, 함흥벌, 금야벌, 김해벌이 있다.

1 000㎢이상 되는 벌은 재령벌 1 300㎢, 연백벌 1 190㎢, 호남벌 1 860㎢이다.

조선동해에 수산자원이 풍부한 원인과 해류를 따라오는 물고기에 대하여

조선동해에는 수산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현재 알려진것만 해도 수백(약 600)종이나 된다.

조선동해에 수산자원이 풍부한 원인은 우선 조선동해에서 난류와 한류가 합쳐지기때문이다.

난류인 동조선해류는 남쪽에서부터 흘러오는데 물온도가 비교적 높고 소금기와 산소가 많은것으로 하여 물고기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준다.

한류인 북조선해류는 북쪽에서 흘러오는데 이 해류를 따라 찬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들어온다.

결과 더운물을 좋아하는 물고기와 찬물을 좋아하는 물고기가 다 같이 있게 된다.

조선동해에는 또한 물이 깊고 속층찬물이 솟아오르는 수역이 넓기때문에 물고기먹이로 되는 떠살이생물이 많다. 이것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원인의 하나이다.

조선동해는 평균깊이가 1 668m이므로 여러 깊이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다 살수 있다.

조선동해에는 명태, 정어리, 도루메기, 멸치, 까나리, 낙지, 고등어, 청어, 대구, 이면수 등 수많은 물고기종류가 있다. 특히 명태가 많다.

이밖에도 넙치, 가재미, 망챙이, 가오리를 비롯한 물고기들도 많다.

여름에는 동조선해류를 따라 더운물을 즐기는 고등어, 멸치, 방어, 곱등어, 정어리, 낙지 등이 밀려든다.

겨울에는 북조선해류를 따라 찬물에서 사는 명태, 대구, 도루메기, 청어 등이 밀려온다.

조선동해에는 김, 미역, 다시마와 같은 바다나물과 굴, 섭, 대합, 밥조개와 같은 조개류, 해삼, 갈미 등 여러가지 수산자원이 있다.

우리 나라의 세 바다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하여

세 바다의 공통점: 모두 세계에서 제일 큰 대양인 태평양과 잇닿아있는것이다.

결과 해류, 미세기, 물고기들의 서식 등이 태평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물고기와 바다나물 등 수산자원과 동력자원,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차이점: 해안선에서 동해는 밋밋하지만 조선서해와 조선남해는 굴곡이 심하다.

밀물과 썰물의 차가 조선서해와 조선남해에서는 매우 크지만 조선동해에서는 작다.

물의 맑기와 깊이에서 조선동해와 조선남해의 물은 매우 맑고 깊지만 조선서해의 물은 흐리고 전체 수역이 대륙붕으로 되여있다.

바다들의 크기와 모양, 바다물의 소금기, 물온도에서 차이난다.

즉 조선동해의 면적은 약 97만 500㎢, 평균깊이 1 668m, 제일 깊은 곳은 3 699m이며 섬이 적으며 해안선이 밋밋하다.

조선동해에는 동조선해류와 북조선해류가 있으며 미세기차가 0.1m～0.4m, 소금기가 34‰이다.

조선서해의 면적은 약 43만 6 100㎢, 평균깊이는 39m, 제일 깊은 곳은 118m이며 섬, 간석지가 많고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다.

조선서해에는 서조선해류와 서조선연안류가 있으며 2.31m ～ 6.1m의 미세기차와 32‰의 소금기가 있다.

조선남해는 약 82만 2 700㎢의 면적을 가지며 평균깊이는 381m, 제일 깊은 곳은 2 999m이며 굴곡이 심하고 섬과 반도, 만이 많다. 조선남해에도 조선해류가 있으며 0.8m～2.2m의 미세기차와 33‰의 소금기가 있다.

우리 나라의 주요 강과 호수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는 강하천이 6 600여개나 있다.

그중에서 50㎞이상 되는 강하천만 해도 135개나 된다.

1 000리(400㎞)이상의 길이를 가진 강은 압록강, 두만강, 락

동강, 한강, 대동강, 금강이다. 이 강들을 6대강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는 100여개의 자연호와 1 700여개의 인공호(저수지)가 있다.

자연호에는 백두산천지(삼지연군), 삼지연(삼지연군), 삼일포(강원도), 서번포(라선시), 광포(함주군, 정평군), 만포(라선시), 장연호(어랑군), 동정호(통천군), 시중호(통천군), 우포(경상남도 창녕군), 백록담(제주도) 등이 있다.

인공호에는 수풍호(삭주군, 창성군, 벽동군, 우시군, 초산군), 운봉호(자성군, 중강군), 장진호(장진군), 부전호(부전군), 연풍호(안주시, 개천시), 서흥호(린산군, 봉산군, 은파군, 서흥군), 은파호(은파군, 재령군, 신원군), 만풍호(천마군), 태성호(강서구역, 룡강군), 장수호(신원군), 금성호(덕천시, 녕원군, 맹산군), 매봉저수지(동림군), 신곡저수지(신계군, 곡산군) 구월저수지(안악군, 삼천군), 강령저수지(강령군), 장자강호(만포시, 시중군), 송도저수지(개성시), 구암호(연안군, 청단군) 등이 있다.

우리 나라의 식물분포와 특산동식물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식물분포의 특징: 우선 우리 나라에는 식물의 종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우리 나라에는 용재식물, 섬유식물, 기름식물, 약용식물, 향료식물, 산열매식물, 집짐승먹이식물, 관상식물, 밀원식물 등 약 4 300종의 고등식물이 있다.

그중에서 우리 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종은 300여종이나 된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는 지방마다 서로 다른 식물이 자라고 있다.

북부지방은 대륙성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서 높은 산과 고원지대에는 한대성식물과 아한대성식물이 자라고있다.

대표적인 식물로는 이깔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 바늘잎나무들과 사스레나무, 사시나무, 자작나무, 황철나무 등 넓은잎나무들이 섞여 자란다.

중부지방은 비교적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으므로 참나무, 단풍

나무 등이 많이 자란다.

중부지방은 우리 나라에서 식물종수뿐아니라 희귀한 식물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다.

남부지방은 우리 나라에서 기온이 제일 높고 강수량도 많은 지대로서 느티나무, 감나무, 무화과나무, 녹나무, 참대 등이 자란다.

또한 우리 나라 식물분포에서는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낮은 곳과 높은 곳에서 식물분포가 서로 다르다.

우리 나라의 특산 및 진귀한 식물을 보면 느삼나무, 비선나무, 금강초롱, 금강국수나무, 댕강나무, 장군풀을 비롯하여 목란꽃나무, 수삼나무, 은행나무, 산삼 등 진귀한 식물이 많다.

우리 나라에는 특산동물도 많다.

우리 나라에는 수천종의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들이 살고 있다.

이가운데 40여종은 특산종인데 대표적으로 클락새, 조선범, 금개구리, 복작노루, 애기개구리 등을 들수 있다.

대동강에 건설된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인 갑문들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서해갑문을 비롯한 갑문들과 발전소들이 건설되여 오늘 대동강은 하나의 큰 인공호수로 전변되였다.

대동강에는 서해갑문, 미림갑문, 봉화갑문, 성천갑문, 순천갑문 등이 있다.

갑문건설이 가지는 의의: 대동강을 하나의 배길로 리용함으로써 우리 나라 수상운수발전에 기여할수 있게 한다.

갑문들에 발전소를 동시에 건설하면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게 한다.

또한 갑문을 건설하면 서해안지대에 새로 개간되는 간석지들과 대동강류역일대의 논밭에 관개용수를 보장함으로써 많은 알곡을 생산할수 있게 한다.

대동강이 하나의 큰 양어장으로 전변되여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였다.

대동강류역의 큰물피해를 막아주며 아름다운 풍치로 하여 사람들에게 행복한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해준다.

평양의 자연조건과 특징, 주요 명승지에 대하여

평양은 대동강과 그 지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충적벌과 언덕벌 그리고 이것들을 둘러싸고있는 주변의 낮은 산지들로 되여있다.

북부 및 북동부에는 룡골산, 국사봉 등 440m정도의 산들이 있고 남동부의 상원군일대에는 대청산, 오봉산을 비롯한 높이 800m 정도의 산들이 있다.

시내중심부와 그 주변에는 모란봉, 창광산, 장산, 대성산 등이 있으며 서쪽 경계지역에는 룡악산, 대보산 등이 있다.

주요 벌로는 만경대, 룡성일대에 넓게 펼쳐진 평양벌을 들수 있다.

대동강에는 릉라도, 양각도, 쑥섬, 두루섬, 두단섬 등 충적섬들이 있다.

기후: 평양은 온대계절풍기후대에 놓여있어 겨울에는 대륙성기후, 여름에는 해양성기후의 특징을 나타낸다.

년평균기온은 9.5℃, 년평균강수량은 1 000㎜정도이다.

평양에는 대동강과 그 지류들인 남강, 합장강, 순화강, 무진천, 곤양강, 보통강 등이 있다.

주요 명승지로는 만경대, 룡악산, 모란봉, 대성산, 봉화산, 보통강유원지, 릉라도, 련광정, 단군릉, 동명왕릉 등이 있다.

백두산의 자연지리적특징과 백두산일대의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들에 대하여

백두산은 량강도 삼지연군의 북서부에 솟아있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장군봉의 해발높이는 2 750m이다.

백두산은 제3기말～제4기초에 땅속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솟아나와 이루어진 화산이다.

분화구는 천지이다. 천지의 제일 깊은 곳은 384m이다.

천지둘레에는 최고봉인 장군봉을 비롯하여 향도봉, 청석봉, 쌍무지개봉, 해발봉, 탁월봉, 천문봉, 단결봉, 백운봉, 차일봉, 제비봉 등이 솟아있다.

년평균기온은 −7.5℃이며 우리 나라에서 바람이 제일 센 곳이다. 천지의 물은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흘러나간다.

백두산일대에는 약 2 700종의 식물이 있으며 범, 곰, 사슴, 노루 등 여러 동물들과 이깔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 사시나무, 자작나무 등이 밀림을 이루고있으며 단너삼, 만삼, 만병초 등을 비롯한 100여종의 약용식물이 있다.

백두산일대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을 비롯하여 간백산밀영, 소연지봉밀영, 선오산밀영, 곰산밀영, 사자봉밀영, 무두봉밀영, 쌍두봉밀영 등 많은 밀영들이 있으며 보천보, 삼지연, 5호물동, 건창, 청봉, 베개봉, 무포, 대홍단 등 수많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이 있다.

오늘 백두산일대는 《혁명전적지특별보호구》로 되여있으며 백두산은 1989년에 《국제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되였다.

정일봉일대의 자연과 《정일봉》이란 불멸의 글발이 안고있는 뜻에 대하여

정일봉은 백두산마루로부터 남쪽으로 약 40리 떨어진 소백수가에 위치하고있다.

해발높이는 1 798m이며 량강도 삼지연군에 속한다.

년평균기온은 0.7℃이고 년평균강수량은 854㎜정도이며 대륙성기후를 이루고있다.

정일봉일대에는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이깔나무와 같은 바늘잎나무들과 자작나무, 사시나무, 달피나무, 물황철나무와 같은 넓은잎나무들이 자라고있으며 딱따구리, 박새, 들꿩, 어치, 동고비, 메비둘기, 저광이, 티티새, 노랑꼬리여새, 메종다리 등 여러 종의 새들이 있다.

정일봉마루에는 1988년 11월에 새긴 《정일봉》이라는 불멸의

글발이 있다.

《정》자는 백두산의 장군봉을 형상하였는데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의 정기를 안고 탄생하시여 항일혁명투쟁의 총포성을 들으시며 성장하시였다는 뜻을 안고있다.

《일》자를 새긴 화강석은 네모나고 면이 고르로운것이 마치 큰 거울과도 같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상징하고있다.

《봉》자는 꽃바구니모양인데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하는 우리 인민의 념원을 반영한것이다.

묘향산의 자연지리적특징에 대하여

묘향산은 평안북도와 자강도사이에 있으며 평안북도 향산군에 소속되여있다.

묘향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비로봉(1 909m)이다.

묘향산이란 기묘하게 생긴 산모양과 나무숲에서 풍기는 향기를 통털어 담아 지은 이름이다.

묘향산을 이루고있는 암석은 주로 시생대의 화강편마암과 화강암이고 그 주변에는 석회암이 분포되여있다.

주요 산봉우리들에는 묘향산(비로봉)을 중심으로 칠성봉, 진귀봉, 석가봉, 원만봉, 향로봉, 오선봉, 법왕봉 등이 있다.

향나무, 박달나무, 잣나무,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으며 숲속에는 산삼을 비롯한 약용식물과 산과일이 많다.

비로봉꼭대기에는 누운잣나무가 있고 곰, 노루와 같은 산짐승들과 산새들이 있다.

상원동, 만폭동, 천태골, 칠성골을 비롯한 골짜기들과 인호대, 백운대, 강선대, 단군대 등 수십개의 자연바위로 이루어진 전망대들이 있다.

또한 묘향산에는 이선남폭포, 무릉폭포, 룡연폭포, 9층폭포, 금강폭포, 대하폭포, 산주폭포, 은선폭포, 유선폭포, 천태폭포, 소리폭포, 사자폭포 등이 있으며 단군전설과 서산대사와 사명당에 대

한 이야기, 인호대와 호랑이, 봉이 김선달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수많은 전설들이 깃들어있다.

특히 묘향산에는 국제친선전람관이 있으며 여러 자연바위들에는 《강철의 령장 **김정일**》, 《주체》 등의 글발을 새기였다.

금강산의 자연지리적특징에 대하여

금강산은 우리 나라의 중부 강원도 고성군에 자리잡고있다.

동서 40㎞, 남북 60㎞, 총면적 530㎢이며 제일 높은 봉우리는 1 639m인 비로봉이다.

금강산은 예로부터 우리 나라 5대명산의 하나로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승지이다.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금강산은 여러번 진행된 지각운동과 풍화작용을 받아 가로, 세로틈들이 생겨났으며 높은 바위벼랑과 골짜기, 톱날모양의 산봉우리들이 맑은 여울물과 어울려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있다.

금강산은 비로봉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옥녀봉, 오봉산, 서쪽에는 영랑봉과 기타 봉우리들이 있으며 남쪽에는 차일봉, 동쪽에는 세존봉, 집선봉 등이 있다.

또한 비로봉을 경계로 동쪽은 외금강, 서쪽은 내금강, 바다가를 해금강이라고 하며 계절에 따라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란 이름으로 불리워왔다.

칠보산의 자연지리적특징에 대하여

칠보산은 상매봉(1 103m)을 주봉으로 하여 함경북도 명천군에 자리잡고있는 산이다. 일곱가지의 보물이 묻혀있다고 하여 칠보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은 예로부터 《함북금강》으로 이름난 명승지이다.

칠보산은 제3기말～제4기초에 화산활동에 의해 큰 규모의 산체가 이루어진 다음 땅깎임작용과 오랜 세월 암석이 물과 바람

에 깎이고 씻기여 오늘과 같은 기묘한 봉우리들과 벼랑, 골짜기들이 이루어졌다.

칠보산을 이룬 암석은 류문암, 알카리조면암 등이며 기반암은 중생대 화강암이다.

칠보산은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로 나눈다.

내칠보에는 로적봉, 만사봉, 라한봉, 철불봉, 조각봉이 있다.

이 5개의 봉우리들을 오봉산이라고 한다.

내칠보에는 만월대, 우산봉, 무희대 등 기묘한 바위들과 오랜 력사유적의 하나인 개심사가 있으며 그뒤에는 200년이상 자란 약밤나무가 있다.

해칠보는 황진리에서 무수단리까지 약 40㎞사이의 바다가를 차지한다.

해칠보는 깎아지른듯한 벼랑들과 바다물결에 패인 굴, 작은 배만이 다닐수 있는 달문, 무지개바위, 강선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솔과 섬은 유명한 곳이다.

해칠보에는 황진온천이 있다.

외칠보는 좁고 깊은 골짜기와 여울, 크고작은 폭포들과 시내물로 이루어졌으며 매바위, 장군바위, 처녀바위 등 이름난 바위들이 있다.

칠보산에는 송이버섯, 머루, 다래를 비롯한 버섯류들과 산과일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식물들이 있으며 노루, 메돼지, 곰, 오소리와 같은 짐승들이 많다.

해칠보의 바다가에는 이면수, 청어, 문어, 낙지 등도 있다.

칠보산은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인민들의 문화유원지로 꾸려졌다.

구월산의 자연지리적특징에 대하여

구월산은 황해남도 은률군과 안악군경계에 솟아있는 산으로서 높이는 954m, 면적은 약 110㎢이다.

구월산을 이룬 기반암은 중생대에 이루어진 화강암이며 이것이 오랜 기간 깎이고 씻기여 기묘한 바위와 벼랑, 봉우리, 골짜기

를 이루고있다.

산은 넓은 벌가운데 솟아있으므로 높이에 비하여 웅장해보인다.

구월산에는 제일 높은 사황봉을 비롯하여 오봉, 삼봉, 단군봉, 인황봉, 아사봉 등 기묘하고 높은 봉우리만 하여도 99개나 된다.

또한 산성골, 오봉골, 운계골, 화장골을 비롯한 수많은 골짜기들과 폭포들, 부연, 마연, 요연과 같은 못들이 있다.

구월산에는 참나무, 밤나무, 단풍나무, 감나무, 배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나무들과 당귀, 만삼, 너삼, 오미자 등 약초들이 있다.

구월산에는 우리 선조들이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쌓은 구월산성과 월정사, 돌탑, 패엽사 등 많은 력사유적이 있으며 단군과 관련된 전설도 있다.

구월산에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력적으로 투쟁하신 불멸의 혁명사적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오늘 구월산은 인민의 문화유원지로 꾸려졌다.

정방산의 자연지리적특징에 대하여

정방산은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황주를 경계로 하여 사리원에서 북쪽으로 20리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정방산은 오랜 세월 규암과 운모편암이 바람에 깎이고 물에 씻기여 생긴 산으로서 높이는 481m이다.

산봉우리들이 릉선을 따라 정방형으로 둘러막힌 정방산에는 동식물상이 다양하다.

주요 식물에는 목란꽃나무, 밤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산수유나무를 비롯하여 분지나무, 동백나무 등이 있다.

동물로서는 노루, 복작노루, 메토끼, 꿩, 다람쥐 등이 있다.

정방산에는 오랜 력사유적도 있으며 봉이마다에는 선조들의 애

국의 넋이 깃들어있다.

대표적인 문화유적에는 정방산성과 그안에 있는 병실 그리고 성불사 극락전을 비롯한 건축물이 있다.

정방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다. 정방산은 오늘 훌륭한 문화유원지로 건설되였다.

세계의 대륙과 대주에 대하여

세계는 6개의 대륙 즉 유라시아대륙, 아프리카대륙, 북아메리카대륙, 남아메리카대륙, 오스트랄리아대륙, 남극대륙이 있다.

세계에는 7개의 대주 즉 아시아주, 유럽주, 아프리카주, 북아메리카주, 남아메리카주, 오세안주, 남극주가 있다.

오스트랄리아대륙과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합하여 오세안주라고 한다.

아시아주와 아프리카주의 경계는 수에즈해협(수에즈운하)이다.

북아메리카주와 남아메리카주의 경계는 빠나마지협(빠나마운하)이다.

아시아는 고대아쎄리아말로 《해솟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였다.

유럽은 고대그리스사람들이 《해가 지는 곳 또는 서쪽의 대륙》이라고 부른데서 유래되였다.

아프리카는 리비아말로 《더운 땅》, 《열대의 대륙》이란 뜻이다.

아메리카는 1492년에 이 대륙이 알려진 후 남아메리카대륙을 탐험한 아메리코 베스뿌치의 이름을 본따서 지었다.

오스트랄리아는 1645년 에스빠냐사람들이 이 대륙을 탐험하고 남극까지 잇닿은 륙지로 알고《남쪽의 땅》이라고 부른데서 유래되였다.

남극대륙은 북극의 반대쪽이라는 말이다.

아시아주는 약 4 436만 3 000㎢로서 지구륙지면적의 1/3에 해당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한다.

유럽주는 약 1 052만 7 000㎢로서 지구륙지면적의 1/13에 해당되는 지역을 차지하며 아프리카주는 약 3 031만 9 000㎢로서 아시아주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있다.

북아메리카주의 면적은 약 2 425만㎢로서 대주가운데서 세번째로 크며 남아메리카주의 면적은 약 1 783만㎢이다.

오세안주의 면적은 약 851만 1 000㎢이다.

량극지방에서 북극지방의 면적은 약 2 500만㎢이며 그가운데서 바다가 차지한 면적은 1 435만㎢, 남극지방의 면적은 1 401만㎢이며 그중 대륙의 면적은 1 392만㎢이다.

아시아주의 지리적위치와 령역, 그에 속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아시아주는 동반구에서 대략 동경 60°～180°사이, 남위 10°이북에 해당하는 유라시아대륙의 중동부에 위치하고있다.

아시아주는 유럽주와는 달리 우랄산줄기, 까스삐해, 꾸마니츠지구대(까스삐해와 흑해사이를 횡단하는 깝까즈산줄기부근), 흑해, 보스포르해협을 경계로 하고있다.

아프리카주와의 경계는 수에즈운하로부터 홍해의 남쪽끝까지이며 오세안주와의 경계는 필리핀군도의 남쪽에 북—남방향으로 있는 말루꾸제도이다.

북아메리카주와의 경계는 베링그해협이다.

아시아주는 지구륙지면적의 1/3로서 대략 4 436만 3 000㎢이다.

아시아주에는 48개의 나라가 속해있다.

아시아주를 동부아시아지역, 동남아시아지역, 중부아시아지역, 남부아시아지역 및 서남아시아지역으로 구분한다.

동부아시아지역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몽골, 일본이 속한다.

그리고 로씨야령토의 아시아령역이 여기에 속한다.

면적은 약 1 176만 2 183㎢(로씨야의 아시아부분면적 제외)이다.

동남아시아지역은 아시아주의 남동부에 위치하고있다.

이 지역에는 동남아시아반도, 말라이반도, 대쑨다제도, 소쑨

다제도, 필리핀군도, 말루꾸제도, 깔리만딴섬, 뉴기니아섬의 일부가 속하며 그 면적은 462만 1 235㎢이다.

중부아시아지역은 유라시아대륙의 중앙부에 위치하고있다.

중부아시아지역의 내륙국가들에는 까자흐스딴, 우즈베끼스딴, 뚜르크메니스딴, 끼르기즈스딴, 따쥐끼스딴 등 5개의 나라가 속하며 그 면적은 399만 4 400㎢이다.

남부아시아지역은 아시아주의 남부에 있는 인디아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위치하고있다.

이 지역에는 인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슈, 네팔, 부탄, 스리랑카, 말디브제도 등 7개의 나라가 속하며 그 면적은 약 449만 8 765㎢이다.

서남아시아지역은 아시아주의 남서부에 위치하고있다.

이 지역에는 이란고원, 소아시아반도, 아라비아반도 및 주변의 섬들이 있다.

이 지역에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까타르, 오만, 아랍추장국, 예멘, 뛰르끼예, 끼쁘로스, 그루지야, 아르메니야, 아제르바이쟌 등 20개의 나라가 속하며 그 면적은 약 718만 9 266㎢이다.

유럽주의 지리적위치와 령역, 그에 속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유럽주는 유라시아대륙의 서부에 위치하고있다.

서쪽과 북쪽은 대서양, 북빙양에 면하여있으며 동쪽은 아시아주와 접하고있다. 남쪽은 지중해와 면하고있다.

유럽주는 아시아주와 우랄산줄기, 까쓰삐해, 깝까즈산줄기, 흑해, 보스포르해협(흑해에서 지중해로 넘어가는 관문)을 경계로 하고있으며 아프리카주와는 보스포르해협으로부터 지중해를 따라 대서양으로 나가는 관문인 지브롤터해협까지를 경계로 하고있다.

유럽주는 지구륙지면적의 1/13(약 3%)로서 약 1 052만 7 000㎢

이다.
유럽주는 북유럽, 동유럽, 서유럽 및 남유럽지역으로 나눈다.
동유럽지역은 유럽주의 동부와 중부에 위치하고있다.
이 지역은 동쪽은 우랄산줄기로부터 서쪽으로 발트해연안과 오드라강, 나이쎄강의 우안, 남쪽으로 두나이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한다.
이 지역에는 로씨야, 우크라이나, 벨라루씨, 몰도바, 리뜨바, 라뜨비야, 에스또니야, 뽈스까, 체스꼬, 슬로벤스꼬, 마쟈르, 로므니아 등 12개의 나라가 속하며 약 1 886만 5 704㎢의 면적을 차지하고있다.
북유럽지역은 유럽주의 동쪽에 위치하고있다.
이 지역은 스칸디나비아반도, 윌란반도, 핀란드, 이슬란드섬을 포괄하며 그 면적은 132만 42㎢이다.
이 지역에는 스웨리예, 노르웨이, 핀란드, 단마르크, 이슬란드가 속한다.
서유럽지역은 유럽주의 서부 대서양연안에 위치하고있다.
이 지역에는 도이췰란드,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데를란드, 벨지끄, 룩셈부르그, 리히텐슈타인, 아일랜드가 속하며 약 141만 8 327㎢의 면적을 차지하고있다.
남유럽지역은 유럽주의 남부 지중해연안에 위치하고있다.
이 지역에는 아뻬닌반도, 삐레네반도, 발칸반도를 비롯한 지중해의 북쪽 해안나라들과 섬들이 속한다.
이 지역에는 벌가리아, 쓰르비아, 쯔르나고라, 흐르바쯔까,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마께도니아, 알바니아, 그리스, 이딸리아, 바띠까노, 싼마리노, 말따, 모나꼬, 안도라, 에스빠냐, 뽀르뚜갈 등 17개 나라가 속하였으며 그 면적은 약 143만 4 773㎢이다.

아프리카주의 지리적위치와 령역, 그에 속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아프리카주는 아시아주의 남서쪽, 유럽주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아프리카주는 아시아주와는 수에즈운하, 홍해, 만다브해협을 경계로 하고있으며 유럽주와는 지브롤터해협, 지중해, 수에즈운하를 경계로 하고있다.

동쪽으로는 인디아양, 서쪽으로는 대서양이 있다.

아프리카주는 약 3 031만 9 000㎢로서 세계륙지면적의 1/4이다.

아프리카주는 북부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로 구분한다.

북부아프리카지역은 이 대륙의 북부 지중해연안에 위치하고있다.

북부아프리카지역에는 에짚트, 리비아, 뚜니지, 알제리, 마로끄, 서부사하라를 비롯하여 여러개의 나라가 있다. 사하라사막은 북부아프리카의 거의 전체 면적을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사막이다.

서부아프리카지역은 남쪽으로 기네만의 북쪽 해안, 동쪽으로는 기네만의 맨 구석을 지나는 동경 10°선, 북쪽으로는 북회귀선(23°27′), 서쪽으로는 대서양으로 둘러싸인 아프리카대륙의 서부에 위치하고있다.

서부아프리카지역에는 모리따니, 말리, 기네, 세네갈, 감비아, 기네－비싸우, 베르데갑, 시에라레온, 리베리아, 꼬뜨디봐르, 부르끼나파쏘, 가나, 또고, 베닌, 니제르, 나이제리아 등이 있다.

중부아프리카지역은 기네만의 동쪽 해안국가들, 내륙국가인 챠드와 중앙아프리카를 포함한 대륙의 중앙부에 위치하고있다.

중부아프리카지역에는 챠드, 중앙아프리카, 꽁고, 민주꽁고, 까메룬, 가봉, 적도기네, 산토메프린시페 등이 속한다.

남부아프리카지역은 대륙남부(대략 남위 8°～10°이남)에 위치하고있다. 이 지역에는 모잠비끄,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앙골라, 보쯔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레소토, 스워질랜드, 모리셔스, 꼬모르 등 여러개의 나라가 속한다.

북아메리카주의 지리적위치와 령역, 그에 속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북아메리카주는 서반구에서 대략 북위 10°이북에 위치하고있

으며 약 2 425만㎢이다.

베링그해협을 경계로 아시아주와 린접하고 남쪽으로 빠나마지협을 경계로 남아메리카와 린접하고있다.

북쪽에는 북빙양, 동쪽은 대서양, 서쪽은 태평양이 면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메히꼬, 니까라과, 과떼말라, 벨리제, 엘 쌀바도르, 온두라스, 꼬스따리까, 빠나마, 미국, 카나다, 꾸바, 아이띠, 도미니까, 져메이커, 바하마, 쎄인트루씨아, 바베이도즈, 그레네이더, 트리니대드 토바고, 쎈르키츠 네비스, 쎈트빈쎈트 그레너딘즈, 안티구아 바부다 등 여러개의 나라들이 있다.

이 지역에는 그린랜드섬, 배핀섬, 빅토리어섬, 엘즈미어섬, 뉴펀들렌드섬, 서인디아제도 등 여러개의 섬이 있다.

남아메리카주의 지리적위치와 령역, 그에 속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남아메리카주는 서반구의 남쪽 대략 북위 10°로부터 남위 55°사이에 있으며 면적은 1 783만㎢이다.

남아메리카주는 북쪽으로 빠나마지협을 경계로 북아메리카주와 잇닿아있고 동쪽으로 대서양, 서쪽으로 태평양에 면하였다.

남아메리카주에는 12개 나라가 속해있다.

남아메리카대륙은 안데스지방, 안데스 동부지방으로 구분한다.

안데스지방에는 꼴롬비아, 에꽈도르, 뻬루, 볼리비아, 칠레가 속하며 안데스 동부지방에는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 브라질, 빠라과이, 아르헨띠나, 우루과이가 있다.

오세안주의 지리적위치와 령역, 그에 속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오세안주는 대략 북위 20°로부터 남위 45°사이, 동경 115°로부터 서경 135°구간에 위치하고있다.

오세안주의 령역에는 오스트랄리아대륙과 태평양의 중부 및 서

부의 섬들이 포괄된다.

이 주에는 14개의 나라와 12개의 식민지들이 속해있다.

오세안주는 약 851만 1 000㎢정도이다.

이 주에는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나우루, 키리바티, 투발루, 피지, 사모아, 통가, 벨라우, 미크로네시아, 마셜제도가 속해있다.

이외에 니우에, 웨이크도 등의 식민지나라들이 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산줄기들에 대하여

히말라야산줄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줄기로서 중국의 청장고원과 인디아 및 네팔의 국경지대에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산줄기이다.

길이 약 2 400km이며 평균높이는 6 000m이상이다.

제일 높은 봉은 주물랑마봉(8 848m)이다.

곤륜산줄기: 중국의 서부에서 신강지방과 청장지방을 갈라놓는 큰 산줄기로서 길이는 2 500㎞이며 제일 높은 산은 무쯔타거산(7 723m)이다.

알따이산줄기: 중부아시아와 몽골 및 중국국경지대에 있는 산줄기로서 고비사막에서 시작하여 북서쪽으로 서부씨비리저지까지 2 000㎞이상 뻗어있다. 저지란 벌이란 뜻이다. 가장 높은 산은 벨루하산(4 506m)이다.

천산산줄기: 빠미르고원의 북쪽에 동서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는 산줄기이다.

천산산줄기의 길이는 약 2 500㎞이다.

이 산줄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뽀베라봉은 7 439m이다.

힌두쿠쉬산줄기: 빠미르고원에서 시작하여 남서방향으로 뻗어 아프가니스탄의 중부를 지나가는 산줄기이다.

길이는 800km이고 평균높이는 4 000m～5 000m이다.

깝까즈산줄기: 로씨야의 남부 흑해와 까쓰삐해사이에 동서로 뻗어있는 산줄기이다.

길이 1 500㎞이며 제일 높은 산은 엘브루스산(5 642m)이다.

알프스산줄기: 유럽의 이딸리아,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도이췰란드지역에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산줄기로서 유럽의 지붕으로 알려져있다.

길이는 1 200㎞이고 평균해발높이는 1 900m이며 제일 높은 산은 블랑산(4 810m)이다.

까르빠띠산줄기: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뽈스까, 슬로벤스꼬, 로므니아, 마쟈르지역에 반원형으로 뻗어있는 산줄기이다.

길이는 약 1 500㎞, 평균높이는 약 1 000m이다.

아틀라스산줄기: 아프리카의 북서부 마로크, 알제리, 뜌니지 일대에 뻗어있는 산줄기이다.

길이는 약 2 000㎞이다.

여러개의 산줄기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제일 높은 봉은 투브갈산(4 156m)이다.

드라켄산줄기: 남아프리카의 인디아양연안 비탈면을 따라 바다가와 평행되게 솟은 산줄기이다.

길이는 2 000㎞이며 제일 높은 산은 타바나은틀 레니아나산(3 482m)이다.

로키산줄기: 북아메리카의 서부 카나다와 미국지역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산줄기이다.

길이는 약 3 200㎞, 해발높이가 4 000m이상인 높은 산들이 있으며 제일 높은 산은 얼버트산(4 399m)이다.

안데스산줄기: 남아메리카대륙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산줄기이다.

길이는 9 000㎞이며 제일 높은 산은 아꼰까과산(6 960m)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고원들에 대하여

빠미르고원, 황토고원, 데칸고원, 메세따고원, 청장고원, 중부씨비리고원, 에티오피아고원, 남아프리카고원, 몽골고원, 가이아나고원, 브라질고원, 메히꼬고원 등이 있다.

빠미르고원은 중부아시아의 남부지역을 차지하며 힌두쿠쉬산

줄기, 곤륜산줄기로 둘러싸여있다. 해발높이는 5 090m이상이며 대부분지역이 따쥐끼스딴에 속한다.

황토고원은 중국의 북부중앙부에 있으며 곡창지대로 되고있다.

데칸고원은 인디아반도의 사트푸라산줄기 남쪽에 펼쳐져있는 고원이다. 주요 목화재배지이다.

메세따고원은 유럽의 삐레네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고원이다.

에티오피아고원은 동부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서부에 있는 고원이다.

메히꼬고원은 북아메리카대륙의 남부를 차지하고있는 고원이다.

브라질고원은 남아메리카대륙의 동남부를 차지하고있는 고원이다.

브라질의 주요 커피생산지대이며 소의 방목지로 되고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분지와 주요 벌, 사막에 대하여

분지로서는 사천분지(중국), 탈리무분지(중국), 빠리분지(프랑스), 꽁고분지(꽁고강류역 민주꽁고) 등이 있으며 주요 벌(저지)에는 서부씨비리저지(로씨야 북부아시아), 메소포타미아저지(서남아시아, 이라크), 동유럽평원(동유럽), 라뿔라따저지(남아메리카의 남동부, 아르헨띠나), 아마조나스저지(아마조나스강류역), 랴노스(오리노꼬강류역의 열대초원), 미씨씨피저지(미씨씨피강류역) 등이 있다.

주요 사막에는 고비사막(동부아시아, 중국), 사하라사막(아프리카북부), 루브알할리사막(아라비아반도남부), 까라꾸미사막과 끼쥐꿈사막(중부아시아), 칼라하리사막(아프리카남부), 아따까마사막(남아메리카의 칠레서부), 대쌘디사막(오스트랄리아) 등이 있다.

세계의 이름난 폭포들과 주요 강, 호수들에 대하여

세계에서 이름난 폭포에는 모지바뚜은쟈대폭포(너비 1 800m, 높이 120m), 안헬폭포(제일 높은 폭포 1 054m), 이과쑤폭포, 나이애거리폭포 등이 속한다.

주요 강에는 닐강(아프리카), 아마조나스강(남아메리카), 미씨씨피강(북아메리카), 장강(중국), 오비강, 아무르강, 메켄지강, 레나강, 볼가강(로씨야), 꽁고강(아프리카), 메콩강(동남아시아), 황하(중국), 라쁠라따강(남아메리카), 두나이강(유럽) 등이 속한다.

주요 호수들에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호수인 까쓰삐해, 바이깔호(제일 깊은 호수), 아랄해, 라도가호, 오네가호, 빅토리아호와 탕가니카호, 냐싸호, 챠드호, 5대호(쓔피어리어호, 미쉬건호, 휴런호, 이어리호, 온태어리어호), 마라까이보호, 띠띠까까호, 애어호 등이 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섬들과 그의 크기, 주요 해협들에 대하여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은 그린랜드섬이다.

북아메리카의 카나다 북동쪽 대서양과 북빙양사이에 위치하고있으며 그 면적은 217만 5 600㎢이다.

섬면적의 80%가 얼음으로 덮여있다.

섬은 단마르크의 한개 주로 되여있으며 주민은 5만명정도 살고있다.

다음으로 뉴기니아섬이다.

뉴기니아섬은 이리안섬이라고도 한다.

태평양의 서부 적도이남에 위치하고있다.

면적은 82만 9 000㎢이고 제일 높은 곳은 쟈야산(5 030m)이다.

섬의 서부는 인도네시아령토이고 동부는 파푸아뉴기니아이다.

깔리만딴섬은 동남아시아의 쟈와해와 중국남해사이에 위치하고있다.

면적은 73만 5 700㎢이다.

섬의 북동부에 제일 높은 끼나발루산(4 100m)이 있다.

대부분이 인도네시아령토이고 북부는 일부가 말레이시아의 령토이고 나머지는 부르네이가 차지하고있다.

마다가스까르섬은 인디아양의 서부 아프리카대륙의 남동쪽에 위치하고있다.

면적은 약 59만 6 000㎢, 섬에서 제일 높은 곳은 마루무꾸뜨산(2 876m)이다. 마다가스까르령토이다.

배핀섬은 카나다의 북동쪽에 위치하고있다. 면적은 약 47만 6 000㎢이다.

이외에 이슬란드섬, 쑤마뜨라섬, 아일랜드섬, 잉글랜드섬, 혼슈섬, 쟈와섬, 꾸바섬, 대만섬, 아이띠섬 등이 있다.

주요 해협에는 베링그해협과 말라까해협, 호르모즈해협, 만다브해협, 지브롤터해협, 쯔가르해협, 마젤란해협, 로마해협 등이 있다.

베링그해협은 아시아대륙과 북아메리카대륙의 경계로 된다.

해협의 최대너비는 86㎞, 길이는 96㎞, 깊이 36m이다.

말라까해협은 말라이반도와 쑤마뜨라섬사이에 있는 해협이다.

너비는 40㎞～350㎞, 길이는 약 800㎞이다.

해협의 남쪽입구에 싱가포르가 있다.

태평양으로부터 인디아양으로 들어가는 해상통로이다.

호르모즈해협은 아라비아해의 페르샤만과 오만만사이에 있는 해협이다.

길이 195㎞이고 너비는 좁은 곳이 54㎞이다.

배길의 깊이는 27.5m이다.

페르샤만연안 대원유생산지의 관문으로서 원유의 대부분을 이 해협을 통해 실어나른다.

복잡한 지형을 이루고있으며 여러개의 섬이 있다.

만다브해협은 홍해와 아덴만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이다.

해협의 너비는 약 26.5㎞, 길이는 약 109㎞, 가장 얕은 곳은 31m이다.

해협에는 작은 화산섬들이 있으며 배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기 힘

들어하므로 《위험한 해협》이라고 한다.

지브롤터해협은 유럽의 남서부와 아프리카의 북서부사이에 있는 해협으로서 대서양과 지중해를 련결하는 해상통로이다.

길이는 59㎞, 너비는 14㎞～44㎞이다. 평균깊이 360m이다.

마젤란해협은 남아메리카대륙의 남쪽끝과 푸에고섬사이의 해협으로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련결하여준다.

길이는 약 575㎞, 너비는 2.2㎞, 깊이는 19.8m이다.

마젤란해협을 마갈랴네쓰해협이라고도 부른다.

수에즈운하와 빠나마운하에 대하여

수에즈운하: 에짚트의 북동부 수에즈지협에 건설된것으로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대륙의 경계로 되며 인디아양과 지중해에 있는 중요한 해상통로이다.

운하의 길이는 173.5㎞, 너비는 60m～80m, 물깊이는 14.5m～15.5m이며 배통과시간은 11시간～12시간이다.

하루 평균 수십척의 배가 다닌다.

최근에 배들이 대형화되고있는 추세에 맞게 운하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있다.

스에즈운하는 빠나마운하와는 달리 갑문이 없는 수평식운하이다.

수에즈운하의 개통으로 인디아항과 대서양연안 나라들의 항구도시들사이의 배길은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는것보다 9 900㎞～1만 5 000㎞나 줄어들었다.

운하는 수십만의 에짚트인민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약 11년동안 건설하였다.

이 공사에서 12만명의 에짚트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빠나마운하: 빠나마운하는 중앙아메리카의 빠나마지협에 건설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운하이다.

운하의 길이는 81.6㎞, 너비는 좁은 곳에서 91.5m, 넓은 곳에서 300m, 깊이는 13.5m이다.

운하의 가장 높은 부분은 해발높이 87m이며 3계단의 갑문에 의해 물높이를 조절한다.

배의 통과시간은 7시간～8시간이며 하루 최고 48척의 배가 지나갈수 있다.

운하의 태평양어구에는 발보아항, 대서양쪽에는 꼴론항이 있다.

운하는 1904년－1914년사이에 건설되였으며 매해 5만명의 빠나마로동자들이 일하였다.

운하기슭을 따라 철길과 자동차길이 있다.

까쓰삐해와 바이깔호에 대하여

까쓰삐해: 까쓰삐해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를 이루는 우랄산줄기 남서쪽에 자리잡고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이다.

호수의 면적은 1986년에 37만 1 000㎢였다.

호수의 물면은 세계대양물면보다 28m 낮다.

평균물깊이는 184m이며 호수의 남북길이는 1 200km이고 동서길이는 약 300㎞이다.

까쓰삐해로는 볼가강, 우랄강과 같은 큰 강들이 흘러들지만 흘러나가는 강은 없다.

까쓰삐해의 소금기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6.3‰로부터 최고 30‰이상 되는 수역도 있다.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으며 연안에서는 원유를 채취하고있다.

까쓰삐해에는 까라보가즈골만, 만기슐라크만, 까자흐만 등 여러개의 만과 체첸섬, 오구르친스끼섬, 쥴레니섬을 비롯하여 50여개의 크고작은 섬이 있다.

바이깔호: 바이깔호는 로씨야의 동부씨비리 남부에 북동－남서방향으로 길다랗게 놓여있는 세계에서 제일 깊은 민물호수이다.

호수의 면적은 3만 1 500㎢이며 길이는 636㎞, 너비는 48㎞이다. 최대깊이는 1 620m이다.

중근동, 근동, 중동, 원동이란 무엇이며 그 지리적령역에 대하여

중근동은 력사지리적으로 이루어진 지명이다.

오늘날에는 지리적으로 분류된 서남아시아지역과 일치하는 지명으로 쓰이고있다.

중근동에는 소아시아반도(뛰르끼예), 사우디 아라비아반도(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예멘, 오만 등), 페르샤만연안나라들, 아프가니스탄, 깝까즈지역나라들(그루지야, 아제르바이쟌, 아르메니아) 등 20여개의 나라가 속한다.

근동은 력사지리적으로 이루어진 지명으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이 접하는 삼각지역이다.

근동이라는 지명은 유럽중심주의관념에서 이루어진 지명이다.

오늘날 근동의 지리적령역에는 소아시아반도의 나라인 뛰르끼예와 수리아, 레바논,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 오만, 예멘, 까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 여러 나라가 속한다.

중동은 력사지리적으로 이루어진 지명으로서 여기에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깝까즈지방의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쟌 등이 속한다.

극동이란 말은 동방의 끝지역이라는 말이다.

극동의 지역적인 한계는 정할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 미제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에 의해 《극동》이라는 표현이 동북아시아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였는데 이것은 지리학적으로나 어휘상으로나 잘못된 표현이다.

원동이란 지명은 령역의 경계가 정해져있는 지명이 아니라 로씨야나 유럽사람들이 유럽으로부터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로씨야의 먼 동쪽지역이라는 뜻에서 부른 말이다.

대체로 로씨야사람들은 레나강 우안으로부터 동쪽끝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로씨야령역의 태평양연안까지의 지역을 포함시킨다.

아랍지역, 카슈미르지역이란 무엇이며 그 지리적위치에 대하여

아랍지역이란 주로 아랍족이 살고있는 서남아시아지역과 북부아프리카지역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이 지역에는 아랍어를 국어로 하고있는 나라들인 수리아, 이라크, 레바논,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에짚트, 알제리, 수단, 뜌니지, 리비아 등 여러 나라들이 속한다.

이 지역 나라들은 공통적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있으며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다.

카슈미르지역은 남아시아의 인두쓰강상류, 히말라야산줄기의 북서부에 위치하고있는 중립지역이다.

인디아, 파키스탄, 중국 등과 린접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서인디아제도란 무엇이며 지리적령역에 대하여

라틴아메리카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및 서인디아제도지역을 포괄하는 지명이다.

라틴아메리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라틴어계통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라틴어계통의 에스빠냐어와 뽀르뚜갈어가운데서 뽀르뚜갈어를 국어로 쓰는 나라는 브라질뿐이고 그밖의 대부분 나라들은 에스빠냐어를 쓴다.

극히 일부 몇개 나라만 프랑스어, 영어, 네데를란드어를 쓴다.

중앙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대륙의 메히꼬로부터 남쪽으로 빠나마까지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서인디아제도지역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자연지리적견지에서는 메히꼬의 떼우안떼뻬끄지협으로부터 빠나마운하까지이다.

령역상으로는 라틴아메리카에 속하며 빠나마운하의 이북은 북아메리카주에 속하기도 한다.

서인디아제도는 북과 남의 두 아메리카대륙사이에 위치하고있는 대안띨제도와 소안띨제도 및 바하마제도를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탐험가 콜럼부스가 인디아를 발견할 목표로 항행하여 이른 곳이 오늘의 서인디아제도였다.

대륙을 갈라주는 해협, 운하, 바다들에 대하여

베링그해협: 아시아대륙과 북아메리카대륙사이(최대너비 86㎞, 길이 약 96㎞)에 있다.

지브롤터해협: 유럽대륙과 아프리카대륙사이(길이 59㎞, 너비 14㎞～44㎞)에 있다.

만다브해협: 아시아대륙과 아프리카대륙사이에 있다.

드레이크해협: 남아메리카대륙과 남극대륙사이에 있다.

수에즈운하: 아시아대륙과 아프리카대륙(길이 173.5㎞, 너비 60m～80m)사이에 있다.

빠나마운하: 북아메리카대륙과 남아메리카대륙(길이 81.6㎞, 너비가 제일 좁은 곳 91.5m)사이에 있다.

지중해: 유럽대륙과 아프리카대륙, 아시아대륙사이에 있다.

홍해: 아시아대륙과 아프리카대륙사이에 있다.

베링그해와 축치해(츄꼬트해): 유라시아대륙과 아메리카대륙사이에 있다.

량극지방의 자연조건의 특징과 이 두 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극지방의 경계는 북위 66°33′웃쪽을 북극지방, 남위 66°33′아래지역을 남극지방이라고 한다.

북극지방은 북빙양을 중심으로 하고 그를 둘러싸고있는 대륙들의 북부연안지방으로 이루어졌으며 남극지방은 중앙에 남극대륙이 있고 그 둘레에 바다가 있다.

량극지방들은 지구에서 제일 추운 곳이다.

남극지방의 중앙부에는 사철 눈이 내려쌓이며 만년설이 대륙과 섬들을 덮고있다.

극에서는 지축이 지구공전자리길면에 수직인 선에 대하여 23°27′기울어져있기때문에 해가 겨울 6개월은 뜨지 않는다.

북극지방에는 사람들이 살고있지만 남극에는 살지 않는다.

북극에는 북극사슴, 흰곰 등 짐승이 있으며 남극에는 펭긴새가 많다.

북극과 남극에는 원유, 석탄, 쇠돌, 금 등 광물이 매장되여 있다.

공통점: 북극지역과 남극지역이 다 지구상의 모든 기후대들가운데서 제일 추운 지역이라는것이다.

극지역의 중앙부들이 늘 만년설과 만년빙으로 뒤덮여있고 극지역의 변두리부근에만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녹은 땅걸면에 풀이나 하등식물 그리고 몇종의 동물이 산다.

량극지역들에서 태양높이(또는 해비침각도)는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것이다.

차이점: 북극지방은 중앙부분이 대양(북빙양)과 바다들로 되여있고 변두리에 섬들과 대륙의 일부가 있다면 남극지방은 중앙부분이 대륙으로 되여있고 그 변두리에 바다와 대양들의 일부가 있는것이다.

다음으로 두 극지방의 계절(기후계절)이 반대로 나타나는것이다.

북극지방이 여름일 때 남극지방은 겨울이다.

이밖에 두 극지방의 바다와 륙지에서 동식물종류와 량을 비롯한 일부 자연 및 천문현상이 차이난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탐험가들에 대하여

김정호(19세기초－1860년): 조선의 지형을 반영한 현대지도의 시초인 《대동여지도》를 완성하여 후세에 전해온 지리학자이다.

지리학과 지도학에 뜻을 두고있던 김정호는 우리 나라의 지형을 알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지도를 만들것을 결심하고 처음에는 《청구도》라는 지도첩을 만들었으며 그후 근 30년간 백두산에서 한나산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지조사와 측량, 측정사업을 진행하여 1861년에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

혜초(8세기 전반기): 8세기초에 먼거리를 려행한 우리 나라의 려행가이다.

혜초는 불교교리를 연구하기 위하여 당나라에 갔다가 불교의 발생지인 인디아에 가볼것을 결심하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방과 스리랑카를 거쳐 인디아에 도착하였으며 이곳에서 여러 불교유적들을 돌아보고 매개 나라의 지리와 력사, 경제와 문화 등에 대하여 려행기에 적었다.

그는 카슈미르와 그 지방의 여러 나라들, 서남아시아, 인디아양연안 나라들을 돌았으며 당나라의 수도 장안(오늘의 서안)에 갔었다.

그는 10여년간의 려행기간 자기가 체험한것을 려행기 《왕오천축국전》(3권)에 썼다.

콜럼부스 크리스토프루스(1451년－1506년): 이딸리아의 항행가인 콜럼부스는 인디아로 가는 가까운 항로를 모색하던 끝에 당시 지구가 둥글다는 천문학자들의 학설을 믿고 아프리카남단을 돌지 않고 유럽으로부터 서쪽으로 항행할것을 결심하였으며 서인디아제도와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해안지대를 탐험하였다.

그는 이 시기 아메리카원주민(인디안)들이 재배하고있던 강냉이, 감자, 담배 등 농작물들을 유럽에 가져다 퍼뜨렸다.

마젤란 페르난드(1480년－1521년): 뽀르뚜갈출신이며 에스빠냐국적을 가지고 처음으로 세계일주에 성공한 항행가이다.

지질학에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하여

암석: 지각을 이루는 한가지 또는 몇가지 광물들이 모인 집합체이다.

광물: 암석이나 광석을 이루는 물질로서 어느 부분이나 일정한 화학성분으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물리적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화성암: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온 암장이 식고 굳어져 이루어진 암석을 말한다. 례: 현무암, 조면암, 화강암

퇴적암: 암석부스레기들, 물속에 용해되였던 화학물질들, 죽은 동식물찌끼 등이 륙지나 바다밑에 쌓이고 굳어져 이루어진 암석을 말한다. 례: 쇄설암, 화학적퇴적암, 유기적퇴적암 등

변성암: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깊은 지각속에서 높은 열, 압력의 변성작용을 받아 새로운 광물암석으로 변한 암석을 말한다. 례: 곱돌, 흑연

층결: 장마철과 가물철에 따라 서로 다른 물질들이 엇바뀌여 쌓여서 평형을 이루는 얇은 층모양 또는 줄무늬모양의 지층의 결을 말한다.

화석: 옛 지질시대에 살던 생물유해와 그 흔적이 남아있는 돌을 말한다.

결정: 결면이 규칙적인 면들로 둘러싸인 다면체광물을 말한다.

부정합: 지각의 륭기와 침강운동이 교체되고 반복되는 과정에 퇴적현상이 중단되였다가 다시 진행된 결과 같은 질의 지층이 수평적으로 련속되지 않고 아래우에 서로 다른 지층이 놓인것을 말한다.

진원: 지진이 발생한 곳(원천지)을 말한다.

진앙: 진원에서 제일 가까운 땅걸면의 중앙부를 말한다.

지진의 세로파: 지진이 일어날 때 매질의 진동방향과 파동의 진동방향이 같고 속도가 빠른 지진파를 말한다.

지진의 가로파: 액체나 기체매질은 통과하지 못하고 고체매질에서 전파되는 파동으로서 진동방향이 전파방향에 수직을 이루고 느린 속도로 전파되는 지진파를 말한다.

기상학에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하여

절대습도: 단위체적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질량을 말한다.

상대습도: 주어진 온도조건에서 공기의 포화수증기압력에 대한 실지 수증기압력의 백분률(%)을 말한다.

날씨: 주어진 장소에서 주어진 시각이나 주어진 시간동안 기온, 습도, 바람, 강수 등의 기상요소값들로 특징지어지는 대기상태

를 말한다.

기후: 주어진 지역에서 여러해동안 일정한 차례로(계절변화) 반복되여 나타나는 전형적인 대기상태를 말한다.

평균최고기온: 하루최고기온값을 일정한 기간 즉 한순, 한달, 한해, 여러해동안에 대하여 평균한 기온을 말한다.

평균최저기온: 하루최저기온값을 일정한 기간 즉 한순, 한달, 한해, 여러해동안에 대하여 평균한 기온을 말한다.

대류권: 지구겉면의 영향(온도와 지형)을 제일 많이 받으며 기온이 높이에 따라 낮아지는 대기권의 가장 낮은 대기층을 말한다.

성층권: 기온이 거의 일정하다가 그 웃부분에서 0℃까지 높아지는 지구대기권의 두번째 대기층을 말한다.

기단(공기떼): 그것이 차지하고있는 구역안에서 공기의 물리적성질(온도, 압력 등)이 비슷한 커다란 공기덩어리를 말한다.

전선: 성질이 다른 두 기단(공기떼, 공기덩어리)의 이행대를 말한다.

온실효과: 대기가 온실의 유리와 같은 작용을 하여 지구겉면근방의 기온이 높아지는 효과를 말한다.

흔히 쓰이는 지형 및 지리용어들에 대하여

지형: 지구겉면자체의 여러가지 모양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산지: 주위의 평지보다 높이 두드러진 지형체들이 모여있는것을 말한다.

줄을 지어있는 산들을 산줄기, 산줄기들이 대체로 평행으로 모인것을 산계라고 한다.

고원: 해발 500m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넓은 벌을 말한다.

대지: 침식작용을 덜 받아 주변지역보다 좀 높으며 평평하게 생긴 지형체를 말한다.

분지: 주변이 기본적으로 경사지로 둘러싸이고 한쪽 또

는 량쪽(강의 입구와 출구)이 열려있는 우묵한 지형체를 말한다.

벌: 상대적인 높이차가 작고 지질구조가 대략 같은 넓고 평탄한 지형을 말한다.

지협: 넓은 두 륙지부분을 이어주는 좁은 목부분을 말한다.

해협: 떨어져있는 두 대륙이나 두 섬 또는 대륙과 섬사이의 좁은 바다목을 말한다.

침식: 주로 물에 의하여 땅겉면이 깎이우는 현상을 말한다.

풍화: 땅겉면에 드러난 암석이 물리적으로 파괴되거나 화학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하수: 지각내부에 온갖 상태로 들어있는 물을 말한다.

땅속에서는 물이 기체상태의 물, 고체상태의 물 즉 얼음, 중력수 등 여러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대양: 대륙들사이에 있는 가장 넓고 깊은 독립적인 수역을 말한다.

바다: 대양의 변두리에서 륙지쪽으로 우무러져 들어가있거나 섬들에 의하여 대양과 갈라져있는 수역을 말한다.

연해: 대륙의 변두리에 있으며 반도와 섬들에 의하여 대양과 갈라져있는 바다를 말한다.

누가 많이 알가
(력사, 지리편)

집 필 박사, 부교수 리영철
심 사 박사 림호성, 박사, 부교수 장춘일,
박사 권승안, 부교수 신철남
편 집 김영섭 장 정 손명희
편 성 정향애 교 정 박옥경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99(2010)년 8월 1일
발 행 주체99(2010)년 8월 5일

ㄱ-05226ㄴ 값 150원